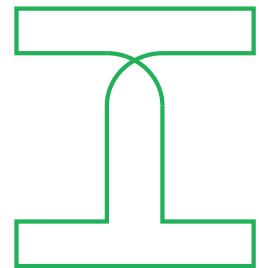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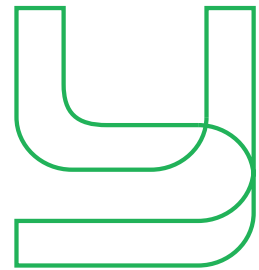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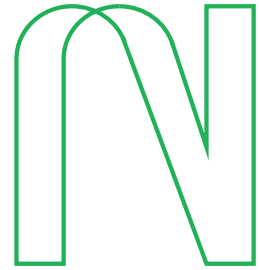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Ⅳ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시범사업Ⅱ’ 운영과 정책화 방안

책임연구원 오해섭

공동연구원 김세광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Ⅳ: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시범사업Ⅱ’ 운영과 정책화 방안

- ▶ 책임연구원 : 오해섭(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
- ▶ 공동연구원 : 김세광(고신대학교·교수)
- ▶ 집필진 : 박선영(한국체육대학교·교수)
정건희((사)들꽃세상 군산시청소년자치연구소 소장)
황동주(서희청소년문화센터)
- ▶ 연구보조원 : 김고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인턴연구원)

발 간 사 ■ ■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IV’는 2016년 현재 4년차 연속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금년에는 연구의 세부영역을 ‘청소년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 개발 및 진단’과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시범사업 운영II과 정책화 방안’으로 구분하였다. 이 연구는 2013년부터 장기과제로 추진하고 있어, 연구 결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연구내용과 방법 등에서 유사한 프레임으로 진행하였다. 더불어 연구과정에서 지난 3개년(2013-2015)의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지표개발 및 조성방안 연구’의 내용들이 포괄적으로 인용되었음을 미리 밝혀둔다.

금년도 주요 연구내용으로 보고서II은 지역사회 청소년 행복 지표 조사, 행복 수준 측정 및 진단(17개시도 청소년), 아동친화도시 인증지역 우수사례 분석 및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보고서III에는 시범사업 2개 지역 실시 및 정책적 시사점 도출 및 효과 분석, 국내외 ‘마을만들기’ 유사사례 관련 자료 및 현장 면접조사 분석지역사회 청소년 정책 분석 및 행복마을 활성화를 위한 실행프로그램 개발 등이 포함되었다.

이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 및 시사점을 통해 청소년행복마을 조성을 위한 정책화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행복마을(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지자체 차원에서 자치단체장의 추진의지와 실무진의 노력, 더불어 지역주민과 청소년의 주도적인 참여가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청소년 중앙정부 및 지자체 단위의 ‘청소년의회 혹은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운영’을 청소년 분야 대표 브랜드 정책으로 추진하여, 청소년의 참여와 주도적인 기획으로 ‘청소년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을 실천하는 계기를 조성한다.

셋째, 중앙정부 차원의 표준화된 ‘청소년행복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보다는 지속적인 시범사업, 우수사례 발굴, 공모전 등을 통해 ‘지역별 특성화 모형’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확산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행복마을 조성이 궁극적으로 청소년들의 시민교육의 장이자 참여 학습 공동체 실현을 목적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점이다.

2016년 12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장 노 혁

국 문 초 록

이 연구는 2016년 고유과제인 ‘청소년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 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 VI’의 세부과제로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시범사업 운영Ⅱ과 정책화 방안’의 연구과정과 내용 및 결과를 요약하였다. 본 연구는 2013년부터 연속 과제로 추진되어 연구의 목적과 연구방법 등은 결과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년도 연구 또한 그동안의 연구 설계와 동일한 프레임을 유지하였다.

주요 연구 내용은 연차별 연속성과 차별성 확보를 위한 연구로 구분하여 추진하였다. 구체적인 영역으로 ①국내외 ‘마을만들기’ 유사사례 관련 자료 및 현장 면접조사 분석, ②청소년 행복마을 활성화를 위한 실행프로그램 개발, ③청소년행복마을 조성 시범사업 2개 지역 실시 및 정책적 시사점 도출 및 효과 분석, ④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정책화 방안 도출 등을 실시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고찰, 현장 면접조사, 전문가 콜로키움, 청소년과 전문가, 그리고 연구진과 현장 공무원이 참석한 포럼, 설문조사, 시범사업 실시, 전문가 자문회의 및 정책협의 회 등을 활용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 행복마을 조성과 정책화 방안에 관한 정책제언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청소년 행복마을 조성을 위해서는 먼저 청소년 자치활동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 자치위원회와 학습공동체 등을 통해 청소년들이 마을의 당면한 문제를 발견하고 실질적으로 개선하려는 시도가 필요하다.

둘째, 재원확보는 지역사회 후원조직과 생활협동조합 활동 등을 통한 자체 재원조달 노력 등이 병행되어야 한다.

셋째, 청소년들과 주민들이 시작 단계부터 참여를 통한 주도적인 운영과 이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마지막 정책화 방안으로 정부 차원의 표준화된 ‘청소년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의 추진보다는 시범사업, 우수사례 발굴, 공모전 등을 통해 ‘지역별 특성화 모형’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점차적으로 확산시키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 키워드: 청소년행복마을, 시범사업, 정책화 방안

연구 요약

1. 연구목적

- 이 연구는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이라는 큰 틀 속에서 협의적으로는 ‘청소년행복마을(도시) 만들기’를 최종적으로 지향하고 있음. 이를 위해 지역 공동체 차원의 시범사업을 통해 핵심프로그램들의 성과와 발전방안을 도출하고, 지역별 특성화 모델과 사례를 발굴하여 전국적인 확산과 중앙 및 지자체 차원의 정책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음.

2. 연구방법

- (시범사업) 2016년도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시범사업Ⅱ」은 2014년도「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Ⅱ」의 연도별 사업계획서에 근거하여, 2015년도 1차 시범사업의 연속으로 2016년 초 전국 단위 공모절차와 전문가 그룹의 심사과정을 거쳐 2개 지역을 선정하여 2016. 4.1~2016.9.30.까지(6개월)동안 실시되었음.
- (문헌연구)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 조성과 유사사례인 국내의 ‘마을만들기사업’, ‘아동·청소년친화도시사업’, ‘행복마을만들기콘테스트’, ‘우리마을 교육나눔사업’등에 관한 주요 내용과 추진 절차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또한 유럽연합과 유럽의 몇 개 국가를 대상으로 대표적인 청소년 참여기구인 ‘청소년포럼’과 ‘청소년의회’의 전반적인 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였음.
- (설문조사) 시범사업 효과 측정을 위해 금년도 실시된 2개 지역(군산시, 이천시)에서 시범사업에 참가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전조사와 사후조사를 실시하여 유효설문지 129개(군산:72, 이천:66)를 비교분석하였음.
- (면접조사) 현재 추진 중인 국내의 ‘마을공동체만들기’, ‘희망세상’, ‘아동·청소년친화도시’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하여, 현장을 확인하고 담당자와의 면담을 통해 실제 운영사례를 탐색하고 청소년행복마을 조성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 **(포럼)**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및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사업에 이해가 깊은 연구자와 현장 관계자, 시의원, 담당공무원, 시범사업 운영자, 시범사업 참가 청소년 등으로 발표와 토론 그룹을 구성하여, 2016년 7월 22일 시범사업 실시 기관에서 포럼을 개최하였음.
- **(콜로키움)** 광역자치단체 마을만들기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현장 활동가를 섭외하여, 2016년 6월 13일 '민관협치형 ○○광역시 행복마을만들기 현황 및 성공요인'에 관한 발표 기회를 마련하였음. 전문가의 발표 내용을 토대로 '청소년이 행복한마을 만들기'를 위한 제언과 적용방안에 관한 콜로키움을 대담 형식으로 진행하였음.
- **(워크숍 및 전문가 자문회의)**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사업 영역별 실천 프로그램 개발을 목적으로 2016년 9월22-23일간 워크숍을 실시하였음. 참가 대상은 퍼실리테이터 1명, 전문가 및 현장 경험자, 시범사업 운영자, 2016년 전국의「청소년정책모니터단」6명, 연구진 등 총10명으로 개발팀을 구성하였으며,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사업 내용 공유, 영역별 세부 사업에 대한 범주화, 실천프로그램 구성에 필요한 콘텐츠 설계 및 현장 적용 타당도 검증 과정으로 진행하였음. 또한 전문가 자문회의는 각종 행사운영과 연구 진행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개최하였음.

3. 주요결과

1) 시범사업 결과

- 금년도 시범사업은 2개 지역에서 6개 영역의 사업을 진행하고 각 사업에 대한 추진과정을 사업목표와 세부 활동내용(활동명, 목표, 주요활동 내용과 성과)과 개선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음.
- 시범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모집과 홍보를 비롯하여, 각 단계별 운영에 따른 과정평가와 개선방안은 개별 프로그램별 운영책임자를 선정하고 내용을 기록한 다음, 참가자와 운영진의 논의를 거쳐 자체 평가 내용과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음.
- 2개 지역 6개 영역(경제, 참여, 관계)에 참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전조사와 사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성별, 학년, 지역 등을 중심으로 시범사업 효과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음.

- 금년도 제2차 시범사업 운영 과정과 참가자 효과분석을 통하여, 향후 타 지역에서 유사한 사업을 실시할 경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기획부터 핵심적인 고려사항 및 사후 관리 등에 관하여 종합적 정리하고 시사점을 제언하였음.

2) 국내외 ‘청소년행복마을만들기’ 유사 사례 고찰과 시사점 도출

- 국내 사례로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 조성과 유사사례인 국내의 ‘마을만들기사업’, ‘아동·청소년친화도시사업’, ‘행복마을만들기콘테스트’, ‘우리마을 교육나눔사업’ 등에 관한 주요 내용과 추진 절차를 관련자료 분석과 현장 면접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 국외 사례는 또한 유럽연합과 유럽의 몇 개 국가를 대상으로 대표적인 청소년 참여기구인 ‘청소년포럼(Youth Forum)’과 ‘청소년의회(Youth Parliament)’의 전반적인 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였음.

3)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실천방안 모색과 실행프로그램 개발

- 청소년 행복마을 조성 프로젝트는 추진계획 수립과 더불어 본격적인 추진전략을 준비기→조성기→활동기→안정기 및 발전기 단계별로 제시하였음.
- 2015-2016년도 시범사업 지역의 운영 과정에서 얻은 경험을 토대로 지역네트워크 유형과 활동주체별 역할 및 참여 인력에 대한 교육과 훈련 방안을 제시하였음. 청소년행복마을 조성을 위한 시의회, 행정담당자, 코디네이터, 청소년활동가, 전문가, 청소년, 주민 등의 역할을 규명하였음. 더불어 이들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참가자들의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 및 훈련 방안을 제시하였음.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관련 현장전문가, 청소년지도자, 지방의원, 정책담당자, 청소년이 참여한 정책포럼을 개최하여 운영체계 확립과 실천방안을 모색하였음. 청소년행복마을 만들기를 위한 핵심 기조는 지역사회 혹은 마을 공동체를 토대로 추진하는 청소년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의 계획과 실행 과정에서 일련의 활동들이 구성원 모두에게 공유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음.
- 청소년행복마을 실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워크숍을 통해 6개의 프로그램(①가족학개론, ②지역유스레일, ③소소한 어울림, ④청소년정치아카데미, ⑤청소년 재능 프리마켓 ⑥스스로

떠나는 청춘 캠핑) 을 개발하였다. 각 프로그램에 대한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현장전문가와 참가자 모두가 의견을 개진하여 내용을 수정하고 보완하였음.

4. 정책제언

1) 시범사업

- **경제영역(청소년 협동조합과 플리마켓)**에서는 ①청소년 협동조합을 준비하는 청소년들이 주인 의식을 갖고 참여함, ②물품 제작 및 판매 활동뿐만 아니라 청소년 플리마켓의 운영기획의 역할을 하는 TFT 체계화, ③청소년들의 경제활동을 격려하고 지지하는 지역사회의 네트워크 구축, ④지속가능한 공동체적 협동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공동체 조직 및 운영에 대한 철저한 사전이해와 준비과정 등이 요구됨.
- **참여영역(청소년의회와 사회참여네트워크)**은 ①청소년 자치성을 살리기 위해 활발한 토론 과정의 담보, ②참가 청소년들 스스로 활동 중간평가와 교육 및 훈련 과정 운영, ③지자체와 지역 청소년 기관-단체는 활동 진행시 청소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체계 마련, ④지역을 기반으로 한 청소년 조직 네트워크 및 성인조직과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함.
- **활동영역(지역사회 역사문화 탐방/청소년 직업체험과 창업동아리)**은 ①운영실무자와 청소년 리더가 활동 참여를 위한 동기부여와 소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함. ②실무자는 역사 및 문화활동에서 다양한 제반지식을 갖추고 청소년들과 폭넓은 교류를 진행할 필요가 있음, ③특히, 직업체험과 창업동아리 운영은 지역의 전문계고등학교 및 관련 사업체 등과 연계하여, 활동 공간, 전문 강사, 물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역 특성에 맞는 운영이 필요함.
- **관계영역(청소년-어르신 동반자:청춘을 닮다)**은 ①경로당은 많은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공간이므로 프로그램을 진행할 경우물품들을 충분히 준비해야 함, ②어르신과 외부활동을 하는 경우 개별 어르신들의 건강, 날씨, 이동 동선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계획하고 준비함, ③ 어르신과 함께하는 활동과정을 담은 포토북을 제작하여 전달하면 만족도가 높음. ④청소년 조직과 근처 경로당과 1동아리 1경로당 연계활동 등을 제안함.
- **복지활동영역(취약계층과 다문화 아동 멘토링)**은 ①청소년 멘토링활동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담당자의 역량이 매우 중요하므로, 멘토와 코디네이터, 슈퍼바이저를 대상으로 최소 8시간

이상 사전교육과 멘토링 과정에서도 토론과 논의를 지속해야 함, ② 청소년 멘토링활동은 멘티에게는 보호요인이 될 수 있고, 멘토에게는 성장요인이 될 수 있으며, 멘토·멘티 모두에게 지역사회가 청소년을 보호하고 있다는 인식을 갖게 해 줄 필요가 있음. ③청소년 멘토링활동을 운영할 때 멘토·멘티가 함께 1박 이상을 함께 지낼 수 있는 활동이 필요하며, 멘토·멘티의 관계형성이 적절히 이루어지면 종결활동 이후 추수활동도 멘토가 스스로 계획하여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함.

2) 국내외 사례 및 실천방안

- 청소년 행복마을은 청소년 자치위원회의 활동이 활성화 되어야 하며, 자체적인 학습공동체가 운영되어 청소년들이 마을의 당면한 문제를 발견하고 실질적으로 개선하려는 시도가 필요함, 더불어 재원을 정부의 지원보다는 지역사회 후원조직과 생활협동조합 활동 등을 통한 자체 재원조달 노력이 병행되어야 함.
- 유럽 청소년의회활동도 유럽인으로서의 시민성과 정체성 함양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음.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청소년참여 활동의 효과성과 중요성에 대한 올바르게 객관적인 인식의 강화가 필요하며, 청소년참여활동이 시민교육 실천의 장으로 활용되기 위한 다양한 접근 방법을 모색해야 함.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혹은 청소년이 행복한 공동체 구성과 운영의 핵심 원리 중의 하나는 구성원 혹은 참가자 모두가 각자 나름대로의 역할과 기능을 확보하는 것임. 또한 기존의 전문가 혹은 행정기관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마을만들기’ 사업보다는 다수의 구성원들이 사업 시작 단계부터 참여와 주도적인 운영과 이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병행되어야 함.
- 청소년 활동 사업과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지역 공동체의 내외적인 문제해결과 의사결정 과정에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와 여건을 조성해야 하며, 주민들과 합의하여 청소년들의 실질적으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원칙과 규정을 만들어 확정하고 공포하는 과정이 필요함.

3) 정책화 방안 및 추진 전략

- 청소년 중앙정부 및 지자체 단위의 ‘청소년의회 구성·운영’을 청소년 분야 대표 브랜드 정책으로 추진하여, 청소년의 참여와 주도적인 기획으로 ‘청소년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을 실천하여,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 현재 시행 중인 ‘아동·청소년참여위원회’ 혹은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역할에, ‘청소년시정모니터단’ 혹은 ‘청소년정책모니터단’의 기능을 포함시켜, 지역 청소년들의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온(on)-오프(off)라인 청소년 정책참여 플랫폼의 토대를 구축한다.
- 현재 운영 중인 ‘청소년문화존’을 활성화하고, 지역단위 ‘청소년 어울림마당’ 혹은 ‘청소년문화특구’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 청소년들이 스스로 디자인하고 만들어가는 ‘청소년 상상 행복마을[도시] 프로젝트’를 중앙정부와 지자체(읍면동) 단위에서 실시한다.
- 지역(읍면동 및 시군 연계)단위의 학교, 관공서, 사업체 등이 연계한 ‘청소년 진로 및 직업체험 네트워크’를 운영한다.
- 중앙정부 차원의 표준화된 ‘청소년행복마을 만들기’사업의 추진이 어려울 경우 지속적인 시범사업, 우수사례 발굴, 공모전 등을 통해 ‘지역별 특성화 모형’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확산시키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의 배경 및 연차별 추진 과정	5
3. 연구내용 및 방법	9
II. 청소년행복마을 조성 시범사업 운영 과정 및 개선방안	13
1. 2016 시범사업 추진 개요	15
2. 군산시 시범사업 진행 및 주요 활동 내용	17
1) 인구 현황 및 시범사업 추진 개요	17
2) 시범사업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현황	18
3) 시범사업 참여자 모집 채널	19
4) 2016년도 시범사업 운영계획	21
5) 2016년도 시범사업 운영 과정 및 개선방안	29
6) 시범사업 자체평가 및 개선방안	42
3. 이천시 시범사업 진행 및 주요 활동 내용	64
1) 참여지역 현황	64
2) 프로그램 운영계획	65
3) 추진 내용 및 개선방안	67
4. 시범사업 효과분석	76
1) 조사개요	76
2)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77
3) 주관적 웰빙지표영역 분석결과	78
4) 관계 지표 영역 분석결과	83

5. 시사점 및 종합제언	90
1) 시범사업 효과분석에 따른 시사점	90
2) 경제영역	91
3) 참여영역	95
4) 관계활동영역	98
 Ⅲ. ‘청소년행복마을만들기’ 국내외 유사 사례분석 및 시사점	103
1. 전국마을만들기 현황 및 지원체계 분석	105
1)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의 마을 만들기 정책 분석	105
2) 전국 ‘행복마을만들기’ 콘테스트 사례 분석 및 시사점	107
3)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지역의 아동·청소년대상사업분석	113
2. 모두의 청소년 교육 ‘우리마을 교육나눔’ 사업 분석	114
1) 추진 배경 및 근거	114
2) 추진 목적 및 기초	114
3) 추진 체계 및 추진 내용	115
4) 마을별 교육나눔 프로그램 유형 분석	117
3. ‘행복마을만들기’ 현장 사례조사 및 내용 분석	121
1) 희망세상(행복마을 반송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121
2) ‘마을은 학교다’ 프로젝트가 주는 시사점	124
 Ⅳ. ‘유럽의 청소년참여제도 운영 현황 및 시사점	129
1. 개요	131
2. 유럽의 청소년포럼(European Youth Forum)	132
1) 비전과 목적	132
2) 재정 운영과 회원 자격	133

3) 국가별 사례	133
3. 유럽의 청소년의회(European Youth Parliament)	135
1) 배경과 목적	135
2) 유럽 청소년의회 운영전략	137
3) 영국 청소년의회	139
4) 핀란드 청소년의회	142
5) 아일랜드 청소년의회	143
4. 논의 및 시사점	144
V.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실천방안	147
1. 청소년행복마을 만들기 추진 절차 및 단계별 추진전략	149
1) 추진계획 수립 절차	149
2) 단계별 추진전략	150
3) 행복마을만들기 교육 과정	152
2. 청소년행복마을 만들기 주체별 역할 규명과 교육훈련 방안	153
1) ‘청소년행복(친화)마을만들기’ 사업의 추진 관점 및 운영 실태	153
2) 청소년행복(친화)마을 만들기를 위한 각 주체별 역할 규명	155
3) 청소년행복마을 만들기 관계자의 교육훈련 방안 제안	160
3.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운영모형 및 지원체계	162
1) 청소년 행복마을 만들기 운영모형	162
2) 청소년의 역할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과 협력적 지원체계	164
4. 청소년행복마을 조성을 위한 실행프로그램 개발	166
1)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워크숍	166
2) 워크숍 결과	168

VI. 결론 및 정책 제언	179
1. 결론	181
2. 정책 제언	184
1)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시범사업에 따른 종합제언	184
2) 청소년행복마을 조성을 위한 영역별 실천방안	186
3) 청소년행복마을 조성을 위한 중장기 추진 로드맵	194
4) 청소년행복마을 조성을 위한 정책화 방안 및 추진전략 제언	195
5) 청소년 행복마을 관련 정책과 법제도 개정 및 연구내용 조정(안)	198
참고문헌	203
부 록	209

표 목차

〈표 Ⅰ-1〉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연구와 시범사업 추진의 근거	6
〈표 Ⅰ-2〉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연차별 연구 및 사업 개요	8
〈표 Ⅱ-1〉	조사영역별 세부항목	77
〈표 Ⅱ-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77
〈표 Ⅱ-3〉	전반적 삶의 만족도 사전-사후 검증 결과	78
〈표 Ⅱ-4〉	긍정적 정서 사전-사후 검증 결과	80
〈표 Ⅱ-5〉	부정적 정서 사전-사후 검증 결과	81
〈표 Ⅱ-6〉	유데모니아 사전-사후 검증 결과	82
〈표 Ⅱ-7〉	전반적 인간관계 만족도 사전-사후 검증 결과	84
〈표 Ⅱ-8〉	직접관계 만족도 사전-사후 검증 결과	85
〈표 Ⅱ-9〉	간접관계 만족도 사전-사후 검증 결과	86
〈표 Ⅱ-10〉	직접관계 신뢰도 사전-사후 검증 결과	88
〈표 Ⅱ-11〉	간접관계 신뢰도 사전-사후 검증 결과	89
〈표 Ⅲ-1〉	전국 광역지자체 마을만들기 현황 및 지원체계	106
〈표 Ⅲ-2〉	제1회(2014년)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 사례집 (농림축산식품부)	111
〈표 Ⅲ-3〉	제2회(2015년)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 사례집 (농림축산식품부)	112
〈표 Ⅲ-4〉	대구 지역 마을별 교육나눔 프로그램 내용 분석	119
〈표 V-1〉	청소년행복마을만들기 추진계획 수립 절차	150
〈표 V-2〉	마을만들기 운동과 청소년행복마을의 관점 비교	154
〈표 V-3〉	청소년행복마을만들기 코디네이터의 역할	156
〈표 V-4〉	청소년행복마을만들기 민간 청소년활동가의 역할	158
〈표 V-5〉	청소년행복마을만들기 시 행정과 의회, 연구자의 역할	159
〈표 V-6〉	청소년행복마을만들기 사업의 각 주체의 역할	160

〈표 V-7〉 ‘청소년행복마을만들기’ 실행프로그램 개발 영역별 주제	167
〈표 V-8〉 ‘청소년행복마을만들기’ 프로그램 개발 워크숍 추진 일정	168
〈표 VI-1〉 청소년이 행복마을 조성을 위한 관련 정책 및 법제도 개정(안)	198
〈표 VI-2〉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0
(군산시 2015.12.15. 제정) 분석 및 시행 의견	
〈표 VI-3〉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연구 방향 및 내용 조정(안)	201

그림 목차

[그림 II-1]	시범사업 공모 및 운영 절차	15
[그림 II-2]	2016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시범사업 기관 간 협약 현황	18
[그림 II-3]	성, 학교급, 지역별 전반적 삶의 만족도의 변화	79
[그림 II-4]	성, 학교급, 지역별 긍정적 정서의 변화	80
[그림 II-5]	성, 학교급, 지역별 부정적 정서의 변화	81
[그림 II-6]	성, 학교급, 지역별 유데모니아의 변화(성별차이 점수 일치)	83
[그림 II-7]	성, 학교급, 지역별 전반적 인간관계 만족도의 변화	84
[그림 II-8]	성, 학교급, 지역별 직접관계 만족도의 변화	86
[그림 II-9]	성, 학교급, 지역별 간접관계 만족도의 변화	87
[그림 II-10]	성, 학교급, 지역별 직접관계 신뢰도의 변화	88
[그림 II-11]	성, 학교급, 지역별 간접관계 신뢰도의 변화	90
[그림 III-1]	우리마을 교육나눔 사업 추진체계	115
[그림 III-2]	우리마을 교육나눔 사업 추진내용	116
[그림 V-1]	청소년 행복마을 조성 단계별 추진전략	151
[그림 V-2]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만들기 교육체계	152
[그림 V-3]	청소년행복마을 만들기 운영 모형	163
[그림 Ⅱ-4]	청소년행복마을 만들기 지원체계 구축 모형	165

제 I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배경 및 연차별 추진 과정
3. 연구내용 및 방법

제 I 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과 하루의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는 가정과 학교를 포함하여, 지역사회 차원의 생활여건에 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대부분의 청소년이 생활하고 있는 수도권과 각 시도의 학교 밀집 지역은 급격한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하여 고층아파트와 상업시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주거환경의 익명성, 인구의 밀집, 유해환경의 증가, 교통 혼잡, 여가활동 공간의 부족 등 청소년들의 생활과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이러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각종 규제와 분산화 정책 등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지역사회는 세수확보 등의 이유로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이러한 문제에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인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그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소통의 기회와 제도적 장치 역시 충분치 않다는 점이다.

청소년과 관련된 연구와 정책수립 과정에서 항상 우선순위로 제기된 영역 중 하나가 ‘국가와 지역사회 차원에서 청소년들의 참여의 장을 제공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얼마나 반영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를 통해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놀이 및 활동공간과 건전한 생활환경을 얼마나 제공하고 있는지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의문이다.

이 연구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청소년의 건전한 생활환경은 단순히 지역사회 차원에서 각종 유해환경을 정비하고 취약계층에게 물질적 혜택을 제공하는 단순한 보호와 복지적 접근을 넘어서는 개념이다. 이미 미국을 비롯하여 유럽국가에서는 아동과 청소년들의 긍정적 발달자산을 촉진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이를 정책과 활동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Benson(1999)는 긍정적 발달자산(positive developmental assets)이란 “아동과 청소년들이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핵심 요소이며,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개인적 특성인 강점과 지역사회의 유용한 자원(손세영, 2016, 재인용)”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도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과 실천전략에서 기존의 보호와 지원 위주의 접근에서 탈피하여 잠재역량 개발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새로운 논의의 핵심 키워드는 2015년도 연구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행복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과정에 청소년들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주도적인 참여와 활동이 전제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 특히, 최근 들어 청소년들 사이에 만연된 ‘의사결정장애’와 ‘비전상실’이라는 무기력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명료한 자기경영철학을 정립해야 한다.

이러한 목표를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사회에서 관련 기관 간의 협조와 네트워크 구축을 바탕으로 주민과 청소년들과의 관계회복을 통한 파트너십을 형성해야 한다. 지역사회와 주민들은 청소년들에게 건강한 환경을 제공하여 청소년들은 자신들이 받은 만큼 지역사회를 위해 기여하고 공헌할 수 있는 존재로 성장시켜야 한다. 이 과정에서 청소년들은 자치적으로 지방의회를 구성하거나 동아리와 협의체 등을 만들어 자신들과 지역의 문제를 직접 논의하고 대안 제시와 해결책을 주도적으로 모색하는 활동을 펼쳐나가야 한다.

결국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중앙과 지방정부 정책의 기초는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제도와 네트워크 구축하는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이러한 논점을 근간으로, 이 연구는 2013년부터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의 연속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4년과 2015년도에는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지역사회청소년정책모니터단’을 운영하였다. 2015년부터는 ‘청소년 행복도시 조성 시범사업 I 및 영역별 세부사업 추진전략 개발’을 시도하였다. 이 과제의 핵심 내용인 청소년행복지표 개발 및 수정·보완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청소년들과 현장 및 관련 전문가들의 공감대 확보를 위한 노력이 다소 미흡했다고 자평할 수 있다.

본 연구의 4년차인 2016년에는 지난 3년(2013~2015)간의 지표개발 및 조사 내용을 토대로 핵심적 지표에 대한 변화추세를 분석하고, 금년도 연구를 기점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소년행복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기준지표(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더불어 2015년도에 이어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시범사업II’를 2개 지역으로 확대 실시하여 정책의 현장 적용과 활용도를

높이고자 한다. 또한 전국의 ‘마을만들기’ 혹은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현장을 방문하여, 관련 자료 수집 및 운영담당자와 자치단체의 정책담당자들에 대한 면담을 통해 우수사례 발굴과 지역별 특성화 전략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금년도에는 제5차 청소년기본계획(2013~2017)에 명시된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사업’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방향 및 절차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더불어 제6차 청소년기본계획(2018~2022)의 ‘청소년행복마을만들기’와 관련된 정책개발을 통한 정책화 방안과 접근방법, 관련 정책 및 법 개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배경 및 연차별 추진 과정

1) 연구의 추진 근거

금년도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IV’에 관한 연구와 시범사업의 추진 근거와 배경을 정리하면 <표 I -1>과 같다(오해섭, 김세광, 정윤미, 2015: 6-9, 재구성). 먼저 2002년 국제기구인 아동에 관한 유엔 특별 세션에서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국가의 정책, 법, 사업과 예산에 현실적으로 반영할 것을 권고 하였다. 이어 유니세프는 2004년 발표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구축의 9개 기본 원칙에 ‘아동·청소년 안전을 위한 조치’를 추가하여 2014년에는 10가지 기본 원칙을 제시하였다(김지경, 하헌주, 김옥태, 2014:59-61). 2013년에는 유엔(UN)과 유니세프(UNICEF)를 중심으로 하는 국제사회에서 각국이 ‘청소년 친화적 환경 조성’할 것을 주장하였다.

국내에서도 청소년기본법[법률 제13180호, 2015.2.3., 일부개정][시행 2015.5.4.] 2조의 기본이념에서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음”을 명시하고 있다. 더불어 제5차 청소년기본계획(2013~2017)은『청소년이 행복한 마을지표 개발 및 선정』과제의 내용에서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선정 및 모니터링단 운영 추진을 통해 지역사회가 자발적으로 청소년 친화환경을 조성하도록 점진적 유도 및 홍보”를 명기하고 있다(오해섭, 김세광, 정윤미, 2015).

이 연구는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08~2012)』의 ‘청소년 친화적인 환경 조성’과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7)』의 핵심과제인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지표 개발과 환경

조성'에 근거하고 있다. 특히 2015년도에는「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시범사업 I」을 1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작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시범사업II」2개 지역으로 확대하여 추진 중이다. 또한 행안부와 농림부를 비롯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마을만들기’, ‘교육공동체’사업 등의 내용과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주제이면서 핵심 용어인 ‘청소년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은 다소 광의의 개념이며, 협의의 실천적인 사업 용어인 ‘청소년행복마을(도시) 조성’혹은 ‘청소년행복마을(도시) 만들기’ 등이 같은 개념으로 사용되었음을 미리 밝혀 두고자 한다.

표 I-1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연구와 시범사업 추진의 근거

구분	주요내용	자료출처
2002년 아동에 관한 UN 특별 세션	○ 지방정부와 자치단체장들이 개발과 관련한 아젠다(agenda)를 논의하는데 있어, <u>아동·청소년을 반드시 그 중심에 두어야하고, 아동·청소년의 권리가 정책, 법, 사업과 예산에 현실적으로 반영되어야하고, 그들의 목소리와 의견이 반영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음.</u>	김지경, 하현주, 김옥태 (2014:59-61)
국제연합(UN)과 유엔국제아동구호기금(UNICEF)중심 국제사회(2013)	○ 각국에 청소년 친화적 환경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가장 강조하는 사항으로 모든 과정이 ‘ <u>청소년 중심적 접근(youth-centered approaches)</u> ’에서 출발할 것을 천명	
UNICEF 아동·청소년 친화도시(Children Friendly Cities) 구축의 10개 기본 원칙(2014)	○ 10가지 기본 원칙: ①아동·청소년의 참여, ② 아동·청소년 친화적인 법체계, ③아동·청소년 권리전략, ④아동·청소년 권리 전담기구, ⑤아동·청소년 영향평가, ⑥아동·청소년 관련 예산 확보, ⑦아동·청소년 정기 실태보고서, ⑧ 아동·청소년의 권리 알리기, ⑨아동·청소년을 위한 독립적 대변인, ⑩ 아동·청소년 안전을 위한 조치	
청소년기본법 [법률 제13180호, 2015.2.3., 일부개정] [시행 2015.5.4.]	○ 제2조(기본이념) ① 이 법은 <u>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음과 아울러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며</u> (이하 생략). ② 제1항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장기적·종합적 청소년 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추진 방향으로 한다. <개정 2015.2.3.> 1. <u>청소년의 참여 보장</u>	국가법령정보센터(2015. 6.5, 검색) http://www.law.go.kr

구분	주요내용	자료출처
	2. 창의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청소년의 능동적 삶의 실현 3. 청소년의 성장 여건과 사회 환경의 개선 4. 민주·복지·통일조국에 대비하는 청소년의 자질 향상	
제5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2013~2017] ※ 청소년기본법 제13조, 14조, 15조에 근거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5년마다 수립되는 법정 국가기본계획	○ 비전: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청소년이 꿈꾸는 밝은 미래 ○ 5대 영역 15개 중점과제(75개 세부과제) 중 중점과제 4-1 건강한 가정 및 지역사회 조성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지표 개발 및 선정 - 「 <u>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선정 및 모니터링단 운영 추진을 통해 지역사회가 자발적으로 청소년 친화환경을 조성하도록 점진적 유도 및 홍보를 명기함</u> 」	제5차청소년 정책기본계획 (관계부처합동)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Ⅱ: 청소년 행복도시 조성사업 추진계획 수립 [2014]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 추진계획 1단계(2013-2017): 기초연구 및 시범사업 단계 ○ 2015년도 연구사업[연도별 사업] 내용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시범사업 시행(1차년도)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추진전략 연구	김영한, 김민, 임영식 (2014:7)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Ⅲ [2015]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 추진계획 1단계(2013-2017): 기초연구 및 시범사업 단계 ○ 2016년도 연구사업[연도별 사업] 내용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시범사업 시행(2차년도) - 청소년 행복도시 조성 정책화 및 추진방향 제언	김영한, 오해섭, 성윤숙, 정윤미 (2015)

참조: 오해섭, 김세광, 정윤미(2015).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 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Ⅲ, p 10-12 재구성

2) 연차별 연구개요

이 연구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13년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 I’의 연속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2014년과 2015년도에는 ‘지역사회청소년정책모니터단’을 운영하였다. 그리고 2015년에는 ‘청소년 행복도시 조성 시범사업 I(1개 지역) 및 영역별 세부사업 추진전략 개발’을 시도하였다. 2016년에는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 조사 및 우수사례 분석’과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시범사업(2개 지역)과 정책화 방안’을 주제로 추진할

계획이며, 전체적인 연차별 연구의 개요는 <표 I-2>와 같이 정리하였다.

표 I-2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연차별 연구 및 사업 개요

연도	분야	지속사업	연도별 사업
2013	연구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 (행복수준 중심) - 청소년 행복관련 환경요인들의 실태진단 (전체영역) - 정책 제언	-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2013~2017)에 따른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사업추진 방향과 과제에 대한 기준 및 발전방향 수립
	사업	- 지역사회 청소년정책모니터단 운영 (청소년, 학부모, 교사, 현장 전문가 등)	- 지역사회 청소년정책 모니터단 운영 보고서 발간
2014	연구	- 지역사회 청소년 행복 수준 측정 및 진단 (17개 시·도) - 지역사회 청소년 정책 분석 및 행복 증진 정책과제 개발	- 지역사회 청소년 행복도시 조성 기본 계획 수립
	사업	- 지역사회 청소년정책 모니터단 운영 계속 (2차 년도부터 본원 고유사업예산으로 운영)	- 시군구 단위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시범 사업 추진 계획 수립
2015	연구	- 지역사회 청소년 행복 지표 일부 수정, 행복 수준 측정 및 진단(17개 시·도) - 지역사회 청소년 정책 분석 및 행복 증진 정책과제 개발 - 정책 현안 연구 보고서 발간	- 청소년이 행복도시 조성 추진 전략 연구 - 청소년이 행복도시 조성 시범사업 시행(1차 년도)
	사업	- 지역사회 청소년정책모니터단 운영 계속 - 지자체 평가 및 우수사례 발굴(시군구 단위) - 지자체 시군구 단위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시범사업 1차 년도 실시	- 청소년 행복증진을 위한 청소년제안 의견 보고서 발간
2016	연구	- 지역사회 청소년 행복 지표 수정·보완, 행복 수준 측정 및 진단(17개 시·도)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자원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도출	- 지역사회 청소년행복 관련 핵심지표 중심으로 최근 3년간 변화추세 분석 -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소년행복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기준지표(안) 마련
	사업	- 시범사업 2차 년도 실시 -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정책담당자간담회 운영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지역별 특성화 모델 제시	- 전국의 마을만들기 및 교육공동체 조성 사업의 특성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도출 - 2차 년도 시범사업운영 보고서 발간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정책화 및 추진방향 제언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추진단계 및 로드맵 구상

참조: 김영한, 오해섭, 성윤숙, 정윤미(2015),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 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Ⅲ, p 5~6 수정·보완

3.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 내용

본 연구의 2016년도 총괄 주제는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사사업 연구Ⅳ’이다. 세부 영역은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 및 우수사례 연구’와 ‘청소년 행복도시 조성 시범사업 운영(2개 지역)과 정책화 방안’으로 구분하여 추진하였다. 이 중 금년도 청소년 행복도시 조성 시범사업 운영(2개 지역)과 정책화 방안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7개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첫째,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시범사업을 아동청소년친화도시 네트워크 유형(행정기관 주도형 및 시민단체중심형, 민-관관계협력형)과 지역특성(농산어촌과 중소도시, 대도시)등을 감안하여 2개 지역을 선정하여 운영하였다. 시범사업에 참가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사전사후 분석을 통해 성과를 측정하였다.

둘째, 청소년행복마을에 관한 유사사례 분석을 위해 국내의 ‘전국 마을만들기’및 ‘아동청소년친화도시’를 추진하고 있는 지역의 자료 고찰과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별 특성화유형을 분석하여, ‘청소년행복마을 만들기’사업에 주는 시사점과 적용방안을 도출하였다.

셋째, 유럽의 대표적인 청소년참여정책인 ‘유럽 청소년포럼(European Youth Forum)’과 ‘유럽 청소년의회(European Youth Parliament)’의 내용과 추진현황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이 국가적인 차원과 지역 단위에서 청소년행복마을 조성과정 등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와 접근방식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넷째,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관련 현장전문가, 청소년지도자, 지방의원, 정책담당자, 청소년이 참여한 정책포럼을 개최하여, 청소년행복마을 운영체계 확립과 실천방안을 모색하였다.

다섯째, 2015-2016년도 시범사업 지역의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경험을 토대로 지역네트워크 유형과 활동주체별 역할 및 참여 인력에 대한 교육과 훈련 방안을 제시하였다.

여섯째,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영역별 추진단계, 추진전략, 중장기적인 추진로드맵을 구상하였다.

마지막으로,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7)에 명시된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사업 과제에 대한 추진방향 및 제6차 청소년기본계획(2018~2022)의 ‘청소년행복마을’관련 정책 수립과 제도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2) 연구 방법

(1) 문헌연구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의 연차보고서와 ‘아동·청소년친화도시와 청소년친화마을 조성 방안’ 관련 보고서를 고찰하였다.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중장기 종합계획과 시행계획, 아동친화 및 활동예산서, 청소년 관련 사업 내용과 활동프로그램 등을 분석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마을만들기’, ‘교육나눔사업’, ‘마을교육공동체’관련 보고서와 자료집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2) 시범사업 실시 및 효과분석 설문조사

2015년도『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시범사업 I』의 연속과정으로, 2016년도『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시범사업 II』를 실시한다. 추진과정은 전국 단위 공모절차와 전문가 그룹의 심사과정을 거쳐 2개 지역(군산시, 이천시)이 선정되어, 2016. 4.1~2015.9.30.(6개월)동안 실시되었다. 또한 시범사업 참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2016년 수정·보완한 행복지표에 의한 사전사후 조사를 통해 사업 효과를 분석하였다.

(3) 현장 면접조사

전국의 광역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마을만들기’사업과 ‘아동친화도시’추진지역을 사전자료 검색을 통해 선정하고 방문하였다. 아동과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과정을 확인하고 담당자 면담을 통해 진단과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나눔사업’, ‘교육공동체’사업 담당자와의 면담을 통해 각 사업별 프로그램의 내용과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만들기’사업에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과 적용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4) 콜로키움과 정책개발 포럼

현장사례조사 과정에서 소개 받은 광역자치단체 마을만들기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현장

활동가를 섭외하여, 2016년 6월 13일 ‘민관협치형 00광역시 행복마을만들기 현황 및 성공요인’에 관한 발표 기회를 마련하였다. 전문가의 발표 내용을 토대로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만들기를 위한 제언과 적용방안에 관한 대담 형식으로 콜로키움을 실시하였다.

또한 2016년 7월 22일에는 현재 2년차 청소년행복마을 조성을 위한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군산시 청소년자치연구소에서 ‘청소년행복마을 조성사업 운영 및 정책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정책 포럼을 개최하였다.

(5) 청소년 및 현장전문가 워크숍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혹은 청소년행복마을 조성의 일환으로 실행프로그램 개발 위해 2016년 9월22일-23일(1박2일)간 워크숍을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이미 경험했던 내용을 분석하여 현장과의 연계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워크숍은 퍼실리테이터 1명, 전문가 및 현장 활동가, 시범사업 운영자, 2015년과 2016년 시범사업 참가 청소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운영하는 2016청소년정책모니터단, 연구진 등 총10명으로 개발팀을 구성하였다. 주요 내용은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사업 정보 공유 및 범주화, 세부 운영프로그램 구성에 필요한 콘텐츠 등을 설계하였다. 워크숍 과정에서 현장전문가의 적용가능성에 대한 검토와 연구진의 수정보완을 거쳐 6개의 프로그램을 보고서에 제시하였다.

(6) 전문가 자문 및 정책협의회 운영

연구 설계 및 내용 구성, 지표 선정, 정책과제의 개발과 관련하여 연구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학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지표 및 지수 자문회의를 실시하였다. 또한 청소년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의 ‘아동친화도시와 청소년정책 담당부서’ 소속의 정책담당자와 현장 전문가, 지역주민,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정책협의회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정책을 개발하고 실행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제 II 장

청소년행복마을 조성 시범사업 운영과정 및 개선방안

1. 2016 시범사업 추진 개요
2. 군산시 시범사업 진행 및 주요 활동 내용
3. 이천시 시범사업 진행 및 주요 활동 내용
4. 시범사업 효과분석
5. 시사점 및 종합제언

제 II 장

청소년행복마을 조성 시범사업 운영과정 및 개선방안

1. 2016 시범사업 추진 개요

2016년도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정 시범사업II」은 2015년도 중소도시 규모의 1개 지역에 농산어촌의 특성을 반영한 1개 지역을 추가하여 실시하였다.

시범사업 기간은 6개월('16. 4.1~9.30)이고 대상 기관은 예산 범위 내에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2개 지역(시·군·구)을 선정하였다. 운영형태는 행정기관과 청소년기관 간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상호 협력할 것을 전제로 공모 과정을 추진하였다. 사업영역은 2015년도 제1차 시범사업 3개 영역(경제, 참여, 관계)을 포함하여 2016년도 추가한 2개 영역(건강·복지, 활동)의 총5개 단위 사업과 연관된 2개 이상 프로그램 운영하도록 계획하였다.

공모사업에 따른 신청서 공지 및 접수부터 사업지역 선정 및 계약을 거쳐 프로그램 운영과 사업종료에 따른 최종보고서 제출 절차를 [그림 II-1]과 같이 추진되었다.



[그림 II-1] 시범사업 공모 및 운영 절차

2016년도 시범사업의 특징은 2015년도 시범사업인 청소년 프리마켓에 지역 협동조합 운영의 원리를 도입하고 지역특화사업으로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멘토링’과 ‘청소년직업체험활동’을 추가하도록 공모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업 내용과 실행방안을 제시하였다.

■ 2016년도 시범사업 내용 및 실행방안

사업 성격	사업명	사업내용	실행방안 제언
2015 년 도 시 범 사 업	청소년 상설프리 마켓	• 청소년들을 위한 프리마켓이 지속적 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기업가정신 교육과 상설 프리마켓을 지역별로 운영	물품 판매 등 경제활동과 문화행사 병 행 추진 청소년들의 아이디어 상품 개발 및 판 매 적극 권장 지역의 소규모 사업체들과 연계하여 공간 협조 및 운영 노하우 전수
	청 소 년 옴부즈맨	• 지역사회 청소년 정책 모니터링 활 동 및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 된 문 제점을 토론회와 조사 활동 등을 통해 개선점을 찾고 이를 지자체에 제언	청소년들의 권리행사와 지역사회에 대 한 주인의식을 함양하도록 기구 구성 과 운영 과정에 자율성 부여
	청소년- 어른 동반자 활동	• 마을 단위 복지시설이나 지역에 설 치되어 있는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청소년과 지역 어른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세대통합 의 공간 및 활동 실시	어른신과 청소년들이 함께 활동할 수 있는 가벼운 프로그램부터 시작(예: 봉사활동, 장기자랑 등) 적극적인 활동팀에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
2016 지 역 별 특 화 사 업	취약계층 · 다문화 · 이주배경 아동· 청소년 멘토링	•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언어, 문화, 기초학습지도를 포함하여 청 소년기의 정체감과 또래관계 등의 발달과업에 대한 고민을 공유하고 지지할 수 있도록 함. 기간은6개월 ~1년 단위 과정으로 운영하는 것 이 효과적임	지역사회 지도자 및 은퇴한 전문가들 을 중심으로 재능기부와 봉사기회를 제공함 중·고등학생이 지역내 초등학생을 대 상으로 멘토링 활동기회 부여 사전교육실시 및 멘토링 과정에 대한 전문가의 관리 필요
	청소년 직업체험활 동 및 창업동아리 운영	청소년들의 기업가정신함양과 직업체 험활동 강화를 비롯하여 소규모 아이 디어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 반을 조성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창업동아리 활성화와 창업 교육 실시, 나아가 창업 공간과 예산 등을 지원함.	- ‘청소년 일자리 은행’ 및 ‘상설프리 마켓운영’등과 연계 - 지역 중소기업에 관한 정보구축 및 지역사회 특화 산업 발굴. 지역내 기업체와 후원계약 체결 및 현장교 육과 인턴제도 운영

참조: 오해섭, 김세광, 정윤미(2015).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 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Ⅲ. p 208-217 재구성.

2. 군산시 시범사업 진행 및 주요 활동 내용

1) 인구 현황 및 시범사업 추진 개요

군산시 청소년 인구(9-24세) 현황은 남 28,412명, 여 25,544명으로 전체 53,956명이다. 학교현황은 초, 중, 고등학교 87개교이며 학급수는 1,349학급이며 학생수는 35,061명임. 대학교는 국립 1개교와 사립4개교로 126학과 18,779명으로 군산시 전체 학생수는 53,840명이다.

전국 광역별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지표별 결과에서 부산, 인천, 제주, 서울, 전남, 강원, 광주, 대구, 경기 순으로 점수를 받았으며 군산시가 속해 있는 전북은 최하위에서 세 번째에 위치해 있음. 전라북도(군산시 등)의 청소년 행복지수는 전국에서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2015 군산시 사회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10대(80.1%) > 40대(79.5%) > 30대(79.2%) > 20대(75.4%) > 50대(71.0%) > 60대 (66.7%) 순으로 스트레스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시는 어린이 행복도시 구축과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해 실제적으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본 청소년자치연구소와도 연계하여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 본 시범사업을 군산시에서 진행하는 것은 여러 차원에서 중요한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시 어린이·청소년(18세 미만)친화도시 구축 및 준비 현황은 지자체장 공약으로 전담부서(어린이 행복과)를 운영하고 있다. 더불어 지자체와 본 사업(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시범사업 계획)도 본 기관과 협약하여 적극적 의지를 비추고 지원 및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향후 어린이청소년행복도시를 위한 간담회 등 정책적 내용들을 긴밀한 협의 구조로 논의를 진행 중이다.

군산시의 최우선 시정 정책은 ‘어린이 행복도시 만들기’사업으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군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군산시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는 아동청소년친화도시 프로그램에 동참해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기반으로 한 아동·청소년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통합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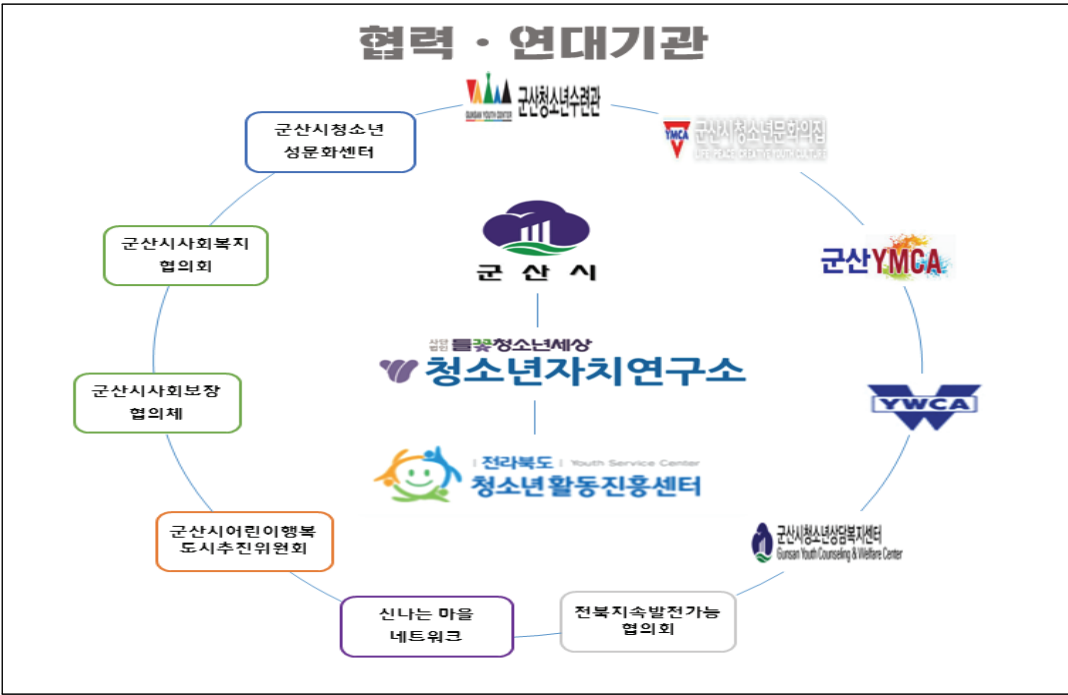
어린이·청소년 행복도시 조성을 위해 올해부터 2018년까지 4년간 신규 33개, 사업확대 24개, 기존 3개 사업 등 총 60개 사업에 사업비 1천45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2015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시범사업’진행을 위한 청소년자치연구소와 협약 체결 및 다양한 연계 사업 진행하고 있다. 실례로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방안 및 추진전략

포럼, 청소년참여포럼 등 진행하였다. 본 기관의 청소년이 주체가 되어 참여하여 제안한 청소년 관련 의제와 정책내용을 군산시에 전달하고, 군산시에서는 그와 관련 내용들을 실제 정책에 반영하고자 했던 노력은 청소년 주도적인 참여모델로서 타 지자체와 관련 기관 및 청소년 활동에 다양한 함의와 제언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시범 사업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현황

청소년자치연구소는 본 시범사업의 원활한 진행 및 추진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군산시 및 전라북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협약을 체결하였다. 지역사회의 청소년 관련 기관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성문화센터, 군산YMCA, 군산YWCA, 군산시 사회복지협의회와 협약을 체결하였다. 협약 사항은 아래 [그림Ⅱ-2]와 같다.



[그림Ⅱ-2] 2016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시범사업 기관 간 협약 현황

시범사업 선정 이후 본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추진 협의회(가칭)를 구축하여 운영하였

다. 본 기관은 현재 전라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군산시어린이행복도시추진위원회, 군산지역 사회보장협의체, 신나는마을네트워크(교육복지학교,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 단체 간 네트워크)등과 연대하고 있다.

3) 시범사업 참여자 모집 채널

(1) SNS등 온라인을 활용하여 홍보 및 참여자 모집

본 사업 대표자가 SNS전문가로 페이스북, 온라인커뮤니티 등 다양한 활동 중인 페이스북, 트위터, 카페, 카카오톡 채널 및 밴드(BAND)에 관련 내용을 홍보하고 참여자를 모집하였다. 들꽃청소년세상 전북지부인 청소년자치연구소 카페 회원(8,491명), 운영자 페이스북 프로필 친구회원(5,000명 및 팔로워 1,629여명), 운영하는 청소년참여네트워크 그룹 페이지 회원(6,579명), 연구소 페이스북 페이지 회원(2,625명), 연구소 카카오톡 채널(440명) 등 본 사업 운영진과 연계된 직접적인 홍보 가능한 회원수 약 2만4천7백6십명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군산학부모기자단 밴드를 포함하여 총 10개 밴드에 약 1,000여명 이상을 대상으로 홍보가 가능하였다.

- 청소년자치연구소 카페 : <http://cafe.daum.net/ymcaleader>
- 본 사업 총괄운영자 페이스북 프로필 : www.facebook.com/babogh
- 운영하는 청소년관련 페이스북 그룹 : www.facebook.com/groups/communityyouth/
- 연구소 페이지 : www.facebook.com/youthautonomy

(2) 기존의 청소년 자치 조직(기구)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참여자 모집

본 기관에서는 2015년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시범사업을 통해 조직된 청소년CEO 연합회, 청소년움부즈퍼슨, 청소년기자단, 청소년블로거단 등의 청소년 자치기구들이 활동하고 있다.

경제 영역에서는 지역 최초로 정기적인 청소년 프리마켓 활동을 진행했고, 이 활동에 참여한 청소년들이 자연스럽게 청소년 협동조합의 활동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참여 영역에서는 기존 청소년활동 자치조직인 청소년움부즈퍼슨 및 청소년기자단 동아리에 참여했던 청소년들이 자연스럽게 2016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시범사업의 참여 분야 활동에 참가할 수 있다.

활동 영역에서는 본 기관의 기존 청소년 활동 자치 조직인 역사, 블로거, 국제무역, 인권활동

동아리 등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이 2016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시범사업의 활동 분야에 참여할 수 있는 잠재적 참여자가 된다.

본 연구소에서는 2015년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시범사업에 참여했던 청소년 자치조직과 참여 청소년, 기존에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 자치 조직 및 청소년, 청소년들과 연계되어 있는 청소년들에게 집중 홍보를 하여 본 시범사업 참여자들을 모집하였다.

(3) 새전북신문과 협약 및 보도자료 배포

2015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일간지(새전북신문)와 협약을 맺고, 참여 분야 사업의 다양한 활동을 원활하게 진행함. 청소년 움부즈퍼슨 및 청소년기자단은 지역사회의 문제점과 대안을 조사하고, 이를 기사화하여 관련 내용을 지역사회와 공유함.

본 기관과 협약을 맺은 새전북신문과 연계하여, 기관 내 청소년기자단을 통해 적극적 홍보 가능하였다. 지역사회의 주간지, 교차로 등에 지속적으로 참여자 모집을 홍보하였다. 매거진 군산(지역 곳곳에 약 4,000부 이상이 배포되는 잡지)을 통해 2016년 4월부터 본 기관의 청소년 활동에 대한 정기적인 소식이 나가게 되어 이 잡지를 통해 참여자 모집을 홍보하였다.

(4) 프리마켓 주변의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참여자 모집

프리마켓 상설 매장이 학교가 가깝고 밀집된 곳으로 자연스럽게 홍보하였다. 프리마켓 주변의 학교 연계 (군산여고, 영광여고, 마이스터고, 전북외고, 영광중, 군산중, 남중, 금광초, 군산초, 중앙초 등)하여 담당교사를 만나 사업 취지에 대한 설명과 참여자 모집을 요청하였다.

(5) 공문 발송을 통한 홍보 및 참여자 모집

군산지역 초, 중, 고등학교에 참여자 모집 공문 발송, 특히 군산시청(협약하며 적극 지원 약속)과 군산교육지원청의 협조를 요하였으며, 전북지역의 관련 기관단체 공문 및 관련 홍보물 안내하였다.

(6) 네트워크 기구와의 연대 및 협력을 통한 홍보 및 참여자 모집

사업 운영 및 담당자는 다양한 네트워크 활동 중으로 관련 네트워크 기구인 전북청소년수련시설협회, 전북청소년단체협의회, 전북청소년활동진흥센터, 교육희망네트워크, 전라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군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아동청소년분과, 전라북도지역아동센터협의회, 군산지

역 교육복지사 협의회, 신나는마을네트워크 등과 연대가 가능하다. 본 사업 추진목표 달성의 극대화를 위해, 군산 지역 청소년 관련 기관, 단체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성문화센터, 군산YMCA, 군산YWCA, 군산시사회복지협의회와 협약을 체결했고, 이 협의회를 통해 참여자들을 모집할 수 있었다.

4) 2016년도 시범사업 운영계획

(1) 목표

청소년의 자율성이 바탕이 된 주도적인 참여와 활동 역량 강화를 통해 청소년이 중심이 되는 친화적이고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 및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를 위한 계획 및 정책제안을 위한 청소년 주도의 실질적 사업 모델을 개발한다.

(2) 경제영역(청소년 협동조합: “달그락달그락”)

① 사업목표

- 실제적인 경제 활동 및 경험을 통한 경제관념 체득과 진로탐색
- 청소년 협동조합 활동을 통하여 청소년의 사회적 책임 및 경제 활동 도모
- 청소년 협동조합의 다양한 조합원 연대 활동을 통한 지역 공동체 의식 함양

② 세부사업계획

사업영역	세부사업	활동(수행방법)	시행시기	비고
경제영역	참여자 모집 및 홍보 (달그락달그락 거려보시겠어요?)	○ 홍보 : 공문발송, SNS 공유, 학교 및 관련 기관 방문, 전단지 ○ 10개 팀 모집	3월	
	오리엔테이션 (달그락거리며 시작)	○ 공동체 활동 및 아이스브레이킹 - 좋은 관계 만들기 ○ 오리엔테이션 - 프로그램 내용 및 일정 안내 - 팀명 구상 - 아이템 구상	4월	

사업영역	세부사업	활동(수행방법)	시행시기	비고
	청소년 협동조합 아카데미	○ 교육프로그램(안) - 협동조합의 이해와 역사 - 실제 협동조합 창립 사례 - 공유경제와 사회적 경제 - 올바른 경제관념 - 나눔의 기부 교육 프로그램 - 토론 및 발표 ○ 선진지 현장 방문 - 청(소)년 협동조합원과의 만남과 소통 (성공과 실패 사례 나누기) ○ 토론 및 발표 - 의견 및 생각 공유 - 아이템 회의 ○ 아카데미 수료식 - 수료식 기획 및 진행 - 수료증 및 명함 전달 - 강사 및 멘토에게 감사장 전달	4~5월	
	협동조합 추진위원회	○ 협동조합 추진위원회 설립 -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추진위원회 - 성인을 중심으로 한 추진위원회 - 청소년협동조합에 피드백 제공	6월	
	각 팀별 활동 기획 및 발표	○ 모임 구성 - 아이템 구상 - 정관 초안 작업 - 팀 내 역할 부여 ○ 협동조합 계획서 작성 ○ 프레젠테이션 발표	5~6월	
	상설 달그락 마켓	○ 상설 청소년 프리마켓 운영 - 프리마켓 전담 동아리가 자치 조직화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 물건 뿐 아니라 재능이나 문화컨텐츠 (예:미술, 음악 공연 등)도 판매할 수 있는 장 (setting)을 마련 ○ 청소년자치연구소 자원활동가의 일일차집과 연계	7~8월	
	이동 달그락 마켓	○ 이동 청소년 프리마켓 운영 - 지역 내 기성프리마켓과의 협조와 연계 - 지역 행사 및 청소년 관련 행사와의 협조와 연계 - 지역 상권과의 협조, 연계하여 판매 공간 마련	7~8월	

사업영역	세부사업	활동(수행방법)	시행시기	비고
		- 프리마켓 판촉활동 - o 청소년자치연구소 자원활동가와의 연계		
	지역사회 나눔활동 (달그락거리기)	- o 지역사회 나눔 및 공헌 활동 - Youth 협동조합원의 논의로 결정 - 지역의 청소년 문화 발전에 기여	9월	
	평가회	- o 중간 평가회 - 목적에 부합한 교육 및 진행 과정 확인 - o 최종 평가회 - 지속적인 협동조합 운영 가능성 타진	6월, 9월	
	청소년협동조합 달그락달그락 창립총회 및 발대식	- o 창립총회 및 발대식 기획 및 준비, 진행 - 창립총회 개최 공고 - 창립총회 회의록 작성 - 창립총회 의사록 작성	9월	

③ 사업 추진 장점 및 특성

㉠ 2015 시범사업을 통한 제언 및 활용 방안

- o 군산시와 협약 체결로 어린이 청소년친화적인 도시 구축을 위한 협업 지속
- o 약 50평 규모의 실내 상설 프리마켓을 진행할 충분한 공간이 확보됨. 그리고 실내 상설프리마켓을 진행할 시간적 여유도 있음(정기 상설 운영 시간인 매주 토요일 오후 시간에 운영이 가능할 뿐 아니라, 평일에도 자유롭게 오후까지 운영 가능)
- o 2015년 시범사업에서 청소년상설 프리마켓 활동의 기반이 되었던 지역자원 및 기관의 연대와 경험이 이번 협동조합 활동에 시너지로 작용할 것임
- o 청소년자치연구소 자원활동가모임과의 연계로 시험과 같은 학사일정이 있는 주간에는 학생들의 동아리 활동 부담을 줄이고 지역 주민인 자원활동가와 관계 형성

㉡ 지역사회 자원 활용계획

- o 군산시는 어린이 행복도시를 위한 사업을 위해 본 연구소와 협약을 체결하고 관련 연구와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 o 청소년자치연구소 주변(1km 이내, 도보로 15분 이내)에는 초, 중, 고등학교가 골고루 분포되어 있어 청소년들 간 연계에 이점이 있음(충10개교-군산여고, 영광여고, 마이스터고, 전북외고, 영광중, 군산중, 남중, 금광초, 군산초, 중앙초 등)

- 청소년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전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청소년 활동의 지원 및 관련 연구와 정보 등을 공유하는 연구위원회, 그리고 지역사회에 기반한 청소년 진로활동 지원 체계인 ‘달토콘서트’의 다양한 직종의 게스트들이 청소년자치연구소의 인적 인프라를 중심으로 구성
- 실내 상설 프리마켓 주변은 근대문화역사 거리로써 많은 유동인구가 있음.
- 관련 시민단체 및 협동조합과의 연대(한살림, 생협 등)

④ 사업진행일정

기간 내용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참여자 모집 및 참여							
오리엔테이션							
청소년 협동조합 아카데미							
각 팀별 활동 기획 및 발표							
협동조합 추진위원회 구성							
상설 달그락 마켓							
이동 달그락 마켓							
지역사회 나눔 활동							
평가회(중간평가, 최종평가)							
청소년 협동조합 창립총회 및 발대식							

⑤ 기대효과

- 지속가능한 협동조합 활동 구축
- 공유경제 및 사회적 경제 활동으로 더불어 사는 사회적 가치 함양
- 민주적 절차를 중시하는 협동조합 활동을 통한 민주시민으로의 성장 지향
- 지속적이고 안전한 청소년 활동 및 문화 공간의 조성
- 자발적이고 실질적인 경제 활동으로 청소년들의 잠재 가능성 발굴
- 청소년 협동조합 사례 및 청소년 자치조직 모델로 발전

(3) 참여영역: 청소년의회를 중심으로 한 사회참여 네트워크¹⁾

① 사업목표

- 청소년이 지역사회 청소년 문제를 스스로 찾아내고 해결하려는 자기주도성 강화
- 청소년 의회를 통한 청소년의 정책제안을 지방의회에 반영할 수 있는 토대 마련
- 청소년이 지역사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시민으로서 역할 강화
- 청소년 의회 및 참여예산 아카데미를 통한 정책이해와 의회조직 구성

② 세부사업계획

사업 영역	세부사업	활동 (수행방법)	시행 시기	비고
참여 영역	참여자모집 및 홍보	○ 홍보: 공문발송, SNS활용, 현수막 홍보, 학교 및 관련 기관 방문	4월	
	청소년의회 아카데미	○ 교육프로그램(안) - 청소년의회에 대한 이해 -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과거-현재-미래) - 법(조례) 제정과정과 입법 활동의 이해 - 청소년 참여의 흐름과 사례 ○ 토론 및 발표 ○ 의원 선출	5월	군산시와 의회 공동운영
	청소년 사회참여 네트워크 활동	○ 청소년 의회 활동 - 성인 위원회와 정기 토론 - 지역 청소년 정책 모니터링 ○ 청소년 기자단활동 - 지역사회 현장 모니터링 및 언론 공유 (주1회) - 청소년 기자교육 및 기자 멘토링 ○ 네트워크 워크숍	5~8월	군산시 및 새전북 신문사 연계
	청소년 참여예산 아카데미	○ 교육 프로그램(안) - 청소년 경제참여예산에 대한 이해 - 군산시 청소년 관련 예산 분석 워크숍 - 청소년 제안 예산 의견수렴활동(학교별 범위 확대) - 제안 사항 보고서 작성	7월	
	청소년참여포럼	○ 청소년친화적인 지역사회를 위한 포럼 추진위원	9월	

1) 참여영역 참고 : 청소년의회 만들기, 청소년이 주인이 되는 세상, 참여가 일상인 지역사회(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 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Ⅱ : 청소년 행복도시 조성사업 추진 계획 수립, 김영한, 2014)

사업 영역	세부사업	활동 (수행방법)	시행 시기	비고
		회 결성 ○ 지역조사 및 취재 내용 발표와 분석 토론 ○ 청소년 의회, 기자단, 학생회 등이 연합		
	보고서 작성 및 제안	○ 청소년 지역정책 참여 보고서(활동, 포럼)작성 ○ 청소년 참여 반영 예산 편성	9월	
	평가회 및 차후 활동 방안 모색	○ 평가회를 통해 지속적인 활동 운영 가능성 논의 및 활성화 방법 모색	10월	

③ 사업 추진 장점 및 특성

- 군산시와 협약 체결로 어린이 청소년친화적인 도시 구축을 위한 협업 지속
- 지역 내 사회참여 관련 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전담 인력 구성(청소년연구, 청소년참여예산 관련 등)으로 전문성을 갖춘 청소년 활동 전개 가능
- 본 연구소는 2015년 Aspect ‘청소년 움부즈퍼슨’과 기자단 운영 시에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의 문제 조사와 공유, 청소년 참여포럼까지 진행한 경험으로 청소년 참여 활동을 진행하는 것에 수월
- 지역일간지인 새전북신문사와 협약을 통하여 2015년 11월 업무 협약식을 진행 한 후 신문의 한 면을 할애하여 청소년기자의 기사 기고와 칼럼 연재 등의 지원을 이어갈 예정. 청소년 언론 활동을 진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소양교육과 멘토링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참여자 모집 및 활동내용 홍보를 지원 예정.
- 시범사업 종료 이후 12월에 지자체 관련 공무원들과 시의원을 초청하여 그 동안 청소년들이 토론하고 정리한 발표를 하는 등 자발적인 청소년 활동으로 후에 청소년 참여수준을 높일 수 있었음. 제안서를 시 청소년 관련 과(청소년과, 어린이 행복과 등)에 반영을 요청하여 반영 시행을 알리는 공문을 받아보는 성과를 이루어냄 ([첨부1] 청소년참여포럼 정책제안 반영사항 알림-40~41쪽)
- 작년도 성과를 토대로 형성된 청소년기자단 2기 운영과 금년도 군산시의 어린이 청소년 의회 구성과 연결하여 본 사업진행으로 중장기적인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을 구상 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으로 사료됨

④ 사업진행일정

내용 \ 기간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참여자모집 및 홍보							
청소년의회 아카데미							
청소년 사회참여 네트워크 활동							
청소년 참여예산 아카데미							
청소년참여포럼							
보고서 작성 및 제안							
평가회 및 차후 활동 방안 모색							

⑤ 기대효과

- 청소년 친화적인 지역사회에 대한 분석 및 문제해결력 증가
- 청소년의 주도성 향상 및 시민성 상승
- 의회조직 결성과 참여예산 확보를 통한 청소년 참여활동 제도적 영향력 강화
- 청소년이 제안한 지역정책 제고를 통한 청소년 정책 참여도 상승

(4) 활동영역 : 지역사회 청소년 역사·문화 활동

① 사업목표

- 청소년의 역사 및 문화 체험활동을 통해 지역의 근대역사에 대한 이해 향상
- 역사 및 문화 동아리활동을 통해 지역에 대한 주인의식 및 책임감 형성
- 지역사회에 영향을 주는 활동을 통해 주체성 향상

② 세부사업계획

사업 영역	세부사업	활동 (수행방법)	시행 시기	비고
활동 영역	참여자 모집 및 홍보	○ 홍보: 공문발송, SNS활용, 기념품 및 스크존 활용 ○ 홍보, 학교 및 관련 기관 방문 ○ 모집 – 역사 및 문화활동 동아리 모집	4월	

사업 영역	세부사업	활동 (수행방법)	시행 시기	비고
	지역사회 역사·문화 체험활동	○ 체험활동 - 역사탐방체험²⁾(군산 골목길 투어, 근대 역사문화 탐방 등) - 문화활동체험	5월, 7월	
	지역사회 역사·문화 동아리 활동	○ 역사 및 문화 캠페인 활동 - 역사에 대한 지역캠페인 (잘알려지지 않은 역사인물 알리기, 군산의 근대 역사 알리기, 독도 및 위안부 문제개선 등) - 문화에 대한 지역캠페인 - 캠페인 3회 ○ 역사 및 문화에 대한 청소년 강의³⁾ - 숨은 역사인물, 영화 속 역사, 지역문화 알림 등 - 청소년 강의 6회 ○ 역사 및 문화 관련 토론 - 토론회 4회	5월~8월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활동공유	○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활동공유 - 블로그 글 기재⁴⁾ - SNS 활동 - 영상매체 제작	5월~8월	
	평가회 및 지속적인 활동기반 마련	○ 평가회 ○ 지속적 개발 노력 - 지역연계 기관 확장 - 지속적 활동지원금 마련	9월	

③ 사업 추진 장점 및 특성

- 청소년자치연구소 주변에 근대역사문화거리가 위치하고 있어 역사문화 활동 시 용이
- 청소년자치연구소에서 활동 중인 지역성인 조직 중 군산역사전문기자, 군산역사촬영전문가 등이 있어 전문적인 활동지원이 가능

2)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Ⅱ: 청소년 행복도시 조성사업 추진계획 수립’ 35p. 다양한 체험 활동 개발을 위한 과제로 청소년 교양지식 학습방안 확충 내용을 참고하였음(지역 청소년 주체의 열린 강좌 개설 등)

3)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Ⅱ: 청소년 행복도시 조성사업 추진계획 수립’ 35p. 다양한 체험 활동 개발을 위한 과제로 청소년을 체험활동 강사로 활용 및 청소년 교사의 재능기부로 진로 체험 기회 확대 내용을 참고하였음.

4)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Ⅱ: 청소년 행복도시 조성사업 추진계획 수립’ 37p. 청소년 체험 활동의 홍보 전개방식을 다양화 하기 위해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여 온라인 및 책자 등의 발행으로 활동에 대한 정보 및 필요성 홍보

- 역사동아리가 활동 중이며 다양한 동아리들과 연합하여 지역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
- 사단법인 들꽃청소년세상이 서울, 안산, 군산 세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어 다양한 지역역사 및 문화 활동이 가능
- 사단법인 들꽃청소년세상의 서울지부에는 대학 강의 경험이 다수 존재하는 청소년들이 있어 청소년 강의 시 자문지원 가능
- 청소년활동을 공유하는 블로그(dalgrak.com)가 지속적으로 운영 중이며 청소년자치연구소 페이스북 운영이 활성화 되어 있어 역사문화 활동의 공유가 용이함

④ 사업진행일정

내용 \ 기간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참여자 모집 및 홍보						
지역사회 역사·문화 체험활동						
지역사회 역사·문화 동아리 활동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활동공유						
평가회 및 지속적인 활동기반 마련						

⑤ 기대효과

- 청소년의 지역사회에 대한 연대감 및 관계력 형성
-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에 참여하는 역사 및 문화 동아리 활동 구축

5) 시범사업 운영 과정 및 개선방안

(1) 경제영역 주요활동 - 청소년 협동조합 달그락 달그락(청소년 프리마켓)

① 사업목표

- 실제적인 경제 활동 및 경험을 통한 경제관념 체득과 진로탐색
- 청소년 협동조합 활동을 통하여 청소년의 사회적 책임 및 경제 활동 도모
- 청소년 협동조합의 다양한 조합원 연대 활동을 통한 지역 공동체 의식 함양

② 세부활동내용

분야	활동명	목표	주요내용	성과 (회/시간/ 참여자수)
1	모집 및 홍보	협동조합 아카데미와 창업마케팅 아카데미 및 활동과정 참여자 모집	- 일시 : 4월 ~ 5월 - 장소 : 달그락달그락 - 내용 : - 유관기관 공문발송 - 지면 홍보(시정 홍보지, 지역 정보지 등) - 온라인 홍보(온라인카페, 홈페이지, 페이스 북, 카카오토크, 밴드 등 웹전단 게재) - 길거리 홍보(학교 등하교 시간을 중심으로 전단지 배부) - 교사 대면홍보(진로, 진학, 동아리활동 담당교사 중심, ○○여자고등학교, □□상업고등학교, ▽▽여자상업고등학교) - 청소년 주제 홍보(청소년이 홍보지 제작 및 학교 내 게시, ▽▽여자상업고등학교)	공문발송 33회 지면홍보 2회 보도자료 1회 온라인공유 4회 대면홍보 17회 청소년 59명 모집 멘토 5명 모집
2	청소년 협동조합 아카데미	청소년 협동조합의 운영 과정의 이해	- 일시 : 5월 7일, 21일, 28일 - 장소 : 달그락달그락, 전주 남부시장, 전주YMCA - 내용 : 교육 프로그램 - 협동조합 아카데미(오지영-꿈까지 대표, 이은희-아이쿱생협 이사장) - 사회적 경제 아카데미(최득실-사회적 기업 래그랜스 실장) - 나눔 아카데미(박훈서-착한동네 대표) - 창업 아카데미(양용수-키덜트팩토리대표) - 마케팅 아카데미(이진우-호원대 디자인 전공 교수) - 청년 사업가와의 인터뷰 및 현장 탐방 (전주 남부시장 청년몰)	3회 교육/6차시 청소년90명(연인원)
3	청소년 협동조합 아카데미 수료식	아카데미 수료에 따른 책임감과 동기부여	- 일시 : 6월11일 - 장소 : 달그락달그락 - 내용 : - 인사말(정건희 소장님) - 수료증 전달	청소년 30명

분야	활동명	목표	주요내용	성과 (회/시간/ 참여자수)
4	청소년 협동조합 팀 연간계획 공유회	•협동조합 활동에 앞서 청소년 주도의 아이템 및 연간 계획 결정 •예비 협동조합으로써 구성원들 간의 연대의식 향상 및 지지체계 형성	▪ 일시 : 6월11일 ▪ 장소 : 달그락달그락 ▪ 내용 : - 팀별 연간계획 공유 - 팀별 연간계획 발표에 따른 다른 팀의 평가 진행	청소년 25명
5	청소년 협동조합 자치기구 활동	청소년경제활동의 전문성과 추진력 향상 및 청소년 지지체계 형성	▪ 일시 : 5월~9월 ▪ 장소 : 달그락달그락, 야외 ▪ 내용 : - 9개팀 조직: 예봉's, 다현, 아름다운, 꽃보라, 금.박.짝, 아띠, boy's story, 달보드레, △△여고 팀 - 청소년자치기구 회칙 제정 - 팀별 연간 계획 구성 - 청소년경제활동의 전문성 확보와 청소년 지지체계 형성을 위한 팀 별 멘토와의 연계 활동 - 음식과 쿠키 제작 팀은 시연회를 통해 맛 평가 및 가격 책정, 시장조사, 제작 방법 습득함	전체회의4회/100명 임원회의5회/35명 팀별회의40회/200명 멘토 5명 연계 시연회 4회 진행 /청소년 28명
		청소년 주도의 경제활동 기획을 통한 주체성 향상	▪ 일시 : 6월~8월 ▪ 장소 : 달그락달그락 ▪ 팀별 주요 활동 - 재료비 사용계획서 작성 및 재료 구입 - 시장조사를 통한 적정 가격 책정 및 물품 수량 계획을 바탕으로 한 물품 제작 활동 - SNS를 통한 물품 홍보 및 마케팅 활동	청소년 50명

분야	활동명	목표	주요내용	성과 (회/시간/ 참여자수)
6	프리마켓 TFT 활동	청소년 프리마켓으로써 청소년 중심의 프리마켓 기획 및 운영	- 기간 : 7월~8월 - 장소 : 달그락달그락 등 - 내용 : - 프리마켓 기획·운영 전반의 권한을 청소년에게 부여 - 대표 및 임원진과 TFT활동을 원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모집 - 조사팀은 지역 내 청소년 프리마켓 운영에 적절한 장소 조사 및 분석, 장소 섭외의 역할 - 홍보팀은 사전에 청소년 프리마켓을 홍보하는 활동 기획·운영하여 많은 소비자 유입을 지원하는 역할 - 이벤트팀은 청소년 프리마켓 진행 시 판촉 및 행사 분위기 활성화를 위해 이벤트를 기획·운영하는 역할	회의 11회 조사팀 청소년 15명 이벤트팀 청소년 10명 홍보팀 청소년 20명
7	청소년 달그락 프리마켓 운영 (실내, 야외)	청소년 중심의 청소년 프리마켓 운영 및 실제 경제 활동 진행을 통한 진로 탐색	- 기간 : 8월3일~6일(실내)/8월12일, 13일(실외) - 장소 : 달그락달그락(실내)/군산 테디베어 뮤지엄(실외) - 내용 : - 청소년 주도의 프리마켓 운영 - 물품 판매(드라이플라워, 캔들, 페이퍼 모델, 쿠키, 음료, 음식, 악세사리, 모종 심기 체험 등) - 금전출납 정리(1,525,400원 수입 발생) - 이벤트 진행(한 팀의 품목 구매 당 자격장 사용 자격 부여) - 평가회의를 통한 수정 보완	청소년 150명 자원활동가 39명
8	중간평가회의	중간평가를 바탕으로 차후 활동의 지속화 및 활성화 방안 모색	- 기간 : 8월20일 - 내용 : - 프리마켓 준비 및 기획, 운영 등 활동 전반 평가를 위한 설문지 작성 - 미션, 비전, 목적 평가, 과정 및 만족도 평가 진행 - 긍정, 강점, 실용평가 진행 - 지역사회 기여활동 논의 일정 계획 - 감사인사 논의	청소년 25명

분야	활동명	목표	주요내용	성과 (회/시간/ 참여자수)
9	지역사회 기여 활동	사회적 경제를 실천하며 청소년의 사회적 책임 함양	- 기간 : 9월24일 - 내용 : - 청소년 주도의 지역사회 기여활동 기획 및 진행 - 관내 노인복지관과 연계 - 담당 기관의 사회복지사와의 논의를 통해 활동 기획 - 팀 구성한 윗놀이 및 노래, 안마, 가을·겨울 대비 물품 증정 등	청소년 15명
10	최종평가회의 및 예비 협동조합 발대식	최종평가 및 하반기 활동 계획 공지	- 기간 : 9월25일 - 내용 : - 인사말(정건희 소장님) - 활동 영상 시청 및 최종평가 설문지와 개인평가서 작성하며 활동 정리 - 하반기 활동 계획 공지 및 기획단의 이유와 역할 설명 후 참여 모집 공고	청소년 20명
				총 916명 (연인원)

(2) 참여영역 주요활동 - 청소년의회를 중심으로 한 사회참여 네트워크

① 사업목표

- 청소년이 지역사회 청소년 문제를 스스로 찾아내고 해결하려는 자기주도성 강화
- 청소년 의회를 통한 청소년의 정책제안을 지방의회에 반영할 수 있는 토대 마련
- 청소년이 지역사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시민으로서 역할 강화
- 청소년 의회 및 참여예산 아카데미를 통한 정책이해와 의회조직 구성

② 세부활동내용

순	활동명	목표	주요내용	성 과 (회/시간/참여자수)
1	참여자모집 및 홍보	청소년의회 및 아카데미 참여자 모집	- 일시 : 4월~5월 - 장소 : 온라인 (페이스북, 카페, 홈페이지 등) 오프라인(공문발송, 현장 홍보)	공문발송 60회 지면홍보 2회 보도자료 2회 온라인공유 6회

순	활동명	목표	주요내용	성 과 (회/시간/참여자수)
			▪ 내용 : - 군산시와 업무협약을 통한 홍보 협조 - 길거리 홍보(학교 등하교 시간을 중심으로 전단지 배부) - 교사 대면홍보(진로, 진학, 동아리활동 담당교사 중심)	대면홍보 6회 청소년의회참여자 40명 모집
2	청소년의회 아카데미	청소년 의회활동과 입법활동의 이해	▪ 일시: 5월14일, 21일 ▪ 장소: 청소년 자치공간 달그락달그락 ▪ 내용: · 5월 14일 - 청소년 권리찾기(한국인권재단 오선영 사무국장) -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방법 ‘사회 참여’(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김재우 활동가) · 5월 21일 - 지역사회 중심의 청소년 참여활동 (청소년자치연구소 정건희 소장) - 의회 입법활동의 이해 (김관영 국회 의원) - 어린이· 청소년 행복도시란? (군산 시 어린이 행복도시 추진위원회 정 회상 위원장) · 토론 및 발표	2회 교육/6차시 청소년 100명(연인원) 수료40명
3	청소년 사회참여 네트워크 활동	청소년의회 지원을 통한 지역사회 청소년 의사결정 권한 강화	▪ 일시: 7월 16일, 8월12일, 9월10일 ▪ 장소: 군산시청, 시의회본회의실, 근대교육관 등 ▪ 내용: - 발대식(위촉식, 리더쉽 특강) - 1차 정기회의(의장, 부의장 선출, 상임 위원장 선출, 건의문 발표) - 1차 임시회의 (상임위원회 활동: 복지, 안전, 교육 위원회별 안건 토의)	3회 청소년 및 멘토 130명(연인원) 어린이, 청소년의회 의원, 멘토 참여

순	활동명	목표	주요내용	성 과 (회/시간/참여자수)
			- 교육발전을 위한 건의문 구성	
	청소년기자단을 통한 지역 언론 공유		▪ 일시: 4월~10월 ▪ 장소: 청소년자치공간 달그락달그락, 완주군청, 00고등학교 등 ▪ 내용: - 청소년 기자단 활동 : 지역사회 현장 모니터링 및 언론공유(주 1회) - 청소년 기자멘토링 (완주 어린이 행복도시 인증, 전주시장인터뷰 동행취재: 새전북신문사) - 조직화: 3개팀 조직 및 3명의 팀장 선출 - 설문지 작성 , 인터뷰 조사 · 팀별 취재 계획표 진행사항공유 - 문화팀 : 청소년단체, 청소년문화활동확대 - 교육팀 : 청소년동아리, 정치교육 등 - 정치사회팀 : 청소년참여활동의 확대 방안, 세월호 특별기사 등 - 중간평가 진행	기사기고: 27회 (새전북신문사 연계) 팀 회의: 24회 576명참여(연인원) 기자 동행취재 2회
	조례 구성 TFT 활동을 통한 군산시 청소년자치권 확대		▪ 일시: 8월~9월 ▪ 장소: 청소년자치연구소,군산시의회장 등 ▪ 내용: - 조례명: 군산시 청소년 자치권 확대를 위한 조례 - 조례 구성을 위한 TFT 회의 · 조례안 군산시의회 임시회의 의안 가결(청소년참관) - 조례내용 :자치권 확대 기본계획수립, 모바일 앱 개발, 공청회 개최	청소년 및 실무자, 시의원 48명 참여(연인원) TFT 인원 8명 TFT 회의 5차 보도자료 7건 기획기사 2건 지역 매거진 기고 1회 청소년참관 1회

순	활동명	목표	주요내용	성 과 (회/시간/참여자수)
		청소년 지원 지역 민간 네트워크 구축 방안 토론	▪ 일시 : 6월16일 ▪ 장소 : 청소년자치연구소 ▪ 내용 : · 주제 : 제4회 달달포럼 - 청소년 행복도시 민간 네트워크 어떻게 할 것인가? · 발표 1. 청소년이 참여하는 행복마을을 위한 지원 - 김정윤 청소년 대표 (달그락 청소년자치기구 연합회) 2. 독일의 통일전후 청소년통합정책과 한국에의 시사점 - 홍문기 박사 (전. 독일카셀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책임연구원, 현. 청소년자치연구소 연구위원) 3. 군산시 청소년실태 및 청소년행복마을을 위한 민간네트워크 제안 - 정건희 소장 (청소년자치연구소) · 토론 1. 전라북도 교육위원으로서의 청소년 이 행복한마을과 민간네트워크- 최 인정 의원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 2. 문화예술적 관점에서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이진우 대표 (매거진군산, ICM) 3. 의료적 관점에서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과 네트워크- 이강휴 원장 (이강휴내과, 청소년자치연구소 청소년 위원장)	청소년, 전문가 등 49명 공문발송 27회 보도자료 5회
4	청소년 참여예산 아카데미	청소년 참여예산의 이해	▪ 일시: 8월04일~05일 ▪ 장소: 근대교육관 ▪ 내용: 8월 4일 - 청소년 참여예산의 이해와 사례 (김광원 수원참여예산네트워크운영 위원) - 청소년 참여예산과 시민청소년(정건	2일 :5회/8시간 청소년 80명 (연인원)

순	활동명	목표	주요내용	성 과 (회/시간/참여자수)
			희 청소년자치연구소 소장) 8월5일 - 군산시 어린이 행복예산 및 상임위 구성 안내 (군산시) - 어린이·청소년 공동체 형성 및 상임위원회 구성 (오성우 청소년자치연구소 사무국장) - 의회 본회의 안전상정을 위한 예비토론 (이경민 청소년의회 멘토)	
5	청소년참여포럼 ‘청소년지역 여행기’ (청소년이 지역에 참여하고 행동하는 기록)	청소년 참여포럼 추진 및 준비	▪ 일시: 8월 15일, 20일, 27일, 9월3일, 10일, 11일, 18일 ▪ 장소: 청소년자치공간 (달그락달그락) ▪ 내용: - 추진위원장, 부추진위원장, 분임장 선출 - 청소년참여포럼 주제 및 토론내용 선정 및 내용 구성 - 분임 모의토론 진행 - 진행, 홍보, 기획 TFT 팀구성 포럼 내용 준비 - 분임별 토론 - 책자 내용 구성 및 제작	청소년 189명(연인원) 포럼추진위원회 27명 구성 포럼 추진회의 7차 포럼책자제작 1권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정책의제발굴과 제안 방향 모색	▪ 일시: 9월 24일 ▪ 장소: 청소년 자치공간 달그락달그락 ▪ 내용: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정책 의제 도출, 청소년주제발표, 분임토론, 등 - 공동체 활동(관계형성) - 기조발표 : 객지은 청소년참여포럼 추진위원장 - 분임토론 (경제,안전,환경,활동,복지,교육,참여) · 전문가 자원(청소년위원회) - 종합발표 및 토론 · 토론 내용 발표(우드락 PPT)	청소년 및 전문가, 자원활동가 등 80명 공문발송 30회 보도자료 1회 분임 전문가 7명 참여 지자체 관계자 및 시의원 3명 참여

순	활동명	목표	주요내용	성 과 (회/시간/참여자수)
			- 종합제언 · 노창식 계장(군산시어린이행복과) · 이강휴 위원장(청소년위원회) · 이복, 조경수 의원(군산시의회) · 정건희 소장(청소년자치연구소) - 평가회의 (평가설문, 정책제안서 작업)	
6	평가회 및 차후 활동 방안 모색	지속화 및 활성화 방안 모색	▪ 일시: 9월 24일 ▪ 장소: 청소년자치공간 달그락달그락 - 포럼진행 평가 - 청소년 정책제안 방안 논의	- 청소년 20명 - 포럼 및 차후 정책제안활동 평가회
7	보고서 작성 및 제언	포럼내용을 중심으로 청소년 정책제안	▪ 일시: 11월중 ▪ 장소: 청소년자치공간 달그락달그락, 시의회(미정) ▪ 내용: - 포럼내용 정책제안서작성 - 정책 간담회 · 청소년참여포럼 안건정리 · 청소년참여포럼 안건 정책제안서 작업 · 정책제안 방법 논의 및 추진회의 - 정책의제 만들기 워크숍 및 설문조사 시행	3~4회/00명참여 (예정) - 정책제안서 1회 작성 - 정책 간담회1회 -의견수렴활동1회 -정책참여단(가칭) 회의 3회
				총 1,252명 (연인원)

(3) 관계영역 주요활동 - 지역사회 청소년 역사·문화 활동

① 사업목표

- 청소년의 역사 및 문화 체험활동을 통해 지역의 근대역사에 대한 이해 향상
- 역사 및 문화 동아리활동을 통해 지역에 대한 주인의식 및 책임감 형성
- 지역사회에 영향을 주는 활동을 통해 주체성 향상

② 세부활동내용

순	활동명	목표	주요내용	성 과 (회/시간/참여자수)
1	참가자 모집 및 홍보	지역사회 역사·문화체험 활동 참가자 모집	- 일시 : 4월 - 장소 : 청소년자치연구소, 군산시 소재 학교 - 내용 : - 보도자료 - 전단지배부 - 학교홍보 - 청소년자치연구소 내 홍보	상시/1개월/ 청소년14명
2	지역사회 역사체험활동 - 독도 문제 개선 캠페인	일제 강점기 문제점에 대한 인식제고	- 일시 : 5월21일, 6월18일 - 장소 : 청소년자치연구소, 군 산은파유원지 - 내용 : - 독도 기억하기 팔찌 제작 및 배부 - 팸플렛 배부 - 협동조합 자치기구, 국제교류 자치기구와의 연합 캠페인 활 동 참여 - 군산 내 학교 3군데의 연합활 동 논의	2회/청소년 60명(연인원)
3	지역사회 역사체험활동 - 역사체험활동 및 현충일에 대한 글 작성	지역인물을 중심으로 현충일의 의미알기	- 일시 : 6월6일 - 장소 : 청소년자치연구소, 3.1 운동기념관, 군산중학교 충훈탑 - 내용 : - 현충일의 의미에 대한 강의 (강사 : 오마이뉴스 조종안 시 민기자) - 군산 근대역사자료지 탐방 - 알게 된 점과 알려야 할 점을 글 작성	매주1회/블로깅4개/ 청소년 44명(연인원)
4	달그락 시민청소년 특강 - 세상을 바꾸는	청소년 사회참여와 소셜미디어의 관계성 및 중요성 탐색,	- 일시 : 6월11일 - 장소 : 청소년자치연구소 - 내용 : - 왜 청소년 사회참여와 소셜미 디어인가	1회/블로깅1개/ 청소년, 전문가 등 30명

순	활동명	목표	주요내용	성 과 (회/시간/참여자수)
	미디어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청소년사회참여 방식 모색	(강사 : 청소년자치연구소 정건 희 소장) - 세상을 바꾸는 미디어 (강사 : 경희사이버대학교 민경 배 교수) -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	
5	지역사회 문화체험활동 - 지역 어르신에 대한 글 작성	지역 어르신의 삶에 대한 이해와 공유	- 일시 : 7월~9월 - 장소 : 청소년자치연구소, 지역 내 근처 과일가게, 자전거집 등 - 내용 : - 지역어르신 인터뷰 - 녹취 - 글 작성 및 편집	8회모임/글6개/청소년, 자원활동가 등 52명(연인원)
6	지역사회 역사체험활동 - 지역역사 탐방	지역의 일제 강점기 군산 시민의 항쟁운동에 대한 이해	- 일시 : 8월6일 - 장소 : 청소년자치연구소, 3.1운동기념관, 일제강점기항 쟁관, 동국사 - 내용 : - 역사지에 대한 청소년들의 강의 - 탐방장소 동행 및 청소년 강사 의 탐방지 설명	3시간/청소년 9명
7	지역사회 문화체험활동 - 사진, 영상 아카데미	지역사회 기여를 위한 사진, 영상활동 학습	- 일시 : 8월9일~8월10일 - 장소 : 청소년자치연구소 - 내용 : - 사진아카데미 (강사: 한국예술대학교 박재영 조교) - 영상아카데미 (강사: 드림미디어 대표)	2회/4시간/청소년 30명(연인원)
8	지역사회 역사체험활동 - 역사토론회	지역 근대역사지를 바라보는 비판적 관점 형성	- 일시 : 9월3일 - 장소 : 청소년자치연구소 - 내용 : - 청소년 주체의 역사토론회 기획 및 준비 - 청소년 주체의 역사토론회 진행 - 주제 : 군산의 일제 강점기 잔재 관광화방식 옳은가	3시간/40명

순	활동명	목표	주요내용	성 과 (회/시간/참여자수)
			- 세부주제 : 군산의 근대 역사 벨트화 사업 읍은가, 철길마을 관광방식 읍은 것인가	
9	지역사회 역사·문화 동아리 활동	역사 자치기구 정기적 활동	▪ 일시 : 4월 이후 월 2회 ▪ 장소 : 청소년자치연구소 ▪ 내용 : - 정기 모임 및 활동 논의 - 독도기억하기 캠페인 및 기부 - 역사탐방 - 역사토론회	12회모임 /청소년 170명(연인원)
		블로거자치기구 정기적 활동	▪ 일시 : 4월 이후 매주 1회 ▪ 장소 : 청소년자치연구소 ▪ 내용 : - 정기 모임 및 활동 논의 - 사랑, 외모에 대한 블로그 - 자유주제 블로그 - 역사체험활동 및 블로그 - 지역어르신 인터뷰 및 블로그	20회 모임 /청소년 140명(연인원)
		영상자치기구 정기적 활동	▪ 일시 : 7월 이후 상시 ▪ 장소 : 청소년자치연구소 ▪ 내용 : - 정기 모임 및 활동 논의 - 청소년 24초 영화제 출품	12회모임/ 청소년 84명(연인원)
10	평가회 및 지속적인 활동기반 마련	지속적인 역사활동계획마 련	▪ 일시 : 9월3일, 9월7일 ▪ 장소 : 달그락달그락 ▪ 내용 : - 역사토론회 평가 - 역사멘토링 멘토활동제안	2회/2시간/청소년 14명(연인원) - 평가서
		지속적인 블로그단 활동을 위한 평가 및 참여자 모집	▪ 일시 : 8월10일, 10월2일 ▪ 장소 : 달그락달그락, 은파호수 공원 ▪ 내용 : - 블로그단 활동 중간평가 - 블로그 글 안내 캠페인 - 추가참여자 모집	2회/7시간/청소년 14명(연인원)

순	활동명	목표	주요내용	성 과 (회/시간/참여자수)
		지속적인 영상활동	- 일시 : 8월 ~ 9월 - 장소 : 달그락달그락 - 내용 : - 24초 영화제 참여	7회/10시간/청소년 49명(연인원)
				총 750명 (연인원)

6) 시범사업 자체평가 및 개선방안

(1) 경제영역 : 청소년협동조합 아카데미

① 모집 및 홍보

과정평가	개선방안
- 꿈청지기(자원활동가), 교육복지사, 참여 청소년 등의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와 신문 매체 등을 통해 다양하고 활동적인 홍보활동 가능함 - 사전에 동아리 담당 교사와의 교류로 신규 청소년 유입의 가능성을 향상시켰고, 담당 교사와의 협조를 통해 학교 내에서 프리마켓 동아리의 활동 범위가 확대됨 -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홍보지를 제작하고, 교내 홍보 활동 등을 함으로써 청소년자치기구의 주체가 청소년 자신임을 느낀 것으로 사료됨 - 학교 측은 매년 3월에 동아리 모집 마감시기인데, 본 사업의 집중적인 홍보활동은 사업이 시작되는 4월이었음. 이는 시기적으로 다소 늦은 모집 기간이었음	- 학기가 시작되기 전 1~2월부터 홍보에 집중하는 것이 적절함 - 학교 내 동아리 모집 시기에 맞게 시범사업 시기를 앞당기는 것이 필요 - 관련 활동이 학생생활기록부에 등재(가입)되기 위해서는 3월 안에 학교 내 자율동아리로 구성되어야 함

② 청소년 협동조합 아카데미 1차(사회적 경제와 나눔)

활동	과정평가	개선방안
사회적 경제	전문가 강의를 통하여 청소년에게 사회적 경제 · 공유경제 등 교내 교육과	강의주제와 내용, 이해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강의시간을 적절하게 안배할

활동	과정평가	개선방안
아카데미	정에서는 깊이 다루기 어려운 대안적인 경제개념을 배울 수 있었음 • 사례 및 영상 중심 강의로 청소년에게 전달력을 극대화하였음 • 한정된 시간에 비해 전달할 양이 많아 전체 강의일정을 소화하는데 다소 무리가 있었음 • 본 강의주제는 일회적인 강의로는 청소년이 이해하기에 어려운 부분도 있었음 • 청소년과 소통하는 강의를 위해 강사가 사전에 참여 청소년의 이름, 팀, 품목을 외우고 참여함	필요가 있음 • 강의에 이해력과 집중력, 참여도 향상을 위해 교육 자료를 사전에 배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음
나눔 아카데미	• 꿈과 진로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춘 설명과 예시로 청소년의 이해에 적합했음 • 강사가 청소년과 소통하는 강의를 위해 테이블 세팅과 강의 방식에 신경을 많이 썼음 • 강사 본인의 활동이 취재된 영상을 통해 신뢰감을 주었음	• 강사가 청소년들이 거주하는 관내 지역 내에서 활동할 경우, 기회가 되면 청소년이 자발적으로 방문하여 직접 보고 듣는 강의도 효과적일 것임
기타	• 생중계 매체인 페이스북 라이브를 활용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 및 교육의 효과 제공함 • 아카데미의 기록 및 영상을 카페와 페이스북에 업로드하여 홍보 및 교육의 효과를 제공하였고 담당 강사에게 감사의 표현으로 활용함 • 일부 참여자들이 학원과 과외 등의 이유로 일부 활동 참여에 어려움을 겪음	• 학원, 과외 등으로 바쁜 청소년의 기존 생활을 무시하긴 어려우나 본 활동의 중요성 인식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동기부여와 동시에 청소년과의 논의를 바탕으로 한 아카데미 기획 과정을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함. 청소년들과 함께 기획하는 활동은 청소년들의 참여 동기를 높일 것으로 사료됨

③ 청소년협동조합 아카데미 2차(협동조합 1과 창업)

활동	과정평가	개선방안
협동조합 & 창업 아카데미	• 각 영역의 전문가를 통한 협동조합과 창업의 실질적인 사례를 접하는 것은 청소년에게 이해력과 현장감 전달이 용이함	• 아카데미 준비 시 강사와 담당 실무자가 강의 시간과 내용을 상의하여 청소년에게 적합한 강의를 구성하도록 함 • 청소년과 논의를 통해 Academy 프로

활동	과정평가	개선방안
	- 그림과 사진, 실제 협동조합 생산물 견본으로 강사가 청중의 참여에 많은 노력을 했으나, 개념설명을 할 때는 청소년들의 집중력이 다소 떨어지기도 함 - 강사가 현장의 경험담을 전달하여 청중의 흥미 유발과 쉬운 이해를 도왔음. 이는 이후 프리마켓 준비에 정보를 제공하여 도움을 줌 - 강사가 본인 창업의 이유를 고백하며 내용 설명하여 전달력 있고 청중의 집중력에 도움 됨 - 아카데미 일정과 프리마켓 준비 일정의 간격이 다소 있었음. 이에 강사가 유익한 정보를 제공했으나 그에 대한 적용이 어려웠음	그램을 구성하는 것도 좋음 또한 정규적인 교육 일정과 동시에 상시적으로 필요시에 교육 프로그램 기획(상시 교육, 정기 교육)이 필요함
청년물 탐방 및 자유시간	- 청소년이 직접 청년물 방문 및 인터뷰 진행, 자유시간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의 분위기 전환에 도움 됨 - 사전에 청년물 담당자와의 합의 덕분에 청년사업자와 청소년 간 원활한 인터뷰 활동이 가능함 - 청년물 탐방이 팀 내 관계 향상에 도움이 되었고, 이후 활동에 도움이 되는 미션을 시행한 덕분에 청소년의 흥미 유발 및 동기부여에 도움이 되었음	선진지 방문 일정과 내용은 청소년과 실무자가 논의하여 계획하는 방식이 좋다고 봄
기타	- 행사 계획 공유 및 자원지도자의 역할 교육이 포함된 사전 오리엔테이션 덕분에 자원활동가의 역할이 분명했음 - 청소년과 자원활동가가 행사 진행 지원을 담당하여 행사 진행이 원활하고 청소년에게 주체성 부여 및 자원활동가에게 청소년과의 관계 형성에 도움 됨	- 자원활동가와 청소년 간의 지속적인 관계 도모를 위해 청소년이 감사표현을 기획 및 진행하고 이후 활동 지원의 기회 제공이 필요함 - 강의 계획 시 해당 강사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참여 청소년이 사전 준비하도록 지원이 필요함

④ 청소년협동조합 아카데미 3차(협동조합 2와 마케팅)

활동	과정평가	개선방안
협동조합 아카데미	- 이해하기 어려운 협동조합 개념을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춘 설명으로 정보 전달력과 이해력을 높임 - 강의 전에 실무자가 강사와의 소통을 통해 아카데미 취지와 커리큘럼을 잘 안내했고, 강사는 이를 잘 이해하였기에 이전 강의들과의 내용 중복 없이 청소년의 교육 전반의 이해를 도움 - 참여방식의 강의로 강사가 청소년과 소통하려 하여 청소년들이 즐겁고 적극적인 강의 참여가 가능했음 - 청소년들의 활동 영상을 제작하여 시청함. 청소년들이 동기부여를 하는 데에 도움이 됨 - 강의 마지막에 강사가 담당 실무자 역할을 거론하여 청소년들이 실무자의 역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됨	- 가능하면 최대한 사전에 강사와 충분한 소통과 논의를 통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강의 제공 가능함 - 청소년의 동기부여 및 참여 수준 향상을 위한 활동 영상 또는 사진의 활용 필요함
마케팅 아카데미	- 마케팅 교육을 통해 실제 경영과 마케팅에 관심 있는 청소년에게 진로 탐색의 기회를 마련함 - 시각자료(사진 등) 활용으로 청소년들이 마케팅과 디자인 이해에 수월함	
기타	지역기관과 연계를 통해 기관 간의 관계 형성 및 지역 내 지지체계 형성에 도움이 됨	

⑤ 아카데미 수료식

과정평가	개선방안
아카데미 수료증 수여를 통해 청소년의 참여 동기 향상 및 책임감, 소속감 강화에 도움 됨	수료증 이외도 청소년들의 활동 전문성을 드러내줄 수 있는 명함, 아이디카드 등의 물품 제작과 이에 대한 활용이 청소년들의 활동

과정평가	개선방안
• 아카데미 영상과 기록을 카페에 올려서 아카데미 불참 청소년의 교육의 기회 및 수료증 증정의 기회를 충족시킴 • 정건희 소장의 인사말과 소통 시간을 통해 참여 청소년이 자신의 활동을 성찰하고 동기 부여 하는 데 도움이 됨	• 동기 부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 • 청소년이 기획하고, 참여하는 수료식 제안함 • 청소년과 지역사회와의 관계 형성 및 올바른 인성을 위해 아카데미 종료 시 강의해주신 강사님과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 감사 표현 제안함

⑥ 청소년협동조합 팀별 연간계획 공유회

과정평가	개선방안
• 모든 팀이 모이는 자리를 마련하여 서로의 활동 계획을 공유하며 서로를 알아가는 기회 마련함 • 각 팀 연간계획 발표 후 칭찬, 응원, 수정 등을 하도록 하여 팀 간 긍정적인 교류가 이루어짐 • 하지만 연간계획 평가 기준 설정 및 합의에 다소 부족함이 있었음	• 이 같은 활동의 초반에 자치기구 청소년의 관계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및 레크레이션 필요함 • 연간계획 공유 전 청소년과의 사전 논의를 통해 평가기준안을 설정하면, 실제 회의에서 더욱 원활할 수 있음

⑦ 청소년 협동조합 자치기구 활동

㉠ 물품 제작 준비

과정평가	개선방안
• 각 팀의 자체적인 논의를 통한 상품 기획 및 재료비 사용계획서 작성 과정에서 시장조사 및 가격책정 등 구체적인 경제활동 준비가 이루어졌음 • 팀 간에 제품이 중첩되지 않도록 조율 및 프리마켓의 다양성 담보 등 공동체의 가치를 청소년에게 함양하도록 하였음 • 청소년의 학사 일정 및 낮은 참여 수준 등의 이유로 일부 팀은 팀 활동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했고, 이에 더욱 저조한 참여를 보이기도 했음	•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팀의 경우 실무자와 다른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참여를 독려해야 함 혹은 서로를 배려하며 도울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가야 함

㉠ 멘토와 연계 활동

과정평가	개선방안
• 활동 진행에 있어 청소년 개인의 역량만으로 부족한 전문성을 멘토 연계 활동으로 인해 물품 품질 향상에 도움을 받음 • 멘토가 청소년에게 야외시연회를 제안하는 등 청소년 프리마켓 팀의 활동 방향성을 제시하여 동기부여와 흥미 유발, 적극적인 활동 참여 유도 함 • 또한 청소년이 지역사회의 지원을 통한 활동 진행으로 지역 내 청소년 지지체계 형성 및 지속적인 관계 유지에 노력 함 • 하지만 청소년의 주기적이지 못한 팀별 활동으로 인해 멘토와의 만남이 많지는 않음.	• 청소년 프리마켓 한 팀에 2~3명의 멘토를 연계하여, 프리마켓 팀의 청소년과 멘토의 만남은 계속해서 이어가되, 멘토의 활동 참여 부담은 다소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함

㉡ 시연회

과정평가	개선방안
• 활동 참여 청소년의 주체적인 선택으로 진행되어 청소년들의 책임감이 돋보임 • 청소년이 시연회 진행을 위해 순서와 시간 등의 일정 조율과 멘트 및 역할 규정함. 청소년 주체적인 활동 지향함 • 청소년들은 4~5차례의 시연회 진행을 통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점차 발전하는 모습을 보임 • 지역 내 상가와 행인을 대상으로 시행함. 사업가의 조언으로 시장조사 정보 획득과 동시에 지역 내 상가와와의 관계 형성 됨 • 수차례 시연회를 통해 자연스레 물품 제작 방법을 익혀 프리마켓 준비에 도움 됨 • 청소년이 만들었다는 이유와, 진행하는 청소년이 혹평에 기분 상하는 등 시연회의 평가가 객관적이지 못함	• 평가를 수용하고 인정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함. 필요하다면 이와 관련한 교육을 진행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내용에 대해 서로 소통하며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갈 수 있음

⑧ 프리마켓 TFT(이벤트, 조사, 홍보)

과정평가	개선방안
이벤트 • 이벤트 팀 자체적으로 증정품 결정 및 구입 활동까지 하여 청소년의 주체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짐 • 이벤트 기획·운영에 관심 있는 청소년의 자발적 참여로 인해 적극적인 활동이 가능했으며 향후 이벤트 관련 진로를 생각해보게 함 • 이벤트 팀장이 청소년 프리마켓 진행 시 이벤트의 원활한 진행을 지원하고 수정 보완해감 • 프리마켓에 진행할 이벤트 안건이 프리마켓 TFT 회의에서 결정되어야 하는데, 청소년 프리마켓 팀들의 회의 참석률이 높지 않고 내용이 지연되면서 다소 어려움을 겪었음	• 프리마켓 TFT 회의의 참석률을 높이고 진행과정에 지연이 없도록 청소년들을 독려해야 함
조사 • 야외 프리마켓에 필요한 공간을 조사하고 자료 수집 및 분석, 결정이 청소년 중심으로 이루어짐 • 청소년이 직접 공간 대여 담당자 방문 및 질의응답을 함 • 각 공간의 장단점 분석 후 자치기구 회원들에게 공지하여 모든 청소년의 의견 수렴에 도움 줌 • 하지만 대표자 및 임원들 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공간 결정과 공간 담당자와의 연락이 지연 됨	• 각 팀의 대표자들의 활동이 원활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 활동이 필요함 • 또는 우선적으로 조사팀 청소년의 결정권을 강화해야 함
홍보 • 청소년 프리마켓 홍보방법을 청소년들이 직접 논의하여 진행함. 전단지 제작 및 동네 상가에 떡 돌리며 인사드리기, 교내와 아파트 단지 내 홍보 등 논의함 • 주변 상가에 인사드리며 청소년 친화적 지역사회 구성에 청소년이 참여하고 관계함 • 하지만 대표자들의 의견수렴이 원활하지 않아 전단지에 시간 기입의 지연과 수정시간이 지연되어 불편을 느낌 • 1차 전단지는 실내 프리마켓 이후 감사인사하며 청소년들이 전단지 제거했	• 각 팀의 대표자들과 모든 참여 청소년들의 활동과 소통이 원활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가 필요함 • 전단지 배포 및 제거와 같은 쉬운 일이라도 지역사회와 연계하며 진행하는 활동은 충분한 준비와 계획, 실행력이 뒷받침된 상태여야 함

과정평가		개선방안
기타	으나 시간이 지나며 2차 전단지는 배포 후 제거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음 - 프리마켓 TFT 전반적으로 청소년 프리마켓을 청소년 본인이 기획 및 진행하는 취지 전달이 잘 되어 청소년들에게 책임감을 줄 수 있음 - 다른 팀이더라도 상호 지원해주면서 다른 팀 대표들 간 관계 형성에 도움 됨 - 하지만 프리마켓 TFT의 청소년 이외의 다른 팀 청소년들의 참여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프리마켓 기획 진행이 지체 됨 - 대표 모임 또는 연락망이 활성화되지 않아 전체적인 의사결정이 지체 됨	- 프리마켓 TFT 이외의 청소년도 프리마켓 기획에 책임감 부여하도록 해야 함. - 프리마켓 TFT 팀에 모든 청소년의 참여 의무제를 시행하는 방법 제언 - 대표의 동기부여와 책임감 부여가 필요함. 각 팀 대표의 리더쉽캠프와 같은 팀 대표 간의 관계 형성의 기회 마련 필요함

⑨ 청소년 프리마켓(실내, 야외)

㉓ 실내 프리마켓

과정평가	개선방안
- 실내 프리마켓 부스 배치 구성을 다함께 논의함. 배치 전 각 팀의 특성상 적합한 자리를 함께 고민하고 결정함으로써 서로의 입장을 고려하여 서로 도움 - 학사일정으로 프리마켓의 모든 시간에 참여가 불가능한 청소년 팀은 달그락달그락 내 지원 활동가와의 연계로 부담을 줄임. - 프리마켓 팀별로 게임을 진행하여 팀 간의 친밀한 관계 형성에 도움 됨 - 각 팀이 판매물품을 바꾸어 판매하는 이벤트를 진행함. 다른 팀의 물품 판매를 위해 소통하고 서로 알아가는 기회가 됨 - 금전출납부를 작성하여 본인 팀의 금전출납 상태 확인이 쉽게 가능하고 수익금의 주체가 청소년 본인임을 느낌 - 하지만 손님을 대하는 것이 익숙치 않아 판촉 활동이 활발하지 않음 - SNS와 전단지 배부 등 다양한 마케팅 방법을 사용하였으나 홍보효과 부족함	- 손님을 대하는 태도와 판촉 활동에 대한 사전 교육과 연습이 필요함 - SNS와 전단지 외 다각적인 홍보방법 모색이 필요. 라디오 또는 전단지 홍보범위 극대화, 지인 초대 등 더욱 더 다양하고 활발한 홍보 방식이 채택되면 좋을 것으로 판단됨

㉠ 야외 프리마켓

과정평가	개선방안
• 청소년이 프리마켓 부스와 이벤트, 홍보 등 프리마켓 전반적인 일정과 배치도를 기획함 • 그리고 기획 담당 청소년이 직접 자원활동가에게 오리엔테이션함 • 관내 관련시설과 연계하여 시설 측에서 곰인형탈 무료 대여 및 에어컨 시설 포함된 공간 대여, 천막 대여 시 지원함 • 프리마켓 참여 청소년들이 야외 프리마켓에서 실제로 판매활동을 해봄으로써 실제 경제활동을 체험함 • 긴급 상황 시 대표 청소년들이 모여 문제에 대한 대안을 고려하고 실천하며 자체적으로 문제 해결하려 노력함 • 프리마켓을 운영하는 청소년들을 위해 지역 사회의 어른들이 아이스크림을 제공해주었고, 함께 홍보 활동 등을 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에 감사함을 느낄 수 있었음 • 이에 대해 실제로 청소년들은 그 어른들에게 감사표현을 하였고, 이에 따라 청소년 지지체가 강화되었다고 판단되며, 향후 청소년 경제활동의 우호적인 관계로 발전 가능함	• 준비가 부족했지만 이를 채워가는 자리가 마련되었기에 보다 많은 청소년 참여를 이끌 수 있었다고 봄. 실무자가 다 채워주기보다 청소년들이 부족함을 느끼고 채워가는 과정과 기획 마련이 중요함. 청소년의 자발적인 문제 해결의 장이 지속적으로 마련 필요함

㉡ 1차 평가회의

과정평가	개선방안
• 청소년 프리마켓 마감 후 매번 평가회의를 진행함. 평가회의에서 원활히 진행이 되지 않은 점을 공유하고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가짐 • 팀별로 문제와 해결방안을 고민하고 그 외 다른 팀도 같이 해결방안을 찾음 • 청소년들이 해결방안으로 의견제시한 것을 다음 프리마켓에 반영함으로써 프리마켓의 주체가 청소년 자신임을 깨닫게 함 • 대표 청소년이 직접 회의 진행하였고 팀마다 자원활동가가 배치되어 청소년 의견 제시에 도움이 됨 • 참여가 원활하지 않은 팀의 경우에는 회의 참여를 거의 하지 않거나 갈등조장의 이유	• 평가회의의 시간이 길어진 이유는 청소년들의 원활한 회의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아 늦춰진 경우가 대부분이다. 프리마켓 일정 기획 중 청소년들이 직접 평가회의 시간 배정 및 규칙을 제정하여 진행할 것을 제안함

과정평가	개선방안
로 의견 제시하지 않음 평가회의 시간이 길어져 평가회의 때 집중력이 저하됨	

㉠ 2차 평가회의

과정평가	개선방안
- 프리마켓 준비과정을 평가하며 잘된 점과 아쉬운 점을 살펴보고, 가급적이면 긍정적이고 대안적인 관점으로 관련 내용들을 보려고 노력함 - 참여 청소년들과 솔직한 이야기를 나누며 문제의 근본적 원인을 찾으며 서로 공감함 - 청소년들은 서로 지지하고 격려하며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기보다 부정적인 부분에 집중하여 청소년들의 사기 저하의 우려가 있을 수 있었음	활동의 양면을 살펴보면서 잘된 점과 아쉬운 점을 인정하되 향후 청소년 경제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의도적으로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관점에 대해 이야기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대안 모색의 논의가 중요함

㉡ 지역사회 기여활동

과정평가	개선방안
- 대표 및 임원회의를 통해 청소년들이 기여활동의 대상 및 시기를 결정함 - 청소년이 전체적인 기획하고 실무자는 이를 연결해주거나 기획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함 - 청소년 대표가 직접 기관을 방문하여 담당 사회복지사와의 논의로 지역사회 기여 활동 날짜 및 내용 등을 공동 기획 - 활동 일정 결정 및 상품 선정, 구입, 포장 등의 활동 준비과정을 청소년 주체로 이루어짐 - 하지만 기여활동을 할 팀을 나누면서, 팀원이 구성이 고르지 않아 각 팀의 분위기의 격차가 컸음. 어떤 팀의 경우에는 적극적인 청소년들이 몰렸음 - 청소년 주도로 기획이 이루어진 활동이기에 담당 사회복지사와의 활동 피드백 시간이 필요하나 여건 상 진행하지 못함	- 활동 기획 시 참여적이고 활발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의도적으로 각 팀마다 팀원 구성을 고르게 할 필요가 있음 - 활동 일정 기획 시 담당 사회복지사와의 활동 피드백 및 평가 시간 배치가 필요함 - 동시에 지역사회 기여활동의 기회 제공과 함께 기획한 담당 사회복지사에게 감사표현 필요함

⑩ 최종평가회의 및 예비 협동조합 발대식

과정평가		개선방안
최종 평가회의	- 문제점을 먼저 제시하기보다 잘한 점과 즐거웠던 점을 위주로 평가하여 편안하고 즐거운 자리 마련함 - 청소년자치연구소의 정건희 소장의 인사 말을 통해 상반기 활동 정리와 동기부여의 기회가 됨 - 대표 청소년이 제작한 청소년자치기구 활동 전반의 영상을 시청하며 활동 내용과 의미를 상기시킴 - 활동 전반을 평가하는 최종평가 설문지와 개인 평가서 작성함. 개인평가서는 활동 초기 청소년 개개인이 활동 목적과 기대를 적은 활동 동의서를 참고하여 활동을 통한 본인의 변화를 확인 가능함	활동을 통한 자신의 변화를 살펴보게 하는 게 중요함. 이는 이후 연속적인 활동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
예비 협동조합 발대식	- 하반기 청소년자치기구 계획 설명을 함. 이는 이해하기 쉽도록 PPT를 활용하여 그림으로 설명함 - 청소년들의 활동 목적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하반기 활동 목적을 분명히 전달함	청소년들에게 더 친숙할 수 있는 영상, 시각자료를 활용하여 발표를 진행하는 게 중요함

(2) 참여영역 : 청소년의회 아카데미와 사회참여 활동

① 모집 및 홍보

과정평가	개선방안
- 신문지면과 온라인홍보 등 다각적인 방면으로 홍보를 전개함. 직접 학생자치 담당자를 만나면서 참여자 모집과 프로그램 홍보를 효과적으로 진행 - 시험기간에 잡힌 모집일정으로 1주일간 연기하여 참여자를 받는것으로 수정 하기도 함 - 연구소와 군산시청에서 각각 참여자 신청을 받았음. 두 기관이 함께 참여자 접수를 하면서 다소 혼란이 있었음	- 신청서 접수는 시청에서 일괄로 받고 연구소는 추천만을 전담하는 것이 혼선이 없을 것으로 사료됨 - 청소년 의원 모집(선발)으로 전체 지역 청소년 선거(투표)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② 청소년 의회아카데미

과정평가	개선방안
• 청소년 의회의 이해 및 입법활동에 대한 과정으로 교육을 진행함 • 청소년 사회참여와 입법활동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와 동기부여를 할 수 있었음 • 청소년 정책참여 활동을 적극적으로 개진 할 수 있는 의회 운영과 이를 확산하는 역할을 하는 기자단 간의 연계로 지역참여 활동의 확대를 기대해 볼 수 있음 • 김관영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의 이해 강의와 김재우 연구원의 사회참여활동사례에 대한 교육 만족도가 높았음 • 청소년 정치교육과 사회참여활동 전반에 대한 내용구성으로써 지역내 청소년 역량강화와 조직화에 동기부여가 되는 기회였음 • 청소년기자단이 교육을 통해 사회 참여의식을 높이고 역량 강화를 꾀함 • 아카데미시 청소년간 충분한 라포형성을 하기 어려웠음	• 사례와 워크숍 중심의 활동으로 청소년의 자발성과 주체적인 프로그램 참여가 중요함 • 세부적인 임시회, 본회의 초반 활동을 진행할 때는 청소년 참여에 전문성을 가진 기관, 단체의 개입과 관여가 필요 • 단기간의 집중교육을 진행하는 것도 효과가 있지만, 장기간의 지속적 정기교육이 필요함. 즉 의회 진행과정 중 청소년 육구를 반영한 정기적인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이를 청소년이 수강하는 형태의 지원이 필요함

③ 청소년 사회참여 네트워크 활동

㉔ 청소년의회 구성

과정평가	개선방안
• 군산시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근간으로 활동이 진행됨 • 어린이 행복도시를 표방하는 군산시의 지역사회 내 청소년의 의사결정 권한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정책제안의 기구로 활용함 • 어린이 청소년 활동에 본 연구소의 전문성(청소년 참여에 대한 전문성)을 활용함. 즉 실무진이 멘토 및 강사로 지원하여 활동의 내용을 구성하고 진행함 • 청소년기자단 및 청소년 자치기구(동아리) 활동을 하는 청소년들이 의원으로 활동한 내용을 중심으로 의회의 방향을 잡아감 • 의장 및 부의장을 선출과 상임위원회별 토론회 대표 청소년이 사전에 논의 내용을 준비하	• 청소년의회 운영에 각 상임위별 멘토와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이 논의 할 수 있는 회의 체계를 만들어야 함 • 논의를 통해 나온 제안사항을 운영 지자체 담당자와 재논의하고 참여를 보장하는 의회의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함 • 지자체 예산과 정책을 분석하고 모니터링 하는 활동을 통해 실제적인 예산을 제안 할 수 있는 안건을 상정하여야 함 • 청소년기자단과 청소년의회 안건에 대한 공동 취재 및 보도를 통해 지역과 청소년의 의견을 공유 할 수 있어야 함

과정평가	개선방안
여 중심을 잡고 토론을 진행 할 수 있었음 -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는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이에 청소년들이 참석하는 방식으로 청소년 대표의 활동에 대한 평가와 의견개진이 적었음 - 의회의 주요 기능인 예산 분석과 모니터링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음	

㉠ 청소년기자단

과정평가	개선방안
- 매주 팀별회의와 월1회 전체회의를 통해 기사 기고일정을 정하고 기획주제를 논의하며 청소년기자단의 활동방향성을 스스로 잡아감 - 팀회의를 통해 기획기사 주제(문화, 정치사회, 교육 분야)를 선정하고 역할분담 및 취재일정을 조율함 - 팀별 활동을 통해 리더십을 키울 수 있었음 - 완주 아동친화도시 인증에 대한 취재, 전주 시장 인터뷰 등 새전북신문사 기자와 함께한 동행취재의 만족도가 높았고 현장을 배울 수 있는 진로체험의 장으로서 기능하기도 함 - 기자단 간의 친목이 잘되었고, 기자단 회원과 담당자와의 관계형성이 잘되었으며, 이를 통해 사회참여 활동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었음. 이에 캠페인, 포럼추진위원회 활동, 자치기구 연합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청소년이 많았음 - 기사 쓰는 데에 개인차가 있었고, 이를 소모임 교육을 통해 해결하고자 함 - 비공식적인 단합 모임을 통해 서로를 알고가고 친목을 다지는 시간을 가진 것이 만족도가 높았음 - 중간평가 과정을 통해 청소년 기자단 활동을 스스로 점검해보고 기획제보받기, 캠페인 진행 등과 같은 하반기 활동을 고민할 수 있었음 - 각 팀별 참석율이 높은 청소년과 그렇지 못한 청소년간의 시간이 지날수록 역량의 차이가 있었음	- 각 팀장들과 임원회의를 정기적으로 마련하여 미리 관련 안건을 논의한 후, 팀회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음 - 정기적인 기획 주제 피드백과 기사 점검으로 월별 담당을 정하고 변동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여야함 - 교육에 대한 욕구를 파악하여 일정한 커리큘럼으로 교육이 필요함(담당자) - 팀별 취재여행(가칭)들 청소년 기자단으로서 동행취재 및 활동적인 취재내용 구성이 필요함 - 개인당 의무 기고 횟수를 정함. 이를 통해 책임감을 갖게 하고, 활동에 대한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해야함 - 출석률이 낮은 청소년 기자들의 출석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을 강구해야 함. 출석률이 낮은 원인들을 파악한 후, 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각도로 찾아야 함.

㉔ 조례구성 TFT활동

과정평가	개선방안
• 청소년들의 참여를 보장하며, 민주시민으로서 성장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법적 근거(조례)를 청소년 주도로 구성함 • 조례제정 과정과 개념에 대한 논의를 거친 후, 청소년 스스로가 직접 조례안을 작성해오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임 • 조례를 구성하는 회의는 6명의 청소년과 청소년자치연구소 실무진, 시의원, 가족청소년과 청소년계 계장이 참석함으로써 조례를 실질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여 조율할 수 있었음 • TFT구성 초기, 조례에 대한 이해와 청소년에게 필요한 지역사회 변화에 대한 토론을 통해 빠르게 방향성을 잡아 갈 수 있었음 • 조례는 의원발의를 하였지만 참여한 청소년들은 이번을 계기로 조례제정의 방법을 알게 되었고, 일부 청소년은 차후에 주민발의를 할 수 있었으면 한다는 소감을 밝힘	• 청소년들이 활동한 내용을 조례구성에 반영하는 지속적인 체계를 만들어 법적근거와 활동을 연결 할 수 있도록 해야함. • 실제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내용을 구성하고 지자체와 민간 청소년기관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역 청소년 전체를 위한 활동과 내용을 만들어 가야함 • 조례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지역청소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실제적인 청소년자치권 확대를 위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함

㉕ 달달포럼

과정평가	개선방안
• 사회복지 및 청소년 현장 전문가뿐 아니라 의료계, 교육계, 문화 예술 계열의 전문가 토론과 참여를 통해 지역전체에서 청소년 행복도시를 위한 민간 네트워크 구축을 논의하는 자리로서 기능할 수 있었음 • 청소년이 대 주제 발표를 함으로써 청소년행복마을 네트워크에서 청소년이 핵심임을 나타내는 계기가 됨 • 달달포럼을 통해 차후 민간네트워크 구축 추진위를 구성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이후 지속적으로 네트워크 구축과 청소년 행복마을에 대한 연구가 뒷받침 되어야함 • 청소년 발표뿐만 아니라 청소년 토론을 배치해 청소년의 의견을 같이 듣고 공유하는 것이 필요함 • 청소년 사회참여조직과 성인 민간 네트워크의 장기적인 비전을 그리는 작업이 필요함, 성인이 지원체제로 기능하여 자문 조직으로서 기능해야 함

④ 청소년 참여예산학교

과정평가	개선방안
• 청소년의원으로서 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이해와 정책제안의 실질적인 방향을 모색 할 수 있었음. • 참여예산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청소년위원회를 두고 있는 선진사례인 수원시의 담당자의 강의는 실질적인 참여예산 활동에 대한 이해와 동기부여를 가능하게 하여 만족도가 높았음 • 의회 아카데미 이후 청소년 의원의 역할과 자 세에 대한 강의가 편성됨으로써, 의회에 참여 하는 어린이 청소년의원들이 다시 한 번 의지 를 갖고, 상임위 활동에 대한 동기부여를 할 수 있었음 • 2번째 교육차시에서는 어린이-청소년 의원들 이 모두 참석해 서로를 알아가고 관심사별 상 임위원회를 선택하는 워크숍 활동에 대한 만 족도가 높았음 • 본회의 안건상정을 위해 예비토론을 진행하였 지만 시간이 짧아 내용의 정리와 구체화에 어 려움이 있었음	• 어린이- 청소년이 함께하는 활동적인 워크숍 활동(예: 좋은 예산-나쁜 예산 분류 및 우선 순위 선정)을 통해 실질적인 지역 청소년 정책 과 예산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함 • 임시회의를 진행하기 이전에 상임위원회 별로 토론내용에 대한 자료 조사 및 의견 수렴활동 체계를 잡아 오는 것을 통해 당일 토론을 활 발히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차후에는 의회 청소년뿐만 아니라 군산시 청 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참여예산학교를 열고 참여예산 네트워크 구성의 시작점으로서 기능 할 수 있어야함

⑤ 청소년 참여포럼-청소년 지역 여행기

과정평가	개선방안
• 청소년 친화적인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청소년의 의견 제시 및 정책의제를 도출 할 수 있었음 • 청소년 기초발표와 진행, 사전 토론문 작성, 분임토론 준비까지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구성 하고 논의함 • 기지단, 협동조합 추진위 등 주체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는 청소년들이 청소년참여포럼추진 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을 기반으로 한 토론 주제 선정을 가능하게 함 • 30여명의 추진위원회 회원들은 추진위원장과 부추진위원장을 중심으로 7개 분과(경제, 안 전, 교육, 복지, 환경, 활동, 참여)별 분임장을 선출하고 사전모임을 통해 토론문을 작성하였 음. 함께 토론방식을 논의함으로써 청소년이	• 참여포럼 추진위원회를 1학기말(7월)에 구성 하여 방학 중 포럼을 준비하고 9월초에 진행 하는 것이 가장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하여 활 발히 토론을 할 수 있는 시기라고 사료됨 • 사전 신청자가 중간에 빠지면 분임토론 시 진 행이 어렵기 때문에 사전신청을 철저히 받고, 포럼에 대한 안내와 공지가 필요함 사전신청 자가 탈락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방법들이 강 구되어야 함 • 사전 토론문을 통해 나온 토론주제와 안건을 지자체에 미리 보내 당일 토론에 집중할 주제 를 고민해보게 함. 이는 혼선이 있는 토론을 방지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음 • 각 분임장이 주도하에 토론 리허설을 하는 시 간을 최소 2회 이상 가져야 함

과정평가	개선방안
진행하는 참여 수준이 높고 준비된 토론을 진행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함 • 각 분과에 전문가 배치(세무사, 의사, 청소년 활동가, 관련연구자 등)로 전문 자문 및 토론의 맥락을 잡아 주어 참여 청소년의 만족도가 높았음. • 작년 참여포럼 평가를 기반으로 포럼시간을 3시간에서 4시간 과정으로 늘리고 책자 제작 시 전문가자문과 인터뷰를 진행하여 함께 구성함. 설문지를 구성하여 향후 참여 활동을 이어갈 청소년을 파악해보고자 함 • 우드락, ppt 발표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발표함으로써 청중과의 소통과 공감을 이끌어냄 • 시의원과 지자체 담당자들은 청소년들의 발표를 참관했고, 관련 제언을 하였음. 또한 향후 정책의제를 실현 하는 과정에서 지원을 약속하기도 함 • 각 분임별 청소년 발표시간이 짧았다는 피드백이 있었음 • 분임토론 진행 리허설 시간을 조금 더 잘 준비했다면, 실제 진행이 매끄럽게 진행되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함 • 추진위원회 포럼평가회 때, 정책참여단(가칭)을 구성하여 향후 정책제안 과정을 진행하기로 함 • 종합토론 시간에 각 발표의 질의응답시간을 가지고 분과별로 핵심사항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피드백이 있었음	• 각 분임이 조직화 되어 향후 활동에 대한 대안을 토론하고 정책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시켜야 함

⑥ 평가회 및 차후활동 모색

과정평가	개선방안
• 추진위원회의 청소년 참여포럼과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진행함 • 잘된 점, 아쉬운 점, 향후계획 등을 이야기하고 조직 차원에서 청소년 사회참여 활동을 진행할 것을 결의함	• 포럼에서 나온 안건을 지속해서 지역과 공유하고 이를 지자체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함

⑦ 보고서 작성 및 제안

과정평가	개선방안
• 시험 및 청소년 일정으로 인해 10월 중으로 연기됨 • 정책간담회를 통해 포럼 안건을 지자체에 제안하는 장을 만들 예정 • 안건을 구체화 하고 반영에 대한 내용을 선정할 필요가 있음	• 참여포럼 일시를 9월초로 잡고 정책제안 과정을 9~10월중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함 • 포럼 안건 우선순위 워크숍 및 설문조사를 진행 할 예정

(3) 활동영역

① 참가자 모집 및 홍보

과정평가	개선방안
• 기존에 청소년자치연구소에서 활동 중인 역사 자치기구와 함께 활동할 역사동아리 조직들을 모집하였고, 함께 활동을 하면서 활기를 북돋울 수 있었음. • 영상 자치기구의 경우 2개 학교 청소년들이 모집되었으며 인적 홍보를 통해 모집이 빠르게 진행되었음.(청소년이 자신의 친구를 데려옴 등) 아카데미를 통한 참가자 모집도 추가로 진행되어 자치기구 조직화에 도움이 됨. • 그 외 역사체험, 역사탐방, 소셜미디어 교육 등의 활동은 기존의 자치기구가 직접 홍보 및 참여하여 청소년들 주체로 홍보가 진행됨.	• 자치기구 간 연합, 활동 간 연합을 위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독려하여 청소년들이 기존에 관심을 가지던 주제 외에도 참여해보는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 • 역할분담 및 조직화를 위해 참가자 모집 시 활동에 대한 동기를 충분히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

② 독도 문제 개선 캠페인

과정평가	개선방안
• 군산시민들이 독도에 대한 정보를 잘 기억하도록 손도장찍기, 팸플릿 배부, 팔찌 배부 등의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함. • 연합활동으로 진행되었으며, 활동의 과정과 환	• 연합활동이므로 동아리간의 적극적인 소통과 실무자와의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 적극적인 소통과 관계 형성을 위한 활동과 프로그램 등이 필요

과정평가	개선방안
경 등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군산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일으키는데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해 ‘그렇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8명 중 6명(75%)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연합활동으로 인해 지역 사람들의 변화를 이끌어 냈다는 인식을 가지게 된 청소년들이 과반 수 이상임을 알 수 있었음. • 날짜에 대해서는 선택이 적절하였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더운 날씨 탓에 활동시간이 부적절하였다는 평도 있었음. • “혼자 했으면 못했을 일을 다 같이 하여 해냈다”, “다음에 또 하면 좋겠다.”, “1~3학년이 연합해서 좋았다.” 등의 평가를 한 청소년들이 있는 것으로 보아 청소년들이 협력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판단됨 • 연합활동 자치기구들 중 일부 역사 자치기구 활동은 장소와 근거가 학교 내 동아리였기 때문에 플래시몹의 준비과정에서 실무자와의 소통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음.	• 독도플래시몹을 좀 더 확대하여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독려하면 좋을 것으로 판단됨 • 야외에서 단체 활동을 하는 경우 사전에 좀 더 일찍 준비를 마무리 하고, 사전에 장소 등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 플래시몹과 같은 활동의 경우는 리허설도 필요

③ 역사체험활동 및 현충일에 대한 글 작성

과정평가	개선방안
• 포괄적인 역사내용이 담겨 전체적인 흐름을 잘 들어볼 수 있었고, 실제 군산의 역사자료 사진들을 공유하며 설명을 들을 수 있었음. • 체험활동을 토대로 블로그할 주제를 선택, 작성함으로써 지역의 역사에 대해 정리하고 공유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됨. • 역사에 남을 인물이 되도록 노력하며 살아야겠다는 말을 하는 청소년이 있었고, 역사를 만들어가는 주체성에 대해 되새기는 기회가 되었음. • 역사발전에 자신이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 ‘매우 많다’가 2명, ‘약간 있다’가 2명, ‘보통이다’가 1명으로 나와 역사를 만들어가는 책임감에 대해 긍정적으로 느낌을 알 수 있었음. • 역사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에 대해 ‘정치지도자의 능력’이 1명, ‘민중들의 힘’이 3명, ‘사람들의 관심’이 1명이었음. 대다수가 역사를 발전시	• 체험활동을 결정하는 회의 시 없었던 청소년들의 참여도가 적극적이지 못하여 다음 활동 시 구성원 개개인에게 임원진이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독려하고 실무자로서 이에 대한 점검이 필요. • 시작되는 시간과 마치는 시간에 대해 반복적으로 알려주고 일정에 대해서도 가능하다면 미리 상세하게 공유하는 것이 필요. • 강사와는 강의와 관련된 시각자료 뿐 아니라 실제 청소년들과의 소통에서 필요한 동기부여 활동, 세부강의방식 논의과정을 제안하여 조정해보는 것도 필요. • 설명내용이 어렵고 많다는 청소년들의 의견과 자료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동시에 나오는 것으로 보다 연령별, 자치기구 특성별로 강의 내용의 난이도를 적극적으로 조정할 필요.

과정평가	개선방안
키는 원동력이 시민들의 힘, 관심의 중요성이라는 것에 대해 동의함을 알 수 있었음. 여러 가지 사건을 이야기해서 설명이 어려울 수 있었지만 최대한 집중하려 하는 청소년들이 있었으며, 어떤 청소년은 휴대폰으로 메모를 하였음. 또한 서툰지만 열심히 소감을 이야기 하는 모습도 있었으며, 회장과 부회장이 적극적으로 강사의 설명을 들으며 탐방 지역을 다니는 노력을 보이기도 함.	향토사에 대한 관점으로 역사적 사건의 내용에 대해 기본적으로 아는 부분이 없다면 맥락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었음. 자원활동가들은 본인이 역사공부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내용들이 많아, 청소년들에게 어려운 내용들이 있었을 것이라는 평가를 함.

④ 시민청소년특강 - 세상을 바꾸는 미디어

과정평가	개선방안
- 미디어의 중요성, 역할, 파급력, 순기능을 느꼈고, 사회참여를 통한 변화에 대한 것을 살펴볼 수 있었음. - 특강 이후, 한 참여자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SNS를 통해 목소리를 내야겠다고 응답하였음. 이를 통해 특강이 청소년의 행동변화까지 촉구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음. - 미디어의 사회적 영향력을 살펴봄으로써 미디어를 올바르게 사용할 여지가 높아짐.	- 특강 후 실제로 미디어 활동을 해볼 청소년들을 모집하여 실제적인 그룹활동을 하는 것이 필요. - 사전에 참여자들에게 관련 자료나 고민거리를 살펴보고 정리할 시간을 주는 것이 필요.

⑤ 지역 어르신에 대한 글 작성

과정평가	개선방안
- 지역 어르신의 이야기를 작성하는 것을 청소년 스스로 기획 및 논의하여 활동에 대한 참여도가 높았음. - 사전 인터뷰 섭외, 인터뷰지 작성, 인터뷰, 녹취활동, 글 작성, 글 편집 등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준비 및 진행함으로써 활동에 대한 책임감과 자부심이 높아짐 - 다양한 어른들의 이야기를 듣고 주제를 잡아	- 사전 인터뷰지 글 작성 시 명확한 주제 선정을 위한 사전 인터뷰가 진행되는 것이 필요. - 어르신들을 뵙고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 사전 모의 연습을 하고 방문하는 것이 필요. - 사전에 어르신과 만남의 횟수를 되도록 명확히 정하고 실천하는 것이 필요.

과정평가	개선방안
글을 작성함으로써 지역의 역사와 사람에 대한 이해를 높임. •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글을 작성하는 경험을 통해 인터뷰 중 인내심을 가지고 인터뷰에 응함. • 인터뷰 시 다양한 질문을 한 뒤 주제를 결정한 경우 글 작성에 어려움을 느끼거나 추가 질문을 위한 방문을 하게 되었음. • 지역 어르신을 위한 활동을 하였다는 인식을 가지고 사진촬영, 인터뷰 등을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늘어남.	

⑥ 지역의 역사탐방

과정평가	개선방안
• 일제 강점기의 위안부 문제나 항쟁운동을 올바로 기억하고자 하는 활동을 기획하면서 청소년 스스로가 강의 등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결정하는 등 활동 전반에 청소년의 주도력이 높았음. • ‘역사인식 고취’라는 목표를 좀 더 구체화하지 못한 점이 아쉬움. • 위안부에 대한 자료 조사를 재점검하며 강의 준비에 신중함. • 각 팀별 준비과정에서 청소년들과 실무자의 소통이 부족하여 활동의 진행사항을 실무자가 늦게 알거나, 참여자 파악이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음. • 일본군 ‘위안부’의 올바른 용어에 대해 설문조사를 하여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살펴보는 계기를 마련. • 군산에서 항일운동을 한 인물 중 알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질문함으로써 군산시민으로서 관심을 가져야 할 역사적 사실에 대해 언급하는 계기를 마련. • 역사탐방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 간 친숙해질 계기를 마련하지 못하였음.	• 활동 초기 참여하는 청소년 간 친숙해질 시간 혹은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함. • 자세한 자료를 기반으로 청소년들이 역사탐방의 목적을 충분히 논의하여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함. • 청소년들이 기획하여 탐방이 진행되는 경우, 설문 조사지를 직접 제작 및 배부하는 것이 필요함.

⑦ 사진, 영상아카데미

과정평가	개선방안
• 평소 영상, 사진에 대해 궁금했던 내용을 알게 되었고 관심이 높아졌음. • 동아리 활동에 대한 동기부여의 역할이 되어 좀 더 전문적인 활동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현함. • 한정된 방식이 아닌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의 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한 가지 작품이 완성되기 위해 필요한 순서에 대해 정리하게 되었음. • 참여자 간에 친해질 시간이 부족했음.	• 참여자간의 유대관계를 형성할 과정이 필요함. • 아카데미 참여의 동기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활동의 필요성을 느끼도록 지원 하는 것이 필요. • 향후 영상자치기구와 그 외 청소년들의 연합 활동을 기획하는 것이 필요.

⑧ 지역역사토론회

과정평가	개선방안
• 토론 주제를 지역 내 역사유적이 남은 장소와 숨은 인물에 대해 살펴보는 것으로 정함으로써 과거에서 이어지고 있는 현재 문제에 대해 살펴볼 계기를 마련함. • 대주제의 원활한 토론을 위해 사전에 안건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세 번의 토론진행을 통해 반대 측, 찬성 측에 다양한 참여가 가능하였음. • 청소년들이 참여하여 지역에 대해 다양하게 생각해볼 수 있는 진행을 하려고 하였음. • 토론참여자과 방청객으로 나누어 진행을 함으로써 찬성과 반대 측 뿐만 아니라 제3자의 입장에서 의견도 들어볼 수 있게 되었음.	• 리허설 등을 통해 시간을 배분하거나 조절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필요. • 감정적으로 대화하는 경우를 없애기 위해 토론 규칙을 논의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토론 회를 진행할 필요가 있음.

⑨ 지역사회 역사·문화 동아리 활동

과정평가	개선방안
• 역사 자치기구 연합활동을 두 차례 하며 지속적으로 만나면서 현대의 지역 역사를 바라보는 것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 교환을 하였음. • 블로그 자치기구 및 영상 자치기구 공모전 출품, 블로그단 조회 수 파악 등 지속적인 도전	• 의견을 잘 내지 않거나 협조가 잘 안되는 청소년들을 독려하는 방안을 청소년리더가 찾아 적극적으로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

과정평가	개선방안
거리를 만들거나 찾아내 진행하였으며 협력을 잘 하였음.	

⑩ 평가회 및 활동기반 마련

과정평가	개선방안
- 기존의 역사관련 체험활동을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역사를 알리는 활동하기 위해 멘토링 활동을 계획하게 됨. - 블로그 자치 기구는 지역 어르신 책자 제작활동을 통해 지역의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글을 작성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자신의 글에 대해 만족한다는 평가를 과반수가 대답하였고, 앞으로의 활동에 대해서 협력의 중요성을 인지하였음. - 영상제작 자치 기구는 24초 영화제 참여를 통해 각자의 스타일에 맞는 영상을 기획하고 촬영을 함께 함으로써 강점을 살리고 부족한 점을 팀 간 보완할 수 있었음. - 촬영을 서로 간 협동하여 기획함으로써 한 장소에서 두 개 정도의 영상을 동시 제작할 수 있었으며 공모전에 출품한 뒤 서로 간 최종 영상을 살펴보고 피드백을 하는 등 좀 더 질 좋은 영상을 위해 노력하는 주체성을 보임.	- 정기적으로 역사 활동을 위해 연합활동 기획을 다시 진행하는 것이 필요 - 함께할 참여자들을 모집하는데 있어 홍보지 제작 뿐 아니라 구체적인 홍보계획과 사전연습이 필요. - 촬영 장소, 시간에 대해 좀 더 빨리 결정할 수 있도록 권유 및 소통하는 것이 필요.

3. 이천시 시범사업 진행 및 주요 활동 내용

1) 참여지역 현황

(1) 청소년 인구(9-24세) 및 학교(초·중·고·대) 수

① 이천시 청소년 인구 현황

구분	인구	비율	여성비율
10-14세	13,394명	6.5%	48.0%
15-19세	14,164명	6.9%	47.5%
20-24세	12,774명	6.2%	48.3%
합계	40,332명	19.6%	

② 이천시 학교 현황

구분	학교 수			학급수	학생 수
	공립	사립	계		
초등학교	32	0	32	554	12,787
중학교	15	1	16	255	7,816
고등학교	9	3	12	270	7,954
대학교	0	2	2		5,833
합계	56	6	62	1,079	34,390

(2) 시범사업 운영 기관 현황

- 기 관 명 : 서희청소년문화센터
- 개 관 일 : 2012년 2월 1일
- 설립목적 : 사회역량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하여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제공
- 기관특성 : 청소년수련관(제2012-01호)

- 운영주체 : (재)이천시 청소년육성재단
- 조직현황 : 총 10명
 - 청소년지도사 : 관장 1명, 팀장 2명, 팀원 7명

2) 프로그램 운영계획

① 사업명 청소년-어르신 동반자 활동 ‘청춘을 담다’

일정	구분	세부 추진내용	시행횟수/ 회당시간	수행 인력	참여 인원
7월 30일(토)	참가자 오리엔테이션	○ 오리엔테이션 - 설문지 조사 - 프로그램 목적 및 내용 소개	1/2	2	15
8월 20일(토)	어르신과 청소년 연결	○ 어르신과 청소년 연결 ○ 레크리에이션	1/2	2	15
8월 27일(토)	관계형성 활동	○ 어르신과 대화 나누기 ○ 공예활동	1/2	2	15
9월 3일(토)	나들이 활동	○ 이천시 평생학습축제 나들이	1/2	2	15
9월 3일(토)	중간평가	○ 중간평가회	1/2	2	15
9월 10일(토)	관계형성 활동	○ 어르신과 대화 나누기 ○ 공예활동	1/2	2	15
9월 24일(토)	마무리 활동	○ 레크리에이션 ○ 포토북 선물하기 ○ 활동영상 시청 ○ 활동소감 나누기	1/2	2	15
9월 24일(토)	종합평가	○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 다과회	1/2	2	15

② 사업명 : 청소년드림CEO(창업동아리 운영)

일정	구 분	세부 추진내용	시행횟수/ 회당시간	수행 인력	참여 인원
4월	사업설명회	○ 이천시 관내 중·고·대 대상 사업설명회 진행	1/2	2	
5월	동아리 선발	○ 최종 6개 동아리 선발	1/4	5	50
6월	동아리 활동	○ 각 동아리별 활동계획 수립	2/4	2	25
7월	창업교육	○ 창업아이템 및 창업 마인드 교육	1/4	3	25
	동아리 활동	○ 각 창업 동아리 별 활동	1/4	2	25
8월	동아리 활동	○ 각 창업 동아리 별 활동	2/4	2	50
9월	동아리 활동	○ 각 창업 동아리 별 활동	1/4	2	25
	창업 동아리 발표회	○ 창업 동아리 결과 발표회 ○ 진행상황 점검	1/4	2	25
	프리마켓	○ 드림CEO 프리마켓 진행	2/4	2	20
10월	사후관리	○ 각 창업 동아리 별 사후관리 - 활동장소 제공 및 예산 지원	4/2	2	100

③ 사업명 : 청소년 멘토링활동 피앗

일정	구 분	세부 추진내용	시행횟수/ 회당시간	수행 인력	참여 인원
4월	사전워크숍 및 교육	○ 멘티 사전교육 진행 - 멘토링 활동의 이해, 주의사항, 활동내용 등 ○ 청소년 멘토 워크숍 진행 - 멘토의 역할, 멘토간 관계형성 등	2/6	2	30
5월	결연식	○ 1:1결연 ○ 활동계획서 작성, 친목도모 레크리에이션	1/4	2	30
	집단 활동	○ 이천시 농업테마파크	1/4	2	30

일정	구 분	세부 추진내용	시행횟수/ 회당시간	수행 인력	참여 인원
6월~ 9월	멘토 과정교육	○ 멘토링 관계형성, 사례발표 및 피드백	1/2	2	15
	개별 활동	○ 학습지도, 진로지도, 상담활동	1/4	2	30
	집단 활동	○ 초콜릿 만들기 체험	1/3	2	30
7월	개별 활동	○ 학습지도, 진로지도, 상담활동	1/4	2	30
	집단 활동	○ 영화감상	1/3	2	30
	멘토 과정교육	○ 사례발표 및 피드백	1/2	2	15
8월	개별 활동	○ 학습지도, 진로지도, 상담활동	1/4	2	30
	멘토·멘티 캠프	○ 멘토와 멘티의 친밀감 형성을 위한 캠프	1/8	2	30
9월	개별 활동	○ 학습지도, 진로지도, 상담활동	1/4	2	30
	집단 활동	○ 목공체험	1/4	2	30
	멘토 과정교육	○ 종결교육, 사례발표 및 피드백	1/2	2	15
10월	종결식	○ 활동영상 시청, 소감나누기, 편지쓰기 ○ 추후 활동계획 수립	1/4	2	30
11월	사후관리	○ 멘토링활동 종결 후 관계 지속 - 주기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장소 제공 - 3개월 이내 멘토·멘티 간담회 개최	4/2	2	120

3) 추진 내용 및 개선방안

(1) 관계영역 : 청소년-어르신 동반자 활동 ‘청춘을 담다’

① 모집 및 홍보

운영 및 과정평가	개선방안
- 서희청소년문화센터 청소년운영위원회 조직이 있어, 사업 취지를 설명하고 참여를 제안하였음 - 매주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청소년들이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었음	- 프로그램 운영을 격조고 운영하여 참가자 부담을 덜 필요가 있음 - 참가자 모집 시 참가 청소년에게 제공할 수 있는 특전(봉사활동시간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② 레크리에이션

운영 및 과정평가	개선방안
• 레크리에이션을 통해 어르신과 청소년이 관계형성 하는 시간을 보냄 • 청소년과 어르신이 함께 참여 할 수 있는 다양한 내용의 레크리에이션 진행하였음 • 2시간이라는 짧은 시간에 친해지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음	• 어르신과 청소년 간의 관계형성이 되는 시간이 더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어르신과 청소년이 이야기 할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노인들의 특성과 성향에 대해 사전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음

③ 공예체험활동

운영 및 과정평가	개선방안
• 휴지걸이 만들기 공예활동 진행 • 풀칠 후 말리는 시간이 너무 걸려서 시간이 오래 걸렸음 • 어르신과 청소년이 오지 않아 10분 늦게 시작하였음. • 샘플을 따라 하는 분들도 있고 각자 하고 싶은 대로 휴지걸이를 만들었음	• 모이는 시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 간단하면서 드라이기를 사용해서 말리지 않아도 되는 공예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냅킨의 종류가 한 종류로 통일 되었으면 함 • 풀칠이 필요한 공예는 책상 등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휴지걸이는 1인당 필요한 색상과 양을 미리 정리해서 갈 필요가 있음

④ 외부활동(이천시 평생학습축제)

운영 및 과정평가	개선방안
• 미리 축제현장을 방문한 어르신들이 많아 흥미가 떨어졌음 • 어르신들이 축제 현장을 다니는 것을 힘들어 하였음 • 청소년과 어르신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부스	• 모이는 시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사전에 미리 조사 후 공예 등 실내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대체할 필요 있음 •조를 나누어 체험활동을 할 필요가 있음

운영 및 과정평가	개선방안
가 없었음 • 모든 인원이 같이 다니기 보다는 따로 움직였음	

⑤ 마무리 활동

운영 및 과정평가	개선방안
• 자신의 사진이 담긴 포토북을 받으시고 만족함 • 늦게 오셔서 20분정도 늦게 레크리에이션을 시작하였음 • 몸을 움직이는 활동에 반응이 좋았음 • 참여한 청소년들은 공예활동 하고나서도 ‘이야기하면서 친해지는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다’, ‘같이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 등 • 참여한 어른들은 하루 중 ‘청춘을 담다’ 시간이 가장 좋다, 청소년들에게 고맙다고 대답함	• 청소년에게도 어른신과 추억이 담긴 포토북을 주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청소년과 어른신 간의 의미 있는 선물 교환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모이는 시간과 활동하는 시간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 • 1:1결연으로 청소년과 어른신이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함

(2) 경제 활동 영역: 청소년드림CEO(창업동아리)

① 모집 및 홍보

운영 및 과정평가	개선방안
• 기관홈페이지 공고와 각 고등학교로 공문을 발송하여 참가자 모집을 실시함 • 이천시는 창업동아리활동과 유사한 사업이 2년째 진행되고 있어 참가자 모집에 어려움이 있었음	• 이천시에서 진행하는 유사 프로그램과 차별화를 시키고, 참가자 모집 시기를 변경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음 • 지역특성에 맞는 창업동아리를 발굴·육성할 필요가 있음

② 지도자회의

운영 및 과정평가	개선방안
• 도예고 학생들이 작성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회의를 진행하였음 • 창업공방 전문가를 만나 창업과 마케팅에 대해 방향을 잡게 되었음 • 아이템 선정 및 진행방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함	• 작품의 샘플링을 보고 회의를 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학생들과 회의를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함

③ 창업동아리 프리마켓 준비회의

운영 및 과정평가	개선방안
• 매주 목요일 동아리 대표자 회의를 진행하였음 • 대표자들과 동아리별 아이템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사업 아이템에 대한 조언을 통해 아이템을 구체화하였음 • 아이템 구체화 이후 제품 포장방법과 판매수량 확인, 준비물품에 대해 확인하였음 • 1차 프리마켓을 9월 3일(토) 이천시평생학습축제에서 진행하기로 하였으나 도자 조성이 되지 않아 프리마켓을 진행하지 못하였음 • 9월 10일(토) 서희청소년문화센터 자체 축제에서 프리마켓을 운영하여, 프리마켓을 운영하는데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로 하였음	• 샘플링(시제품) 확인 후 회의진행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제작을 하는 과정을 확인 후 아이템에 관하여 회의하는 것이 필요함 • 시제품 및 초기 물량 준비 시간이 더 필요한 것으로 보임 • 판매 방식 및 프리마켓에 관해 구체적인 회의진행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청소년의 활동일정을 고려하여 충분한 준비기간을 배정하는 것이 필요함 • 물품 수량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함 • 포장(패키지)의 방법과 재료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함

④ 창업특강

운영 및 과정평가	개선방안
• 나만의 창업아이템 만들기, 자신만의 아이템을 이용한 창업운영에 대하여 특강하였음 • 사업계획서 작성에 대하여 특강하였음	• 캐릭터, 로고 창작에 관한 특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마케팅과 관한 특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운영 및 과정평가	개선방안
• 학생 각자의 계획을 세울 수 있는 특강이었음 • 강의에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 청소년들이 있었음 • 참여 청소년들은 도자기만이 아니라 다른 것을 접목하는 색다른 창업 강의, 도자기 공예 특강이 듣고 싶다고 대답함	• 진행하는 강의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려줄 필요가 있음 •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참여적인 강의 형식으로 청소년들의 참여 동기를 강화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⑤ 프리마켓

운영 및 과정평가	개선방안
• 1차 프리마켓은 9월 10일(토) 서희청소년문화센터 자체 축제 행사에서 프리마켓을 진행하였으며, 각 동아리 대표를 포함하여 10명이 인원이 프리마켓을 운영하였음 • 기관 입구에서 판매대를 설치하여 진행하였으며, 청소년 이용자가 많아 실제 구매자가 없었음 • 2차 프리마켓은 9월 24일(토) 설봉공원에서 프리마켓을 진행하였음 • 프리마켓을 통해 청소년들의 활동내용을 지역 사회 내에 홍보하고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 • 본 연구사업에 대한 홍보용 팜플렛을 활용하지 못하여 아쉬워했음	• 연령대가 많이 있는 곳에서 프리마켓을 하는 것이 필요함 • 사전에 다양한 성격을 가진 프리마켓을 둘러 보고 판매의 분위기 등을 경험하는 것이 필요함 • 3~4시간이 아닌 장시간동안 판매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가격조정이 한 번 더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실용성이 좋은 아이템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홍보용 팜플렛을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함 • 눈에 띄지 않는 물품들의 배치를 수정할 필요가 있음

⑥ 평가회의

운영 및 과정평가	개선방안
• 1차·2차 프리마켓 종료 후 향후 활동계획에 관하여 회의 진행하였음	• 다육화분, 팔찌 등 다양한 연령층이 사용할 수 있는 아이템으로 제작할 필요가 있음

운영 및 과정평가	개선방안
1차 9월10일(토) 프리마켓 수익금은 총 275,000원, 2차 9월24일(토) 프리마켓 판매 금액은 총 175,000원이었음 - 향후 이천시 진로박람회 부스 운영(10월 27 일)과 예술가 중심의 프리마켓에 참여할 예정 임(11월 5일)	- 프리마켓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의 연락처(각 동아리 회장 제외)등을 미리 알아놓을 필요가 있음 - 전체 활동에 대한 평가회의도 필요한 것으로 보임

(3) 복지활동 영역 : 청소년 멘토링활동 피앗

① 모집 및 홍보

운영 및 과정평가	개선방안
- 각 고등학교에 공문을 발송하여 청소년 멘토 모집을 실시함 - 청소년멘토 15명 모집을 목표로 서류를 접수 받았으며, 서류접수에 총 48명의 청소년멘토 가 지원하였음 - 각 학교에서도 청소년 멘토링활동에 대한 관 심이 많이 있고, 학부모 또한 멘토링활동에 많은 관심을 보였음 - 청소년멘티의 경우 인근 초등학교와 연계하 여 참가자를 모집하였음	- 고등학생들이 멘토링활동에 많은 관심이 있 으므로 특별한 홍보가 필요하지 않아 보임 - 청소년멘토를 선발하기 위한 체계적인 기준 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청소년멘티의 경우 학부모에게 멘토링활동을 설명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청소년멘티와 학부모의 요구의 차이가 있어 적절하게 요구 를 수용해줄 필요가 있음

② 멘토교육

운영 및 과정평가	개선방안
- 서류를 접수한 청소년멘토 48명 중 면접을 통 해 20명을 최종선발하여 멘토교육을 실시함 - 최종 선발된 20명 중 멘토교육에 참가하지 않 은 멘토가 2명있어서 최종 18명의 청소년멘 토와 멘토링활동을 실시하고자 함	-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멘토교육을 진 행하는데 청소년멘토가 교육을 받는데 많이 힘들어 하였음 - 특히 오후 시간에는 청소년멘토의 집중력이 매우 떨어졌으므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주의

운영 및 과정평가	개선방안
- 공감, 의사소통 실습 등을 활용하여 청소년멘토가 멘토링활동에서 경험 할 수 있는 다양한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교육하였음 - 멘토교육을 통해 청소년멘토들은 멘토링활동에 대한 오해나 편견을 해소할 수 있다고 평가하였음	집중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

③ 멘토링활동 결연식

운영 및 과정평가	개선방안
- 청소년 멘토 뿐만 아니라 멘티에게도 멘토링 활동 소개 및 주의해야 할 점을 교육함 - 처음 만나는 멘토-멘티가 어색하지 않도록 다양한 활동을 진행함(그림독, 그룹 레크리에이션) - 결연은 남자-남자, 여자-여자로 매칭하였으며, 남자 멘티 중 2명은 여자 멘토와 활동하도록 함 - 결연식에 늦게 도착한 멘토가 있어서 결연활동이 지연되었음 - 향후 활동에서 멘토가 시간약속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음	- 연구를 위한 설문지가 멘티가 이해하기 매우 어려웠음 - 멘토-멘티만의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서 아쉬워 했으며, 멘토-멘티 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시간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 - 여자 멘토-남자 멘티의 경우 여자 멘토가 멘티를 통제하는데 매우 어려움이 있었으며, 향후 공간을 분리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음

④ 개별활동(매월1,3,5주)

운영 및 과정평가	개선방안
- 멘토가 사전 준비를 하여 같이 활동 함(ex.컬러링북) - 서희 청소년 문화센터 내에 있는 공간 및 물품을 활용하여 활동을 하였음(ex.멀티미디어)	- 멘토가 개별 멘토링 활동을 준비를 하지 않은 경우 진행이 되지 않아 앞으로 멘토가 활동준비를 할 수 있도록 교육하였음 - 서희청소년문화센터 내에 있는 멀티미디어학

운영 및 과정평가	개선방안
학습실) 5~6명씩 보드게임을 이용하여 활동 함 - 개별활동을 준비하는 것에 대해 멘토들이 부담이 많이 있어, 사례회의를 통해 개별활동 준비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였음 - 멘토가 부득이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다른 멘토와 짝을 지워 활동을 하였음 - 개별 활동이기 때문에 멘티와 멘토의 모습을 사진 촬영하기 어려움	습실을 활용하여 멘티와 멘토가 활동을 할 수 있었으면 함 - 멘티와 멘토에게 서로의 활동 모습 등을 찍는 미션 등이 필요함 - 개별 활동에 대한 주제를 정하여 멘토가 사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서희청소년문화센터 내에 있는 멀티미디어학 습실을 활용하여 활동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멘티와 멘토에게 미션을 제공하여 체험과 추억을 남기는 것이 필요함

⑤ 외부 체험활동(이천농업테마파크)

운영 및 과정평가	개선방안
- 지역 내 특성화 공원인 이천시 농업테마파크를 이용하여 체험활동을 진행 - 쌀 문화관 견학 및 피자 만들기 체험 - 참가 청소년이 이천의 특산물인 쌀에 대해 더욱 자세하게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음 - 외부 체험활동에 참가 청소년이 모두 만족하였으며 특히 피자 만들기 활동에 참가 청소년의 반응이 좋았음	외부 체험활동 진행 시 멘토는 멘토끼리, 멘티는 멘티끼리 따로 다니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에 멘토·멘티 미션을 제공하여 친목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⑥ 외부 체험활동(초콜릿이도)

운영 및 과정평가	개선방안
- 생 초콜릿 만들기 체험을 함 - 초콜릿의 원재료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게	멘티와 멘토가 각자 만든 초콜릿을 교환할 수 있도록 만들었으면 함

운영 및 과정평가	개선방안
되었음 - 온도에 민감한 초콜릿을 만들고, 칼등을 사용하기 때문에 멘티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였음 - 초콜릿 만들기 활동에 참가 청소년들이 매우 만족함	초콜릿이 녹지 않도록 사전 준비가 필요함

⑦ 외부 체험활동(CGV 영화감상)

운영 및 과정평가	개선방안
- 이천CGV에서 ‘도리를 찾아서’를 감상하였음 - 멘토와 멘티가 서로 챙기는 모습에 사이가 돈독해짐 - 영화 감상 후 영화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음	CGV 도착 후 바로 앉을 수 있도록 멘토에게 미리 좌석을 알려주는 점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⑧ 외부 체험활동(이천 서경들마을)

운영 및 과정평가	개선방안
- 미꾸라지 잡기, 쑥개떡 만들기, 두부 만들기 등 체험활동을 진행하였음 1박2일 동안 함께 있으면서 멘토와 멘티가 더욱더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됨 - 미꾸라지 잡기를 할 때 참여를 하는 청소년만 체험을 하였고, 잘 잡히지 않아서 잡혀있는 미꾸라지를 잡으며 체험함 - 보물찾기 활동을 할 때 미션용지가 부족하여 시간계획과 맞지 않았음	- 숙소 방의 크기를 고려한 인원수 배정이 필요함 - 보물찾기 활동을 할 때 미션용지의 수를 늘려야 필요가 있음 - 모든 청소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가 필요함(ex.이벤트)

⑨ 체험 활동(목공예 체험활동)

운영 및 과정평가	개선방안
• 목공예를 진행하였음 • 멘티와 멘토가 함께 만들고 페인팅 작업이 반응 좋았음 • 멘토가 멘티를 도와주는 것뿐만 아니라 멘티 들끼리도 서로 도움을 주며 만들었음	• 지하 연습실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환기가 더 잘되는 곳에서 진행하면 좋을 것으로 보임

⑩ 멘토링 활동 종결식

운영 및 과정평가	개선방안
• 그간 활동에 대한 소감을 나누고 활동영상을 시청함 • 추수활동에 대해 안내하고 온라인 카페 가입, 자원봉사 사이트 가입에 대해 안내함 • 소감문 작성 및 향후 비공식적인 활동 계획함	• 멘토 뿐만 아니라 멘티의 소감도 충분히 나눌 필요가 있음 • 소감문 작성과 설문지 작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종결식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음

4. 시범사업 효과 분석

1) 조사개요

사업 효과 분석을 위해 사업 이천과 군산 등 2개 지역에서 사업에 참여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전조사와 사후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도구는 2015년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Ⅲ’의 세부 영역으로 전국 단위의 조사에 사용된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중고등학생용]’의 설문지를 활용하였다. 이천 지역의 경우 사전조사는 2016년 4월 중, 사후조사는 2016년 9월 중 실시하였으며, 군산지역의 경우 사전조사는 2016년 5월 중, 사후조사는 2016년 10월 중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중 사업 효과 분석에 활용된 내용은 <표Ⅱ-1>에 제시된 바와 같다. 주관적 웰빙과 관계 영역의 지표 중 세부항목별로 변인을 구성하여 대응표본 t-test를 실시하였으며, 통계적 유의수준은 .05로 설정하였다.

표 II-1 조사영역별 세부항목

영역	세부항목	문항수	문항번호
주관적웰빙	전반적 삶의 만족도	1	문1
	긍정적 정서	3	문2-1, 문2-2, 문2-6
	부정적 정서	3	문2-3, 문2-4, 문2-5
	유데모니아	6	문3-1 ~ 문3-6
관계	전반적 인간관계 만족도	1	문5
	직접관계 만족도 (가족, 부모, 친구, 선생님)	4	문6-1 ~ 문6-4
	간접관계 (지역사회) 만족도 (이웃)	1	문6-5
	직접관계 신뢰도 (부모, 친구, 선생님, 이웃사람들)	4	문7-1 ~ 문7-4
	간접관계 신뢰도 (우리나라 전체, 사이버공간, 지역사회전문기관, 지방정부, 중앙기관)	5	문7-6, 문7-8, 문8-1 ~ 문8-3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분석을 위해 수집된 자료는 총 138명의 자료로 이천지역에서는 66명, 군산지역에서는 72명의 자료가 수집되었다. 이 중 응답이 불성실한 9명의 자료를 제외한 129명의 자료가 활용되었다.

분석에 활동된 조사 대상자를 살펴보면 초등학생 15명, 중학교 21명, 고등학교 93명으로 고등학생의 비율이 전체의 72.1%로 가장 많았으며, 남자는 39명(30.2%), 여자는 90명(69.8%)였다. 이천지역 시범사업 참여자는 64명(49.6%)이었으며, 군산지역 시범사업 참여자는 65명(50.4%)였다. 효과분석에 활용된 사업 참여자의 분포는 <표 II-2>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II-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빈도	백분율
학년	초등학생	15	11.6
	중학생	21	16.3
	고등학생	93	72.1
성	남	39	30.2
	여	90	69.8

		빈도	백분율
지역	이천	64	49.6
	군산	65	50.4
합계		129	100.0

3) 주관적 웰빙 지표 영역 분석결과

(1) 전반적 삶의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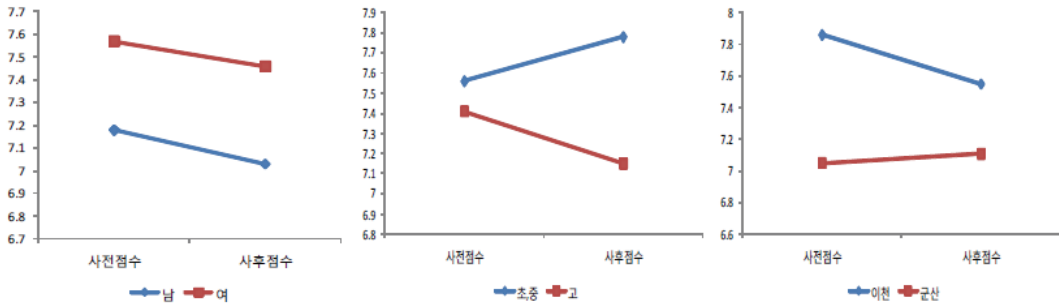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는 자신의 삶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정도를 측정하였으며,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와 ‘매우 만족한다’를 극단으로 하여 10점 만점의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 응답자의 사전점수의 평균 점수는 7.45점이었으며, 사후점수는 7.33점으로 <표 II-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전반적 삶의 만족도는 다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p<.05$).

표 II-3 전반적 삶의 만족도 사전-사후 검증 결과

구분		사전점수		사후점수		t	p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성	남(n=39)	7.18	1.972	7.03	2.311	.448	.657
	여(n=90)	7.57	1.703	7.46	1.938	.523	.602
학교급	초,중(n=36)	7.56	1.963	7.78	1.884	-.566	.575
	고(n=93)	7.41	1.727	7.15	2.106	1.303	.196
지역	이천(n=64)	7.86	1.680	7.55	1.935	1.166	.248
	군산(n=65)	7.05	1.815	7.11	2.166	-.255	.799
전체(n=129)		7.45	1.790	7.33	2.058	.688	.492

성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남자의 경우 사전점수의 평균은 7.18점, 사후점수의 평균은 7.03점으로 다소 감소하였으며, 여자의 경우 사전점수의 평균은 7.57점, 사후점수의 평균은 7.46점으로 역시 다소 점수가 낮아졌다. 이처럼 남자와 여자 모두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러한 변화가 남, 여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p<.05$).



[그림 II-3] 성, 학교급, 지역별 전반적 삶의 만족도의 변화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중학교 이하 학생의 경우 사전점수의 평균 7.56점, 사후점수의 평균은 7.78점으로 다소 높아진 반면, 고등학교 학생의 경우 사전점수 평균은 7.41점, 사후점수 평균은 7.15점으로 다소 감소하였다. 중학교 이하 학생의 경우 사업 참여후 전반적이 삶의 만족도가 증가하고 고등학교 학생의 경우 사업 참여 후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가 다소 감소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지만 이러한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로 검증되지는 않았다($p<.05$).

사업 지역별로 구분하여 전반적 삶의 만족도 점수를 살펴보면, 이천지역의 경우 사전 점수의 평균은 7.85점, 사후점수의 점수는 7.55점으로 나타났으며, 군산지역의 경우 사전점수의 평균은 7.05점, 사후점수의 평균점수는 7.11점으로 나타났다. 이천지역 청소년의 경우 전반적 삶의 만족도는 다소 낮아진 반면 군산지역 청소년의 경우 전반적 삶의 만족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변화는 두 지역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가 아니었다($p<.05$).

(2) 긍정적 정서

긍정적 정서는 ‘즐거움’, ‘편안한’, ‘행복한’ 등 3가지 감정을 제시하고 이러한 감정을 최근 느꼈는지 여부에 대해 5점 척도로 측정한 점수의 평균으로 산출하였다. 따라서 긍정적 정서 점수는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 정서를 자주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전체 응답자의 긍정적 정서 사전점수의 평균은 3.91점, 사후점수의 평균은 3.88점으로 다소 낮아졌지만 <표 II-4>와 같이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변화는 아니었다($p<.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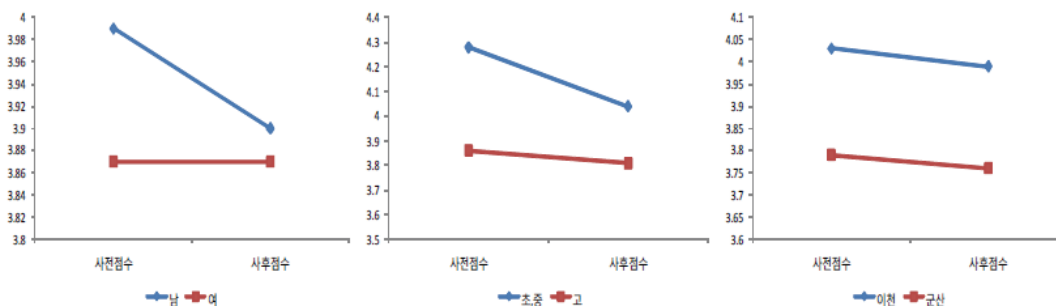
표 II-4 긍정적 정서 사전-사후 검증 결과

구분		사전점수		사후점수		t	p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성	남(n=39)	3.99	.699	3.90	.856	.881	.384
	여(n=90)	3.87	.662	3.87	.724	.104	.918
학교급	초,중(n=36)	4.28	.644	4.04	.768	.075	.941
	고(n=93)	3.86	.681	3.81	.756	.749	.456
지역	이천(n=64)	4.03	.646	3.99	.687	.408	.685
	군산(n=65)	3.79	.684	3.76	.820	.391	.697
전체(n=129)		3.91	.673	3.88	.763	.567	.572

긍정적 정서의 변화를 성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우선 남자의 경우 사전점수는 3.99점, 사후점수는 3.90점이었으며, 여자의 경우 사전점수는 3.87점, 사후점수는 3.87점이었다. 남자의 경우 긍정적 정서가 다소 감소하였으며, 여자의 경우 긍정적 정서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러한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p<.05$).

학교급별로 구분하여 긍정적 정서의 변화를 살펴보면, 중학교 이하 학생의 경우 사전점수는 4.28점, 사후점수는 4.04점으로 감소하였으며, 고등학교 학생 역시 사전점수 3.86점에서 사후점수 3.81점으로 감소하였다. 중학교 학생 이하, 고등학교 학생 모두에서 긍정적 정서를 경험하는 정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변화는 아니었다($p<.05$).

사업 지역별로 구분하여 긍정적 정서의 변화를 살펴보면, 이천지역의 경우 사전점수는 4.03점, 사후점수는 3.99점이었으며, 군산지역의 경우 사전점수는 3.79점, 사후점수는 3.76점으로 나타나 두 지역 모두에서 응답자의 긍정적 정서가 다소 감소하였지만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로 검증되지는 않았다($p<.05$).



[그림 II-4] 성, 학교급, 지역별 긍정적 정서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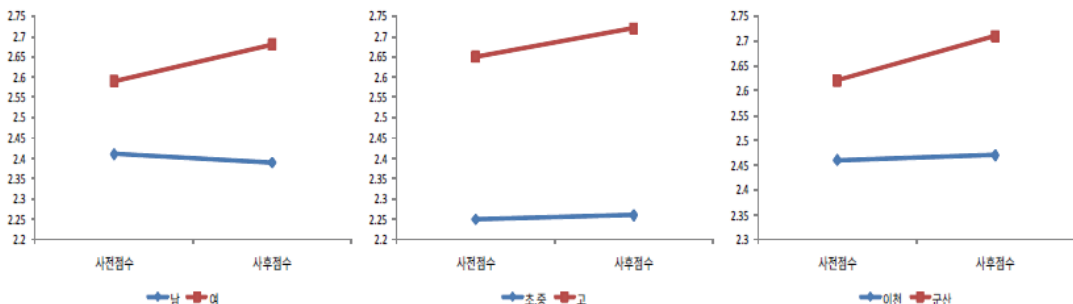
(3) 부정적 정서

부정적 정서를 측정하기 위해 ‘불안한’, ‘슬픈’, ‘우울한’등 3가지 부정적 감정을 나타내는 용어를 제시하고 최근 이러한 감정을 어느 정도 느끼는지 5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조사된 3개 항목 응답의 평균점수로 부정적 정서의 평균점수를 산정하였고 평균점수가 높은 것은 부정적 정서를 자주 경험함을 의미한다. 전체 응답을 기준으로 부정적 정서의 변화를 살펴보면 사전 점수는 2.54점, 사후점수는 2.59점으로 0.05점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표 II-5>에 제시된 바와 같이, 통계적 검증 결과 이러한 부정적 정서의 평균점수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지는 않았다($p < .05$).

표 II-5 부정적 정서 사전-사후 검증 결과

구분		사전점수		사후점수		t	p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성	남(n=39)	2.41	.853	2.39	1.023	.138	.891
	여(n=90)	2.59	.859	2.68	.926	-.864	.390
학교급	초,중(n=36)	2.25	.874	2.26	1.087	-.049	.962
	고(n=93)	2.65	.830	2.72	.881	-.893	.374
지역	이천(n=64)	2.46	.813	2.47	.904	-.148	.883
	군산(n=65)	2.62	.900	2.71	1.008	-.796	.429
전체(n=129)		2.54	.858	2.59	.961	-.694	.486

성별로 구분하여 부정적 정서의 변화를 살펴보면, 남자의 부정적 정서 사전점수는 2.41점, 사후점수는 2.39점, 여자의 부정적 정서 사전점수는 2.59점, 사후점수는 2.68점으로 나타났다. 남자와 여자 모두에서 부정적 정서가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러한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p < .05$).



[그림 II-5] 성, 학교급, 지역별 부정적 정서의 변화

학교급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중학교 이하 학생의 부정적 정서 사전 점수는 2.25점, 사후점수는 2.26점이었으며 고등학교 학생의 부정적 정서 사전점수는 2.65점, 사후점수는 2.72점으로 조사되었다. 중학교 이하 학생과 고등학교 학생의 경우에도 부정적 증가가 다소 증가하였지만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는 아니었다($p<.05$).

사업 지역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이천지역의 부정적 정서 사전점수는 2.46점, 사후점수는 2.47점이었으며, 군산지역의 부정적 정서 사전점수는 2.62점, 사후점수는 2.71점으로 조사되었다. 이처럼 이천지역과 군산지역 모두에서 부정적 정서가 다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변화로 검증되지는 않았다($p<.05$).

(4) 유데모니아

유데모니아를 측정하기 위해 자신의 삶의 질과 관련된 긍정적인 인식과 관련된 5개 항목을 5점척도로 조사하였다. 각 항목 측정 점수의 평균점수를 계산하여 유데모니아 점수를 산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삶의 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조사 대상 전체의 사전 점수는 3.85점, 사후점수는 3.71점으로 유데모니아 점수는 다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표 II-6> 에서와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는 아니었다($p<.05$).

표 II-6 유데모니아 사전-사후 검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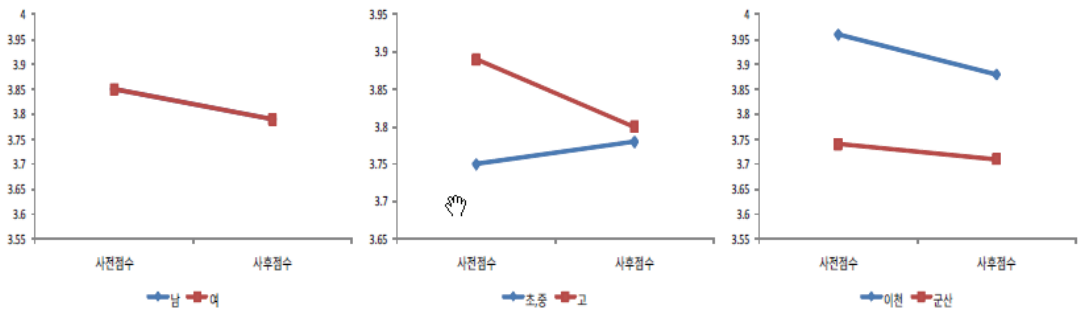
구분		사전점수		사후점수		t	p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성	남(n=39)	3.85	.610	3.79	.742	.902	.373
	여(n=90)	3.85	.706	3.79	.739	.846	.398
학교급	초,중(n=36)	3.75	.687	3.78	.757	-.293	.772
	고(n=93)	3.89	.672	3.80	.733	1.573	.119
지역	이천(n=64)	3.96	.649	3.88	.711	1.011	.316
	군산(n=65)	3.74	.690	3.71	.758	.565	.574
전체(n=129)		3.85	.676	3.79	.737	1.150	.252

성별로 구분하여 유데모니아 점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남자와 여자 모두 사전점수는 3.85점, 사후점수는 3.79점으로 유데모니아 점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변화는 아니었다($p<.05$).

학교급별로 구분하여 유데모니아 점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중학교 학생 이하 청소년의 사전점수는 3.75점, 사후점수는 3.78점으로 다소 증가한 반면, 고등학교 학생의 경우 사전점수는 3.89점, 사후점수는 3.80점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중학교 이하 학생의 유데모니아 점수는 증가하고, 고등학교 학생의 유데모니아 점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러한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로 검증되지는 않았다($p<.05$).

사업 지역별로 구분하여 유데모니아 점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이천지역의 경우 사전점수는 3.96점, 사후점수는 3.88점으로 다소 감소하였으며, 군산지역의 사전점수는 3.74점, 사후점수는 3.71점으로 군산지역 역시 다소 감소하는 변화를 보였다. 지역별로 구분하여 살펴본 유데모니아 점수의 변화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p<.05$).



[그림 II-6] 성, 학교급, 지역별 유데모니아의 변화(성별차이 점수 일치)

4) 관계 지표 영역 분석결과

(1) 전반적 인간관계 만족도

전반적인 인간관계 만족도는 자신의 전반적인 인간관계에 대한 만족 정도 10점 만점으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은 경우 인간관계에 대해 만족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체 응답자의 전반적인 인간관계 만족도는 <표 II-7>에 제시된 바와 같다. 사전점수는 7.50점, 사후점수는 7.57점으로 사업 참여 이후 인간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러한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는 아니었다($p<.05$).

전반적인 인간관계 평균점수의 변화를 성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남자의 경우 사전점수는 7.62점, 사후점수는 7.59점으로 다소 감소하였으며, 여자의 경우 사전점수는 7.46점, 사후점수는 7.56점으로 다소 증가하여 성별로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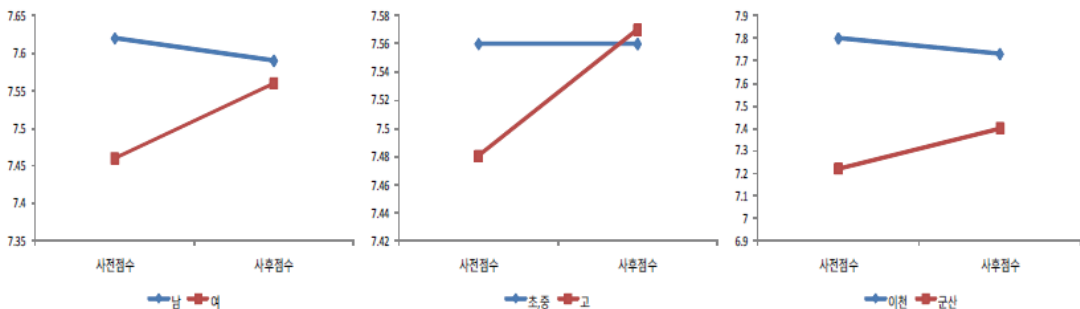
변화는 아니었다($p<.05$).

표 II-7 전반적 인간관계 만족도 사전-사후 검증 결과

구분		사전점수		사후점수		t	p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성	남(n=39)	7.62	1.968	7.59	1.874	.111	.912
	여(n=90)	7.46	1.664	7.56	1.806	-.537	.593
학교급	초,중(n=36)	7.56	1.889	7.56	1.889	.000	1.000
	고(n=93)	7.48	1.711	7.57	1.802	-.530	.597
지역	이천(n=64)	7.80	1.625	7.73	1.913	.261	.795
	군산(n=65)	7.22	1.841	7.40	1.721	-1.070	.289
전체(n=129)		7.50	1.755	7.57	1.819	-.421	.674

학교급별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중학교 이하 학생의 전반적인 인간관계 사전점수 평균과 사후점수의 평균은 각각 7.56점으로 변화가 없었으며, 고등학생의 전반적인 인간관계 사전점수 평균은 7.48점, 사후점수의 평균은 7.57점으로 다소 증가하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로 검증되지 않았다($p<.05$).

사업지역별로 구분하여 전반적인 인간관계 만족도 점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이천지역의 경우 사전점수는 7.80점, 사후점수는 7.73점으로 다소 감소한 반면, 군산지역의 경우 사전점수 7.22점, 사후점수 7.40점으로 증가하여 인간관계 만족도가 다소 긍정적으로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p<.05$).



[그림 II-7] 성, 학교급, 지역별 전반적 인간관계 만족도의 변화

(2) 생활 주변인에 대한 직접관계 만족도

자신의 생활 주변인에 대한 직접관계 만족도를 확인하기 위해 가족, 부모님, 친구, 학교 선생님 등 4개 항목에 대한 만족 정도를 각각 5점 만점으로 측정하였다. 4개 항목의 평균점수로 직접관계 만족도 점수를 산정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직접적인 관계에 대해 만족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체 응답자의 점수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직접관계 만족도는 <표 II-7>과 같다. 사전점수 평균은 4.00점, 사후점수 평균은 3.90점으로 다소 감소하였지만 이러한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는 아니었다. ($p<.05$).

표 II-8 직접관계 만족도 사전-사후 검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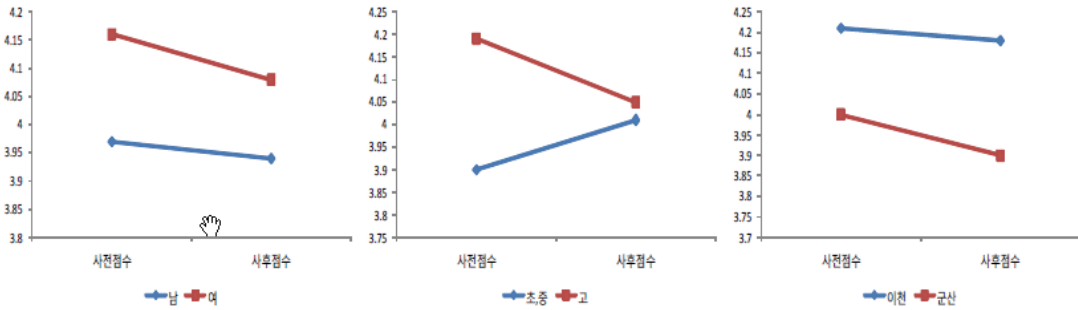
구분		사전점수		사후점수		t	p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성	남(n=39)	3.97	.678	3.94	.755	.350	.728
	여(n=90)	4.16	.652	4.08	.674	1.265	.209
학교급	초,중(n=36)	3.90	.730	4.01	.771	-1.034	.308
	고(n=93)	4.19	.620	4.05	.674	2.316	.023
지역	이천(n=64)	4.21	.602	4.18	.664	.459	.647
	군산(n=65)	4.00	.705	3.90	.711	1.347	.183
전체(n=129)		4.10	.663	4.04	.700	1.263	.209

성별로 구분하여 직접관계 만족도의 변화를 살펴보면, 남자의 경우 사전점수 평균은 3.97점, 사후점수 평균은 3.94점으로 다소 감소하였으며, 여자의 경우 역시 사전점수 평균은 4.16점, 사후점수 평균은 4.08점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러한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p<.05$).

학교급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중학교 이하 학생의 직접관계 만족도 사전점수 평균은 3.90점, 사후점수 평균은 4.01점으로 다소 증가한 반면, 고등학교 학생의 직접관계 만족도 사전점수 평균은 4.19점, 사후점수 평균은 4.05점으로 다소 감소하였다. 하지만 두 집단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는 아니었다($p<.05$).

사업 지역별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이천지역 청소년 응답자의 직접관계 만족도 사전점수 평균은 4.21점, 사후점수 평균은 4.18점으로 다소 감소하였으며, 군산지역 청소년 응답자의

직접관계 만족도 사전점수 평균은 4.00점, 사후점수 평균은 3.90점으로 역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러한 변화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변화는 아니었다($p<.05$).



[그림 II-8] 성, 학교급, 지역별 직접관계 만족도의 변화

(3) 자신의 이웃에 대한 간접관계 만족도

간접관계 만족도는 이웃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만족을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좋을수록 관계에 만족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체 조사대상자의 응답 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간접관계 만족도는 <표 II-9>와 같다. 사전점수 평균은 3.78점, 사후점수 평균은 3.71점으로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는 아니었다($p<.05$).

표 II-9 간접관계 만족도 사전-사후 검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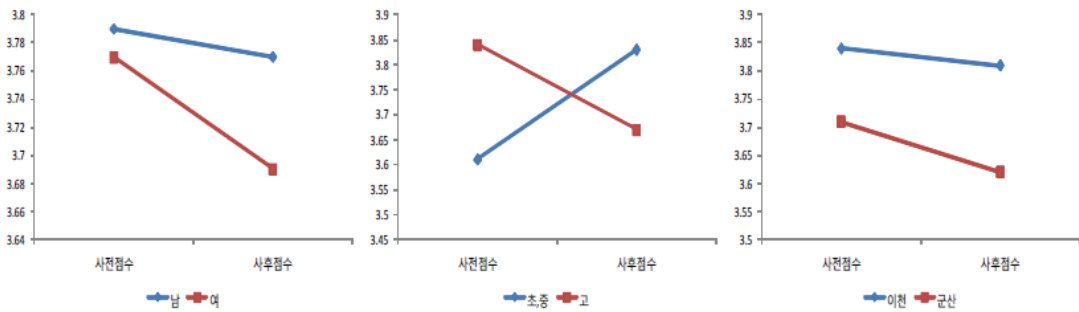
구분		사전점수		사후점수		t	p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성	남(n=39)	3.79	.801	3.77	.959	.172	.864
	여(n=90)	3.77	.822	3.69	.907	.796	.428
학교급	초,중(n=36)	3.61	.803	3.83	.910	-1.485	.147
	고(n=93)	3.84	.811	3.67	.925	1.811	.073
지역	이천(n=64)	3.84	.781	3.81	.814	.293	.771
	군산(n=65)	3.71	.843	3.62	1.011	.747	.458
전체(n=129)		3.78	.812	3.71	.920	.762	.448

성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남자의 경우 간접관계 만족도 사전점수 평균은 3.79점, 사후점수

평균은 3.77점으로 나타났으며, 여자의 경우 간접관계 만족도 사전점수 평균은 3.77점, 사후점수 평균은 3.69점으로 나타났다. 남자, 여자 모두에서 간접관계 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는 아니었다($p < .05$).

학교급별로 구분해서 간접관계 만족도 점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중학교 이하 학생의 경우 사전점수 평균은 3.61점, 사후점수 평균은 3.83점으로 다소 증가한 반면, 고등학교 학생의 경우 사전점수 평균은 3.84점, 사후점수의 평균은 3.67점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적 변화량이 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로 검증되지는 않았다($p < .05$).

사업지역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이천지역 청소년의 간접관계 만족도 사전점수 평균은 3.84점, 사후점수 평균은 3.81점으로 나타났으며, 군산지역 청소년의 간접관계 만족도 사전점수 평균은 3.71점, 사후점수 평균은 3.62점으로 나타나 두 지역 모두에서 간접관계 만족도는 낮아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는 아니었다($p < .05$).



[그림 II-9] 성, 학교급, 지역별 간접관계 만족도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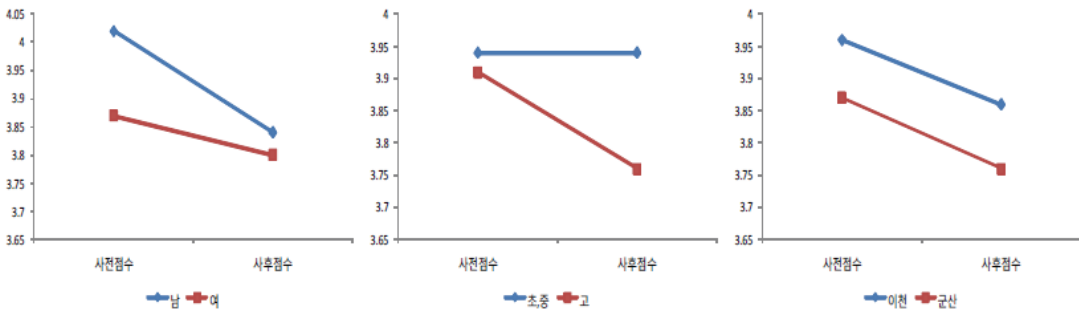
(4) 자신의 주변인에 대한 직접관계 신뢰도

직접관계 신뢰도는 부모님, 친구들, 선생님, 이웃사람들 등에 대해 신뢰하는 정도를 5점척도로 측정하였다. 각 응답의 평균점수를 계산하여 직접관계 신뢰도 점수를 산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신뢰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전체 조사대상자의 응답을 기준으로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직접관계 신뢰도 사전점수 평균은 3.87점, 사후점수 평균은 3.76점으로 나타나 직접관계 신뢰도는 다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래 <표 II-10>에서와 같이 이러한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로 검증되었다($p < .05$).

표 II-10 직접관계 신뢰도 사전-사후 검증 결과

구분		사전점수		사후점수		t	p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성	남(n=39)	4.02	.619	3.84	.581	2.084	.044
	여(n=90)	3.87	.649	3.80	.590	1.154	.251
학교급	초,중(n=36)	3.94	.744	3.94	.616	.000	1.000
	고(n=93)	3.91	.601	3.76	.589	2.501	.014
지역	이천(n=64)	3.96	.663	3.86	.612	1.238	.771
	군산(n=65)	3.87	.622	3.76	.588	1.664	.101
전체(n=129)		3.92	.641	3.81	.558	2.040	.043

성별로 구분하여 직접관계 신뢰도의 변화를 살펴보면, 남자의 경우 사전점수 평균은 4.02점, 사후점수 평균은 3.84점으로 나타나 남자의 경우 사업참여 이후 직접관계 신뢰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러한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5$). 여자의 경우 사전점수 평균은 3.87점, 사후점수 평균은 3.80점으로 역시 감소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는 아니었다($p<.05$).



[그림 II-10] 성, 학교급, 지역별 직접관계 신뢰도의 변화

학교급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중학교 이하 학생의 직접관계 신뢰도 사전점수 평균과 사후점수 평균은 각각 3.94점으로 변화가 없었으며, 고등학교 학생의 직접관계 신뢰도 사전점수 평균은 3.91점, 사후점수 평균은 3.76점으로 나타나 고등학생의 경우 사업 참여 이후 직접관계 신뢰도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5$).

사업지역별로 구분하여 직접관계 신뢰도 점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이천지역의 경우 사전점수 평균은 3.96점, 사후점수 평균은 3.86점으로 나타났으며, 군산지역의 사전점수 평균은 3.87점, 사후점수 평균은 3.76점으로 두 지역 모두 사업 이후 사업참여 청소년들의 직접관계 신뢰도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로 검증되지는 않았다($p<.05$).

(5) 국가 및 주요 기관에 대한 간접관계 신뢰도

간접관계 신뢰도는 우리나라 전체, 사이버공간, 주요 기관(지역사회 전문기관, 지방정부기관, 중앙정부기관)에 대해 신뢰하는 정도를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5개 항목 응답 점수의 평균을 계산하여 간접관계 신뢰도 점수를 산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간접관계 신뢰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조사대상자 전체 응답을 중심으로 간접관계 신뢰도 점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표 II-11>에 제시된 바와 같다. 사전점수 평균은 3.02점, 사후점수 평균은 3.03점으로 간접관계 신뢰도가 다소 증가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는 아니었다($p<.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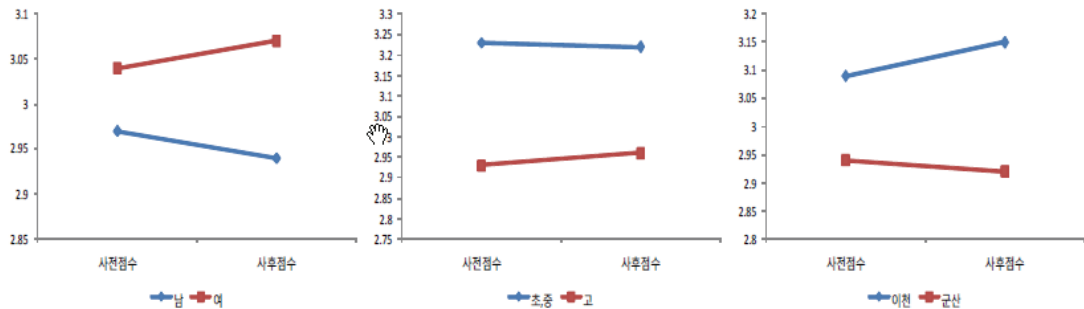
표 II-11 간접관계 신뢰도 사전-사후 검증 결과

구분		사전점수		사후점수		t	p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성	남(n=39)	2.97	.581	2.94	.631	.270	.789
	여(n=90)	3.04	.550	3.07	.594	-.505	.615
학교급	초,중(n=36)	3.23	.550	3.22	.529	.155	.877
	고(n=93)	2.93	.542	2.96	.599	-.448	.655
지역	이천(n=64)	3.09	.588	3.15	.503	-.721	.474
	군산(n=65)	2.94	.523	2.92	.676	.314	.755
전체(n=129)		3.02	.558	3.03	.606	-.300	.764

성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남자의 경우 간접관계 신뢰도 사전점수 평균은 2.97점, 사후점수 평균은 2.94점으로 다소 감소한 반면 여자의 경우 간접관계 신뢰도 사전점수 평균은 3.04점, 사후점수 평균은 3.07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남자의 변화와 여자의 변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p<.05$).

학교급별로 구분하여 간접관계 신뢰도 점수의 변화를 비교해 보면, 중학교 이하 학생의 사전점수 평균은 3.23점, 사후점수 평균은 3.22점으로 약간 감소하였으며, 고등학교 학생의 사전점수 평균은 2.93점, 사후점수 평균은 2.96점으로 다소 증가하였지만 이러한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는 아니었다($p<.05$).

사업지역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이천지역 청소년들의 간접관계 신뢰도 사전점수 평균은 3.09점, 사후점수 평균은 3.15점으로 증가한 반면, 군산지역 청소년들이 간접관계 신뢰도 사전점수 평균은 2.94점, 사후점수 평균은 2.92점으로 감소하였다. 하지만 두 지역 모두에서의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검증되지 않았다($p<.05$).



[그림 II-11] 성, 학교급, 지역별 간접관계 신뢰도의 변화

5. 시사점 및 종합제언

1) 시범사업 효과분석에 따른 시사점

2016년도 시범사업 활동 프로그램은 2015년도 시범사업 지역의 경험을 토대로 보다 실현 가능한 영역을 중심으로 실시하였다. 또한 효과분석을 위한 사전 및 사후조사 설문지도 주관적 복지와 자신의 주변인에 대한 직접관계 혹은 간접관계 중심으로 만족도를 비교하였다.

조사대상자들의 사전점수에 비해 사후점수 평균은 2015년도와 마찬가지로 크게 높아지는 경향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여전히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긍정적인 정서 변화, 주변인들과의 직접 관계 등 일부 문항에서는 사후점수가 사전점수보다 오히려 감소하는 결과도 보였다. 이는 청소년 참가자들이 사전조사 시 자신이 처한 가정 및 학교 환경에 대해 우호적으로 응답한 다음 사후조사에서도 별 차이가 없다는 점을 인식할 수도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이어지는 후속 연구에서는 사전조사 시 응답자들에게 설문조사의 취지를 설명하여 자신의 생각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

반면, 전반적인 인간관계 만족도는 시범사업 2차 지역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나 시범사업 1차 지역은 낮아지는 경향을 보여 대비되는 현상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범사업이 1년 단위의 단편적인 실시보다는 최소한 3-5년의 중장기적인 접근 방식이 더 유효할 수 있을 거라는 예측이 가능한 결과로 볼 수 있다.

2015년도에 이어 2016년도까지 2년간의 시범사업 자체가 새로운 시도 단계인 만큼 일정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과정이 미흡할 수도 있다. 단 기간의 활동 참여와 단편적인 프로그램이 전국 단위로 표준화된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로 효과를 연계하는 과정에 한계가 있음을 2015년도에 이어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2017년도 시범사업에서는 현재 개발된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를 토대로 각 영역별 활동과 프로그램의 내용을 반영한 별도의 효과분석을 위한 설문지를 제작할 필요성을 제언하고자 한다.

금년에 이어 2017년에도 유사한 시범사업이 진행될 경우 단순히 리커트 척도를 이용한 양적조사를 포함하여, 사업에 참가한 지역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이 과정을 통해 시범사업에 참가 경험이 자신의 생활과 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고 관련 요인들을 분석한다면 보다 풍부한 성과를 도출할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시범사업을 지역의 다양한 청소년들이 각자의 재능에 맞는 역할을 수행하여, 자신의 발전을 꾀하고 나아가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의 운영과 성과 측정 방식을 구조화 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2) 경제영역

경제영역인 청소년협동조합 활동은 청소년의 주체적인 경제 및 진로 활동을 지향하고 청소년을 격려하고 지지하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하였다. 본 활동은 실제적인 경제 활동을 통한 경제관념 체득과 진로탐색, 활동을 통한 청소년의 사회적 책임 도모, 그리고 구성원 간의 연대활동과 지역 공동체의식 함양을 목표로 두었다.

본 활동의 청소년들은 제품 선정 및 제작, 시장조사, 홍보, 판매, 회계 등의 경제활동을 계획 및 운영을 하며 실제 경제활동을 하였다. 재화와 노력, 시간을 유효하게 쓰려는 경제관념을 습득하였고 최종 평가에 따르면 실제 마케팅과 경영의 역할을 알 수 있어 진로탐색에도 도움이 되었다고 5점 척도 설문지에서 83.3%의 청소년이 4.5점에 응답하였다. 팀 구성 및 활동 계획,

추진뿐 만 아니라 프리마켓 TFT를 통해 청소년 프리마켓 장소 섭외와 홍보, 이벤트와 총괄 진행을 맡으며 청소년 프리마켓을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만들어간 점이 특징이다.

또한 지역사회 내 기부활동은 협동조합 운영의 필수 조건 중 하나인데 청소년 프리마켓의 수익금 중 10%이상을 기부금으로 활용하였다. 청소년 주도로 지역 내 노인복지관 담당 사회복지사와 논의하여 기여활동을 기획·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청소년 또한 사회의 시민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도모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청소년 프리마켓 운영 및 준비 회의를 통해 청소년 간의 교류와 의견을 수렴하면서 연대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었고, 멘토와의 연계활동 및 달그락달그락 내 자원활동가 조직인 꿈청지기의 지원, 그리고 지역사회 내 많은 상가들이 함께 청소년 경제활동을 지원한 것이 의미가 있었다. 동시에 청소년 프리마켓에 지원을 해주신 분들께 감사인사와 감사의 의미가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여 청소년을 격려하고 지지하는 지역사회의 지지체계 형성에 도움이 되었다.

실제 청소년 주도의 경제 경험과 활동을 통한 청소년과 지역사회의 공동체성 함양, 지역사회 기여 활동을 통한 시민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느낄 수 있었다. 이는 대체적으로 청소년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사회에 참여하였고, 지역사회 다양한 구성원 간의 교류를 통해 청소년 지지체계를 형성한 점에서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시범 사업의 목적과 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동시에 다소 아쉬운 점은 청소년 협동조합 달그락달그락 7개 팀 중 3~4팀의 참여도가 높지 않아 팀 간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다. 이에 따라 활동 기획과 준비과정이 지연되고 운영이 원활히 진행되기 어려웠다. 청소년 협동조합 달그락달그락은 연대와 참여가 뒷받침되지 못한다면 진행이 어려운 활동이다. 또한 학사과정으로 인한 시간부족과 전문적 경험이 부족한 청소년 입장을 보면 현재 청소년 프리마켓이 전문성과, 상품성, 지속성이 타 경제활동에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다. 이 같은 총평을 통해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청소년 협동조합을 준비하는 청소년자치기구 혹은 참여 청소년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협동조합과 프리마켓을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

본 활동의 주체는 청소년으로서 실무자는 청소년이 활동 기획 및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청소년이 본 활동에 대한 주인의식의 정도가 활동 참여수준과 활동 진행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다수 청소년의 참여를 전제로 하는 활동은 일부 청소년의 낮은 참여도로 인해 결정이 지연되고 참여 청소년 간의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의 우려가 있었다. 그러므로 청소년이 활동에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주기적인 동기부여가 필요하고, 청소년의 욕구 조사 및 강점을 활용한 역할과 권한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또한 회칙 제정, 프리마켓 기획·운영에 필요한 교육과정, 선진지 답사 등을 청소년과 실무자가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청소년에게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둘째, 물품 제작 및 판매 활동뿐만 아니라 청소년 프리마켓의 전체적인 운영기획 역할을 하는 TFT를 체계화해야 한다.

활동 모집 시 제작 및 판매하는 물품을 기준으로 팀 구성이 되었다. 이후 프리마켓과 같은 행사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운영자의 역할이 필요하여 프리마켓 TFT가 구성되었다. 프리마켓 TFT는 사전에 프리마켓 홍보활동을 계획하여 진행하는 홍보팀, 프리마켓 진행 시 판매촉진과 흥미유발을 위한 이벤트를 담당하는 이벤트팀, 사전에 판매활동으로 적절한 장소를 조사하고 섭외하는 조사팀으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프리마켓 TFT 활동은 청소년 주도의 프리마켓 운영과 지역사회와의 긍정적인 관계형성, 실제 기획 활동을 통한 진로 체험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이에 청소년과 실무자가 함께 논의하여 하반기 활동 계획 후 그에 필요한 역할을 규정하여 TFT와 추진위원회 구성을 체계화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청소년들의 경제활동을 격려하고 지원하는 지역사회의 후원회 및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청소년은 전문성과 계획성, 사업성을 갖고 경제활동을 기획·운영하기에 어려움이 따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실제로도 본 활동 당시 멘토와의 연계 활동 전후의 청소년 경제활동 계획과 추진력이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그리고 경제활동 특성상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판매와 소비자의 유입, 적극적인 홍보, 지역 내 인지도 등이 있어야 프리마켓으로써 지속가능할 수 있다. 기성 프리마켓의 경우,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선점하였고 다양한 경로의 홍보를 통한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기성 프리마켓과 청소년 프리마켓이 연합하여 더욱 활성화되고 공동체성 함양의

기회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청소년을 격려하고 지지하는 지역사회 조성이라는 본 사업 목적을 이루기 위해 지역사회 내에서 전문가를 섭외해야 한다. 금전적 대가 대신 공동체적 가치를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와의 연계가 가장 중요할 것이다. 그러므로 실무자가 청소년 조직을 운영함과 동시에 지역의 청소년 경제활동 지원 가능한 네트워크 구축 및 청소년과의 연계 계획을 함께 논의하는 데에도 집중해야 한다.

넷째, 지속가능한 공동체적 협동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공동체 조직 및 운영에 기본적인 이해와 철저한 준비과정이 필요하다.

예비 협동조합으로써 지속가능한 체계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자발적인 공동체가 형성이 되어야 한다. 조합원 간의 민주적 절차가 이루어지려면 조합원의 높은 참여수준과 이해와 존중이 바탕이 된 연대가 필요하다. 본 사업 목적인 청소년 친화적인 지역사회 조성에 동참하고자 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하지만 협동조합의 정신인 자발성과 연대성, 그리고 사업성을 가진 공동체가 단기간에 형성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이유로 협동조합의 법적인 근거를 갖는 과정까지 도달하지 못하였으나 협동조합의 7대 원칙을 바탕으로 한 활동을 지향하였다. 본 연구소의 경우, 전북사회경제포럼과 전북경제통상진흥원 등의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하는 체계가 주변에 있어 협동조합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과 컨설팅, 다른 협동조합 간의 네트워킹 등이 가능했다. 이러한 지원체계를 적극 활용한다면 보다 공동체적 특성을 띤 협동조합 설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청소년 협동조합 추진위별 특성에 맞는 진행과정 지원 및 연합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경제 활동하는 청소년자치기구는 학교, 학년, 위치, 입시상황 모두 다르다. 또한 각 팀마다 동기부여 정도와 활동의 이해도, 시간적 여유, 공간의 접근성, 실무자와의 관계, 팀 내 관계 등 다르다. 실무자는 팀마다 다양한 특성을 분석하고 고려하여야 하며 원활한 연합활동을 이끌어야 한다. 청소년 프리마켓의 주체인 청소년들이 서로 교류와 의사소통이 부족하면 활동의 진행 과정과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일 미칠 수 있다. 그러므로 각 팀 청소년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서로 도울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서로 단합할 수 있는

단합회, 체육대회, 레크레이션 등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연합활동의 활성화에 힘써야 한다.

3) 참여영역

참여영역인 청소년의회를 중심으로 한 사회참여 네트워크 사업은 청소년이 지역사회 청소년문제를 스스로 찾아내고 해결하려는 자기주도성 강화, 청소년의회를 통한 청소년의 정책제안을 지방의회에 반영할 수 있는 토대마련, 청소년이 지역사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시민으로서 역할강화, 청소년의회·참여예산 아카데미를 통한 정책이해와 의회조직 구성을 목표로 진행하였다.

청소년은 미래의 주역이 아닌 현재의 시민(Citizen)으로서 지역사회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그 책임을 할 수 있다. 본 연구소에서는 청소년의회를 중심으로 한 사회참여 네트워크 활동을 전개하고 세부적으로 청소년의회, 청소년기자단, 청소년자치권확대 조례구성 TFT활동, 청소년 참여포럼을 통해 청소년의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였다. 청소년의회아카데미, 청소년기자학교, 청소년참여예산학교의 교육과정을 마련해 지역청소년의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지난해 청소년 움부즈퍼슨, 청소년 CEO활동등을 진행한 가운데 본연구소에서 청소년 참여포럼을 통해 정책제안 내용으로 군산시는 ‘어린이-청소년의회’를 발족하였다. 청소년의회는 군산시가 운영하고 본연구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청소년 의회활동은 청소년이 실제적으로 정책 참여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사회참여 의식 향상과 정책입안 결정 과정에 대한 이해를 통해 시민으로서 권리를 행사 할 수 있게 되었다. 청소년 기자단은 기자교육을 시작으로 3개팀(문화, 교육, 정치사회) 25명의 청소년들이 2기 청소년 기자단 발대식을 통해 활동을 시작하였다. 학업적인 측면이 아닌 성교육, 인권교육 등 청소년 관련 교육의 허상을 짚는 보도가 돋보였다. 청소년이 칼럼 작성을 통해 청소년들의 관련 현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현장 취재실습 등 학습은 진로체험의 장이 되었다. 작년부터 활동한 청소년이 주도하여 팀 회의를 이끌고 그 청소년들이 청소년의회지원, 참여포럼추진위원회 구성하여 주체적으로 참여한 점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다른 청소년들의 참여와 동기를 높였으며 향후 계획을 스스로 기획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청소년의 의견을 반영한 의회활동 부족, 의회와 기자단의 내용 연계, 지역사회 청소년사회참여 조직의 연대부족 등 몇 가지 보완점도 있지만 이는 향후 활동을 진행하면서 충분히 보완 가능한 내용이라고 보인다. 청소년의회, 청소년기자단, 청소년참여포럼 등의 활동이 전국적인 청소년사

회참여 활동으로 확산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민·관 협력과 청소년의 주도적인 활동 구성으로 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며 진행된 활동을 기반으로 몇 가지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자치성을 살리기 위해 지속적인 토론과 논의를 통한 소통과 공감대 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팀활동은 청소년의 자체적인 토론과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변화한다. 공동체 안에서 만들어낸 규칙과 내용이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점이다. 청소년의 생각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브레인스토밍 방식의 회의와 활동을 구성하고 팀원의 역할 부여가 필요하다. 실제로 활동을 진행하면서 논의 사항 및 활동내용에 대해 조사 해오고 발전에 대한 고민이 있는 청소년과 그 청소년이 속한 팀은 활동의 목적에 맞는 내용을 이끌어 내는것에 뛰어났다. 이렇게 참여하고 활동한 청소년은 다른 네트워크 활동과 연합내용을 준비할 때에도 적극적인 모습으로 이끌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둘째, 참가자들 스스로 중간평가를 통해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하며, 이를 위한 교육과 훈련과정을 개설 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활동을 진행하면서 청소년의 필요에 의한 내용이 드러난다. 청소년과 지역의 의사소통과정에 대한 개선 제안과 지역인 인터뷰를 통해 이를 해결하고 보완해 나가는 점을 볼 수 있었다.

셋째, 지자체와 지역 청소년 기관-단체는 활동 진행시에 청소년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통로를 마련하여, 주체적으로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청소년의회 운영에 각 상임위원 멘토와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이 논의 할 수 있는 회의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논의를 통해 나온 제안사항을 운영 담당자와 재논의하고 참여를 보장하는 의회의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지자체 예산과 정책을 분석하고 모니터링 하는 활동을 통해 실제적인 예산을 제안 할 수 있는 안건을 상정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회는 첫해년도에 활동을 보완하고 다음연도에도 운영을 지속하고 정책제안의 실질적인 통로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지역을 기반으로 한 청소년 조직의 사회참여 네트워크 교류 및 연대가 필요하다.

지역에는 청소년의회, 청소년기자단, 군산청소년 학생연합, 중고등학교 네트워크 등 청소년 사회참여 활동 관련 조직들이 있다. 활동을 진행하면서 각 단체간의 협력이 미비한 점을 볼 수 있었다. 각 별로 토론회를 열고 정책 안건을 내는 과정에서 중복되는 경우가 있다. 실제로 활동할 때에 공통적인 합의점을 찾아 토론과 논의를 통해 공동 네트워크 조직을 결성하고 연대활동(청소년 참정권 등)을 수행하여 청소년 참여 운동을 펼칠 수 있어야 한다. 사례로 이번 ‘군산시청소년자치권확대조례’를 제정한 것은 청소년이 시의원과 대등한 관계 안에서 논의한 결과이며 모바일 앱을 통한 정책제안과 정보공개 창구를 개설한 것은 청소년의 참여권을 실현 할 수 있는 초석이 되었다. 향후 조례에 근간한 활동을 수행할 때 지역 내 청소년 네트워크의 활발한 연대와 토론을 통해 활동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다섯째, 청소년참여활동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를 지원하는 성인 조직 네트워크 구성과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연간 계획 수립 및 운영을 함께 검토하고 추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공공기관과 민간단체의 명확한 역할구분과 협력적 관계에 의해 지자체는 다양한 청소년지원 연간계획수립하고 활동프로그램은 민간단체에서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지역사회 중심의 청소년 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가진 공신력과 추진체계, 민간 청소년 전문단체의 전문성과 활동경험을 활용 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청소년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청소년 조직과 성인 조직의 장기적인 비전을 그리는 작업이 필요하다. 지속적인 논의로 청소년 참여에 대한 발전을 모색해야하며 이것은 구조적인 틀을 마련하여 지켜나가는 것으로 실현 할 수 있을 것이다. 사례로 본연구소의 참여포럼은 행사진행부터 공동체 활동, 토론과 발표까지 청소년이 진행하였으며, 각 분야의 전문가와 시의원, 지자체 관계자등이 청소년들의 발표에 대한 제언이 으로 향후 정책제안에 대한 지원이 있었다. 달달포럼에서는 청소년 지역 네트워크에 대해 문화 예술, 의료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논의를 펼쳐 공론화 할 수 있었다.

4) 관계 · 활동영역

활동영역의 목표는 청소년들이 역사 및 문화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면서 지역의 근대역사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이를 이해하는 것이었다. 또한 청소년들이 동아리 활동을 통해 지역에 대한 주인의식 및 책임감을 형성하고, 지역에 영향을 주는 활동을 통해 주체성을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러한 목표를 바탕으로 역사 및 문화활동을 진행하였다. 우선 역사활동으로 독도문제 인식개선 캠페인, 지역인물을 중심으로 살펴본 역사체험활동 및 글쓰기, 일제강점기 지역의 항쟁운동에 대한 청소년 강사의 강의와 역사지 탐방, 지역의 근대역사지 개발방식에 대한 역사토론회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문화활동은 청소년의 사회참여와 소셜미디어의 관계성을 살펴보는 미디어 강의, 어르신의 삶을 글로 작성하는 저서작업, 지역사회 기여를 위한 사진 및 영상활동에 대한 아카데미를 진행하였다. 활동영역에서는 역사 자치기구, 블로거 자치기구, 영상제작 자치기구가 캠페인 2회, 체험활동 4회, 토론회 1회를 진행 및 참여하였다.

역사 자치기구의 청소년들은 자신이 직접 기획, 진행하는 캠페인, 탐방, 토론회 등을 거치면서 지역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정도가 많아졌다. 시작 시점에서는 주요 사회적 이슈인 독도문제에 대한 캠페인을 진행하였지만 역사탐방활동은 항일 역사 중 지역의 역사에 대해 살펴보았다. 청소년 자치기구의 청소년들이 스스로 탐방 방식을 결정하였고, 직접 지역의 항일역사에 대해 강의를 하는 등 주도적인 모습을 보였다. 역사토론회를 진행할 때에는 새롭게 참여하는 청소년들이 지역의 역사 및 역사문제에 대해 잘 살펴볼 수 있도록 안건의 내용에 대한 강의 자료를 준비하여 설명하였고, 유도 질문 및 사전 모의 시연 등을 진행, 참여자 모집 및 목표에 따른 설문조사지 제작까지 하는 등 지역의 역사에 대해 알리고 소통하고자 하는 책임감 및 주인의식을 보였다. 참여 청소년들이 역사탐방지에 대한 강의 및 역사토론회를 준비, 진행하면서 근대역사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살펴보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였다. 활동과정 중 청소년들은 역사탐방 및 강의 시 스스로의 준비가 부족했다고 평가하고 후에 진행된 토론회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다함께 논의하고, 자료를 찾는 과정을 거치는 등 타인과 소통하는 것에 대해 책임감을 좀 더 느끼게 되었다.

블로거 자치기구 및 영상 자치기구 청소년들은 지역인물을 통해 현충일의 의미를 살펴보고 글로 작성하면서 지역의 인물에 대해 온라인 활동으로 알리는 경험을 하였으며, 온라인매체 활용의 중요성에 대한 미디어 특강에 참여하였다. 또한 현재 함께 살아가는 지역의 어르신들

이야기를 글로 표현함으로써 개인 및 지역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게 되었다.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알게 되었다.”, “할아버지가 대단하시다.”, “내 모습을 다시 살펴보게 되었다.” 등의 표현을 하고, 불편한 인터뷰 환경에서도 불편함을 표현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으며, 인터뷰 후 녹취, 그룹으로 글쓰기, 책으로 묶어 편집하기 등의 활동을 새롭게 해나가는 모습을 통해 그 전의 활동보다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 협동하는 모습을 보였다.

역사 및 문화 활동은 청소년들이 스스로 기획하여 지속적으로 활동을 이어나감으로써 더욱 발전적인 모습들이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역사 활동기구는 마지막 연합활동인 토론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논의 및 준비하는 시간이 훨씬 늘어났으며, 역할이 분담된 내용에는 마무리하는 등 책임감을 가졌다. 블로거와 자치기구 운영은 역사체험활동의 과정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글쓰기에 들이는 시간이 많아져 서로의 글 작성을 도와주는 과정이 늘어났다. 영상 자치 기구는 지속적인 도전거리를 찾아 신속하게 활동을 이어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 진행 중 활동에서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다. 청소년들이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는데 있어서 소극적인 청소년들이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청소년들이 스스로 준비하기로 한 활동의 준비가 미흡한 경우, 연합활동 시 실무자와 청소년, 실무자와 또 다른 실무자 간의 소통이 부족했던 경우 등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과 긍정적 지원을 위한 몇 가지 실천적 제안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역사 및 문화활동 시 청소년들의 주도성을 살릴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실천해야 한다.

활동 전반에서 청소년들의 주체성을 살린 몇 가지 방법으로 첫째 청소년들이 직접 다른 청소년에게 설명하고 알려주는 강의를 진행하는 방법이 있다. 청소년은 자신이 직접 강의를 함으로써 활동의 취지를 다시 생각해보고 책임감을 가지고 활동에 임하게 되었다. 둘째, 실무자가 청소년들에게 자치기구 참여 동기를 반복하여 상기시키는 것이다. 처음 활동의 시작 전에 활동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질문을 깊게 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 세 번째, 자치기구 리더가 팀원인 청소년들이 회의안건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질문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 실제 자신이 제안한 내용이 회의에서 결정되어 실제로 진행되는 경우 해당 청소년의 참여도가 높았다. 네 번째, 청소년이 회의에서 결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활동하도록 실무자가 청소년에게 지속적으로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을 상기시키는 경험이 필요하다.

활동에서 힘든 부분이 있을 경우 회피하려는 행동을 보이는 청소년들이 있으며 이럴 때 실무자가 청소년들에게 한 번 더 책임감을 부여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실무자가 청소년 개인마다, 자치기구 마다의 강점을 파악하여 지속적으로 피드백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각 청소년의 강점을 반복하여 피드백 해주면 청소년들이 스스로 자신의 강점을 인지하고 말하기도 하였다.

둘째, 역사체험활동이나 역사토론 등 역사를 주제로 활동하는 경우, 참여 강사는 사전에 관련 정보를 충분히 준비하여, 청소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

현충일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는 역사체험활동은 향토사학에 학식이 있는 성인 강사가 진행하여 정보는 충분 하였지만 참여한 청소년들이 어렵다는 평가가 많았다. 역사 자치기구 청소년들이 스스로 준비한 역사탐방활동은 참여 청소년들이 탐방장소와 내용에 대해 충분히 학습하는 과정이 부족하여 실제 다른 청소년들에게 강의할 때 매끄럽지 못하였고, 탐방장소의 봉사자에게 당일이 되어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반면 역사토론회는 실무자가 정기적인 사전모임을 하도록 청소년 강사들에게 제안하였고, 여러 번의 사전회의와 논의를 진행하면서 토론회에 새롭게 참여하는 청소년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훨씬 줄었다. 따라서 역사를 주제로 활동하는 경우 정보를 찾도록 여러 번의 논의와 노력이 필요하고, 청소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충분히 논의 및 시연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청소년 리더와 실무자는 활동 과정에서 다각적인 동기부여의 역할을 해야 한다.

자치기구 활동이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활동에 적극적이지 못한 청소년들이 있다. 자치기구 활동은 청소년 리더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므로 리더가 적극적으로 팀원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리더가 소극적으로 활동하는 청소년들을 나무라거나 역할을 주지 않는 경우 청소년들이 오히려 더욱 참여하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다. 반대로 리더가 적극적인 격려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참여가 저조한 청소년들도 있다. 이때 실무자가 리더가 좌절감을 느끼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독려해야 한다. 실무자는 리더인 청소년에게 소극적인 청소년들과 리더의 소통과 같은 동기부여활동도 리더의 역할임을 이야기하고,

리더와 팀원 청소년들이 서로의 근황을 이야기 하는 자리를 가지도록 독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제 청소년 리더가 팀원들과의 소통을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 팀원인 청소년이 활동에서 소극적인 이유를 알게 되고 조정할 수 있었다. 또한 리더에게 자치기구 소속 청소년들의 강점들을 찾아 역할을 부여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실제로 실행을 하도록 살펴보고 피드백하는 과정을 반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실무자는 다양한 자치기구가 캠페인 등 연합활동을 진행하는 경우 청소년 자치기구와 실무자가 정확한 내용으로 소통하도록 소통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여러 개의 청소년 자치기구들이 활동을 진행하면서 자치기구 간 소통한 내용을 실무자에게 전달하지 않아 활동이 늦어지거나 준비가 미흡해지는 부분이 있었으므로 시작할 때부터 서로 간 소통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에 대한 사전 약속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연합활동 회의가 진행이 된 후 각 자치기구별 활동이 진행되는 동안 연합활동에서 논의되었던 내용과 다르게 진행이 되어 활동에 혼란을 주는 상황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연합회의 시 결정된 내용이 진행되도록 연합활동을 담당하는 실무자와 자치기구 리더, 관련 실무자가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연합활동의 결의내용을 각 자치기구 담당자에게 정확히 전달하고 진행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실무자 역시 역사 및 문화활동에서 다양한 제반지식을 학습하여 청소년들과 활발하게 교류 하면서 활동을 돕는 것이 필요하다.

역사 및 문화활동을 청소년들이 기획하는 과정에서 좀 더 알아보고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해보기 위해서는 새로운 내용을 실무자가 제안하여 동기부여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역사토론 준비시 청소년들이 토론방식을 논의하기 전에 실무자는 여러 가지 토론방식을 살펴보고 청소년들의 역량에서 도전해볼 가치가 있는 내용을 찾아 알기 쉬운 영상으로 제시해주었고, 실제 그 방식을 살펴본 청소년들이 논의하여 방식을 수정하여 진행하였다. 기존에 활동하였던 방식이나 내용에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청소년 뿐 아니라 조금 더 빠르게 실무자가 조사 및 학습하는 것도 필요하다.

여섯째, 직업체험과 창업동아리 운영은 지역의 고등학교 및 관련 사업체 등과 연계하여, 다양한 자원받을 수 있도록 지역 특성에 맞는 운영이 필요하다.

이천시의 경우 직업체험 및 특성화 창업동아리를 운영하는데 있어, 한국도예고등학교를 비롯하여 지역의 도자기 생산 및 판매 업체 등과 연계하여 운영하였다. 그 결과 도자기 제작 공간, 동아리 활동 시간, 도자기 제작을 위한 물품 등을 지원받아 지역 특성에 적합한 직업체험 및 창업동아리를 운영할 수 있었다.

한편, 창업동아리 운영과 관련하여 지역 내 유사프로그램으로 인하여 참가자 모집이 어려웠으며, 도자기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것이 특성상 제작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불량률이 높기 때문에 경제적 효용성이 매우 낮다는 단점도 있었다.

결론적으로 금년도 시범사업에 참가한 군산시와 이천시 두 지역의 특징을 몇 가지 측면에서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두 지역 모두 아동과 청소년 중심의 정책추진과 청소년행복마을 운영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관심은 매우 높은 편이다. 하지만 군산시의 경우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직정비와 제도적인 뒷받침이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차별성을 갖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두 지역 역시 시범사업의 실무담당자들의 의지와 책임감을 높다고 판단된다. 반면,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동원할 수 있는 물적 인적자원을 연계할 수 있는 지역사회 네트워크 차원에서는 이천시가 매우 미흡한 상황임을 현장 확인으로 알 수 있었다.

셋째, 행정적으로는 같은 시 단위지만 이천시는 농산어촌 유형인데 비해, 군산시를 산업과 상업시설 중심의 인구와 학교 밀집 지역으로 사업에 참가하는 학생들과 운영 시설 면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지역별 특성화 유형과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 인적 물적 자원과 활용 가능한 인프라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 Ⅲ 장

‘청소년행복마을 만들기’ 국내외 유사 사례분석 및 시사점

1. 전국마을만들기 현황 및 지원체계 분석
2. 모두의 청소년 교육 ‘우리마을 교육나눔’ 사업 분석
3. ‘행복마을만들기’ 현장 사례조사 및 내용 분석

제 III 장

‘청소년행복마을 만들기’ 국내외 유사 사례분석 및 시사점

1. 전국 마을만들기 현황 및 지원체계 분석

1)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의 마을 만들기 정책 분석

중앙정부 차원에서 2014년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역공동체 조성 혹은 마을만들기 사업’ 현황을 부처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4).

안전행정부는 ①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②마을기업 지원사업, ③특수상황지역개발 사업, ④읍·면·동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⑤안심마을 사업 등이 있으며, 적용범위는 주로 도시와 농어촌, 그리고 특수상황 지역이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①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주거지재생, 중심시가지재생,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역량강화), ②도시재생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주로 농어촌을 중심으로 ①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읍면소재지종합정비, 권역단위종합정비, 신규마을조성, 기초생활인프라정비), ②함께하는 우리 농어촌운동(색깔 있는 마을), ③농어촌공동체회사육성사업, ④농어촌마을리모델링시범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환경부의 ‘자연생태우수·복원우수마을’과 해양수산부의 ‘어촌특화발전역량강화사업’등을 추진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부처별 마을공동체 사업의 목표는 지역의 특성과 기반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농산어촌의 경우는 급속한 젊은 층의 인구유출과 고령화에 따른 마을공동체 활성화 차원에서 기본적인 주거환경정비와 마을환경개선을 포함하여 인구유입과 지역특화 발전, 귀농귀촌 대책, 지속가능한 농어촌 건설 등을 추구하고 있다. 반면, 도시지역은 안전공동체 구축과 도시재생을 통한 ‘도시활력증진 사업’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청년층과 장년층, 그리고

노인에 이르기까지 일자리 창출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점을 반영한 마을발전계획의 수립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사업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수단은 기반시설 정비 중심의 개발 사업이나 주민공모사업을 통한 예산지원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 종 마을만들기 관련 정책들이 자칫 기존의 정부주도의 하향식(top-down) 접근방식을 답습할 경우 지속성과 내실 있는 성과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지역주민이 행복한 지역사회 혹은 마을만들기의 목표는 “마을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자율적인 의사소통과 협력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스스로 내생적인 역량을 형성하여 지속성을 유지하는 과정(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4:69)”으로서 주민 주도적인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따라서 마을공동체 구성원과 행정기관, 기획전문가 등 주체적인 참여자들이 소통과 공감을 통해 협력하고 스스로 질서와 체계를 만들고 지속적으로 수정하고 보완하는 개방적인 과정으로 추진해야 한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4).

한편,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현재까지 파악된 마을만들기 현황과 지원체계를 <표 III-1>과 같이 지원조례, 관련계획 및 사업, 운영주체, 운영협의회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광역지자체의 마을만들기 사업의 특징은 주로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법·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또한 서울특별시의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를 비롯하여, ‘인천시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 ‘부산시마을만들기지원센터’,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지원센터’, 전라북도마을만들기협력센터 ‘등의 운영주체 선정 및 운영협의회를 통해 지나친 행정 주도의 지원에서 탈피하여 민관협력을 강화하려는 추진방식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표 III-1 전국 광역지자체 마을만들기 현황 및 지원체계

광역 지자체	지원조례	관련계획 및 사업	운영주체	운영협의회
경기도	경기도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2012.8)	경기도 마을만들기 지원 계획	—	경기도 마을만들기위원회
서울특별시	서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지원 등에 관한 조례(2012.3)	서울시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 지원센터(2012.9)	서울시 마을공동체 위원회
인천광역시	인천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조례(2013.5)	—	인천시마을공동체만들 기지원센터 (2013.12)	—

광역 지자체	지원조례	관련계획 및 사업	운영주체	운영협의회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2012.7)	—	부산시마을만들기지원 센터(2013.5)	부산시 마을만들기위원회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사회적 자본 확충조례(2013.2)	—	사회적자본지원센터(2 013.10)	사회적자본 확충지원위원회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지원조례(2010.3)	—	—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위원회
세종특별 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조례(2013.7)	—	—	—
강원도	—	새농어촌 건설운동 기본계획	—	—
충청남도	살기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2012.12)	살기좋은 희망마을만들기	(지원센터 개설추진)	3농혁신위원회
충청북도	—	함께하는 청풍명월 마을만들기 사업	(사)주민참여도시만들 기지원센터 (충북대)	—
전라북도	전라북도 마을만들기 지원조례(2009.12)	—	전북마을만들기 협력센터(2009년)	—
제주특별 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만들기 지원조례(2009.1)	제주형 커뮤니티 비즈니스 마을	—	행정실무협의회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5), 경기도 마을만들기 지원계획 및 실행방안 연구, 재구성

2) 전국 ‘행복마을만들기’ 콘테스트 사례 분석 및 시사점

전국의 마을을 대상으로 2014년과 2015년 2회에 걸쳐 농림축산식품부 주최로 ‘행복마을만들기 콘테스트’를 개최하였다. 그 결과 매년 3개 경쟁 분야(경관·환경/ 체험·소득/ 문화·복지)에 각 9개씩 총27개 마을이 우수사례로 수상하였다. 이 중에서 사업의 내용과 사례가 청소년의 참여와 활동과의 연관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제1회(2014년) 8편과 제2회(2015년) 7편을 선정하여, 개요, 성공요인, 실천전략을 <표Ⅲ-2>와 <표Ⅲ-3>과 같이 요약하고, 청소년행복마을 구성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개요에는 마을위치, 인구수, 마을자원 등에 관한 개괄적인 내용을 제시하였으며, 성공요인과 실천전략을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모호하지만 핵심적인 추진 목표와 과정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이 자료를 토대로 총21개 마을의 ‘행복마을만들기’사례의 성공요인과 실천전략을 분석하고 ‘청소년행복마을’ 정책화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첫째, 주민의 인식변화와 역량강화를 위한 간담회, 교육, 현장견학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다(선율1리, 비자동마을, 가시리마을, 훈인지마을).

이 과정을 통해 지역사회의 자원에 대한 인식과 생태적 혹은 문화적 가치를 공유하고 주민 주도의 마을 만들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더불어 지역사회내외의 다양한 관련 기관 및 전문가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원체계와 상호협력 기반을 조성하였다. 이 과정에서 통해 지역축제를 기획부터, 팜플릿 제작과 축제진행까지 모두 마을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운영(금남리)하거나 주민이 직접 지역기업을 성공시킨 사례도 있었다(도계마을).

이러한 사례는 ‘청소년행복마을’만들기 과정의 첫 단계에서 마을의 비전과 목표를 수립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전에 청소년, 주민, 지도자, 지원조직 등을 대상으로 사전 이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점과 같은 맥락이다. 또한 참가 주체별 역할 규명과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간담회와 워크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서로에 대한 신뢰와 파트너십을 형성시킬 필요가 있다. 더불어 지역에서 청소년들이 자율적이고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이를 점차 확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청소년들은 주인의식과 책임감을 갖고 일을 추진할 수 있으며, 스스로 성취감을 맛보면서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부심을 갖게 될 것이다.

둘째, 행복한마을 만들기 사업을 이끌어 갈 의식 있고 헌신적인 마을리더의 역할이 중요하다(여물리 마을, 완정리·백화마을).

대부분 마을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지도자가 중요하지만 최근에는 귀향 혹은 귀촌·귀농한 지도자들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혼자 힘으로는 많은 애로사항 있는 만큼 지역사회 전문가, 활동가, 마을유지의 적극적인 협조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청소년행복마을의 관점에서도 처음부터 청소년들이 스스로 마을만들기 사업에서 동등한 구성원 혹은 주된 역할을 담당한다는 가정은 다소 어려운 현실이다. 따라서 지역의 청소년지도자 혹은 활동가들의 의식적인 노력으로 청소년들을 교육시키고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마을만들기 사업의 중요성과 역할을 논의하여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나아가 구체적인 실천전략을 협의하고 마을단위에 거점 공간(마을카페, 공방, 놀이문화거리 등)을 마련하여, 청소년들이 직접 운영해보려는 시도가 필요하다. 또한 청소년 활동가들은 마을 어르신들과 청소년들 혹은 가족단위의 문화·스포츠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세대통합의 장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바람직 할 것이다. 하지만 지도자 혹은 활동가들의 일차적인 역할은 청소년들이 자율성과 주도성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너무 일방적으로 모든 결정과 진행을 이끌어 나갈 경우 많은 부작용이 따를 수밖에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

셋째, 지역의 유무형의 자원을 매개로 다양한 형태의 행복공동체, 문화공동체, 생태마을 협의체 등을 구성하여 소통과 상생을 실천하였다(모꼬지마을, 대야도마을, 비자동마을, 소포마을, 혼인지마을)

특히 지역의 역사와 향토문화 자원을 개발하여 축제로 발전시켜 주민공동체를 회복하였다. 또한 어떤 마을은 사계절축제, 캠핑장, ‘토요상설공연장’등을 운영하여 마을사업의 지속성과 젊은 층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도 한다. 더불어 최근 증가하고 있는 귀농·귀촌가구, 외국인 이주자, 다문화 가정 및 이들의 자녀들과 어우러진 한마을 마을공동체로 발전시키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지역지도자들은 청소년들과 함께 마을 혹은 지역의 자원을 조사하고 자료를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와 자원지도(Resource Map)을 제작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마을공간의 이미지를 시각화하고 설치미술 계획하거나 전통문화를 마을축제와 연결시키는 등의 특성화 사업을 구상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청소년들은 다양한 협의체 혹은 동아리 활동으로 이어져 마을 만들기 사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넷째, 폐교를 활용한 ‘농촌유학 프로그램’과 아이들을 위한 다채로운 문화 활동을 운영하였다(모꼬지마을, 한드미마을, 대야도마을, 화본마을, 오산마을).

농촌지역에 늘어나고 있는 폐교를 마을의 문화학교, 체험캠프, 추억박물관 등으로 운영하여 가족과 주민들의 어울림 활동 공간으로 활용하였다. 또한 오산마을은 폐교를 농촌봉사활동과

연계하여 도시청년과의 문화적 교류 및 세대가 소통하는 장으로 변신을 꾀하였다. 실질적으로 전국의 마을만들기 사업에서 시설과 공간적인 인프라 구축에 대한 요구만큼 공간에 담길 프로그램과 운영 인력을 찾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마을과 학교 혹은 종교시설을 연계하여 초·중·고 혹은 대학생들의 주도적인 참여하에, 다양한 체험활동, 마을축제, 마을학교 등을 운영하는 방안도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다섯째, 평생교육 및 대안교육 기관, 행정기관, 지역 내 산업체와의 연계를 통한 교육과 문화프로그램의 다양화와 특색 있는 사업을 발굴하였다(선홍1리, 호룡불마).

평생교육센터와 종교시설의 도움으로 인문학 마을축제, 창작지원센터 혹은 심리치료 센터 운영, 지역의 생태환경보호를 위한 전문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지역기업과의 자매결연으로 체험농장 운영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추진하였다. 또한 인근 마을과의 상생협약을 통해 공동문화조성사업 등으로 통해 공존을 모색한 사례도 있었다(왕정리·백화마을).

전국적으로 시·군·구를 비롯하여 읍·면·동 단위에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고 있으며, 운영 중인 프로그램의 종류도 매우 다양하다. 더불어 정규 학교 이외에 정부의 인가 혹은 미인가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대안교육 시설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 단위로 운영되는 교육기관과 지역 내 산업체를 연계하고 행정기관이 협조하여, 청소년들의 진로 및 직업체험과 소규모 창업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시도는 매우 중요하다고 예상된다. 특히 최근 들어 젊은 층의 취업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자원과 인터넷 블로그를 기반으로 협동조합을 결성하여 소규모 창업 등의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여섯째, 마을의 젊은 인력을 적극 유치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였다(오산마을, 한드미마을, 완정리·백화마을).

젊은 귀농·귀촌 인력을 결속하여 각종 동아리활동과 축제를 운영하고 새로운 문화행사를 계획하는 시도를 하였다. 더불어 젊은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마을 사업을 발굴하고 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활성화시키는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젊은이들은 모바일웹을 통해 새로운 사업영역을 발굴하고 지역사회와의 다양한 문화, 관광지, 특산품 등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판매하는 인터넷 블로그를 운영할 수 있는 중요한 지역사회 자원임을 인식해야 한다.

표 III-2

제1회(2014년)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 사례집(농림축산식품부)

내용 구분	개요	성공요인	실천전략
선흘 1리 (제주 조천)	- 인구수 : 660명 - 마을자원 : 동백동 (람사르 습지), 용암 동굴 등	① 간담회, 교육, 견학으로 인식변화 유도 ② 생태마을 협력네트워크	*주민 역량 강화로 인식변화와 참여 이끌어 *자연환경보전과 전통계승을 통한 성장 *생태마을협의체 구성 *외부 자원체계와 상호협력 네트워크 구축
여물리 마을 (경기 양평)	- 인구수 : 321명 - 마을자원 : 팜마켓 (로컬푸드), 캠핑장, 체험시설, 체제형 주말농장(클라이가르텐), 마을의 기업 참세방앗간	① 귀향한 여성농업인의 성공적 리더십 ② 귀농·귀촌인들의 재능과 경험 활용 ③ 체험프로그램 다양화로 관광객 공략	*SNS운영 능력을 가진 귀촌 주민이 온라인 홍보 및 판매망 확보 *정년퇴직도 경험 살려 참여, *마을빌리지, 자전거 투어코스 등 관광객 공략위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운영 *새로운 시도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
도계 마을 (전북 웅진)	- 인구수 : 146명 - 마을자원 : 누룽지, 두부, 김치 등	① 주인의식과 신뢰 ② 지역사회내외 연계망 구축	*주민이 직접 팔 견고 나서 이익이 나는 마을 기업의 성공사례 만들어 *지역내 기관들과의 자매결연 활동도 마을 매출 성장을 돕는 든든한 후원자 *즐겁게 함께 일하고 가치 있게 나누는 결실
한두레 마을 (충북 옥천)	- 인구수 : 94명 - 마을자원 : 농촌체험 시설, 농촌캠핑시설 등	① 캠핑장조성, 마케팅 ② 캠핑 및 체험 전문가 양성 ③ 재방문 고객 관리	*캠핑 동호회 초청으로 접근성 높여 *캠핑을 위한 다양한 행사로 홍보에 활용 *체험 및 인성지도자 등 전문가 확보 *지속적인 소통 시도로 고객 관리 강화
모꼬지 마을 (경기 양평)	- 인구수 : 730명 - 마을자원 : 마을회관, 유원지	① 아이들 행복 우선 가족 복지문화 공동체	*폐교직전의 학교를 큰 꿈을 꾸는 학교로 *아이들을 위한 다채로운 문화활동 구성 *이주가정과 함께 체험마을사업 전개 *체험마을 공동소득과 문화복지 기금 조성
대야도 마을 (충남 태안)	- 인구수 : 133명 - 마을자원 : 다양한 체험시설	① 마을학교에서의 주민 어울림 활동으로 마을공동체로 발전	*폐교가 어울림의 공간인 마을학교로 재탄생 *원주민, 귀농귀촌자, 외국인 이주 노동자가 한 마을으로 어우러진 문화 공동체 형성 *주민끼리 배우고 가르치는 재능기부활동, 마을의 문화유산 복원
완정리· 백화 마을 (충북 영동)	- 인구수 : 172명 - 마을자원 : 천연염색 전문가, 음악가, 심리치료전문가, 교육문화센터 등	① 귀농귀촌 젊은자원 ② 행복한 마을을 위한 공동문화활동 ③ 마을 간 상생협약	*젊은 귀농귀촌 인구가 큰 활력소 역할 *각종 동아리활동과 축제로 결속력 높여 *주민 의견 모아 완정리와 백화마을이 손 맞잡고 발전하는 공존의 길로
오산 마을 (경남 거창)	- 인구수 : 204명 - 마을자원 : 최근 귀농가구 다수유입	① 폐교 재생 ② 주민 모두 리더라는 인식 ③ 도시청년과 공유	*폐교, 학교 살리기 주민모임 결성 *마을의 리더는 모든 주민 *젊은 상상력과 교류하는 농활 진행 *실험적 도농 교류, 세대 소통의 장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4), ‘행복을가꾸는 우리마을 이야기’, 제1회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성공비법을 나누다.
의 내용을 참고하여 재구성

표 III-3

제2회(2015년)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 사례집(농림축산식품부)

내용 구분	개요	성공요인	실천전략
한드미 마을 (충북 단양)	- 인구수 : 112명 - 마을자원 : 물레방아, 돌담길, 한드미동굴	① 생태체험 마을 ② 농촌유학 ③ 전문가 네트워크	*모든 주민들이 마을 사업에 참여하도록 유도 *거점사업으로 '농촌유학' 추진 *미래지향적 경영전략'에 초점
호롱불 마을 (전북 무주)	- 인구수 : 75명 - 마을자원 : 체험숙박, 동물농장, 식물농원 등	① 지역기업과 연계 ② 특색 사업 발굴	*주민들이 공동체 활동의 의사결정 주체 및 자신의 역량에 맞는 역할 분담 *자매결연 사업장과 실질적인 교류
화본 마을 (경북 군위)	- 인구수 : 233명 - 마을자원 : 화본역, 폐교를 활용한 근현 대사 박물관	① 폐교 활용 ② 스토리텔링 체험프로그램 ③ 소득배분과 일자리 창출 마을기업	*폐교 '엄마 아빠 어렸을 적에'라는 박물관에 는 '꽃마실'이라는 체험관을 적극 활용 *예술과 추억을 체험할 수 있는 이색적인 마을 의 새로운 마을기업 모델로 운영 중임
금남리 (경북 칠곡)	- 인구수 : 360명 - 마을자원 : 문학행사장, 인문학 마을축제	① 마을화관을 문화 교류의 장 ② 주민참여형 인문학 마을 만들기 ③ 재활용 마을가꾸기 문화 이모작 사업	*팸플릿제작부터 축제진행까지 마을 주민주도 *마을에 버려지는 재료로 마을 곳곳에 설치미술을 하는 사업을 계획함
소포 마을 (전남 진도)	- 인구수 : 309명(160 가구) - 마을자원 : 강강술래, 갈군농악	① 소리로 소통하는 주민 어울림 마당 '토요상설공연장'	*마을의 상시적인 문화공연과 전통문화 전수 *일회성 행사가 아닌 상시 모든이를 위한 민속 문화 체험이 가능함 *마을 주민 다수가 참여하는 민속 문화활동
선애빌 마을 (충북 보은)	- 인구수 : 45명 - 마을자원 : 대안학교, 캠핑장, 야외공연장 등	① 세대 간 소통 이골 공동체 회의 ② 공동식사 ③ 평생교육시설, 대안 학교	*공동체회의와 공동식사로 공동체 문화를 복원 하려는 노력 *지속적인 강의와 문화공연 연습, '전기 없는 날', 지구 힐링 콘서트'와 같은 환경친화적인 실천 노력
혼인지 마을 (제주 성산)	- 인구수 : 889명 - 마을자원 : 혼인지, 자연경관, 혼인지축제 등 다양한 축제	①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바탕으로 지역축제 개발	*소통과 화합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민들 간의 돈독한 유대관계는 마을 발전과 주민 공동체 구축에 가장 큰 원동력이 됨 *이주민과의 간담회를 개최, 평생 학습센터를 활용하여 공동체 회복에 노력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5). '함께만들어요 행복한 우리마을', 제2회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 수상마을사례집 내용을 참고하여 재구성

3)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지역의 아동·청소년대상사업 내용 분석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의 일환으로 ‘청소년행복마을만들기’ 사업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현실적인 정책대안 중의 한 방편으로,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동친화도시’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분석 대상인 서울시 성북구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살기 좋은 아동친화도시’라는 전략과제 아래 8개 정책과제와 36개 세부사업을 세우고 체계적·종합적 업무추진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유니세프(UNICEF) 한국위원회로부터 2013년 11월 ‘아동친화도시’인증을 획득하였다(네이버 지식백과, 2015. 9. 4. 검색: 오해섭, 2015 재인용).

아동청소년 대상사업은 유엔의 아동권리협약에서 제시하고 있는 4개영역의 권리를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다. 2015년도 성북구 ‘아동친화예산서’에 제시된 113개 사업 중 영유아 대상사업을 제외한 아동과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65개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생존권 영역(11개)은 아동청소년 복지기능강화, 무상급식 및 영양관리, 식생활 교육 및 비만예방 등 건강관리 등이며, 담당부서는 복지정책과 건강정책과, 건강관리과, 의약과, 보건의생과 이다. 보호권 영역(19개)은 친환경 급식 지원센터, 청소년 공부방, 지역아동센터, 장애아동 학습 및 멘토링지원, 안전지원, 시품 및 공중위생 사업소 관리 등이며, 교육청소년과, 자치행정과, 보건위생과 등이 담당하고 있다. 발달권(30개)은 가장 비중이 높은 영역으로 교육환경 개선과 학력신장, 청소년활동 공간 및 프로그램, 다양한 문화행사, 다문화가족, 생활체육 활성화 및 동아리, 생태체험관 및 도시텃밭 체험 운영 등을 지원하고 있다. 담당부서는 교육청소년과와 문화체육과를 비롯하여 환경과, 공원녹지과, 자치행정과 등이 업무를 분담하고 있다. 참여권(5개)은 인권증진 및 인권교육 실시, 어린이청소년 의회구성, 서울국제청소년영화제, 어린이가 함께 디자인 하는 마을 만들기 등의 사업을 감사담당과, 교육청소년과, 문화체육과, 도시디자인과 등이 담당하고 있다.

성북구의 아동청소년 대상사업의 내용이 주로 생존권과 보호권, 그리고 발달권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참여권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내용상에 있어 아동청소년의 인권증진과 교육을 비롯하여 ‘어린이청소년 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점은 매우 선도적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어린이가 함께 디자인 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은 지역사회의 아동과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실행하는 적극적인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한 프로그램이라고 판단된다.

2. 모두의 청소년 교육 ‘우리마을 교육나눔’ 사업 분석⁵⁾

1) 추진 배경 및 근거

대구광역시에서 2015년도에 시작한 ‘우리마을 교육나눔’사업의 추진배경은 마을자원과 학교 자원이 보유하고 있는 각 각의 특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융합적인 영역을 최대한 활용하여 ‘청소년의 창의인성 체험교육 지원 및 청소년보호활동’을 전개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지의 발현이다.

추진 근거로는 먼저 정부의 부서 간의 벽을 허물고 개방과 공유를 통한 협력과 소통을 이루고자 하는 3.0 정책을 실현하는 것이다. 둘째는 대구시가 내세운 ‘지역과 학교의 상생협력 강화’ 및 ‘창의, 인성, 체험교육 지원’이라는 시정공약 실천의 일환이다. 셋째는 2016년부터 전면 시행하고 있는 ‘자유학기제’를 지역사회 차원에서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한 준비 차원이다.

2) 추진 목적 및 기초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마을이 중심이 되어 돌봄과 교육이 함께하는 전통 마을 나눔 교육공동체를 복원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저소득층과 맞벌이 가장 청소년의 방과 후 맞춤형 돌봄과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동네 폭력 장소 환경개선과 위험요소 제거 등과 같은 활동을 추진하게 된다. 이러한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정하고 행복한 마을 만들기 필요성에 대한 전 지역사회 주민들의 인식 공유와 함께 학교와 지역사회 간의 협력네트워크 구축과 운영이 필수적이다.

‘우리마을 교육나눔’사업을 실시하는 근본적인 4가지 기초는 ①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을 위한 어른들의 입체적 접근, ②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실현, ③자치단체장의 공약사항인 ‘교육과 공동체 활성화’의 이해, ④주민참여형, 시민주도형의 시정철학이 기초단위에 까지 도달하여야 한다는 점 등이 포함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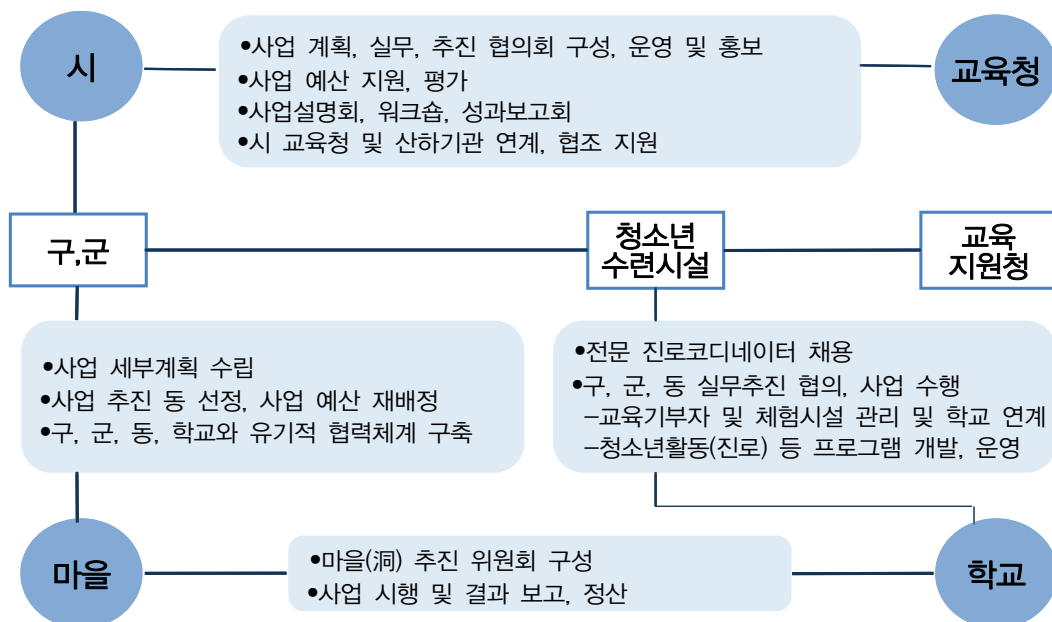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먼저 지역사회 혹은 마을 전체가 한 명의 청소년을 소중히 여기고 건강하게 성장시키려는 인식을 공유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지역의 모든 교육주체들과 주민들이 공동의 권한과 책임감을 가지고 청소년들을 위한 교사, 친구, 안내자, 멘토,

5) 이 내용은 우리마을 교육나눔 사업 안내(2015, 대구광역시)의 보고서를 토대로 재구성 및 분석하였음을 밝혀둠.

감시자 등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다음으로 마을과 지역사회가 보유하고 있는 교육자원과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청소년들의 배움터가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학교를 비롯하여 마을의 자연, 사회, 삶 속에서 살아있는 배움을 실천할 기회와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청소년 시설들이 가진 시공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찾아가는 ‘청소년 수련 시설’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청소년들은 지역사회와 마을의 주인으로 성장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청소년들은 지역과 마을에 대한 다양한 내용을 실천적인 방법으로 학습하고 체험해야 한다. 이 과정을 통해 지역사회와 마을이 나를 성장시켰으므로, 나는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지역을 성장시켜야 한다는 주인의식을 고취하게 된다는 점이다.

3) 추진 체계 및 추진 내용

현재의 추진체계를 보면 [그림Ⅲ-1]에서와 같이, 시의 담당부서가 사업의 계획에서부터 실무와 추진협의회 구성·운영 및 홍보, 사업 예산 지원 및 평가, 사업설명회와 워크숍, 성과보고회 개최, 시 교육청 및 산하기관 연계 협조 지원까지 주관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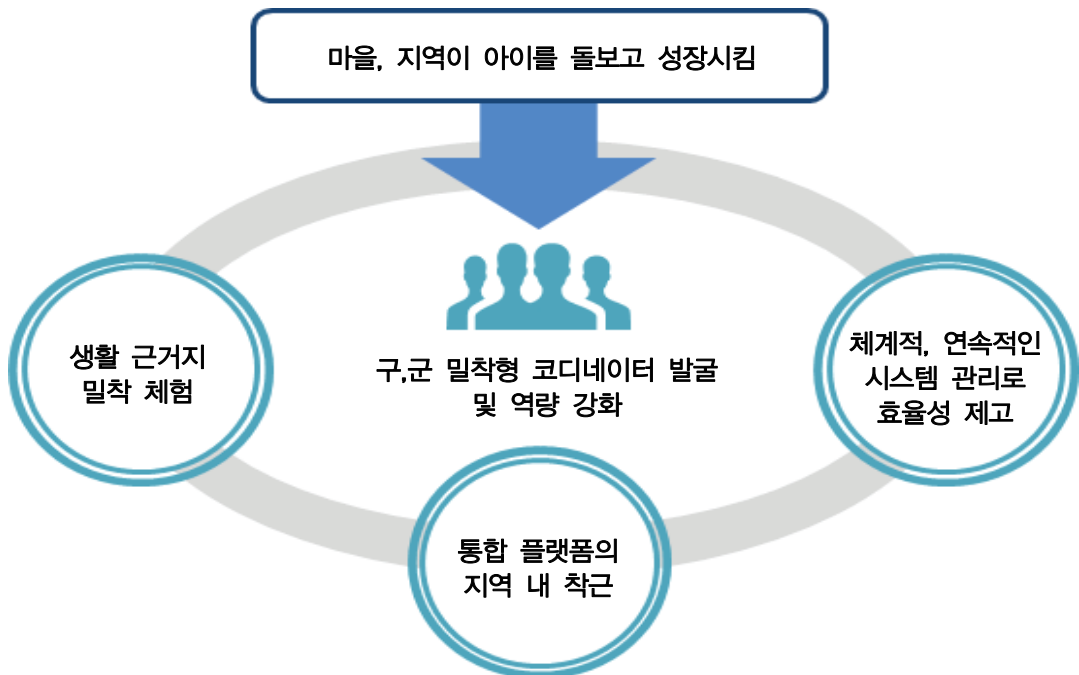
출처: 대구광역시(2015). 우리마을 교육나눔사업 안내 자료집, P.8 인용
[그림 Ⅲ-1] 우리마을 교육나눔 사업 추진체계

중간 단계에서는 지역별(군, 구)로 세부사업계획 수립하고 동을 선정하여 예산을 배정하며, 지역 내 학교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청소년수련시설에서는 전문 진로코디네이터를 채용하고 실질적인 체험시설 관리 및 학교 연계,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마을(동) 단위에서는 학교와 연계하여 구체적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마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 시행 및 결과보고와 정산을 담당하고 있다.

지역단위 광역행정기관과 교육청, 군구와 청소년수련시설 및 교육지원청, 그리고 마을(동)과 학교의 연계를 위한 네트워크가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다. 이를 통해 사업기획 및 시행, 그리고 평가에 이르기까지 협조가 매우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구조는 이상적인 모형이라고 판단된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운영주체와 참가자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공유해야 할 기본가치는 [그림 III-2]에 제시된 바와 같이, “마을, 지역이 아이를 돌보고 성장시킴”이라는 공동체의 역할과 책무성임을 확인할 수 있다.



출처: 대구광역시(2015). 우리마을 교육나눔사업 안내 자료집. P.8 인용
[그림 III-2] 우리마을 교육나눔 사업 추진내용

이러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먼저 지역단위의 구와 군 혹은 읍,면,동 단위가 밀착하여 사업운영 코디네이터, 활동가, 자원봉사자 등을 발굴하여 전문 역량을 강화시켜야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더불어 추진방식으로 ‘①생활 근거지 밀착 체험’, ‘②통합적인 플랫폼의 지역 내 착근’, 그리고 ‘③체계적이고 연속적인 시스템 관리로 효율성 제고’등을 명시하고 있다.

앞서 제시한 대구시의 ‘우리마을 교육나눔’사업의 근본 취지인 ‘청소년들을 마을과 지역의 주인으로 성장시킨다.’라는 점과 이 사업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 먼저 이 사업이 행정기관과 교육청을 중심으로 기획하고 예산이 지원과 성과평가 등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몇 가지 부작용이 우려된다. 그 동안의 사례를 보면, 관주도의 사업들은 대부분 시작초기에는 매우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관리되는 듯 보이지만 정치적인 영향과 담당공무원의 잦은 교체로 인하여 한 순간에 중단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대구시는 행정조직에 ‘교육청소년정책관’이라는 전문부서가 있어 사업의 발전과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점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 사업이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과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여, 변화와 발전을 지속하면서 안착하기 위해서는 활동의 주체인 주민과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참여 기반이 조성되어야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청소년들에게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여 그들 스스로 사업과 프로그램을 기획, 실행, 평가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행정담당, 청소년전문가, 지역 지도자들은 기본적인 안내와 조언을 통해 협조하는 파트너십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다른 한편으로, 자치단체장과 행정기관의 사업 홍보와 성과관리 차원에서 결과평가와 발표대회 등에 너무 비중을 두게 되면, 마을(동)별로 지나친 경쟁으로 인하여 사업의 본질이 훼손되는 경우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업의 참여 주체별 고유역할과 협조사항을 명확하게 규명하여 최대한 존중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더불어 어느 정도 사업이 정착단계에 도달하면 행정기관과 교육청은 마을(동)단위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운영하도록 권한을 부여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4) 마을별 교육나눔 프로그램 유형 분석

대구시의 2015년도 ‘우리마을 교육나눔’사업은 7개구(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의 20개 마을(동)이 참가하였다. 실제 운영된 사업 영역과 프로그램 유형은 <표Ⅲ-4>와 같이, 13개 영역에서 76개 세부 활동을 추진하였다(2015년 대구광역시). 이 내용을 근거로 가장

많은 마을(동)에서 가장 많이 추진한 프로그램 운영 및 참여 순위(ranking)를 분석하였으며, 그 중 상위 5개 영역의 구체적인 활동 내용과 의미를 분석해 보았다.

전체 13개 사업 및 프로그램 중에서 ‘①청소년 진로·직업체험프로그램’을 20개 마을 중 가장 많은 13개 마을이 운영하고 있었다. 이 영역은 사회적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고용과 취업이 이슈화 되고 있는 현실과도 무관하지 않다. 또한 2016년 전면 시행된 중학교 자유학기제 프로그램과의 연관성도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도 이 분야는 국가와 지역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정책영역으로 받아들여 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청소년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에서도 이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예측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더불어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는 바이다.

두 번째는 ‘②우리지역 체험하고 가꾸기’사업으로 우리지역 바로알기, 답장 및 꽃길 조성, 우리마을 지도 만들기과 홍보하기 등이 10개 마을(동)이고, 세 번째는 ‘③ 가족과 함께하는 여가 및 체험활동’으로 우리집 텃밭 만들기, 가족이 함께 요리하기, 1,2,3대 어울림 마당 등을 9개 마을(동)이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애착심과 가족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다. 또한 현재 혹은 미래에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기여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할 수도 있다. 특히, 가족과 함께하는 활동은 오늘날 가족해체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족과 세대가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판단된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④우리마을 청소년 지킴이와 청소년 돌봄 교육, 친구와 캠프 및 놀이 활동’으로 2개의 프로그램을 8개 마을이 시행하였다. ‘우리마을 청소년 지킴이와 청소년 돌봄 교육’은 청소년들의 안전기가 순찰, 학교 폭력 예방 캠페인, 스포츠 및 문화 공연 관람 등이다. 이는 최근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청소년들의 대형 안전사고 및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반영하여 이를 예방하고자 하는 차원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친구와 캠프 및 놀이 활동’으로 소리질러와 맘껏 뛰어(행복 공감 페스티벌), 친구야 숲에서 놀자, 너의 끼를 보여줘, 친구와 캠프, 날아라 내 비행기(모형글라이더 제작 및 날려 보내기) 등을 실시하였다. 2015년도 본 연구의 일환으로 실시된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진단’결과 분석에서 “초등학생의 경우 중·고등학생에 비해 교육영역보다 관계영역에서의 만족도가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보다 10% 유의수준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2015, 성운숙, 홍성호: 549)”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회성이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시기인 초등학생들은 친구들과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신체적인 발달과 함께 상대방과의 협동심과 타인에 대한 배려심 등을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내용 순위	프로그램명	활동 내용	운영지역
1	청소년 진로·직업 체험프로그램	○ 나를 찾아줘(Ⅰ, Ⅱ) ○ 우리동네 직업 체험하기(Ⅰ, Ⅱ, Ⅲ) ○ 진로아트북(나의 진로 북 만들기) ○ 나의 미래를 찾자(MBTI, 홀랜드 검사, 과학관과 법 체험, 제빵, 제과 체험 등) ○ 바리스타 체험 활동 ○ 청소년 교육봉사(선생님이 장래희망인 고학년 학생들이 저학년 학생들에게 교육나눔 활동) ○ 멘티&멘토 청소년 힐링 프로그램(경찰이 장래희망인 청소년과 마을 지구대의 유대감 형성 활동) ○ 미리 만나는 사회, 리틀소시움(진로 직업 테마파크 체험) ○ 꿈을 찾는 기자단(롤 모델 인터뷰 및 꿈의 지도 제작) ○ EBS 리틀소시움에서 꿈을 찾다(어린이 직업체험) ○ 찾아가는 직업특강 ○ 해피드림 디자인의 날(알려지지 않은 직업군 소개 및 진로 탐색 기회 제공)	13개(중구 동인동, 중구 성내3동, 동구 불로봉무동, 동구 신천동, 서구 상중이동, 서구 원대동, 남구 대명9동, 북구 관음동, 북구 대현동, 북구 산격2동, 수성구 지산1동, 달서구 신당동, 달서구 월성1동)
2	우리지역 체험하고 가꾸기	○ 우리 지역 바로 알기(농촌체험) ○ 이야기가 있는 우리동네 역사탐방 ○ 우리 마을 행복 소공연(청소년과 어른이 함께 사물놀이 공연) ○ 우리 마을학교 담장 꽃길 조성 ○ 우리마을 조기청소 ○ 우리마을 통(통)지도 만들기 ○ 우리마을 공원 가꾸기 ○ 동네방네 소문내기(스토리텔링으로 우리 마을 이야기 만들기)	10개 (중구 동인동, 중구 성내3동, 중구 불로봉무동, 서구 원대동, 서구 내당4동, 북구 관음동, 북구 대현동, 북구 산격2동, 수성구 황금1동, 달서구 월성1동)
3	가족과 함께 하는 여가 및 체험활동	○ 우리집 텃밭 만들기 ○ 엄마, 아빠와 어릴 적 놀이 체험 ○ 할아버지 할머니께 효자 웃음 드리기 ○ 테마가 있는 토요일(가족과 함께 하는 행복한 밥상, 공예품 만들기, 요리하기) ○ 1,2,3대 어울림 한마당	9개 (중구 동인동, 중구 성내3동, 동구 신천동, 동구 불로봉무동, 서구 평리3동, 수성구 범물1동, 달서구 신당동, 달서구 월성1동, 달서구 진천동)

내용 순위	프로그램명	활동 내용	운영지역
		○ 가족과 별이 함께하는 1박2일 캠프 ○ 아빠와 함께 캠프 ‘미디어 없는 세상’ ○ 가족과 함께 학산 걷기	
4	우리마을 청소년 지킴이와 청소년 돌봄 교육	○ 청소년들의 안전귀가를 위한 순찰 ○ 뮤지컬, 야구경기, 영화 관람, 도자기 만들기, 방송댄스 배우기 ○ 청소년 야간 안전순찰대 ○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 마을 반딧불(어두운 길에 태양광 LED설치)	8개 (동구 불로봉무동, 서구 내당4동, 서구 원대동, 서구 평리3동, 북구 대현동, 북구 관음동, 수성구 범물1동, 수성구 황금1동)
4	친구와 캠프 및 놀이 활동	○ 소리 질러! 맘껏 뛰어!(행복공감페스티벌) ○ 친구야 숲에서 놀자(등산 및 미션활동) ○ 너의 끼를 보여줘(청소년 축제) ○ 친구와 캠프(반딧불 숲 속의 밤) ○ 친구야 놀자! 신나게(지역 운동회) ○ 날아라 내 비행기(모형글라이더 제작 및 날려보기) ○ 친구와 힐링하는 1박2일 캠프 ○ 꿈을 향한 날갯짓(동아리 콘서트, 발표회)	8개 (서구 내당4동, 서구 상중이동, 서구 원대동, 북구 관음동, 북구 대현동, 달서구 진천동, 중구 성내3동, 수성구 범물1동)
6	청소년 외부 견학 및 체험활동	○ 떠나자 더 넓은 세상으로(다른 지역 교육 현장 탐방) ○ 체험하며 알아가기(지구의 날 행사참여, 어린이날 행사참여, 박물관 견학, 포스코 견학) ○ 찾아가는 문화센터(학교주변 하갯길 체험 활동-책갈피, 열쇠고리 만들기 등) ○ 우리마을 공공기관 스탬프ラリー(마을 공공기관 견학) ○ 청소년 방과 후 체험, 현장체험학습 ○ 문화공연관람(뮤지컬 등) ○ 청소년 문화예술 워크숍 ○ 수목원 자연 생태체험	7개 (동구 불로봉무동, 서구 상중이동, 서구 평리3동, 남구 대명9동, 북구 대현동, 수성구 지산1동, 달서구 진천동)
7	더불어 사는 마을	○ 김장나눔, 사랑나눔, 교육나눔(김장체험 및 독거노인들께 전달) ○ 효자 웃음 드리기, 우리마을 자원봉사대(마을 요양원과 경로당 방문, 공연) ○ 재능기부봉사단(커피드림 Coffee Dream) ○ 초록 꿈을 키우는 Young Farmer(꽃과 나무를 키워 무료 분양) ○ 장애인 체험부스 운영 ○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6개(중구 성내3동, 동구 불로봉무동, 동구 신천동, 서구 상중이동, 북구 산격2동, 수성구 황금1동)

내용 순위	프로그램명	활동 내용	운영지역
8	역사 및 전통문화 체험 학습	○ 마을과 함께 떠나는 역사체험 ○ 박물관에서 배우는 교과서 속 역사 ○ 나만의 역사북 만들기 ○ 한국사 공부방(우리역사 바로알기) ○ 우리 민속 전통놀이 체험 ○ 왕건길 호국역사 힐링 창의적 체험 프로그램, 신라의 미소·동근 마음을 찾아서 ○ 선사유적 공원 탐방	4개 (중구 동인동, 서구 내당4동, 남구 대명9동, 달서구 진천동)
8	독서 및 인문학 여행	○ 여름방학 독서 문화 프로그램 ○ 전통을 찾아 떠나는 인문학 여행 ○ 책 읽는 소리가 들리는 우리마을	4개 (서구 내당4동, 남구 대명9동, 북구 대현동, 수성구 범물1동)
8	청소년 예체능 활 동 프로그램	○ 리코더 앙상블 ○ 예비숙녀를 위한 요가교실 ○ 벽화 그리기 ○ 일요 스포츠 나눔교실(축구, 족구, 농구) ○ 스포츠데이(지역스포츠 참가·수영) ○ 청소년 탁구교실	4개 (남구 대명2동, 북구 관음동, 북구 대현동, 북구 산격2동)
11	자유학기제 프로 그램	○ 아나바다 장터 ○ 우리마을 벼룩 문화장터	3개 (중구 성내3동, 서구, 북구 대현동)
12	청소년 취미교실	○ 드럼 동아리 ○ 통기타, 우쿨렐레 동아리	2개 (수성구 지산1동, 달서구 신당동)
13	청소년참여활동	○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손으로!(청소년자치위원회)	1개 (북구 산격2동)

출처: 대구광역시(2015), 우리마을 교육나눔사업 안내 자료집, 재구성.

3. ‘행복마을만들기’현장 사례조사 내용 분석⁶⁾

1) 희망세상(행복마을 반송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마을 활동가의 추천으로 희망세상을 알게 되었고, 부산 반송의 ‘희망세상’000 사무국장과 인터뷰(2016.5.20)한 내용과 고창권(2005)의 ‘반송사람들’을 소개하는 블로그의 글을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6) 이 내용은 “2016년도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상사업 연구Ⅳ”의 공동연구자로 참여하고 있는 김세광 교수(고신대학교)가 문헌고찰과 사례 조사를 토대로 작성한 내용임.

(1) 희망세상의 탄생배경

반송동은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동네다. 하지만 반송동을 찾아가려고 해운대 바닷가나 신시가 지 쪽에서 택시를 잡아타면 요금이 10,000원도 더 나온다. 같은 해운대구 내에 있지만 반송은 그만큼 해운대의 중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한국전쟁으로 수많은 피난민들이 부산으로 몰려들었고, 산이 많은 부산의 지형에 평지가 모자라니 사람들은 산에 판잣집을 지어 올라갔다. 자연히 산동네가 만들어졌고 그래서 부산에는 유난히 산복도로가 많다. 전쟁이 끝난 후 부산시는 도심재정비사업을 위해 이런 판자촌을 없앨 계획을 세우고 부산의 변두리 지역인 반송동, 반여동, 서동 등에 집단 이주마을을 만들어 철거민들을 이주시켰다.

그런 반송이 20여년 설움의 세월 끝에 2005년 10월 진주에서 열린 제5회 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에서 당당하게 최우수상을 차지하였다. 그 뒤에는 ‘반송을 사랑하는 사람들’(현, 희망세상)이라는 지역 공동체와 반송 주민들이 흘린 땀, 눈물, 노력이 있었다.

손수진 사무국장은 청년시절 반송의 사회복지사로 활동하면서 반송에 대한 애착을 갖게 되었다. 손 사무국장이 이야기하는 반송의 마을 만들기 과정은 순수한 민간의 능동적인 활동이 지역공동체를 재활시키고 마을의 세대 간 협력과 행복을 구성한 사례가 됨을 알 수 있었다.

(2) 세대 간의 행복을 모색하는 지속적인 활동

어린이날 우리 아이들을 어디로 데려갈까? 고민하다가 시작한 것이 ‘어린이날 놀이한마당’이었다. 1999년 운봉초등학교에서 열린 제1회 어린이날 놀이한마당은 제2회부터 반송에 있는 동부산 대학 캠퍼스에서 열리고 있다. 행사는 해마다 커지고 내용은 더 풍성해졌고 주민들은 이런 너른 공간을 제공해준 대학을 고맙게 생각했다. 어린이날 놀이공원이나 북적대는 인파 속에서 시달리고 지친 경험에 있는 부모들과 아이들이 특히 좋아했다. 이제 어린이날 놀이한마당은 ‘희망세상’의 가장 중요한 행사이면서 반송 지역의 축제로 자리 잡았다. 지금은 소문이 나서 반송뿐만 아니라 부산의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들 찾아온다고 한다.

2015년 어린이날은 일 만 명이 참가할 정도의 대규모 행사로 자리 잡게 되었다. 마을주민들의 필요와 요구가 실제적인 활동으로 전개되고 무엇보다 아동과 청소년이 기성세대와 어울려 함께 할 수 있는 행사가 지속적으로 실시되고 있다는 것이 시사하는 것은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는 활동이 아닌 지속성을 가진 마을의 문화가 되었다는 점이다.

희망세상 회원들이 여비를 조금씩 모아 통일가족기행을 다녀오기도 했다. 체험활동이나

짧은 역사기행은 많이 했지만 3박4일 동안 아이들까지 데리고 통일을 주제로 하는 기행은 처음이었고, 33인승 버스를 빌려 타고 부산에서 임진각까지 숙박은 야영으로 해결하는 만만치 않은 여행이었다. 한국전쟁 때 민간인 학살이 이루어진 경산의 폐코발트광산을 시작으로 천안 독립기념관, 광릉수목원, 오두산 통일전망대, 임진각을 거쳐 연세대에서 열린 통일대축전까지 참가하면서 많은 것을 느끼게 해준 여행이었다.

(3) 교육, 복지, 문화의 재생

2000년대 초 반송에는 네 개의 초등학교가 있었는데, 그 중 한 학교는 학교 형편상 12학년에게는 급식을 안했다.

‘오늘도 밥을 못 먹었다. 내일은 밥을 먹을 수 있을까?’

당시 한 저학년 학생의 일기내용이다. IMF 이후 가정은 붕괴단계에 있었고 저소득층이 많은 반송 지역에서 점심 한 끼 해결하기 힘든 아이들이 많았다. 이 일기내용은 결국 교육청에까지 전달되었고 저학년 급식을 위한 추가예산이 지원되었다.

반송의 세 개 중학교와 희망세상이 연계해 실시하는 농촌봉사활동과 청소년 문화축제는 반송지역의 특성을 잘 살린 사업으로 지역에 뿌리내리고 있다. 학부모들도 많은 호응을 보내고 있고, 학생들도 새로운 세상을 접해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므로 참여율이 매우 높은 편이다.

지금 반송은 주민들이 행복한 동네가 되어 가고 있다. 부산에 도서관이 있는 마을은 그리 많지 않다. 반송에는 느티나무도서관이라는 마을도서관도 생겼다. 해운대구에서 지어준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십시일반하여 부지를 구입하고 건물, 내부 인테리어, 장서 등은 책사회(책읽는사회국민운동본부)와 기업체의 지원, 자체적인 조달, 또 이러저러한 도움의 손길로 마련했다고 한다. 전국 어느 지역보다 주민자치활동과 자발적인 지역주민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곳으로 손꼽히며 견학도 많이들 온다. 000 사무국장을 만난 곳도 느티나무 도서관인데 들어가는 입구에 느티나무 도서관 건립에 도움을 준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었다. 시장상인들과 학생들도 오천원 일만원씩 기부하고 한 사회복지사는 두 달 치 월급을 기부하는 등 마을 구성원들의 작은 참여는 1억 7천만원의 도서관 건립기금이 되어 느티나무 도서관을 설립하게 되었다.

정부주도나 지자체 감독이 아닌 주민들이 능동적 자발적으로 건립한 느티나무 도서관의 성과는 민간주도적 활동의 모범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다.

(4) ‘청소년행복마을’에 주는 시사점과 적용방안

첫째, ‘희망세상’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동기로 시작된 점을 반영하여, 청소년 행복마을이

조성을 위해서는 청소년의 자발성을 이끌어 내기 위한 기반조성과 실천적 접근이 필요하다.

둘째, 부산에서 반송 지역에 대한 선입견은 좋지 않았으나 선입견, 편견을 딛고 자체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과단성 있는 실천력이 있었다. 따라서 청소년에 대한 기성세대의 편견을 깰 수 있는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참여기회 제공과 활동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셋째, 단체를 유지하고 마을 행사들을 주최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들을 정부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후원 활동과 다양한 공모전을 통해 충당하고 있다. 청소년행복마을을 구성하기 위한 재원들은 정부의 지원보다는 청소년의 행복을 바라는 지역사회 후원조직의 적극적인 지원과 생활협동조합 활동을 통한 자체 재원조달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넷째, 지속적인 학습공동체 운영이 ‘희망세상’을 탁월하게 유지시키는 원동력이다. 상 하반기 4회씩 운영 위원회의 모임을 교육의 차원으로 진행하고 있다. 마을 의제와 관련된 세상 읽기를 주로 하고 있으며 각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단순히 강연만 듣고 끝나지 않는다. 정부가 새롭게 구성한 정책에 대하여 공부하고 마을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논의한다.

청소년 행복마을은 청소년 자치위원회의 활동이 활성화 되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자체적인 학습공동체가 운영되고 소속된 마을과 그 마을의 청소년이 안고 있는 문제를 능동적으로 바라보고 실제 개선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2) ‘마을은 학교다’프로젝트가 주는 시사점

(1) 희망제작소의 청소년 사회혁신프로젝트 ‘OO실험실’

희망제작소의 청소년 사회혁신프로젝트 ‘OO실험실’을 준비하면서 얻은 시사점과 마을이 학교가 되기 위해 또한 학교가 마을로 나아가기기 위한 노력과 과정을 정리하였다.

‘OO실험실’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청소년이 참여하고 협업하는 경험이, 삶의 태도에 변화를 가져올 지 알아보기 위해 기획되었다. 청소년이 학교 밖에서 지역과 사회의 다양한 사람들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고, 요청을 하고, 도움을 주고받는 과정은 공동체적이고 민주적인 삶의 태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리라는 전제였다.

여러 영역에서 넘나드는 배움이 시도됐다. 이 움직임은 ‘마을이 학교다’라는 슬로건이 나타나기 훨씬 이전부터 존재하기도 했다. 이 흐름은 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뉜다.

① 마을의 노력

‘성미산마을’, ‘삼각산재미난마을’과 같이 마을공동체가 육아나 교육을 중심으로 형성된 경우

가 많다. 주민 활동이 아이들의 진로 및 취미, 지역사회 참여 활동과 연결되기도 한다. 은평구엔 청소년 거점 공간 ‘작공’이 인근 마을카페 및 공방과 함께 공동체 구심점 역할을 하고, 동작구에 있는 ‘희망나눔동작네트워크’는 주민협동조합으로 청소년센터를 만들었다.

② 대안교육의 흐름

대안학교는 마을과 학교가 함께 가야한다는 생각을 가장 일찍 현실화되었다. 1958년 세워진 풀무학교와 학교가 자리 잡은 홍동마을은 마을과 학교가 함께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었다. 대안교육은 혁신학교, 전환학년, 자유학기제 등과 같이 공교육 변화에 영향을 주기도 했다.

③ 교사의 노력

공교육 안에서도 혁신 활동을 시도한 교사들이 있다. 수업을 통해 사회참여 활동을 시도하거나, 방과 후나 토요일 수업 및 동아리활동을 활용해 아이들이 학교 밖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만드는 교사들도 있다. 이들 간 네트워크(고양시, 의정부시 등 지역교사모임)나 이들의 활동을 촉진하는 기관(동그라미재단 ‘ㄱ찾기 프로젝트’, 아쇼카재단 ‘유스벤처’)은 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개별 교사의 노력이 벤치마킹 사례가 되어 다른 교사나 학교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

④ 청소년 기관의 변화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과 같은 청소년활동진흥기관은 오래전부터 지역을 기반으로 청소년 활동을 촉진해왔다. 전통적인 수련활동에 머물고 있다는 비판을 극복하기 위해 최근에 학교의 벽을 넘거나 섹터와의 교류를 확대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서울 노원구에 있는 ‘공릉청소년 정보문화센터’는 센터에 드나드는 청소년을 중심으로 인근 주민 마을공동체를 활성화시키고자 한다. 청소년이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직접 기획하고 실행하는 ‘시작된 변화’프로그램을 수해째 운영하고 있다. 은평구에 있는 ‘신나는애프터센터’나 ‘성남시청소년재단’에서도 청소년의 사회참여활동을 독려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⑤ 민간의 노력

지역아동센터나 YMCA와 같은 청소년 운동조직 가운데 오래 전부터 지역사회 차원에서 청소년을 중심에 둔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온 곳들이 있다. 청소년 복지에 관심을 두었기

⑥ 새로운 섹터의 등장

⑦ 학교 및 교육청의 변화

(2) 학교 밖을 넘나드는 배움이 청소년과 마을에 끼치는 영향

126

됐어요.”라고 했다.

② 청소년들과 기성세대의 관계가 다양해짐

하자센터의 판돌(활동가) 올제는 집-학교-학원의 틀 안에서 한정된 접촉만 하는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주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요즘 아이들은 교육 수요자 자세에 익숙한데 이걸 버리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방과 후 활동에 아무리 훌륭한 사람을 데려와서 프로그램을 해도, 학교 안에서 아이들은 ‘선생님’으로만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이들을 학교 밖에 나오게 해서 삶의 영역에서 생생한 어른을 만나게 해야 합니다.” 지역사회에서 청소년 참여 활동을 연구한 Betts. S.는 사회참여 활동의 핵심이 청소년과 성인의 관계 맺기에 있다고 했다. 청소년과 성인이 서로의 협력을 통해서, 각자가 따로 성취할 수 있는 경우보다 훨씬 많은 것을 얻게 되며,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서로 이해를 증진시키고 사회적 책임의식을 심게 된다는 것이다.

③ 청소년과 함께 지속가능한 지역의 미래 기대함

농촌 뿐 아니라 도시에서도 지역의 다음 세대를 기르는 것이 화두가 되었다. 마을이 학교가 되는 환경에서는 청소년이 학교를 졸업하고 지역을 떠날 젊은이가 아니라, 지역의 미래와 자신의 삶을 함께 설계하게 된다. 남원시 산내면에서 귀촌인 자녀들이 자립을 위해 만든 모임 ‘작은 자유’는 마을과 자신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마을 할머니들을 보면서 가끔, ‘우리도 할머니가 되면 손자 손녀들에게 너희 할머니는 옛날에…’라고 얘기하는 사이가 될까 생각해요. 저희는 마을에 대해 ‘적어도 우리가 망하게 내버려두진 않을 거야’라는 든든함과 믿음이 있어요.”

부모와 교사, 청소년 당사자, 그리고 학교와 교육당국, 청소년 기관과 민간단체, 기업이 각자 영역에서 만들어 온 부지런한 노력이 어느 하나 더 중요하거나 덜 중요하다고 말하기 어렵다. 혁신학교와 꿈의 학교, 자유학기제가 대안교육 및 공교육 그리고 마을의 협력으로 탄생했듯이 각자가 노력을 경주하되 다른 주체와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 IV 장

유럽의 청소년참여제도 운영 현황 및 시사점

1. 개요
2. 유럽의 청소년포럼(European Youth Forum)
3. 유럽의 청소년의회(European Youth Parliament)
4. 논의 및 시사점

제 IV 장 유럽의 청소년참여제도 운영 현황 및 시사점⁷⁾

1. 개요

청소년의 참여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제시하는 4대 권리 중의 하나의 중요한 영역이지만 한국에서의 청소년 참여는 여전히 공허한 메아리로 여겨지고 있다. 한국의 청소년정책은 청소년 참여에 관해 끊임없이 국가의 정책이나 비전을 제시해 오고 있다. 하지만 청소년 참여의 문제는 거대한 입시제도와 사회적 공감대의 부족으로, 필수적인 권리라기보다는 최소한의 수준에서 선택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의 하나로 간주되고 있는 현실이다.

2009년에 실시된 세계 시민성 비교조사 연구에 의하면 한국 청소년의 참여수준은 조사대상 38개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 해당하였다. 정치적 참여 연령도 19세로 가장 높아서 제도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청소년 참여는 가장 취약한 청소년 문제의 하나로 드러났다(장근영 외, 2011).

반면 유럽은 청소년 참여의 문제를 한국사회와는 달리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유럽연합(EU) 차원과 유럽의 개별 국가 차원에서 실시되는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 참여를 권장하고 지원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서 청소년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자 한국보다 체계적으로 청소년의 참여가 활성화되어 있는 유럽차원에서 청소년참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사례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유럽 청소년 포럼(European Youth Forum)과 유럽 청소년의회(European Youth Parliament)의 청소년참여 내용과 회원국의 실제 운영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7) 이 장은 “2016년도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상사업 연구Ⅳ”의 집필진으로 참여하고 있는 박선영 교수(한국체육대학교)가 문헌고찰을 토대로 작성한 내용임.

2. 유럽의 청소년포럼(European Youth Forum)

1) 비전과 목적

유럽 청소년 포럼(European Youth Forum) 은 유럽연합 회원국의 지방 청소년의회와 국제 청소년단체가 만나는 플랫폼으로, 유럽연합과 유럽평의회, 그리고 유엔 같은 국제기구에서 청소년의 인권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정책과 청소년활동(Youth Work), 청소년 개발(Youth Development)에 관여하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 회원국 청소년들이 지구적 상호 의존성을 이해하고 역량을 강화하며, 전 세계적 수준의 다양한 참여를 통해 유럽청소년정책의 온전한 실현에 초점을 두고 있다.

유럽 청소년 포럼은 모든 청소년정책 분야에서 청소년단체의 의견과 관점을 대변하며, 청소년 정책이 모든 정책영역과 기관에 포함될 수 있도록 청소년정책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알리기도 한다. 이때 유럽 청소년포럼이 지향하는 원칙은 평등성과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것이다. 2014년 1월 기준으로 유럽 청소년 포럼에는 40개의 유럽연합 회원국 청소년의회와 59개의 청소년단체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유럽 청소년포럼의 비전은 유럽 청소년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지구시민으로서 청소년이 최대한 잠재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원하는 데 있다. 설립 비전으로 유럽 청소년 포럼은 유럽 전역에서 활동하는 국제적인 청소년단체와 청소년의회를 대변하는 독립적이고 민주적이며 청소년 주도적인 플랫폼의 역할을 하는 것을 천명한다. 이를 위해 청소년의회와 청소년단체의 필요와 관심을 대변하고 이들을 위한 옹호활동을 한다. 또한 청소년의 삶을 개선하기 위하여 사회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기 위한 청소년의 역량강화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유럽 청소년 포럼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사회생활에서 뿐만 아니라 의사결정과정에서 청소년과 청소년기관의 참여 증대
- 유엔과 유럽평의회, 유럽연합 같은 국제적인 기구의 인증된 파트너로서 청소년시설과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긍정적 영향력 행사
- 모든 정책 개발요소에 포함되어야 할 요소나 정책으로서 청소년정책의 개념에 대한 홍보
- 국가적, 국제적 수준에서 상호 의존성을 강조하고 적절한 재정을 지원하며, 지속가능하고 독립적인 청소년시설을 통한 청소년의 참여 증대

- 유럽의 청소년들에게 아이디어와 경험의 교환, 상호 이해를 포함하여 동등한 권리와 기회에 대한 홍보
- 간 문화(intercultural) 이해, 민주주의, 존중, 다양성, 인권, 적극적 시민성과 결속에 대한 이해 확산
- 유럽이 아닌 전 세계에서 청소년활동(youth work)의 발전에 기여

유럽 청소년포럼 산하의 위원회는 2년을 임기로 청소년의회(European Youth Parliament)와 국제 청소년 시설이나 단체에서 지명한 회장, 부회장 각 1인, 위원 4명씩으로 구성된다. 사무총장은 당연직으로 위원회에 참석할 수는 있으나 투표권은 없다.

2) 재정 운영과 회원 자격

2012년을 기준으로 수입의 83.9%가 유럽위원회(European Community)재정에서 충당되었으며, 유럽평의회에서도 3.2%가 지원되었다. 이밖에 필요한 재정은 유엔과 각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등에서 지원되기도 한다. 유럽 청소년 포럼은 99개의 회원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고 개별 국가의 청소년 의회와 비정부 청소년단체로 나뉜다. 99개의 회원기관은 Observer(관찰자) 회원, Candidate(지원자) 회원, 정회원(Full member)으로 종류가 구별되며, 포럼의 의무적인 회의에서는 정회원만 투표자격이 주어진다.

회원의 등급에 따라 모든 회원들은 청소년 포럼의 취지 맞게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영리 기관이 아닌 비정부 조직일 것
-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원칙을 준수하고 민주적인 목적과 구조를 가지고 있을 것
- 유럽 청소년포럼의 규정을 준수할 것
- 청소년과 함께 일하며 청소년이 의사 결정하는 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
- 어떤 외적인 권위의 압력으로 인해 기관의 의사결정에 방해 받지 않을 것

3) 국가별 사례

유럽 청소년포럼에는 40개의 개별 국가 청소년위원회가 활동하고 있으며, 폴란드, 헝가리,

마케도니아는 최근에 국가 청소년의회를 구성하였으나 아직 유럽 청소년포럼의 회원은 아니다. 유럽연합 회원국 중, 알바니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코소보, 터키는 국가적인 수준의 청소년 의회가 제도화 되지 않아 회원자격이 없다.

국가별 청소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첫째, 비정부 청소년단체의 국가 코디네이터가 되어야 한다. 둘째, 국가적인 수준에서 모든 민주적인 청소년단체에게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정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단체에게 기회를 주고 가장 민주적인 청소년 단체가 대표가 되도록 해야 한다.

① 브리티시 청소년위원회(British Youth Council)

브리티시 청소년위원회(The British Youth Council)는 영국의 청소년위원회이다. 청소년주도의 자선단체(youth-led charity)이며, 25세 미만의 청소년들에 대한 역량강화와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즉 청소년이 자원봉사나 캠페인으로 혹은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거나 지도자로서 그들의 지역사회와 지방과 중앙, 그리고 국제사회의 민주주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브리티시 청소년위원회는 그들이 사는 세상을 좀 더 나은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나 배경에 개의치 않고 청소년들을 도우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다.

청소년에 대한 공동의 비전을 지원하는 230개의 회원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원단체는 위원회 선출 및 정책결정, 더불어 캠페인의 우선순위 등을 정한다. 또한 브리티시 청소년의회와 각 회원단체의 회원과의 연계를 위한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브리티시 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이 존중받는 세상, 청소년이 스스로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하여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을 비전으로 한다. 미션은 다음과 같다.

- 영국을 대표하는 청소년의회로서 25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표하고 적극적인 시민으로 참여하게 하기
- 청소년이 지역사회와 국가 세계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알리기
- 청소년의 권리를 증진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기술, 지식을 강화하기
- 회원단체와 또는 이러한 가치를 공유하는 기관들과 함께 청소년이 마땅히 대접받는 세상을

만들어주기 위한 캠페인 벌이기

브리티시 청소년의회가 추구하는 가치는 5개로 나뉘는데 첫째는 참여에 대한 것이다. 청소년의 의미 있는 참여에 대하여 가치를 부여하며 청소년이 모두를 위한 세상을 만들 수 있기 위한 역량개발을 지원한다. 두 번째는 통합(inclusion)에 관한 것이다. 즉 모든 배경, 문화나 나이에 관계없이 통합이 주는 풍요로움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을 의미한다. 세 번째는 평등이다. 모든 청소년은 영국과 전 세계에서 평등하게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네 번째는 청소년 리더십이 가치이다. 즉, 청소년 리더십을 존중하고 개발하며 오늘의 리더인 청소년이 보다 나은 미래를 창조할 수 있다고 믿는 가치를 말한다. 마지막으로 인정에 대한 가치이다. 청소년의 성취를 인정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청소년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것이다.

② 아일랜드 국가 청소년위원회(National Youth Council of Ireland ,<http://www.youth.ie/>)

아일랜드 청소년위원회는 아일랜드 청소년단체를 대표하는 기구로서 2001년 청소년기본법(Youth Work Act)에 의해 그 역할과 기능이 명시되었다. 현재 43개의 청소년단체가 정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10개의 단체가 준회원 또는 그에 해당하는 회원의 자격을 가지고 활동한다.

회원단체에는 청소년 클럽이나 보이즈카우트, 걸스카우트, 청소년 정당, 아일랜드어 청소년단체, 그리고 특정 이슈를 가지고 모여 활동하는 단체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유럽 청소년의회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다.

3. 유럽 청소년의회(European Youth Parliament)

1) 배경과 목적

유럽청소년의회(European Youth Parliament: EYP)는 유럽의 모든 청소년들이 의회형식을 갖추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주제에 대하여 토론하게 하는 유일한 교육적인 프로그램이다. 독립 협회 네트워크로서의 유럽청소년의회는 40개 국가를 대표하고 매년 600여개가 넘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유럽청소년의회 네트워크는 매년 3만 5천명의 참가자들에게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수천 명의 청소년이 이러한 프로그램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고

있다.

유럽청소년의회의 미션은 무엇보다 유럽의 청소년이 개방적이고 인내심을 가진 적극적인 시민(active citizens)이 성장하기 위한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1987년 프랑스의 슈바르코프(Schwarzkopf) 지역에서 처음 태동된 유럽청소년의회는 청소년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사회에서 필요한 기술을 배우고 독립적인 사고를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의도되었다. 이후 수많은 청소년들이 이 프로그램에의 참여를 통해 유럽의 통합과 문화차에서 오는 오해와 갈등을 완화시키는 데에 기여해 왔다. 그 결과 유럽청소년의회는 현재 청소년 대상의 가장 큰 규모의 정치토론의 장이자 문화교류의 장이며, 유럽연합 시민성을 습득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플랫폼이 되었다. 현재 40개국에서 참가하고 있으며, 프로그램을 위한 청소년자원봉사자의 숫자만 해도 수천 명에 이른다.

유럽청소년의회는 청소년에 의해 운영되는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매년 유럽전역에서 3,000명이 넘는 자원봉사자들이 국가별 유럽청소년의회 위원회, 실행위원회 등을 적극적으로 운영해오고 있다. 정치적으로는 중립을 유지하고 비영리조직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유럽의 청소년들이 유럽인으로서의 시민적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유럽전역에서 4만 명 이상의 청소년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참여하고 있다.

유럽청소년의회는 원래 프랑스의 한 학교에서 시작된 프로젝트로 1991년 영국의 옥스퍼드 주로 확대되었다. 1992년에 비로소 유럽청소년의회가 정식으로 출범하게 되었다. 1992년에는 비영리 Fontainebleau 청소년재단이 설립되었다. 이후 유럽 전역의 국가들로 프로그램이 확대되고 양적이고 질적인 성장이 이루어져 왔다.

2001년에서 2004년에는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기도 했지만, 각국의 유럽청소년의회 운영위원회와 기존 프로그램 참가자, 그리고 Heinz-Schwarzkopf 재단의 도움으로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활동의 질을 강화하여 오히려 제2의 도약기를 맞게 되었다.

유럽청소년의회는 국가별 위원회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국제적인 수준에서는 국가별 대표들로 구성된 청소년들이 국제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운영위원회에는 각 국가위원회와 전임 위원회에서 투표한 6명으로 구성되며, 하인츠-슈바르코프(Heinz-Schwarzkopf) 재단도 역시 회원의 자격이 주어진다. 운영위원회는 국제 행사의 수준과 질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유럽청소년의회에 대한 보호와 장기간의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도 책임을 갖게 된다.

개별 국가위원회는 민주적인 원칙과 방법을 통해서 운영진과 운영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 국가별 행사를 조직하고 실행하여야 하는 책임을 갖게 된다. 개별 국가들은 국가의 경제수준을

고려하여 국제행사에서 사용될 예산에 대한 책임이 있고 이러한 예산을 담당하는 곳 또한 개별 국가위원회이다.

유럽연합청소년의회의 구체적인 운영 목적은 다음과 같이 제시되고 있다.

- 유럽의 현안에 대한 이해를 촉진하고 적극적인 유럽 시민성을 함양하여 청소년들이 유럽의 정치에 참여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
- 국제이해, 간문화, 사고의 다양성과 존중을 도모하는 것
- 유럽청소년의 개인적인 역량개발을 도모하는 것
- 청소년들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

유럽청소년의회의의 성과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첫째, 매년 간 문화 교류프로그램과 정치적 토론 프로그램에 3만 5천명 이상의 청소년이 참여하고 있다. 둘째, 청소년 참가자들이 이러한 활동을 통해 다양한 언어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국제적인 환경에서 일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다. 이러한 성과의 주된 요인은 청소년들을 위해 청소년 스스로가 프로그램을 조직하고 운영하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유럽청소년의회의의 자체 평가에 따르면, 90%이상의 참가자들이 프로그램의 참여를 통해 간문화 이해와 언어 소통 능력이 향상되었고 적극적인 유럽 시민성을 함양하고 유럽의 시민으로 느끼게 되었다고 밝힌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유럽 청소년의회 운영전략

1987년 이래 유럽청소년의회의는 수많은 청소년들이 개방성, 인내심, 적극적 시민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이에 필요한 역량을 강화해 왔다. 2015년 국제 전략(International Strategy 2016-2020)을 통해 유럽청소년의회의는 태동 이래 처음으로 조직의 미션과 가치에 대하여 고찰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러한 비판적 반성이 국제 전략(International Strategy 2016-2020)을 수립하는 기초를 마련하였고, 특히 통합, 역량강화, 기여라는 세 가지 영역에서 유럽청소년의회의의 과제를 수립하였다. 이외에 네트워크의 안전성과 지속성을 중요한 과제로 간주하였으며, 이것이 다음과 같은 유럽 청소년의회의의 운영전략으로 안착되었다(<http://eyp.org/strategy>, 2016. 7.18 검색)

첫 번째는 사회통합에의 기여이다. 다시 말해 청소년의회를 통하여 사회통합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유럽청소년의회의가 지향하는 통합이란 유럽의 청소년들이 자신의 성, 인종, 국적, 사회경제

적 배경이나 능력에 관계없이 사회에 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모든 청소년이 자신의 역량을 개발하고 동기부여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청소년 개인이 처한 사정으로 인해 이러한 프로그램에 쉽게 참여할 수 없는(사회적 배제에 놓이기 쉬운) 청소년들을 적극적으로 찾아 이들의 발달을 극대화하여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청소년 역량강화이다. 청소년들은 유럽청소년의회에의 참여를 통해 중요한 기술과 지식, 자신감을 얻을 수 있고 사회에 영향력 있는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가정이다. 유럽청소년의회는 시민교육을 매우 중요한 목표이자 수단으로 보았고 구성원들이 공교육을 통해서만 함양할 수 없는 시민적 기술과 태도 함양을 강조하게 되었다. 시민교육의 효과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교육적 방법을 사용하고 과정에 대해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프로그램의 질을 보장하는 것도 역량강화의 주요 방안으로 여겨졌다. 이를 통해 개인이 스스로를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어느 시기에 참여하든지 같은 수준의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질 관리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그러므로 유럽 청소년의회는 청소년의회 활동을 통해 청소년이 자신의 역량을 개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많은 청소년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개발하고자 하는 것이다.

세 번째 청소년의 기여를 인정하는 것이다. 유럽청소년의회는 청소년을 위해 청소년이 운영하며 청소년자원봉사자에 의해 움직인다. 또 유럽 청소년의회는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에만 민주적으로 운영될 뿐만 아니라 조직의 운영에 있어서도 민주적 원리를 강조하고 있다. 3000명이 넘는 자원봉사자들이 활동을 기획하고 준비하며 실행하기 때문에 어떻게 운영되는가에 대한 결정도 청소년들이 하게 된다. 유럽청소년의회는 자원봉사자들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자원봉사자가 모자라는 일이 없을 정도로 많은 청소년 자원봉사자를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헌신을 단순한 자원봉사로만 받아들이지 않고 청소년의회 조직차원에서 자원봉사자에게 많은 혜택과 보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주요 전략이다. 비정부 자원봉사 조직을 운영하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자원봉사의 이상적인 목적과 가치가 자원봉사자들에게 공유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자원봉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청소년의회 차원에서 인정받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나아가 유럽청소년의회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임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은 향후 청소년의회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한국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사안이다.

마지막은 안정성과 지속성에 관한 것이다. 유럽 청소년의회는 매우 큰 성장을 거듭해 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위원회 위원이나 자원봉사자들의 임기가 최대한 2년으로 프로그램이나 조직

운영의 지속성을 저해 받을 때가 있다. 운영의 안정성, 지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은 유럽청소년의회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누가 사업을 담당하든 필요한 지식과 기술이 공백 없이 전수되고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따라서 청소년의회의 사업과 프로그램이 안전성과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운영전략은 단순히 청소년활동이나 청소년사업이 단발적인 행사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청소년활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강조하는 측면으로 볼 수 있다.

3) 영국 청소년의회⁸⁾

영국 청소년의회는 청소년이 자신의 에너지와 열정을 사용하여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11세에서 18세의 청소년들에게 의미 있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청소년을 대리하는 것을 통해 사회적 변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청소년의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① 청소년의회 역사

영국 청소년의회를 처음 조직한 것은 청소년이다. 이때 아동학대 예방본부(The National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Children : NSPCC)가 청소년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제안서를 만들었고 이때 James Moody라는 청소년이 처음 의장으로 선출되었다. 켄트 주의 보수당 국회의원인 Andrew Rowe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다. 그는 청소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하여 청소년이 의견을 제시하고 참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았으며, 1990년에 청소년의회 구성을 위한 법안을 발의하였다.

청소년의회의 목적은 11세에서 18세의 청소년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이다. 이는 그들이 속한 지역사회공동체, 지역과 지방정부, 그리고 중앙정부의 모든 영역을 포괄하는 것으로, 청소년의 필요와 의견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청소년서비스 분야에 청소년의 정확한 욕구와 필요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비영리기구로서의 청소년의회는 연중으로 청소년의회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는 영국의 의회나 지방의회의 미팅에 참석뿐만 아니라 부처 장관들이나 야당 대변인이나 정치인과의 만남도 포함되며 청소년정책과 프로그램개

8) <http://www.ukyouthparliament.org.uk/about-us/>

발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후 2003년에 청소년의회가 지향하는 가치는 다음의 7가지로 제시되었다. 이 내용은 현재까지 영국 청소년의회 운영의 중요한 기초 원리가 되었다(<http://www.ukyouthparliament.org.uk/about-us/history/>).

첫째, 청소년 참여는 특권이라는 것이다. 즉, 청소년이 청소년의회 활동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특권임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청소년들은 자기가 속해 있는 지역의 대표로서 청소년의회에 참여하고 있다. 이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면서 동시에 얼마나 소중한 특권인지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둘째, 청소년참여를 통한 다양한 성과에 대하여 자부심을 갖자는 것이다. 즉 청소년의회는 출범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청소년의 의견을 제시해 왔다. 그 결과 청소년의 의견이 실제 청소년정책이나 사업에 반영된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회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은 스스로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성과를 소중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인내심이다. 사실 사람들의 생각이나 관점은 하루아침에 변화할 수 없다. 더욱이 청소년관련 정책을 만들고 또는 정책이 변화하는 것 자체가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이기도 하다. 청소년의회의 청소년 회원들이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청소년과 관련한 문제들을 다룬다면 언젠가는 청소년 정책이 원하는 대로 변화할 수 있다고 보았다. 청소년정책의 효과성과 실효성을 너무 단기적인 측면에서 평가하려는 한국의 청소년분야에게 주는 메시지가 큰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불굴의 의지에 관한 것이다. 이는 인내와도 관계가 있지만 많은 힘든 일들을 극복하는 것을 동시에 의미하기 때문에 인내심을 갖는 것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청소년의 어떤 요구나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서 때로는 여러 번 논쟁하고 또는 의견이 다른 사람을 설득해야 할 일도 있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섯째, 파트너십에 관한 것이다. 이것은 청소년의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로 다양한 기관이나 기업, 단체와 협력해서 일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영리단체이거나 비영리단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청소년에 대하여 어떤 우호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전 세대와도 교류하고 파트너십을 가질 필요가 있다. 특히 청소년 세대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어른들과도 협력하여 잘못된 편견이나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섯째, 홍보가 필요하다. 청소년의회에 대해 청소년들 자체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 다양한 매체와 방법을 통하여 청소년의회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청소년의회가 하는 일에

대하여 공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회의 활동이 공공성과 지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의 빈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영국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청소년에게 필요한 자원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청소년의 참여도 마찬가지인데 청소년의회는 경제적 빈곤의 이유로 청소년의 다양한 참여가 제한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청소년들을 발굴하고 협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유럽연합이나 전 세계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② 청소년의회 운영

영국 청소년의회는 11세에서 18세의 청소년에게 의미 참여와 캠페인을 통해서 사회변화에 대한 의견을 대표하는 기구이다. 청소년의회에는 369석이 있으며 모두 선거로 선출된다. 이렇게 선출된 청소년을 청소년의원(Members of Youth Parliament)이라고 하며 영국 전역에서 1년에 한 번씩 선출된다. 11세에서 18세에 해당하는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투표에 참가할 수 있고 또 청소년의원으로 선출될 수 있다. 2016년을 기준으로 지난 2년 동안 백만 명의 청소년이 영국 청소년의원 선거에 참여하였다. 선출된 청소년들은 이벤트와 프로젝트를 조직하고 캠페인을 운영하며 청소년에게 가장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모든 청소년의원은 일 년에 한번 모두 모이는 자리를 갖는다.

청소년의회의 목적은 11세에서 18세의 청소년들에게 그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지역과 지방정부, 중앙정부 차원에서, 그리고 청소년 서비스 기관, 청소년들의 필요와 의견에 관심을 보이는 모든 기관이나 단체에서 청소년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청소년의회는 독자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며 장관과의 대화, 야당 대변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여,야 모두의 관점에서 청소년정책과 프로그램이 개발될 수 있도록 시도한다.

청소년의회는 모든 11세에서 18세의 모든 청소년의 참여를 환영하지만 특히 사회적으로 배제되어 있는 청소년(위기청소년, 취약계층 청소년 등)과 지방청소년의회를 대표하는 청소년들의 참여를 강조한다. 특히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제12조에 명시되어 있는 청소년의 참여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청소년이 중앙정부의 민주주의의 절차와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청소년 역량강화 역시 청소년의회의 중요한 목적인데 청소년이 고민하고 있는 사안들을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공동체 안에서 긍정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그들의 시민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말한다. 정치적으로는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며 정치적인 관점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 관련 문제를 대변하는 역할을 한다.

청소년의회의 조직은 영국의 9개의 지역별로 지역 코디네이터가 지역을 관리하며, 이 9개의 조직은 지역에 따라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 잉글랜드 청소년의회로 다시 합쳐지게 된다. 청소년의회 역시 각 지방의 선거구와 같이 선거구를 구분하고 있으며 각 선거구마다 최소한 한명의 청소년의원이 선출되도록 한다. 선거구당 청소년의원의 숫자는 해당지역의 청소년 인구수에 따라 배정된다.

4) 핀란드 청소년의회⁹⁾

핀란드 청소년의회는 2001년 6월에 처음으로 시작되었다. 그런데 이미 1990년대 중반에 학교 프로젝트의 하나로 청소년의회가 한 번 구성된 적이 있었으나, 활성화되지 못하고 사라졌다. 반면 2001년에 구성된 청소년의회는 지금까지 그 역사를 유지해오고 있다. 2001년 시작 당시 60유로의 재정밖에는 없었지만 2011년 기준으로 교육문화부(Ministry of Education and Culture)로부터 연간 9000유로를 지원받을 만큼 청소년의회의 지속적인 성장이 있어왔다. 예산의 확대뿐만 아니라 1년에 한 번의 회의 소집과 12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시작되었던 것이 2011년에는 연 4회의 정기 회의와, 청소년의회 졸업생 모임, 그리고 150명 이상의 청소년의 참여로 확장되었다. 2006년에는 처음으로 헬싱키가 아닌 지역에서 지방 청소년의회가 구성되었다. 이어 2007년부터는 교육문화부에서 청소년단체에게 지급하는 예산지원금을 받게 되었다.

핀란드 청소년의회는 유럽청소년의회의 가치와 이념을 준수하고 매년 대표를 파견하여 유럽차원의 청소년의회에서 핀란드 청소년의 의견을 대변하고자 한다. 총 18명의 청소년대표를 유럽청소년의회에 파견되고 있다. 2009년에는 62회 유럽 청소년의회를 헬싱키에서 개최할 만큼 청소년의회가 거두어온 성과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주요 활동은 매년 정기적으로 4번 개최되는 정기 회의이고 청소년의회 기참가자들의 모임이 연중 수시로 개최되며, 여름과 겨울에는 기참가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무도회가 열린다.

청소년의회에 참가할 수 있는 연령은 15세에서 19세로 학교의 교사들이 청소년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청소년의회 기참가자를 초대한다거나 시민교육의 차원에서 청소년의회를

9) http://eyppfinland.org/files/2013/04/psp_guide_english.pdf 에서 요약 발췌

다룬다. 즉, 적극적인 시민성과 참여를 실천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핀란드 학교에서 청소년의회 활동이 적극 활용되고 소개되고 있다는 것이다. 학교의 교육과정의 하나로 활용되는 경우 교실에서는 습득하고 실천하기 어려웠던 시민적 기술과 자질에 대하여 강조하며 그룹토론이나 시민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이해를 다루며 청소년의회활동을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다. 즉 학교에서는 청소년의회활동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더라도 학교의 수업시간이나 학교 학생회 등을 통하여 청소년들이 청소년참여를 직접 실천해 보도록 강조한다.

더 나아가 핀란드 청소년의회는 교사들이 원하는 경우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모의 청소년의회활동을 적극적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교사용 활동집을 만들어 배포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75분에서 90분으로 이루어진 지역사회 활동(Community Work) 수업 2회, 45분에서 75분으로 이루어진 수업 1~2회를 통한 의회(General Assembly)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교사가 어렵지 않게 관련수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핀란드 청소년의회 웹사이트에 관련 자료들을 게시하고 있다.

핀란드 청소년의회가 영국 청소년의회와 다른 가장 큰 점이 바로 학교현장에서 모의 청소년의회를 경험해 볼 수 있도록 교사용 교육자료를 배포하고 지원한다는 점이다. 이는 청소년의회가 청소년의 자발성이나 주도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도 한 부분이지만, 반대로 청소년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공교육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5) 아일랜드 청소년의회

아일랜드 청소년의회는 비영리 조직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아일랜드 내에 36개의 지방청소년의회를 구성하고 있다. 청소년의회의 미션으로는 청소년들이 유럽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유럽의 다양한 사안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청소년들의 국제적 역량을 개발하고 세계적인 사안에 있어 협력하고 존중할 수 있는 기술과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격려한다. 또 그런 과정에서 청소년의 의견과 필요가 정당하게 대변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청소년의회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2016년 현재를 기준으로 지난 15년간 중등학교를 중심으로 주로 주말을 이용하여 숙박활동으로 청소년의회활동이 진행되어 왔으며 청소년의 참여를 극대화하기 위해 청소년이 관심 있어 하는 주제를 통해 청소년에게 즐거운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도 한다. 이런 숙박활동은 금요일에 시작하여 일요일까지 진행되는데 여기에 참가하는 청소년은 중간에 그만두는 일

없이 모든 프로그램에 참가하여야 한다. 금요일에는 팀빌딩(Teambuilding) 활동, 토요일에는 개회식과 더불어 위원회 활동(Committee Work), 그리고 의회(General Assembly)활동으로 구성된다. 참가하는 모든 청소년들은 의회활동이 진행될 때는 청바지나 운동복을 입을 수 없게 되어 있어 청소년들이 공적인 활동에서의 옷차림과 언행을 배울 수 있다. 모든 참가자들은 의회 시작전에 50유로의 참가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 참가비는 모두 활동경비로 사용되며 공개된다.

구체적으로 팀빌딩 활동은 의회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서로 다른 지역에서 모인 청소년들이 실내활동과 야외활동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게 하는 팀워크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러한 팀워크와 친교를 통해서 청소년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민주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된다. 위원회 활동은 의회가 열리기 전에 위원회별로 청소년들이 토론을 통하여 어떤 사안에 대한 결론과 자신의 의견을 도출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며 어떤 공통된 의견을 합의하고 도출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더라도 청소년들은 민주적인 토론을 통하여 위원회별로 하나의 의견을 도출하는 법, 설득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이때 위원회는 위원장을 선출하고 기참가자들의 참여를 통하여 회의하는 법고 토론하는 법을 경험한다. 의회는 위원회 별로 나뉘어 진행된 위원회 활동과 달리 전체 참가자가 한자리에 모여 의회를 개최하는 것이다. 각각의 위원회는 자신들이 도출한 사안을 돌아가며 발표하고 서로의 사안과 관심에 대하여 토론하며 마지막에는 투표를 통하여 어떤 사안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는 자리이다. 의회활동을 통하여 청소년들은 토론을 하는 법과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자신의 의견을 나누는 법에 대하여 배우고 실천하게 되며, 어떤 중요한 의견에 대해 집단의 의견을 모으고 수렴하는 법을 익힘으로써 적극적인 참여활동을 경험할 수 있다.

4. 논의 및 시사점

유럽의 대표적인 청소년참여기구인 유럽 청소년의회(European Youth Parliament)를 살펴보고 한국의 청소년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제시할 수 있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사회의 적극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유럽 청소년의회에 대한 유럽연합과 유럽평의회 차원의 지원은 청소년들이 모이고 나눌

수 있는 활동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또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각국의 청소년의회(Youth Council)은 청소년활동의 다양한 정보의 장이 되어야 한다. 또한 청소년이 참여활동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토론 기술과 책임, 협력과 존중, 배려 등과 같은 것을 배우게 해준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는 정부의 재정적, 행정적 지원이 있기에 가능하다.

둘째, 핀란드의 사례에서 보듯이 청소년참여는 학교 밖 청소년활동만으로 충분치 않으며, 학교 내의 다양한 청소년참여 활동과 연속성을 가져야 한다.

청소년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와 교육과정을 통해서 청소년참여의 기초가 되는 지식과 기술, 태도를 배울 때 학교 밖에서의 청소년참여가 보다 의미 있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학교를 통해 다양한 청소년참여 활동의 정보가 공유되고 학교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한 실제 파견이나 참여가 있을 때 청소년 참여의 성과가 극대화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청소년참여는 학교와 학교 밖으로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청소년의 전반적인 모든 삶의 형태 안에서 이루어져야 진정한 참여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셋째, 청소년참여는 민주주의의 성숙과 발전, 나아가 시민성 함양을 위한 교육과 실천의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청소년참여가 단순히 청소년이 여가를 보내거나 의미 있는 활동을 하는 것을 넘어서는 청소년의 인권과 관련된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 청소년의 참여활동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요구되는 적극적인 시민성의 한 부분이다. 청소년 시기부터 이러한 의미 있는 활동에 참여할 때 비로소 성인이 되어서도 책임 있는 다양한 참여가 가능할 것이다. 영국의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청소년의회활동이 청소년 시민교육의 연장선 안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유럽 청소년의회활동도 유럽인으로서의 시민성과 정체성 함양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청소년참여활동은 청소년의 시민성을 함양하게 하고 직접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활동이라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다소 과소평가되어 있는 청소년참여활동의 효과성과 중요성에 대한 올바른 객관적인 인식이 필요하다. 나아가 향후 청소년참여활동이 시민교육의 실천 방법으로 활용되기 위한 다양한 접근을 시도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제 V 장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실천방안

1. 청소년행복마을 만들기 추진 절차 및 단계별 추진전략
2. 청소년행복마을 만들기 주체별 역할 규명과 교육훈련 방안
3.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운영모형 및 지원체계
4. 청소년행복마을 조성을 위한 실행프로그램 개발

제 V 장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실천방안

1. 청소년행복마을 만들기 추진 절차 및 단계별 추진전략

1) 추진계획 수립 절차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만들기 계획은 <표V-1>과 같이 추진방향과 목표 수립에서부터 마을현황 및 자원조사, 운영계획 수립을 통해 확정하여 발표하는 절차로 진행할 수 있다.

먼저 1단계인 행복마을만들기 방향과 목표를 수립하는 과정으로 일반주민과 청소년, 그리고 전문가와 지원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지원조직이 함께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사업의 취지와 내용 등을 논의하고 공감하는 장을 마련해야 한다. 이 단계에서 계획수립 주체와 실행위원회를 구성하고 원탁회의와 워크숍을 개최하여 추진방향과 계획 및 일정 등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행복마을 추진계획 2단계는 계획수립 주체와 실행위원회를 중심으로 마을의 인구현황을 포함하여 인적·물적 자원을 정확하게 조사하여 인력풀과 자원지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주민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설문과 인터뷰를 통해 인식조사와 역량을 파악하고 지역의 역사 및 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수집한다.

다음 3단계 운영계획 수립에서는 세부실천과제와 실행계획을 도출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마을의 단위사업과 프로그램 추진방안을 구상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운영주체를 확정한다. 더불어 전문가와 행정기관의 협력방안 및 마을성장과정에 따른 실천방안을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앞선 절차를 통해 만들어진 최종 추진계획을 확정하여 발표하고 추가적인 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과 청소년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마을만들기 단위사업과 프로그램에 대한 추진조직을 결성하고 행정기관과 전문가의 협조 및 참여자들 간의 협력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표 V-1

청소년행복마을만들기 추진계획 수립 절차

단계	추진 과정	활동 내용	참여 주체
1단계: 방향과 목표 수립	· 계획수립 주체 및 실행위원회 구성 · 오리엔테이션	· 계획수립 홍보와 참여 제안	일반주민, 청소년, 실행위원회
	· 마을 비전 수립을 위 한 주민과 청소년 원 탁회의	· 마을의 미래와 비전 논의 · 마을발전방향 이야기	일반주민, 청소년, 실행위원회, 지원 조직
	· 워크숍	· 계획 방향과 목표 수립 · 계획일정, 절차 논의	실행위원회, 청소 년대표, 지원조직
2단계: 마을현황 및 자원 조사	· 마을현장 답사 · 주민과 청소년 설문과 인터뷰 · 마을자원조사 · 마을자원 지도만들기	· 마을지도 그리기 · 마을사진 찍기 · 주민과 청소년 인식, 역량 파악 · 자료수집(마을역사·문화·이야기 등) · 마을공간의 이미지 시각화	일반주민, 청소년 실행위원회, 행정 기관, 지원조직
	· 마을현황분석	· 마을현황, 설문 분석 · 마을의 문제점·개선점 도출	실행위원회, 전문 가, 지원조직
3단계: 운영 계획 수립	· 세부과제와 실행계획 도출	· 전문가와 행정기관 협력방안 · 마을사업, 프로그램 추진방안 · 마을만들기 추진조직 확정 · 마을성장과정별 실천방안	실행위원회, 청소 년, 분과조직, 지원조직
4단계: 마을계획 확정 및 발표	· 마을공동체 계획 확정 및 설명회 개최	· 계획 발표와 주민/청소년의 의견 수렴 · 참여자 간 협력·실행방안 논의 · 행정공모사업 방안 모색 · 마을만들기 추진조직 결성	일반주민, 실행위 원회, 청소년, 행 정, 전문가, 지원 조직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4), '경기도 마을만들기 지원계획 및 실행방안 연구'를 참고하여 수정·보완

2) 단계별 추진전략

청소년 행복마을 조성 프로젝트는 추진계획 수립과 더불어 본격적인 추진전략을 준비기→조성기→활동기→안정기 및 발전기 단계별로 [그림 V-1]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참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경기도 마을만들기 지원계획 및 실행방안 연구(2015) 내용을 수정·보완, 청소년행복마을 조성사업 운영 및 정책화방안 포럼(2016. 7.22)자료집, 재인용.

[그림 V-1] 청소년 행복마을 조성 단계별 추진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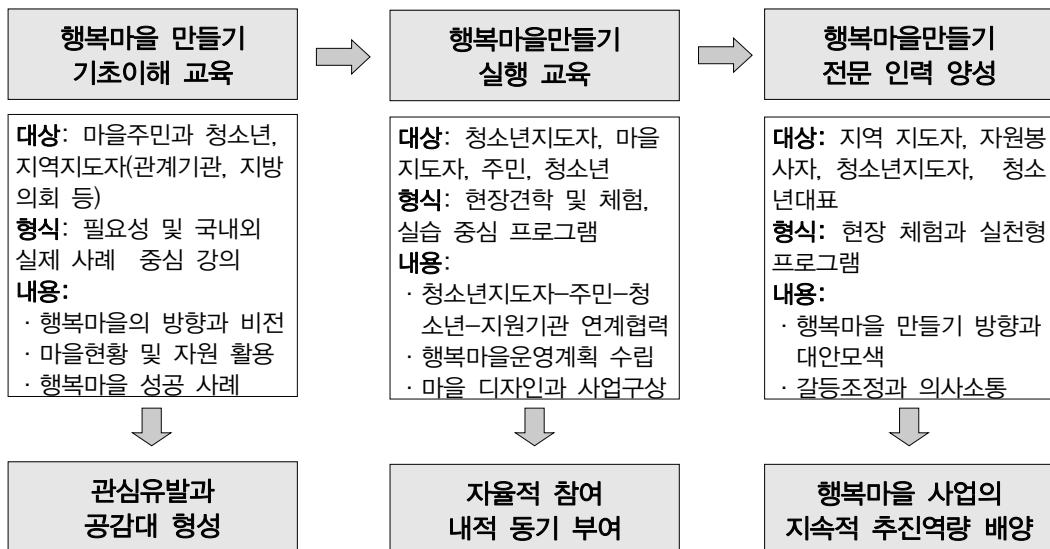
먼저 준비기에서는 전문가 협력단 및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미 계획수립단계에서 파악된 지역 내 인적·물적 자원에 대한 분석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또한 전문가를 초청하여 주민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청소년주도적인 현안문제 논의 및 활동모임을 구성한다. 조성기에서는 마을단위 자율조직 중심으로 참가자를 확대하고 단위 사업별 사업추진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방식과 협력방안을 규명한다. 청소년행복마을 전체 프로젝트와 단위 사업을 총괄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및 갈등조정 기구설치를 협의한다.

활동기에는 지역의 여건과 자원을 고려하여 특성화사업 선정 및 사업별 우선순위 선정과 구체적인 추진전략을 협의한다. 사업별 성격에 따라 예산확보 방안으로 국비, 지방비, 자체 예산 편성 비율을 논의하고 기본적인 사업운영 매뉴얼과 참가자의 활동 지침서를 개발해야 한다. 발전기에서는 인근 지역과의 연계 및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권역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확대 가능성을 탐색한다. 사업별 평가와 발전전략 구상과 더불어 새로운 사업영역을 모색하고 이를 추진할 전담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3) 행복마을만들기 교육 과정

청소년 행복마을만들기 추진계획 수립과 단계별 추진전략에서도 주민과 청소년을 포함하여 사업관계자 전체를 대상으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 교육은 사전오리엔테이션부터 사업시행 과정 전반에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교육과정은 [그림V-2]에 제시한 바와 같이 기초이해와 실행교육, 그리고 전문 인력 양성 단계로 구분하였다.



참조: 안산시 좋은마을만들기지원센터(201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경기도 마을만들기 지원계획 및 실행방안 연구(2015), p.191 재구성

[그림 V-2]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만들기 교육체계

먼저 기초이해 교육에서는 행복마을 조성 관계자 및 참가자 전원을 대상으로 프로젝트의 필요성과 국내외 실제 사례들을 중심으로 프리젠테이션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모든 관계자들의 관심을 유발하고 사업추진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

다음으로 실행 교육 단계에서는 현장견학과 체험 및 실습을 중심으로 청소년지도자-주민-청소년-지원 및 후원기관 간의 실질적인 연계와 협력방안을 모색한다. 가급적 주민과 청소년 주도적으

로 마을 디자인과 사업을 구상을 포함하여 행복마을운영계획을 직접 수립하고 국가 및 지자체 공모사업과의 연계 가능성도 검토한다. 이 과정에서 주민과 청소년들의 자율적인 참여와 주도적인 역할을 통한 내적 동기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전문 인력 양성과정에서는 행복마을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역량을 배양을 목적으로 지역지도자, 자원봉사자,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대표 등을 대상으로 갈등조정과 의사소통 방법, 다양한 대안 모색 등의 리더십 훈련과 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2. 청소년행복마을 만들기 주체별 역할 규명과 교육훈련 방안¹⁰⁾

1) ‘청소년행복(친화)마을만들기’사업의 추진 관점 및 운영 실태

‘청소년행복마을만들기’는 현재 정부의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시민사회가 추진하고 있는 ‘마을만들기’ 및 ‘아동친화도시’사업과의 비교 관점에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마을 만들기는 시민사회의 활동이 제도화되었다는 관점이 지배적이며, 최근 주민주도의 지역운영활동을 의미하기도 한다. 특히 ‘마을만들기’에서 마을은 물리적 공간과 커뮤니티 활성화라는 두 단위를 의미한다. 또한 만들기는 이 두 가지 측면을 어떻게 활성화 시키는가? 라는 용어적 측면을 내포하고 있다. 즉, ‘마을’은 ‘공동체성’을 기반하고 실체적 개념(공간)과 공동체(관계)라는 사회적 개념의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함축하고 있으며, 농사짓던 시절의 마을이 아니라 근대화 과정에서 생긴 현대 마을의 새로운 공동체를 고려해야 한다.

마을의 개념에서도 청소년은 배제되어 있으므로 청소년행복(친화)마을 만들기 운동에서 청소년은 운동의 주체로서 인정하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동시에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각 주체들의 역할을 통한 연대 즉,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청소년들을 지원하고 함께 하는 공동체적 관점이 있어야 한다. 정부 부처의 지원 사업에 기반을 두고 있는 ‘행복마을만들기’사업 이전에 청소년참여와 지원네트워크가 민간 차원에서 형성되어 있을 때, 비로소 지속가능한 청소년친화마을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마을 만들기 운동과 청소년행복마을 만들기의 용어적 관점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 <표V-2>와 같다.

10) 이 내용은 “2015년도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시범사업”운영 기관의 대표인 정건희 소장(주. 들꽃세상전북지부, 청소년자치연구소)이 집필한 내용임.

표 V-2

마을만들기 운동과 청소년행복마을의 관점 비교

마을 만들기			청소년행복(친화)마을 만들기		
마을 (공동체성 기반)	만들기 (운동)	주체	청소년 행복마을	만들기(운동)	주체
물리적 공간 (하드웨어)	물리적 공간 개선	마을주민이 주체이며 행정은 지원 조직	청소년에 의한 물리적 공간과 청소년친화적 인 마을로의 사회적 신뢰관계 형성	청소년이 주체가 되어 참여하는 청청소년친화마을, 청소년을 시민사회가 지원하고 연대하는 운동의 과정으로서 행정 지원이 수반	청소년이 주체, 청소년이 주도적으 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활동가 및 시민
커뮤니티 (소프트웨어)	커뮤니티 활성화, 주민 관계 개선 및 지원 시스템구축				

아동친화도시의 개념은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하고 발달하여 아동의 핵심역량을 개발하고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역사회 환경을 마련하여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성하는 도시다. 지역사회와 지역정부 차원에서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에 대한 이해와 인식의 정도를 평가하고, 아동과 청소년의 솔직한 의견이 직접 반영될 수 있는 조직 개발과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법률 제정, 예산의 평가와 실행에 있어서 아동과 청소년의 참여를 활성화하도록 독려하는 것이다. 이를 실질적으로 실현하는 과정 또한 청소년행복마을을 구성하는 역할 중 한 부분일 수 있다.

청소년행복마을은 마을의 공동체적 역할로서 행복이라는 주관적인 용어적 개념을 ‘친화’로의 수정이 요구되기도 한다. 청소년에 의한 물리적 공간의 개선과 함께 청소년친화마을로서의 사회적 신뢰관계형성을 하는 운동으로서 청소년들이 참여의 주체가 되고 청소년들을 지원하고 함께 하는 시민사회의 연대지원과 행정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는 활동이다. 청소년행복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주요한 주체는 청소년들이나 이들을 지원하고 조직하며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청소년친화마을만들기’ 활동가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행정과 시민사회의 역할도 있어야 한다. 활동가들은 청소년들의 참여수준을 높이는 역할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의 연대와 행정의 지원이 함께 할 수 있는 ‘운동’의 역할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군산시는 ‘어린이가 행복한 지역사회’를 주요한 정책으로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목표로 전담부서를 신설 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시 중심으로 다양한 전문가 그룹과 연계하여 어린이행복도시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나 민간 주도의 아동, 청소년 관련 전문가 네트워크의 지원체계도 요구된다.

청소년전문 기관인 사단법인 들꽃청소년세상 전북지부인 청소년자치연구소는 2015년 군산시와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를 위한 시범사업”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다. 추진 기조는 청소년 참여를 기반으로 청소년친화적인 지역사회를 위해 다양한 기관과 연대하여 활동을 펼치고 있다. 연구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자치공간 ‘달그락달그락’을 그 플랫폼의 역할로 진행한다. 진로 및 경제, 사회참여, 세대관계 등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다. 그 특징으로 이러한 활동의 주체가 청소년들로서 자치기구의 조직적인 활동들이 연동되어 있으며, 지역사회의 다양한 시민사회 영역에서 함께 연대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을 기반으로 청소년참여포럼 등을 통하여 지자체에 청소년친화적인 지역사회를 위한 정책제안을 진행했고 그러한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반영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2016년도에도 조례에 기반 한 청소년의회 등의 활동을 주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연구소와 달그락달그락의 청소년활동가들의 청소년들의 조직화하는 과정과 플랫폼의 공간적 역할을 기반으로 지역사회 네트워크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면서 이루어지는 활동이다. 단순한 프로그램적 진행이 아닌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들의 연대 조직으로 청소년자치기구의 조직화된 활동을 기반으로 청소년친화마을을 이루기 위한 활동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 청소년들의 대부분의 활동을 지역정책화 하고 지속가능한 언론이슈화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가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2) 청소년행복(친화)마을 만들기를 위한 각 주체별 역할 규명

마을 만들기 운동 및 아동청소년친화도시의 관점과 들꽃청소년세상전북지부의 청소년자치연구소 및 청소년자치공간 달그락달그락의 청소년행복(친화) 마을 만들기 활동 사례를 기반으로 청소년행복마을을 위한 지역사회 각 주체별 역할을 규명하면 <표V-3>과 같다.

담당	역할	세부역할
코디네이터 (코디네이터 역할로서의 민간 청소년활동가 인데, 본 사례에서 청소년자치연 구소의 역할)	청소년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 지역사회 연계 활동으로 청소년 친화적 사회·문화·경제 등 다양한 영역의 인식 개선활동 ■ 마을(도시)의 다양한 주체의 연계·교류 활동 매개와 촉진
	중간지원조직간 연계협력	■ 아동, 청소년관련 지원기관과 연계 협력 추진 －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역 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관련 기관 조직과 연계 ■ 다양한 중간지원조직과 연계협력 추진 － 농촌활성화센터, 사회적경제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 등의 마을만들기 관련 조직과 연계 ■ 문화예술 등 다양한 전문가 그룹과 연대하여 활동하면서 연결 고리 만들기
	전문가 관리 지원운영	■ 청소년행복마을 만들기 전문가 관리 운영 ■ 청소년행복마을(도시)에 전문가 연결과 활동관리
	종합적 자료 축적 및 제공	■ 청소년행복마을 현황·자원·사업·역량 등 종합적 DB 구축 ■ 청소년행복마을과 관련한 종합정보 제공
	역량강화 지원	■ 청소년행복마을을 위한 지원조직 협력과 역할분담 모색 ■ 청소년행복마을을 위한 다양한 주체들의 역량강화 사업 추진
	교육·홍보사업	■ 청소년행복마을 만들기 문화 확산과 마케팅 ■ 청소년행복마을 만들기 교육자료·사례집 발간

첫째, 청소년친화마을 코디네이터의 역할이다. 청소년친화마을 위한 코디네이터는 ①지역사회 네트워크로서 청소년 친화적 사회·문화·경제 등 다양한 영역의 인식 개선활동, 마을(도시)의 다양한 주체의 연계·교류 활동 매개하고 촉진한다. ②중간지원조직간 연계협력으로 아동, 청소년 관련 지원기관과 연계 협력을 추진하고, 아동 청소년 영역은 아니지만 지역사회 도시재생지원센터 등 다양한 중간지원조직과 연계협력을 추진하고 문화 예술 등 다양한 전문가 그룹과 연대하여 활동하며 연결 고리를 만든다. ③청소년친화마을 전문가 관리 지원운영으로 관련 전문가 관리 운영 지원 및 청소년친화마을을 위한 마을(도시)에 전문가 연결과 활동관리를 담당한다. ④종합적 자료 축적 및 제공으로 청소년친화 마을과 관련한 현황·자원·사업·역량 등 종합적인 자료를

구축하는 등 관련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⑤역량강화 지원 역할로서 관련 지원조직 협력과 역할분담 모색 및 다양한 주체들의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한다. ⑥교육·홍보사업으로 청소년친화 마을 만들기 문화 확산과 마케팅, 교육자료, 사례집 등의 발간이다. 본고의 사례에서는 현재 코디네이터의 전반적인 역할을 청소년자치연구소 및 달그락달그락이 수행했음을 알 수 있다. 향후 정책적 지원과 민·관 네트워크의 허브역할을 할 수 있는 지원 조직으로 구성해야 하는데, 이를 조직하고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민·관이 수평적 협력 구조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 우선적으로 민의 전문가와 시민사회의 자발적인 네트워크가 구축되어야 하고 관의 행정에서는 이들을 지원하여 관련 전문가들의 민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둘째, 청소년활동가와 청소년의 역할을 <표V-4>와 같이 정리하였다. 청소년활동가는 ①청소년 활동 지원의 역할로서 청소년행복마을을 위한 영역별 활동으로 경제, 관계, 참여 등 다양한 활동의 구체적인 사업들을 기획, 구성하여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다. ②청소년참여를 위한 공간지원으로 본 사례에서와 같이 청소년자치공간 달그락달그락과 같은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는 제반 환경 조성을 조성하는데 이는 공간적 지원뿐만 아니라 정책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③플랫폼 형태 및 찾아가는 공간 구성으로서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허브)적 성격의 공간 구성으로 각 기관단체의 소속 청소년이기도 하지만 다양한 활동을 하는 청소년들을 지원하고 연대할 수 있는 구조로서의 역할과 청소년이 활동하는 공간에 찾아가서 지원하고 조직화한다. ④청소년참여를 위한 조직 및 제안하는 역할로서 동아리 등 청소년자치구의 조직화, 본 사례에서 나타났듯이 청소년참여 포럼 등을 통하여 다양한 지역 주체들이 참여하여 청소년들의 제안을 정책화 할 수 있는 시스템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한다. ⑤청소년과 시민사회 및 민간네트워크 형성으로 청소년과 시민사회 네트워크와 소통·협의 채널 형성하는데 청소년과 행정, 시민사회, 풀뿌리 공동체, 다양한 관련 전문가들의 의사소통과 의사결정에 협력하도록 지원하는 역할이다. 청소년의 역할로서 청소년자치기구, 청소년의회 등 청소년들이 조직화 하여 지역사회 다양한 주도적 참여와 청소년관련 기관단체의 다양한 청소년들의 네트워크가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역할이다. 민간 청소년활동가 및 관련 청소년들의 역할도 본 사례에서는 청소년자치연구소가 대부분 진행했음을 알 수 있다.

담당	역할	세부역할
청소년활동가 (청소년자치연 구소 및 청소년자치공 간 달그락달그락 의 역할)	청소년활동 지원	■ 청소년들의 다양한 활동 지원 (청소년행복마을을 위한 영역별 활동으로 경제, 관계, 참여 등 다양한 활동)
	청소년참여를 위한 공간	■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는 제반 환경 조성 (공간적, 정책 적 지원) ■ 청소년활동의 공간적 물적 지원
	플랫폼 형태 및 찾아가는 공간 구성	■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 성격의 공간 구성 ■ 청소년이 활동하는 공간에 찾아가서 지원 및 조직
	청소년참여를 위한 조직 및 제안	■ 청소년들의 조직화 (동아리 등 자치기구 조직, 청소년 간 신뢰관계 형성의 촉매역할 등) ■ 청소년들의 제안을 정책화 할 수 있는 시스템 및 지원체 계 (청소년참여포럼 등)
	청소년과 시민사회 및 민간네트워크 형성	■ 청소년과 시민사회 네트워크와 소통 · 협의채널 형성 ■ 참여자들이 의사소통과 의사결정에 협력하도록 지원 － 청소년 · 행정 · 시민사회 · 풀뿌리공동체 · 전문가 등
청소년	주체적인 참여	■ 청소년조직화 하여 지역사회 다양한 주도적 참여(청소년 의회, 청소년자치기구 등 활동을 통한 실질적 정책 제안, 인식 개선 운동 등) ■ 청소년관련 기관단체의 다양한 청소년들의 네트워크

셋째, 시(지자체)행정과 시의회 및 연구자의 역할의 역할을 <표V-5>와 같이 정리하였다. 시 행정에서는 무엇보다도 ①청소년친화 마을을 위한 통합부서가 구축되어야 하는데 이는 청소년친화마을은 단순히 청소년활동이나 상담 정도의 프로그램 지원정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도시계획, 상수도, 환경 등 지역의 다양한 영역에서 청소년들의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원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 때문에 지역 전체의 청소년친화적인 도시를 위한 부서의 위상을 갖고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적 위상과 강화 방안을 위한 역할 중요하다. ②행정 및 정책 반영으로서 청소년이 제안한 정책제안 반영을 위한 부단한

노력과 청소년참여예산제 등의 실질적 활동을 위한 지원 역할을 해야 한다. ③청소년친화마을을 위한 공모사업 등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이 필요하다.

표 V-5 청소년행복마을만들기 시 행정과 의회, 연구자의 역할

담당	역할	세부역할
시행정 담당	청소년친화마을을 위한 통합부서	■ 청소년친화마을을 위한 아동청소년 관련 통합부서 ■ 지역 전체의 청소년행복마을 만들기를 위한 부서의 위상과 컨트롤 타워 역할 강화 방안
	행정 및 정책 반영	■ 청소년이 제안한 정책제안 반영 노력 ■ 청소년참여예산제 활동 지원
	공모사업 등 정책 지원	■ 청소년친화마을을 공모사업 추진계획 수립 ■ 공모사업 마을 선정·관리·지원·평가 ■ 청소년친화 마을 사업 진행 마을(도시)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과 피드백
시의회	예산 및 조례 등 정책	■ 청소년의회 운영 지원 ■ 청소년친화마을 관련 조례 ■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의 등을 통한 청소년친화마을 관련 예산 지원
연구자	청소년친화마을을 위한 연구	■ 청소년이 연구의 대상이 아닌 연구자로서 참여 ■ 청소년친화마을 활동과 정부지원사업 조사 ■ 청소년친화마을 만들기 활동 분석과 평가 ■ 청소년친화마을 만들기 활동모델 정립 ■ 청소년친화마을 만들기 지원정책 개발과 거버넌스 협력 모델 개발 제시

시의회에서는 예산 및 조례 등 정책 지원 역할이 필요한데 예를 들면 청소년의회 운영 조례, 청소년친화마을과 관련한 조례 제정,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의 등을 통한 청소년친화마을 관련 예산 지원과, 연구자는 청소년친화마을을 위한 관련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는데 특히 청소년들이 연구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연구자로서의 주체적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교사의 역할이다. 교사는 학생들이 청소년행복도시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하고 이를 위한 지역사회와 다양한 네트워크, 모임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청소년행복마을 만들기를 위한 각 주체의 역할을 요약하면 다음 <V-6>과 같다.

표 V-6 청소년행복마을만들기 사업의 각 주체의 역할

담당	각 주체별 역할
시행정 담당	청소년친화 마을을 위한 통합부서
	행정 및 정책 반영
	공모사업 등 정책 지원
청소년	주체적인 참여
시의회	예산 및 조례 등 정책
코디네이터 (코디네이트 역할로서의 민간 청소년활동가인데, 본 사례에서 청소년자치연구소의 역할)	청소년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중간지원조직간 연계협력
	전문가 관리 지원운영
	종합적 자료 축적 및 제공
	역량강화 지원
	교육·홍보사업
청소년활동가 (청소년자치연구소 및 청소년자치공간 달그락달그락의 역할)	청소년활동 지원
	청소년참여를 위한 공간
	플랫폼 형태 및 찾아가는 공간 구성
	청소년참여를 위한 조직 및 제안
	청소년과 시민사회 및 민간네트워크 형성
연구자	청소년친화마을을 위한 연구
교사	학생 참여 지원 및 네트워크 참여

3) 청소년행복마을 만들기 관계자의 교육훈련 방안 제안

청소년행복마을 만들기를 위한 이러한 관련 주체별 역할에 따라 향후 관련자들의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활용방안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행복마을 만들기 전문 인력 양성사업의 교육방향 및 가치는 ‘청소년참여’를 기반으로 본 활동에 함께하는 마을의 청소년활동가와, 전문가, 공무원이 청소년 행복마을 만들기의

정체성과 원칙을 견지하면서 전문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교육하고, 시·군 교육체계는 마을에 거주하는 청소년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공동체 현장중심의 밀착형 교육으로 진행하는 한편, 청소년행복마을 만들기를 보다 심도 있게 전망하며 참여하고자 하는 계층에게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방법론, 이론을 교육하는 데 집중하는데 특히 청소년권리와 참여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장기적인 비전을 그릴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교육대상별 교육 방안으로 ①전문가 대상 교육은 우선적으로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교사, 청소년상담사 등을 대상으로 청소년행복도시에 대한 청소년이 참여하는 마을, 공동체, 네트워크, 아동친화도시의 정책 등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과 ②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에 대한 교육으로, 예를 들면 도시계획, 건축, 예술 등 다양한 영역의 관계자들이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사고하여 연계 지원할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한다. 이는 자신들이 지닌 전문지식과 개념을 청소년들과 대화하고 토론하면서 구체적인 청소년친화 마을을 위한 공동체성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③청소년친화마을을 위한 민간 활동가 대상 교육은 청소년참여와 공간설계, 조직화, 민과 관의 수평적 네트워크 구축 등에 집중하여 교육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경험자들이 활동하면서 겪었던 상황들을 다른 지역과 공유하면서 현재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청소년들의 환경에 대한 문제점과 사업의 한계를 다양한 관점에서 이해하도록 돕고, 이를 통해 새로운 활동의 돌파구를 스스로 탐색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며, ④공무원 대상 교육은 청소년행복 마을 만들기에 대한 행정지원의 의미를 이해하고 지역참여자들과 공동으로 협력하는 방법을 집중하여 교육한다.

셋째, 교육방식은 교육 대상별 필요한 이론과 방법론 교육, 현장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이론교육은 청소년행복(친화)마을의 기본관점 및 개념, 청소년 인권과 참여, 공동체성, 시민성, 청소년이 참여하는 마을 만들기 계획 등 기본 개념의 이론적이고 철학적 배경과 역사를 교육하고, 국내외사례를 체계적으로 이해하도록 한다. ②방법론교육으로 청소년행복마을을 위한 사업 진행방식, 청소년참여활동 및 사업, 청소년과 지역시민들의 의사소통과 합의형성과정에 대한 이해 등 청소년친화마을 만들기 활동 전반의 방법론을 교육하고, ③현장교육은 교육과정의 마무리에 청소년활동가 등 전문가와 공무원, 인접 관련 전문가들이 공동 팀을 구성하여 실제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에서 겪고 있는 현장의 여건과 문제점을 제시하고 해당 마을의 청소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접근방식과 실행방식을 찾아가면서, 구체적인 해결과정에 기반을 둔 마을의 진단과 청소년행복 마을공동체계획을 교육과정의 최종결과물로 제출하는데, 여기에서 유의해야 할 것은 반드시 청소년들이 참여하고 그들의 욕구와 필요를

파악하며, 청소년들이 지역사회를 어떻게 고민하고 함께 하려고 하는지, 그들에게 실질적으로 행복한 도시가 무엇인지와 선진국 사례 등을 소통하는 과정에서 나온 결과물이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교육과정이 일회성 사업으로 종료되지 않도록, 심화된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거나, 교육 종료 이후에 교육생들이 청소년행복 마을 만들기에 실제로 참여하도록 기존의 활동 조직이나 청소년관련 조직들과 연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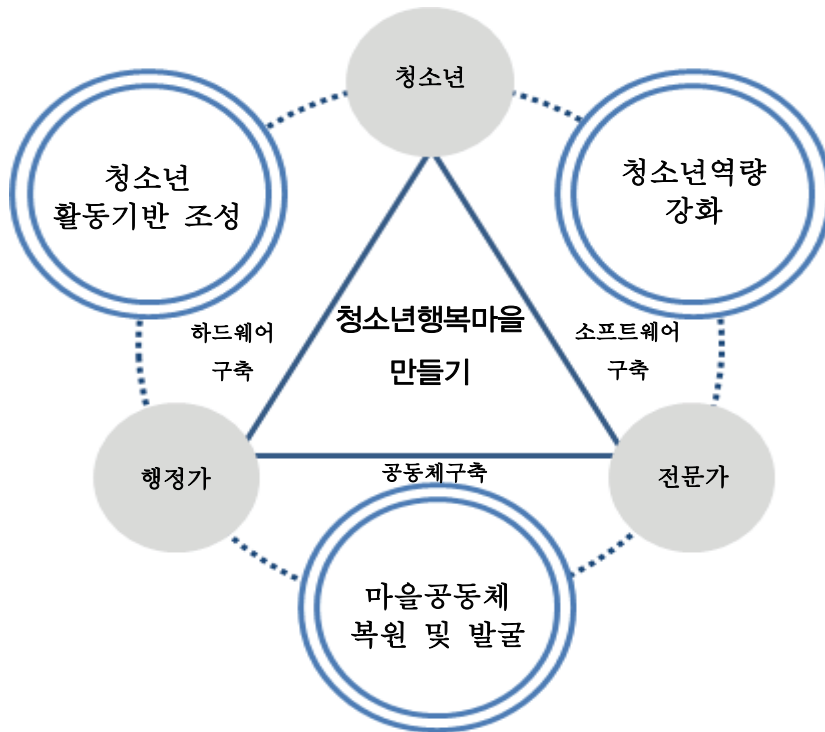
3.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운영 모형 및 지원 체계

1) 청소년 행복마을 만들기 운영모형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의 일환으로 ‘청소년행복마을만들기’사업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과 참여주체, 그리고 운영과정에 관한 전체적인 구상을 [그림V-3]과 같이 제시하였다. 먼저 이 사업이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세 가지 목적으로 ‘청소년의 활동기반 조성’과, ‘청소년의 역량 강화를 통한 ‘마을공동체 복원 및 발굴’로 설정하였다. 참여 주체는 전술한 바와 같이 청소년을 비롯하여 지자체의 행정담당자와 전문가 혹은 활동가 그룹 간의 연계와 협력이 중요하다. 따라서 ‘청소년행복마을만들기’사업의 세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추진전략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활용 측면에서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청소년의 활동기반 조성으로 지역 인프라를 활용한 청소년놀이문화 활동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동시에 주변 지역 및 광역단위 시설과의 연계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청소년행복마을의 바람직한 모습은 기본적으로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과 공간이라는 하드웨어를 갖추어야 한다. 하지만 시설과 공간을 새롭게 구축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과 비용, 그리고 운영인력 등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별로 청소년 인구의 구성과 변화 추이의 편차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존의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거나 인근 마을과 연계하여 공동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참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6), ‘민관협치형 부산광역시 행복마을만들기 현황’콜로 키움 자료집, 재구성, 청소년행복마을 조성사업 운영 및 정책화방안 포럼(2016. 7.22)자료집, 재인용.

[그림 V-3] 청소년행복마을 만들기 운영 모형

둘째, 청소년의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청소년들의 자기주도성과 리더십 역량 강화와 함께 그들의 참여와 활동을 통한 시민의식을 함양시켜야 한다. 청소년들은 자신의 권리를 주체적으로 행사하고 사회적 지위를 주도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존재이다. 청소년은 독립된 인격체일 뿐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고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자기주도성과 리더십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셋째, 마을공동체 복원 및 발굴을 위해서는 지역특성에 맞는 마을사업 및 활동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지역주민들과의 상생과 조화를 위한 파트너십을 유지해야 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의 마을만들기 사례는 대부분 기존의 공간을 리모델링하거나 지역사회 다양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콘텐츠를 구성하려는 시도들을 엿볼 수 있다. 특히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공동체 혹은 마을공동체 프로그램은 놀이와 학습을 기반으로 하는 복합적인 생활공간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방과 후에 청소년들이 함께 배우고 활동할

수 있는 공부방이나 소규모의 도서관이 있어야 한다. 또한 또래 청소년들이 모여서 인생을 준비하고 지역의 가치관과 문화를 공유하면서 소통하는 청소년문화센터 혹은 청소년카페 등이 중요한 공간으로 여겨진다. 또한 지역의 복지센터 혹은 복합커뮤니티센터 등을 활용하여 가족 혹은 세대 간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활동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지역사회에서 주민들과 청소년들이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임을 인식하여 상호간에 파트너십을 형성하려는 노력은 우리사회가 해결해야 세대통합의 한 과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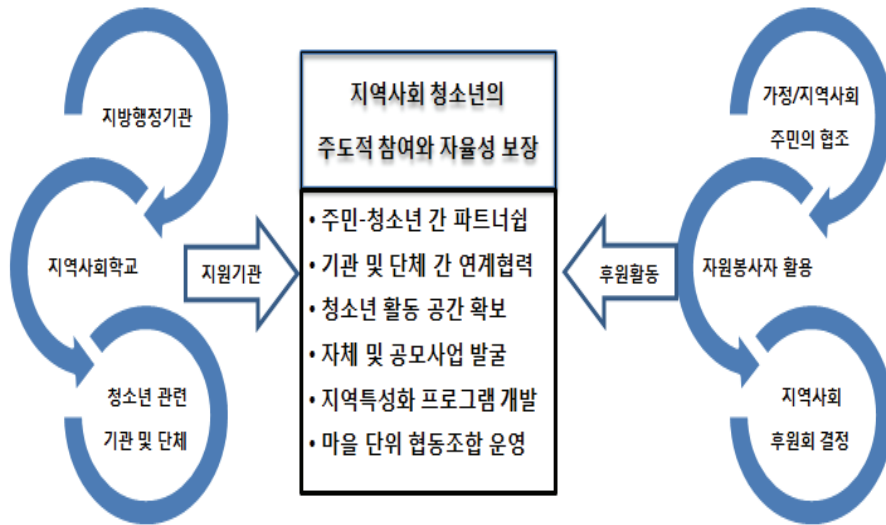
2) 청소년의 역할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과 협력적 지원체계

지역사회 혹은 마을 공동체를 토대로 추진하는 청소년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의 계획과 실행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모든 일련의 활동들이 구성원 모두에게 공유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청소년 활동 사업과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지역 공동체의 내외적인 문제해결과 의사결정 과정에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와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주민들과 합의하여 청소년들의 실질적으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원칙과 규정을 만들어 확정하고 공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청소년들을 지역의 주민들 특히 학부모 및 어른들이 서로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전교육과 세대통합프로그램을 운영으로 상호간 파트너십(Partnership)을 형성해야 한다. 청소년에 대한 시각을 본질적으로 사회적인 문제와 수혜자가 아닌 인적자원으로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책임 동반자적 관점을 가져야 한다. 청소년들은 실질적으로 모바일웹을 통해 새로운 사업영역을 발굴하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화, 관광지, 특산품 등을 효과적으로 홍보하는 인터넷 블로그를 운영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다. 더불어 청소년의 행복한 삶에 대한 시각도 미래 유예적인 행복을 위해 현재의 삶을 희생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도 변화가 필요하다. 생애주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청소년기의 적극적인 단체 활동과 사회 참여 경험이 자연스럽게 성인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학부모와 지역 주민들은 청소년들을 미래의 성공을 위해 현재는 입시준비만 해야 한다는 기존의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들이 지역사회 혹은 국가적 차원의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잠재력을 발굴하는 적극적 사고를 갖도록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가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청소년활동 관련 기관과 단체를 비롯하여 정책 담당자들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회적 조류와 새로운 사고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물론, 다변화되고 복합적인 사고를 맹목적으로 수용할 필요는

없으나, 청소년 조직들은 변화하는 현실에 적극적으로 부응할 수 있는 비전과 역할, 그리고 실천적인 역량 발휘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우리나라 지역공동체 혹은 마을의 특성과 자원을 고려한 청소년행복마을 지역특화 모델 개발과 지역단위 지원체계를 [그림V-4]와 같이 제시하였다.



참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6). ‘청소년행복마을 조성사업 운영 및 정책화방안(7.22)’포럼자료집.
[그림 V-4] 청소년행복마을 만들기 지원체계 구축 모형

먼저 청소년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의 추진주체로서 혹은 주민들과의 파트너로서 지역사회 청소년들의 주도적인 참여와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지역 단위 지원체계의 두 핵심 축으로 행복마을 사업추진 과정에서 직접적인 행정과 재정을 지원하는 행정기관, 그리고 인적자원 및 활동 공간을 지원하는 학교와 청소년 관련 기관 및 단체가 있다. 다른 한편으로 후원활동을 담당할 가정과 지역주민의 협조, 자원봉사자 활용, 지역사회 후원회 등의 지원체제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지원기관 후원활동을 통한 지원체계를 구축한 상태에서 구체적인 추진전략으로 기관 및 단체 간 연계협력, 청소년 활동 공간 확보, 자체 및 공모사업 발굴, 지역특성화 사업 및 프로그램 추진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지역공동체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마을 단위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앞서 제시된 내용들을 효과적으로 계획하고 구체적인 사업과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들이 선행되어야 한다.

첫째, 앞서 언급한 대로 청소년들을 지역의 문제아로서가 아닌 투자해야 할 가치를 지닌 현재 혹은 미래의 자원으로서 인식되어야 한다.

둘째, 지역사회 구성원 개개인, 각종 단체, 기관, 그리고 지역사회가 청소년들을 지원할 수 있는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협력구조를 확립하여 지역주민 전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지역사회 청소년육성을 위한 인적구성, 시설, 그리고 프로그램 내용을 포함한 많은 인적·물적 자원들에 대한 관리 및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넷째, 청소년들과 지역 주민들이 적절한 방식으로 자신들의 역할에 기여할 수 있는 관리과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다섯째,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에서 소속감을 높이고 다양성을 존중하며, 자아정체감 확립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여섯째, 지역공동체의 청소년과 주민들이 행복마을만들기 사업의 결과를 확신시킬 수 있는 정책, 실천, 그리고 우선순위 결정 등과 같은 요소들이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

4. ‘청소년 행복마을만들기’실행프로그램 개발

1)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워크숍

2015년도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실천프로그램 워크숍’을 통해 5개 영역을 개발하여 일부 내용을 2016년도 시범사업에 적용하였다. 2016년도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IV’의 실행계획서 및 중간보고서 심의 과정, ‘청소년행복마을 조성사업 운영 및 정책화 방안’을 위한 전문가 포럼 등에서 세부영역(*7개영역)별 주요 실천프로그램에 대한 지속적인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영역별 실행프로그램 개발 및 추진절차 등을 위한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먼저 청소년행복마을 관련 현장전문가, 프로그램개발전문가, 연구진, 그리고 2015년과 2016년도 시범사업 참가 청소년과 ‘청소년정책모니터링단’등으로 프로그램 개발팀을 구성하였다. 다음은

7개 영역 중 <표V-7>에서 강조한 내용을 중심으로 프로그램 개발의 주제와 범위를 논의하였다. 이번 워크숍의 세 가지 주요 활동 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연구와 사업의 범위를 논의한다.

둘째, 세부영역별 주요 실천프로그램 개발과 운영계획을 설계한다.

셋째, 세부영역별 실천프로그램과 운영과정의 현장 적용타당성을 검토한다.

표 V-7 ‘청소년행복마을만들기’ 실행프로그램 개발 영역별 주제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7개 영역(안)	① 경제영역: 청소년 상설 프리마켓, 창업동아리, 청소년일자리은행 ② 건강(복지)영역: 청소년건강인증제, 취약계층 및 다문화청소년 멘토링 ③ 안전영역: 청소년 안전교육 이수, 청소년안전존 조성 및 운영 ④ 교육영역: 청소년 자기주도적 학습 지원, 청소년 권장도서 보급 ⑤ 활동영역: 청소년 문화누리카드 발급, 지역사회 동아리 활성화 ⑥ 참여(권리)영역: 청소년음부즈맨, 청소년참여예산제 ⑦ 관계영역: 청소년-어르신 동반자 활동, 가족체육 및 봉사활동
---	--

참조: 오해섭, 김세광, 정윤미(2015)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 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 재인용

워크숍은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사업 영역별 실천 프로그램 개발을 목적으로 2016년 9월22-23일간 실시하였다. 참가 대상은 퍼실리테이터 1명, 전문가 및 현장 경험자, 시범사업 운영자, 2016년 전국의『청소년정책모니터단』6명, 연구진 등 총10명으로 개발팀을 구성하였다. 워크숍 진행순서는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사업 내용 공유, 영역별 세부 사업에 대한 범주화, 실천프로그램 구성에 필요한 콘텐츠 설계 및 현장 적용 타당도 검증 등의 과정으로 진행하였다. 구체적인 추진일정은 <표 V-8>과 같다.

표 V-8

“청소년행복마을만들기” 프로그램 개발 워크숍 추진 일정

날짜	시간	내용
2016. 9.22 (목)	PM 14:00 ~ 14:40	워크숍 오리엔테이션
	PM 15:00 ~ 15:50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사업영역 소개
	PM 16:00 ~ 16:50	사업영역별 실행프로그램 개발 아이디어 논의
	PM 17:00 ~ 17:50	워크숍 OUTPUT 결정 및 공유하기
	PM 18:00 ~ 20:00	저녁식사
	PM 20:00 ~ 22:00	2인 1조별 2개씩 실천프로그램 아이디어 설계
2016. 9.23 (금)	AM 08:00 ~ 09:20	아침식사
	AM 09:30 ~ 10:20	영역별 실천프로그램 콘텐츠 설계
	AM 10:30 ~ 11:50	영역별 실천프로그램별 내용 검토
	AM 12:00 ~ 13:30	점심식사
	PM 13:30 ~	워크숍 종결

참조: 오해섭, 김세광, 정윤미(2015)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 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 재인용

2) 워크숍 결과

워크숍은 실행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전문가와 2016청소년정책모니터단, 2015년과 2016년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시범사업 참가 청소년을 중심으로 1박 2일 간 개최하였다. 먼저 금년도 연구책임자가 연구 내용과 범위, 워크숍 개최의 취지를 설명하였다. 이어 6명의 청소년을 2명씩 3개 모둠으로 편성하여 프로그램개발 전문가와 현장전문가의 지도하에 계획된 일정에 맞게 진행하였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6개의 프로그램(①가족학개론, ②지역유스레일, ③소소한 어울림, ④청소년정치아카데미, ⑤청소년 재능 프리마켓 ⑥스스로 떠나는 청춘 캠핑)을 개발하였다. 전문가와 청소년들이 심도 깊은 논의 과정을 거쳐 기 고안된 프로그램 개발 양식에 1차로 내용을 정리하였다. 각 프로그램에 대한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현장전문가를 중심으로 참가자 모두가 의견을 개진하여 내용을 수정하고 보완하였다. 이 내용에 대해 적용타당성을 검토하고 연구진이 최종적으로 수정 및 보완 과정을 거쳐 본 보고서에 제시하였다.

주제		부모와 함께 가훈과 추억의 앨범 제작	대상	중 · 고등 학령기 청소년
			실행기간	미정
목적		· 부모와 자녀 간의 이해의 폭을 넓히고 관계를 개선한다.		
목표		· 부모와 자녀의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가훈을 만든다. · 추억의 장소를 가서 사진을 찍어 새로운 앨범을 제작한다.		
준비사항		· 부모에 대한 사전 교육 및 프로그램 계획을 함께한다. · 활동가를 도와줄 수 있는 코디네이터를 섭외한다.		
진행과정	도입	· 이전에 우리 가정에 있었던 가훈에 대한 추억 소개 PPT & 사진 · 가훈이 우리 가정에 미칠 긍정적인 영향 제시 · 가훈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		
	전개	· 어떻게 가훈을 만들어 나갈지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기록한다. · 프로그램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자녀들과 규칙적인 저녁식사와 가족회의를 하는 시간으로 정하도록 한다. 부모 혹은 자녀 중에서 누구든지 제안하면 논의 과정을 통해 동의하고 수용한다. 가족 간의 이야기 주제를 준비해서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자녀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다. · 그 시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가훈의 필요성을 제시하여 본인 가족만의 특별한 가훈을 만들도록 한다.		
	정리	· 가훈의 필요성에 대해 다시 이야기를 나누고 기대하는 점을 써보도록 한다. · 만들어진 카톡방을 만들어서 먼저 만든 가정은 사진을 올려서 카톡방에서 느낀 점을 나누도록 한다. (코디네이터, 부모, 활동가)		
	추진절차	■ 1단계 : 홍보 및 대상자 모집/면접 및 앞으로 진행일정 (일정 만들기) 공유 ■ 2단계 :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부모교육 진행/부모 집단 상담 (레크레이션) ■ 3단계 : 가훈 만들기 (캘리 섭외 및 액자 구매) ■ 4단계 : 가족과 프로그램 계획 (사진 or RoadMovie 혹은 새로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왜 누구와 6하 원칙 근거로 작성) ■ 5단계 : 어린 시절 사진 혹은 어머니 아버지 추억의 장소에 가서 직접 촬영 (컨셉에 대한 예시 작성) ■ 6단계 : 앨범 및 사진 인화 (택배로 보냄)/식사 후 가족 앨범 만들기 ■ 7단계 : 촬영했던, RoadMovie 촬영 공유 (부모님 영상촬영) /참여 부모간의 변화 공유 및 평가 (평가서 작성) ■ 8단계 : 전체 가족 모임 진행 후 부모님 영상 마무리		
TIP		· 부모와 코디네이터와 긴밀하게 관계를 가진다. · 목적을 뚜렷하게 잡아주고, 미래에 대한 그림을 그려준다.		
기대효과		· 가족 간의 협동심과 유대감, 세대 간의 통합을 이룰 수 있다 · 가족 안에서 인성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 · 지역 안에서의 다양한 활동들을 접할 수 있다.		

주제	청소년이 만든 ‘지역 유스레일 (Youth rail)’		대상	중 · 고등학생
			실행기간	-
목적	· 청소년 활동에 관심이 많은 중, 고등학생들이 직접 지역사회의 문화 및 놀이공간을 찾아 활용가능성을 따져보고 지역 내 ‘유스레일’노선을 개척한다. * 유스레일 (Youth rail) : 지역사회 내 청소년을 위한 활동 거리			
목표	· 청소년들이 지역사회 내의 다양한 시설이 있다는 점을 인지한다. · 지역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통해 지역공동체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킨다. · 청소년들이 자신들을 위한 ‘유스레일’지도를 직접 제작하여 성취감을 느낀다.			
준비사항	· 해당 지역 지도 (구글맵 활용), 필기도구, 핸드폰 (구글맵 활용, 위치 정보 확인, 추가적인 정보 검색용)			
진행과정	도입	· 공간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공간을 잘 활용하고 있는 사례를 알아본다. · ‘유스레일’의 노선이 활성화 될 수 있다는 자신감과 기대감을 갖게 한다. · 지역 청소년들이 모여 지역 내 문화 및 놀이시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본다. · 활동하기 전에 역할을 분담한다.		
	전개	· 청소년들이 결정한 해당지역을 선정하여 돌아다닌다. · 지역 내 시설을 돌아보며, 활용 가능한 프로그램과 공간을 파악하고 메모한다. · 특히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간과 시설에 대해서는 자세한 정보를 기록한다. · 정리한 내용을 지역지도에 표시하여 관련된 정보를 간단하게 적는다.		
	정리	· 정리한 노선을 지도를 활용하여 작업해 출력한다. · 청소년 ‘유스레일’ 노선을 지역사회 내의 시설이나 청소년 시설에 배포하고 부착하여 많은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각 지역 대표 SNS를 활용하여 홍보할 수 있도록 한다.		
	추진절차	■ 1단계 : 모험과 탐험을 좋아하는 중, 고등학생 청소년들 30명(시단위) 대상 ■ 2단계 : 우리가 만드는 ‘유스레일’을 활용한 포스터를 지역사회 내 학교, 주민센터 등에 부착한다. ■ 3단계 : 청소년들이 모집되면 서울 코레일 2호선 노선도를 보여주고, ‘유스레일’ 노선도의 주제를 정하게 한다. (예: 맛집, 놀이시설, 청소년시설, 노래하고 춤출 수 있는 곳 등등) ■ 4단계 : 청소년들의 인원을 구/동(예시:일산서구(동구)/대화동(장항동) 등) 으로 구분하여 조를 편성한다. ■ 5단계 : 구글지도 앱을 활용하여 모둠별로 돌아다니며, 놀이문화공간을 방문하기도 하는 등 직접 경험을 하고 검증된 자료를 수집한다. (인스타그램 해시태그 등을 활용한다.) ■ 6단계 : 검증된 자료들을 모아 취합하여 하나의 지역사회 테마 ‘유스레일’ 노선도를 완성한다. ■ 7단계 : 완성된 노선도는 출력하여 학교와 지역사회 내에 청소년기관에 부착하고, 지역사회 관련 sns에 게시한다. ** 추후에 노선도를 활용한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개발되어야 한다.		

TIP	· 구글맵활용을 위해 구글지도앱을 설치해야 하고, 구글 아이디가 필요함.
기대효과	· 청소년들이 지역 내에 다양한 문화 시설과 놀이공간을 파악할 수 있다. ·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증진시킬 수 있다. · 청소년들이 직접 지역사회의 ‘유스레일’ 노선을 제작함으로써 자신감과 성취감을 얻을 수 있다. ·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다.

프로그램③

소소한 어울림 (윤지선, 2016시범사업 참가자)

주제		지역사회와 청소년이 함께하는 동아리 어울림마당 “소(笑)소(笑)한 어울림”	대상	중 · 고등학생
			실행기간	-
목적		· 청소년의 동아리 활동 활성화와 지역사회에 있는 기성세대가 청소년의 동아리 활동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이해를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목표		· 지역 내에 있는 청소년 동아리를 청소년이 알 수 있도록 한다. · 청소년이 지역사회에 있는 기관, 단체, 상점들과 동아리를 연계하여 지역사회와 청소년이 함께하는 플랫폼을 구축한다. · 지역사회에서 상점, 단체 등을 운영하는 기성세대가 청소년의 동아리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동아리에 대한 관심도와 이해도를 높인다.		
준비사항		노트북, 필기도구, 카메라, 지도		
진행과정	도입	· 알아가기: 지역을 돌아다니며 청소년 동아리가 어떠한 것이 있고 어떤 기관들과 연계되어 있는지를 조사한다.		
	전개	· 개척하기: 지역사회 기관, 단체, 상점 등과 적절한 동아리 활동을 연계한다.. · 지도 만들기: 도입에서 알아본 동아리 활동 공간과 개발할 동아리 활동공간을 지도로 만들어 청소년 동아리 맵을 만든다.		
	정리	· 어울리기: 지역사회 안에 있는 동아리 활동공간을 활용하여 그곳에서 진행하는 동아리 활동을 지역내 청소년들이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한다.		
추진절차		■ 1단계 : 00시 청소년 기관에 공고한 후 청소년 동아리에 관심 있는 청소년을 모집한다. (동아리 활동유무 상관 없음) ■ 2단계 : 청소년이 모여서 지역에 있는 청소년 동아리에 대해 정보를 수집한다. ■ 3단계 : 청소년 동아리와 연계할 수 있을 만한 지역 내의 장소를 알아본다. ■ 4단계 : 장소에 찾아가 동아리 활동현황과 지역의 연계 필요성에 대해 청소년이 직접 설명하고 연계한다. ■ 5단계 : 연계된 장소와 동아리의 정보를 지도로 만든다. (만든 후 다른 청소년에게 정보를 공유하는 것까지) ■ 6단계 : 연계된 장소에서 지속적으로 동아리를 활동하고 정착된다면 지도를 사용해 지역사회와 청소년 동아리 어울림 마당을 만든다.		
TIP		청소년들이 가장 관심 있는 동아리를 중심으로 우선 시작한다.		
기대효과		· 청소년들이 동아리 활동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도록 한다. 그로 인해 청소년 동아리 활동이 활성화 되는 것을 기대한다. · 청소년 동아리와 연계 된 지역사회 기관, 단체, 상점 등을 운영하는 기성세대가 청소년의 동아리 활동을 이해하고 지지하는 것을 기대한다.		

프로그램④ 청소년 재능 프리마켓 (고용법, 2015시범사업참가자)

주제		청소년의 재능을 사고파는 플랫폼 개발 및 운영	대상	지역 청소년들
			실행기간	-
목적		· 청소년이 보유하고 있는 재능 및 시간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공급하고 운영한다.		
목표		· 기부와 나눔의 의식을 확산하고, 청소년기부터 이를 실천하도록 한다. · 일정한 규모의 안전한 공간, 1회성이 아닌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프리마켓의 상설 운영을 통한 청소년 문화공간을 조성한다.		
준비사항		· 프레젠테이션, 프리마켓 담당 운영진		
진행과정	도입	· 청소년의 재능을 확인하고 기록한다. (지역사회 내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자신들이 가진 특기와 장기 같은 다양한 재능을 확인한다.)		
	전개	· 청소년들의 재능과 수준을 분류한다(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기부할 수 있는 시간을 제한된 범위에서 상의한다.) · 청소년들의 재능을 홍보하고 지역사회에 필요한 곳을 찾아 연결시킨다.		
	정리	· 재능판매로 얻은 수익과 기부금을 정산하고 관리한다.		
	추진절차	■ 1단계 : 지역사회 전문가들이 청소년들의 재능을 파악한다. ■ 2단계 : 지역사회기관에 공고 후 재능을 가진 청소년들을 모집한다. ■ 3단계 :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재능을 공유하고 같은 재능을 가진 청소년들끼리 팀을 구성한다. ■ 4단계 : 전문가를 섭외하여 조언과 멘토링을 받는다. ■ 5단계 : 멘토링을 토대로 청소년들이 시간과 장소를 찾아보고 섭외한다. ■ 6단계 : 섭외한 장소에서 청소년 재능 프리마켓을 연다. ■ 7단계 : 프리마켓 수익으로 청소년들이 기부활동을 계획하고 실천한다.		
TIP		· 구글맵활용을 위해 구글지도앱을 설치해야 하고, 구글 아이디가 필요함.		
기대효과		· 청소년들에게 경제관념을 심어줄 수 있다. · 공동체 의식과 협동심, 자립심, 봉사정신을 키울 수 있다.		

주제		청소년의 정치참여 (정치아카데미)	대상	청소년
			실행기간	4주
목적		· 청소년 정치아카데미를 통해 정치에 대한 객관적인 시각을 함양한다.		
목표		· 청소년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한다. · 정치의 정확한 개념을 알 수 있다. · 정치적 성향에 대해 어른들의 편향된 시각이 아닌 자신만의 객관적인 시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한다.		
준비사항				
진행과정	도입	· 아이스브레이킹 청소년 서로의 얼굴을 익히고, 토론을 할 때 자유로운 의견교환이 이루어지기 위해 진행한다. · 정치란 무엇인가에 대한 브레인스토밍 (개방형 질문을 통해 자유롭게 청소년이 의견을 제시하도록 한다.) ① “자신이 생각하는 정치란 무엇인가요?": 현재 청소년이 정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파악한다. 보다 높은 차원에서의 정치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우리네 삶이 정치에 의해 어떻게 달라질까요?": 청소년이 스스로 정치에 왜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인식하도록 돕는다. 정치가 삶에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해외사례를 통한 ‘우리도 할 수 있다.’)를 제시한다. 지역사회에서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③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정치란 무엇인가요?": 청소년 자신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치활동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생각해 보면서, 이후 어떤 방식으로 실현될 수 있는지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전개	· 여러 정당의 정치이념과 지향점을 살펴본다. 이 과정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정당에의 선입견을 제거하고, 순수하게 정당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진다. (모둠을 나누어 조사할 정당을 정하고, 정치이념과 방향을 알아본 후 모둠 간 조사한 내용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진다.) · 각 정당과 정당에 소속되어 있는 의원들의 청소년관련 공약과 정책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 청소년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발표할 수 있도록 한다. 이때, 청소년들에게는 공약과 정책을 제시한 당과 정치인을 알리지 않는다. * ‘좋은’공약은 무엇인가에 대해 그 기준을 설정하는 시간을 가진다.(“좋은 공약이라면 어떤 요소를 갖추어야 할까요?”) · 공약과 정책을 분석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토의하고 대안을 제안 한다. 설정된 기준에 의해서 분석된 공약의 문제점을 각자 이야기 해보고, 진정으로 청소년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서라면 어떤 점이 보완되어야 하는지 생각한다. * 문제점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진행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모둠별로 보고서를 작성한다.(결과물로서의 페이퍼 작성) · 공약과 정책을 제시한 정당을 공개한다.		

		공개 이후 앞서 알아본 정당에의 이념과 그들이 제시한 공약과 정책이 부합하고 있는지 생각해본다. * 이를 참고하여 문제의 보완점에 추가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정리	· 작성된 보고서를 토대로 공약을 제시한 정치인과 만남을 통해 이를 제안한다. ‘정치인과 청소년의 만남’을 주제로 상호간 의견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일회성이 아닌, 정기적으로 정치인과 청소년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추진절차	■ 1단계 : 아이스브레이킹 ■ 2단계 : “정치란 무엇인가”에 대한 브레인스토밍을 실시한다. ■ 3단계 : 우리나라 여러 정당의 정치이념과 지향점을 논의한다. ■ 4단계 : 각 정당과 정당에 소속되어 있는 의원들의 청소년관련 공약과 정책을 제시하고 서로가 생각을 자유롭게 발표할 수 있도록 한다. ■ 5단계 : 공약과 정책을 분석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토의해보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안을 한다. ■ 6단계 : 공약과 정책을 제시한 정당을 공개한다. ■ 7단계 : 작성된 보고서를 가지고 공약을 제시한 정치인과의 만남을 통해 이를 제안한다.
	TIP	청소년이 스스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되 지도자가 방향을 잡아주는 중재역할을 한다.
	기대효과	· 아카데미가 끝난 후에도 자신의 의견을 정책에 제시할 수 있다. · 청소년 정치 아카데미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프로그램이 된다.

주제	스스로 만든 우리들의 캠핑 여행	대상	청소년
		실행기간	1박 2일
목적	· 여행을 참가청소년들 스스로 기획해 봄으로써 자기주도성을 함양한다.		
목표	· 청소년들이 스스로 기획하는 능력을 키운다. · 필요한 것을 스스로 해결해 보도록 한다.		
준비사항			
진행과정	도입	· 청소년들에게 스스로 여행 장소를 정하도록 한다. · 여행에 필요한 물품들을 지원 가능한 예산 내에 스스로 정하도록 한다. · 필요한 물품들을 스스로 구할 수 있도록 한다(지도자들의 조언 필요). · 청소년들이 하고 싶은 프로그램들을 구상해본다.	
	전개	· 가능한 범위에서 청소년들 스스로 식사를 준비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 · 청소년들이 직접 구상한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 청소년들의 스스로 준비하여 실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 사례 ① 조별로 부수적인 재료들(칼, 가위, 본드, 실 등)을 제공해주고 이외의 재료들을 자연에서 직접 구해서 연을 만들어 날려본다. ② 조별로 청소년들이 스스로 물품들을 선정하여 간단한 음악회를 준비해 보도록 한다. ③ 가치관경매를 통하여 청소년들의 가치관을 확립시킨다. ④ 청소년들 스스로 가장 듣기 좋은 말과 듣기 싫은 말을 익명으로 각각 3개씩 적어서 이를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정리	· 여행 계획이 잘 실행되었는지 평가해본다. (평가의 항목: 계획대로 이루어 졌는가, 보완할 점, 프로그램을 통해 느낀 점 등 필수 항목 이외의 항목을 청소년들이 직접 선정하여 평가하도록 한다.) · 청소년들 스스로 칭찬하고 싶은 청소년을 선발하여 상품을 수여한다. 예) 웃음상, 리더십상, 성실상 등	
	추진절차	■ 1단계 : 참가대상 청소년들을 모집한다. ■ 2단계 : 회의를 진행할 위원회(집행부)를 선정한다. ■ 3단계 : 청소년들끼리 여행의 일정과 세부활동을 계획한다. ■ 4단계 : 캠프에 필요한 물품을 청소년들이 직접 선정하고 구매한다. ■ 5단계 : 여행지에서 계획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 6단계 : 프로그램의 종결단계에서 직접 프로그램 운영과정을 평가한다. ■ 7단계 : 청소년들이 직접 상을 만들어서 모든 청소년들에게 수여하도록 한다. ■ 8단계 : 참가 청소년들을 안전하게 귀가시킨다.	

TIP	· 청소년들의 자기주도적인 활동을 최대한 허용하되 지도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 · 프로그램에 청소년들이 책임감을 갖도록 독려한다.
기대효과	· 스스로 기획하고 이를 실행함으로써 책임감을 함양한다. · 조별활동을 통하여 대인관계능력을 증진시킨다. · 자기주도적인 활동을 통하여 리더십을 함양한다.

제 VI 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2. 정책 제언

제 VI 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금년도 연구의 총괄 주제는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사사업 연구Ⅳ’이다. 세부 영역으로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 및 우수사례 연구’와 ‘청소년 행복마을 조성 시범사업 운영과 정책화 방안’으로 구분하여 추진하였다. 이 중 금년도 청소년 행복도시 조성 시범사업 운영에 따른 개선방안과 정책제언, 청소년행복마을 조성을 위한 국내외 사례 및 추진전략과 정책화 방안 등을 포함하여 7개 영역에 관한 연구결과의 핵심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시범사업을 지역특성(중소도시와 농산어촌)을 감안하여 2개 지역을 선정하여 운영하였다.

금년에는 시범사업의 추진 기조를 청소년들의 자율성과 주도적인 참여로 설정하고 스스로 기획하고 실천하는 프로그램 위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취지에서 ‘청소년 협동조합’과 ‘청소년의 회를 중심으로 한 사회참여네트워크’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참여 기반을 조성하였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또한 ‘직업체험활동과 창업동아리의 일환으로 청소년드림 CEO’와 ‘취약계층과 다문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멘토링 띄앗’과 같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으로 사후 평가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2015년도에 이어 지역의 청소년과 어르신들 간의 관계 증진을 위한 동반자 프로그램을 통해 어르신들은 청소년과 함께 무엇인가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서로가 만족함과 행복감을 느꼈다는 참가 후기를 밝히고 있다. 시범사업에 참가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사전사후 분석을 통해 성과를 측정하였다.

둘째, 청소년행복마을에 관한 유사사례 분석을 위해 국내외 ‘전국 마을만들기’ 및 ‘아동청소년친화도시’를 추진하고 있는 지역의 자료 고찰과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별 특성화유형을 분석하여, ‘청소년행복마을 만들기’사업에 주는 시사점과 적용방안을 도출하였다. 그 중에서 중요한 두 가지는 1) 청소년 행복마을은 청소년 자치위원회의 활동이 활성화 되어야 하며, 자체적인 학습공동체가 운영되어 청소년들이 마을의 당면한 문제를 발견하고 실질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2) 재원을 정부의 지원보다는 지역사회 후원조직과 생활협동조합 활동 등을 통한 자체 조달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셋째, 유럽의 대표적인 청소년참여정책인 ‘유럽 청소년포럼(European Youth Forum)’과 ‘유럽 청소년의회(European Youth Parliament)’의 내용과 추진 현황을 분석하였다.

유럽의 청소년 참여정책이 주는 시사점의 핵심은 청소년의 참여활동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요구되는 적극적인 시민성의 한 부분으로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 시기부터 이러한 의미 있는 활동에 참여할 때 비로소 성인이 되어서도 책임 있는 참여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영국의 사례는 청소년의회활동이 청소년 시민교육의 연장선 안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유럽 청소년의회활동도 유럽인으로서의 시민성과 정체성 함양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청소년참여 활동의 효과성과 중요성에 대한 올바른 객관적인 인식이 필요하며, 청소년참여활동이 시민교육 실천의 장으로 활용되기 위한 다양한 접근을 모색해야 한다.

넷째,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영역별 추진단계, 추진전략, 중장기적인 추진로드맵을 구상하였다.

청소년 행복마을 조성 프로젝트는 추진계획 수립과 더불어 본격적인 추진전략을 준비기→조성기→활동기→안정기 및 발전기 단계별로 제시하였다.

먼저 준비기에서는 전문가 협력단 및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인적·물적 자원에 대한 분석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주민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청소년주도적인 현안문제 논의 및 활동모임을 구성한다.

조성기에서는 마을단위 자율조직 중심으로 참가자를 확대하고 단위 사업별 사업추진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방식과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컨트롤타워 및 갈등조정 기구설치를 협의한다.

활동기에는 지역의 여건과 자원을 고려하여 특성화사업 선정 및 사업별 우선순위 선정과 구체적인 추진전략을 협의한다. 예산확보 방안으로 국비, 지방비, 자체 예산 편성 비율을 논의하고 기본적인 사업운영 매뉴얼과 참가자의 활동 지침서를 개발해야 한다.

발전기에서는 인근 지역과의 연계 및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권역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확대 가능성을 탐색한다. 사업별 평가와 발전전략 구상과 더불어 새로운 사업영역을 모색해야 한다.

다섯째, 2015-2016년도 시범사업 지역의 운영 과정에서 얻은 경험을 토대로 지역네트워크 유형과 활동주체별 역할 및 참여 인력에 대한 교육과 훈련 방안을 제시하였다.

청소년행복마을 조성을 위한 시의회, 행정담당자, 코디네이터, 청소년활동가, 전문가, 청소년, 주민 등의 역할을 규명하였다. 더불어 이들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참가자들의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 및 훈련 방안을 제시하였다.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혹은 청소년이 행복한 공동체 구성과 운영의 핵심 원리 중의 하나는 구성원 혹은 참가자 모두가 각자 나름대로의 역할과 기능을 확보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전문가 혹은 행정기관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마을만들기’사업보다는 다수의 구성원이 사업 시작 단계부터 참여하여 주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역할 규명과 지속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병행되어야 한다.

여섯째, 청소년이 행복마을 조성 관련 현장전문가, 청소년지도자, 지방의원, 정책담당자, 청소년이 참여한 정책포럼을 개최하여 운영체계 확립과 실천방안을 모색하였다.

청소년행복마을 만들기를 위한 핵심 기조는 지역사회 혹은 마을 공동체를 토대로 추진하는 청소년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의 계획과 실행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모든 일련의 활동들이 구성원 모두에게 공유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청소년 활동 사업과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지역 공동체의 내외적인 문제해결과 의사결정 과정에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와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주민들과 합의하여 청소년들의 실질적으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원칙과 규정을 만들어 확정하고 공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일곱째,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사업 영역별 실천 프로그램 개발을 목적으로 2016년 9월22-23일(1박2일)간 워크숍을 실시하였다

워크숍 진행순서는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사업 내용 공유, 영역별 세부 사업에 대한 범주화, 실천프로그램 구성에 필요한 콘텐츠 설계 및 현장 적용 타당도 검증 등의 과정으로 진행하였다. 워크숍을 통해 6개의 프로그램(①가족학개론, ②지역유스레일, ③소소한 어울림, ④청소년정치아카데미, ⑤청소년 재능 프리마켓 ⑥스스로 떠나는 청춘 캠핑)을 개발하였으며, 각 프로그램에 대한 발표와 현장전문가 및 참가자 모두가 의견을 개진하여 내용을 수정하고 보완하였다.

2. 정책 제언

1)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시범사업에 따른 종합제언

2016년도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시범사업Ⅱ’는 군산시와 이천시 2개 지역에서 각각 3개 영역을 실시하였다. 군산시는 경제영역(청소년협동조합: ‘달그락달그락’), 참여영역(청소년 의회를 중심으로 한 사회참여 네트워크), 활동영역(지역사회 청소년 역사문화 탐방활동)이다. 이천시는 관계영역(청소년-어르신 동반자활동인: ‘청춘을 담다’), 활동영역(청소년 직업체험활동 및 창업동아리 운영: ‘청소년드림CEO’), 복지활동 영역(취약계층과 다문화 아동 멘토링: ‘띠앗’)을 실시하였다. 각 각의 운영 과정에서 도출된 제언을 다음과 같이 종합적으로 정리하였다.

(1) 경제영역(청소년협동조합과 프리마켓)

- (1) 청소년 협동조합을 준비하는 청소년자치기구 혹은 참여 청소년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협동조합과 프리마켓을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
- (2) 물품 제작 및 판매 활동뿐만 아니라 청소년 프리마켓의 전체적인 운영기획 역할을 하는 TFT를 체계화해야 한다.

- (3) 청소년의 경제활동을 격려하고 지지하는 지역사회의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 (4) 지속가능한 공동체적 협동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공동체 조직 및 운영에 기본적인 이해와 철저한 준비과정이 필요하다.
- (5) 청소년 협동조합 추진위별 각 팀의 특성에 맞는 진행과정 지원 및 연합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2) 참여영역(청소년의회와 사회참여네트워크)

- (1) 청소년의 자치성을 살리기 위해 지속적인 토론과 논의를 통한 소통과 공감대 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 (2) 참가자들 스스로 중간평가를 통해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하며, 이를 위한 교육과 훈련과정을 개설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3) 지자체와 지역 청소년 기관·단체는 활동 진행시에 청소년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체계를 마련하여, 이들의 주체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4) 지역을 기반으로 한 청소년 조직의 사회참여 네트워크 교류 및 연대가 필요하다.
- (5) 청소년참여활동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를 지원하는 성인조직 네트워크 구성과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연간 계획 수립 및 운영을 함께 검토하고 추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3) 활동영역(지역사회 청소년 역사문화 탐방/청소년 직업체험과 창업동아리)

- (1) 역사 및 문화활동시 청소년들의 주도성을 살릴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실천해야 한다.
- (2) 역사체험활동이나 역사토론 등 역사를 주제로 활동하는 경우, 참여 강사는 사전에 관련정보를 충분히 준비하여, 청소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
- (3) 청소년 리더와 실무자는 활동 과정에서 다각적인 동기부여의 역할을 해야 한다.
- (4) 실무자는 다양한 자치기구가 캠페인 등 연합활동을 진행하는 경우 청소년 자치기구와 실무자가 정확한 내용으로 소통하도록 소통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 (5) 실무자 역시 역사 및 문화활동에서 다양한 제반지식을 학습하여 청소년들과 활발하게 교류 하면서 활동을 돕는 것이 필요하다.
- (6) 특히 직업체험과 창업동아리 운영은 지역의 전문계고등학교 및 관련 사업체 등과 연계하여, 활동 공간, 전문 강사, 물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역 특성에 맞는 운영이 필요하다.

(4) 관계영역(청소년-어른신 동반자 활동)

- (1) 경로당은 많은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공간이므로 프로그램을 진행할 경우 다른 어르신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물품들을 충분히 준비해야 한다.
- (2) 어르신과 외부활동을 하는 경우 개별 어르신들의 건강, 날씨, 이동 동선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계획하고 준비해야 한다.
- (3) 어르신과 함께하는 활동에 마지막 활동으로 어르신들의 모습을 담은 포토북을 제작하여 전달하여 어르신들의 만족감을 높였으며, 향후 어르신-청소년 동반자 활동에서 사진을 선물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다.
- (4) 기관에서 활동하는 청소년 자치조직과 기관 근처 경로당과 1동아리 1경로당 연계활동을 추진해 볼 것을 제안한다.

(5) 복지활동영역(취약계층과 다문화 아동 멘토링)

- (1) 청소년 멘토링활동을 운영할 때 멘토·멘티가 함께 1박 이상을 함께 지낼 수 있는 활동이 필요하며, 멘토·멘티의 관계형성이 적절히 이루어지면 종결활동 이후 추수활동도 멘토가 스스로 계획하여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 (2) 청소년 멘토링활동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담당자의 역량이 매우 중요하므로, 멘토와 코디네이터, 수퍼바이저를 대상으로 최소 8시간 이상 사전교육과 멘토링 과정에서도 토론과 논의를 지속해야 한다.
- (3) 청소년 멘토링활동은 멘티에게는 보호요인이 될 수 있고, 멘토에게는 성장요인이 될 수 있으며 또한, 멘토·멘티 모두에게 지역사회가 청소년을 보호하고 있다는 인식을 갖게해 줄 필요가 있다.
- (4) 청소년 멘토링활동은 청소년 멘토와 멘티 모두에게 성장의 경험을 제공하는 의미 있는 청소년 프로그램이므로 확산 시킬 필요가 있다.

2) 청소년행복마을 조성을 위한 영역별 실천방안

청소년 행복마을 조성 프로젝트는 추진계획 수립과 더불어 본격적인 추진전략을 준비기→조성

기→활동기→안정기 및 발전기 등으로 구분하여 본문에서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단계별 추진전략과 더불어 영역별 실천방안이 구체적이며 체계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가장 먼저 청소년행복마을 조성관련 법과 제도적인 근거와 이를 바탕으로 운영을 위한 조직구성과 추진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다음으로 안정적인 예산확보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며, 사업추진 주체인 전문인력 확보와 주민과 청소년 참가자를 대상으로 하는 역량강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사업추진과정에서는 단위 사업과 활동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모니터링과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청소년행복마을 조성을 위한 4개 영역별 실천방안의 세부내용과 구체적인 실천사례를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1) 청소년 행복마을 조성관련 법·제도적 근거와 조직구성을 통한 운영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제도 및 운영체계	• 법적 근거: – 청소년행복마을 조성 관련 조례 및 시행령 제정 – 중장기 기본계획 및 운영 지침 마련 • 조직 구성: – 운영시스템의 역할 및 기능 규명 – 사업 및 활동에 따른 인원확보와 전문성 강화 • 운영체제: – 지역단위 사업 운영을 총괄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지정 – 전문가+청소년+지원기관+후원회+지역주민+학교 간의 협력체제 구축 및 소통 기구 운영
-----------	---

첫째, 중앙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마을만들기’사업이 성공적으로 시작되고 안착될 수 있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로 의식 있고 신뢰받는 지역사회 지도자의 역할을 꼽을 수 있다. 더불어 이러한 지도자를 중심으로 지역 내 다양한 기관들의 협조를 구하고 활용 가능한 자원들을 원활하게 연계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존의 ‘마을만들기’ 혹은 ‘교육공동체’사업들은 행정기관이 주도하여 기획하고 추진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반해, 최근에는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조직하는 ‘풀뿌리마을공동체’형태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어떠한 형태로 출발하든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바탕으로 안정화와 발전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셋째,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역단위의 ‘청소년행복마을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중장기 계획 및 운영지침을 구상하고 지방자치단체장과 기초의회의 협조아래 관련조례와 시행령을 통과시켜야 한다.

넷째, 청소년행복마을 운영조직을 정비하고 사업을 총괄하기 위한 컨트롤타워를 지정해야 한다. 또한 운영 조직의 기능별 역할을 명확하게 규명하여 추진 주체 간의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 가장 이상적인 추진시스템은 전문가 혹은 지도자, 청소년, 지원기관, 후원회, 지역주민, 학교 등 참여 주체 간의 긴밀한 협조를 위한 소통채널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사례 1.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어린이·청소년의회관련 조례 및 운영협의회 구성

- ▶ 성북구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2011),
전국 최초로 아동권리 전담 기구를 신설(아동청소년친화팀, 2011.11),
유니세프(UNICEF)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인증’획득(2013. 11.)
- ▶ 성남시 ‘아동 및 청소년 친화도시’를 위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정 추진 발의(2014)
- ▶ 완주군 ‘농촌형 아동·청소년 친화도시’조례제정 및 인증 추진(2015. 1.)
유니세프(UNICEF)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인증’획득(2016. 5.)
- ▶ 군산시 ‘행복도시 추진 T/F’, ‘어린이행복도시 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2014),
어린이행복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2015.2.16.)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2015.12.15. 제정)
*2015-2016 청소년이행복한지역사회 시범사업 수행 지자체
- ▶ 광주광역시 남구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조성을 위한 의원연구모임결성(2015. 6.)

참조: 오해섭, 김세광, 정윤미(2015).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 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 p 149-150 재구성

(2) 청소년 행복마을의 조직운영과 사업추진 등을 위한 안정적인 예산확보 방안이 구체적이면서 중·장기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재정확보 방안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조례 제정 • 지역단위 청소년행복마을 운영기금 조성 방안 마련 • 지역 내 후원회와 기업을 통한 기부 분위기 조성 • 중앙 및 지자체 공모사업과 시범사업을 유치
---------	---

첫째, 중대규모 프로젝트에서부터 소규모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사업 운영을 위한 계획을 이행하는 과정에는 인력과 예산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청소년이행복한지역사회’ 혹은 ‘청소년 행복마을’ 조성사업 역시 운영주체와 형태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안정적인 예산을 확보할 필요성은 명료하다.

둘째, 안정적인 예산확보 방안으로 전술할 바와 같이 중앙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시행령을 통해 예산의 근거와 활용을 명시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판단된다. 하지만 정부의 일방적인 예산지원은 사용과정의 까다로움이나 사후감사 등에서 자율성을 담보하기 힘든 속성이 있음을 주지해야 한다. 또한 사업 기간이 한정된 경우 지속성 유지의 곤란함과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내용 이외에 지역 특성을 감안한 새로운 시도 과정에서의 한계점도 예상할 수 있다.

셋째,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최근 우리사회에 서서히 전이되고 있는 ‘크라우드펀딩¹¹⁾’을 통해 지역단위 청소년행복마을 운영기금을 조성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넷째, 지역 내 대학, 평생교육시설, 복지관, 도서관, 커뮤니티센터, 공동주택운영위원회, 청소년 기관과 단체를 중심으로 후원회를 결성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또한 지역 내 중소기업과 다양한 사업체로부터 소액기부를 약정하고 청소년들이 봉사활동이나 재능기부 등을 통해 유기적으로 관계를 모색하는 방안도 있다. 조직이 안정되면 중앙 및 지자체의 공모사업에 응모하거나 시범사업을 유치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들이 마을단위 거점공간을 마을카페, 공방, 플리마켓 등을 직접 운영하여 스스로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은 진로와 직업체험 혹은 기업가정신과 창업마인드 형성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사례 2. 어린이·청소년의회관련 조례[군산시, 시행 2015.12.15.] 사무국 및 예산 지원 내용
 (*2015-2016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시범사업 수행 지자체)

제11조(사무국의 설치)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시청에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전문기관 또는 의회 경험이 있는 단체에 위탁하여 의회의 사무 및 역할에 대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지원 등) 시장은 어린이·청소년 의회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1)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해 소규모 후원이나 투자 등의 목적으로 인터넷과 같은 플랫폼을 통해 다수의 개인들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행위이다. 문화예술활동이나 공익사업을 후원하는 후원형, 실현된 사업의 지분을 보상으로 받는 지분형, 자금을 대출해주고 이익을 받는 금융형 등이 있다. 2005년 영국에서 시작한 조파닷컴이 효시로, 2008년 미국의 인디고고가 출범하면서 ‘크라우드펀딩’이라는 용어로 일반화되었다.[다음 백과사전, 2016-10-11 검색]

1. 배지·단복 등 지원
2. 선진지 견학 활동
3. 어린이·청소년 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3조(시의회의 지원 등) ① 시의회는 어린이·청소년 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의회는 어린이·청소년 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회의 장소로 본 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회의장 사용을 지원한다. 다만, 시의회 회기 일정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에서 관리하는 다른 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

성남시 “상상지 프로젝트:클라우드펀딩”을 통한 기금조성 사례

성남시청소년재단은 작년부터 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인 ‘000’와 연계하여「상상지 프로젝트」를 실시하였다. 이 프로젝트의 취지는 성남시 청소년을 대상으로 소셜벤처기업 000와 함께하는 클라우드펀딩 경험을 통해 사회적지지 체계를 구축하고, 청소년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높여 다양한 사고를 통한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청소년들은 새로운 혁신제품, 문화 콘텐츠, 기부 프로젝트 등을 공유 할 수 있다.

「상상지 프로젝트」는 클라우드 펀딩에 관심 있는 중·고등학생 청소년을 공개모집하여 로 클라우드펀딩 스쿨(설명회)을 개최하고, 참여를 희망하는 청소년들은 프로그램 제안서를 신청·접수 한다. 1차 서류심사를 통해 팀을 선정하고 000 임직원과 함께하는 프로젝트 컨설팅「상상지 워크숍」을 통해 최종 팀을 선정한다.(다음: www.daum.net, 2016.10/12 검색)

(3) 청소년행복마을의 기반 조성 과 영역별 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전문 인력 확보와 이들을 포함한 청소년과 주민 대상의 역량강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전문 인력 확보와 역량강화	• 청소년 핵심역량 활동 분야별 전문가 및 활동가 양성 • 관련단체 및 기관 간 전문가와 활동가 네트워크 운영 • 지역 단위 정기적인 아카데미와 연구포럼 운영 • 행정기관, 민간후원단체, 청소년단체 간의 협력을 통한 인력 양성,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실시
---------------------------	--

첫째, ‘청소년행복마을’사업을 기획과 운영을 주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다양한 전문가들을 발굴하여 인력풀을 구축해야 한다.

둘째, 관련 기관 및 단체들 위주로 전문 인력의 그룹을 유형화하여 상호 연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각 분야별 전문가 와 학부모, 지역 아동청소년 시설 및 단체, 학교 교직원, 대학

교수, 어린이와 청소년 등을 선정하여 ‘청소년행복마을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셋째,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한 발달, 안전한 보호, 다양한 참여활동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들과 위원회의 주요 역할로는 청소년행복마을 조성의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중장기 계획의 수립·시행, 청소년행복마을 관련 교육·홍보, 지식·정보 보급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게 된다.

넷째, 전문한 내용의 역할을 처음부터 능숙하게 수행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므로 마을별 혹은 권역별로 역량강화를 위한 정례적인 아카데미와 포럼을 개최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행정기관, 민간단체, 청소년단체 등의 협조아래 전문가와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영역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하는 체험학습 방식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이론 위주의 교육이나 토론 중심의 포럼만으로는 참가자들의 관심과 흥미를 지속시키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지자체의 청소년행복마을 담당부서는 전문가, 청소년, 주민들이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능별 권한과 책임에 관한 구조적인 지원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더불어 민간 중심의 중심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면밀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 일례로 광주광역시에서는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를 위해 2014년 42개 단체와 182명이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는데 이는 민과 관의 수평적 관점과 함께 아동의 실질적 참여를 돕는 구조로서 뿐만 아니라 다수의 시의원과 구의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구조이다.

사례 3. 청소년참여포럼 및 지원 네트워크 운영 사례[군산시, 2015 시범사업]

■ 청소년참여 포럼내용

- 제목: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만들기
- 주제: 청소년참여, 지역을 바꿉니다!!
- 사회: ○○○ 청소년 (청소년참여포럼추진위원회 부위원장)
- 기조발표
 - 청소년 (청소년참여포럼추진위원회 위원장) ○○○청소년, 청소년 친화적인 지역사회조성을 위한 청소년참여
 - 분임토론: 7분야로(경제,건강,안전,교육,관계,활동,참여) 80여명 청소년 토론
 - 분임별 발표: 7개분과분임장 청소년 각각 발표
 - 종합토론: ○○○국회의원 및 참여 청소년

■ 관련 네트워크

- 지역 청소년, 청소년자치연구소 실무진, 민간전문가(YWCA, 병원장 등 관계자, 교육복지학교의 교육복지사, 사회복지사 등), 공공(국회의원 등) 연결지원

전문가 참여 달달포럼* 및 지원네트워크 운영사례[군산시, 2015시범사업]

■ 달달포럼 내용

- 일시: 12월11일
- 장소: 청소년자치공간 달그락달그락
- 주제: 청소년이 제안하는 정책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순서

- 좌 장 - 정건희 소장 (청소년자치연구소)
- 주제발표 1(전문가)- 김경휘 교수 (예수대학교)
- 주제발표 2(청소년)- 김가은, 권준우, 박효건, 강다혜, 곽지은, 오민정, 김지율
- 토 론 - 서동석 과장(군산시청어린이행복과), 강성옥 의원, 설경민 의원(군산시의회), 원은숙 사무국장(군산YWCA)

■ 관련 네트워크

- 청소년, 민간 기관 실무진, 연구소의 관련 연구자 및 대학교수, 군산시 관련 공무원, 군산시의원 등

* ‘달달포럼’은 달그락달그락에서 매달 열리는 시민청소년포럼의 약자로, 청소년자치연구소의 연구위원 연구자와 대학교수들의 모임에서 진행하는 포럼이다.

(4) 청소년 행복마을의 단위 사업과 활동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모니터링과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프로그램개발 및 성과 관리	• 참가자의 핵심역량 개발에 초점 • 지역별 특성화 사업 발굴 및 자체 브랜드화 방안 모색 • 사업영역별 성과관리 방안 마련 • 지역주민과 청소년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 확대 • 우수사업과 프로그램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

첫째, 지역 내 마을 혹은 공동체 단위로 추진되는 ‘청소년행복마을만들기’사업의 계획과 실행 등 일련의 모든 활동들이 청소년들과 공유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사업 운영상의 문제해결과 의사결정 과정에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와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청소년들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원칙과 규정을 만들어 확정하고 공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둘째, 청소년들을 지역 특성화 사업 발굴 및 자체 브랜드화 방안 모색을 위해 전문가 및 주민들과 긴밀한 파트너십(Partnership)을 유지해야 한다. 청소년들을 지역사회의 인적자원으로서 기여할 수 있도록 동반자로서의 감수성을 가져야 한다. 청소년들은 실질적으로 모바일웹을 통해 새로운 사업영역을 발굴하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화, 관광지, 특산품 등을 효과적으로 홍보하는 인터넷 블로그 운영에 뛰어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

셋째, 단위사업과 프로그램 운영과정에서 사업의 방향과 내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사업 참가 개인 및 단체 간의 다양한 이해관계와 갈등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3의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업별 성과관리 시스템을 가소화하고 우수 사업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 물질적인 보상도 중요하지만 주민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선진지 견학 혹은 해외 탐방과 같은 연수기회를 제공하는 방안도 포함해야 한다.

사례 4. 마을별 교육나눔 프로그램[대구시, 2015]

■ 더불어 사는 우리마을

- 김장나눔, 사랑나눔, 교육나눔(김장체험 및 독거노인들게 전달)
- 효자 웃음 드리기, 우리마을 자원봉사대(마을 요양원과 경로당 방문, 공연)
- 재능기부봉사단(커피드림 Coffee Dream)
- 초록 꿈을 키우는 Young Farmer(꽃과 나무를 키워 무료 분양)
- 장애인 체험부스 운영
-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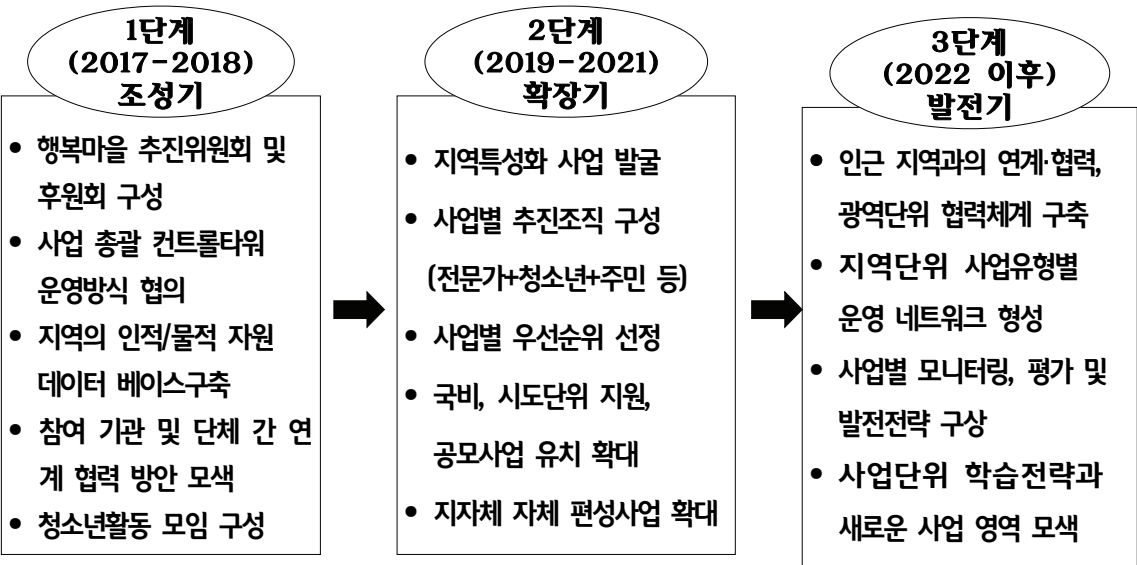
■ 우리지역 체험하고 가꾸기

- 우리 지역 바로 알기(농촌체험)
- 이야기가 있는 우리동네 역사탐방
- 우리 마을 행복 소공연(청소년과 어른이 함께 사물놀이 공연)
- 우리 마을학교 담장 꽃길 조성
- 우리마을 조기청소
- 우리마을 통(통)지도 만들기
- 우리마을 공원 가꾸기
- 동네방네 소문내기(스토리텔링으로 우리마을 이야기 만들기)

출처: 대구광역시(2015). 우리마을 교육나눔사업 안내 자료집. 재구성.

3) 청소년행복마을 조성을 위한 중장기 추진 로드맵

청소년행복마을 조성을 위한 중장기 추진 로드맵을 3단계로 구상하였으며, 1단계는 사업 추진 시작부터 2년간 행복마을 기반 조성기, 2단계 3년간 사업 확장기, 그 이후를 안정화 및 발전기로 구분하였다.



참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6). 청소년행복마을 조성사업 운영 및 정책회방안 포럼(2016. 7.22)자료집, 재구성.

첫째, 청소년행복마을 조성의 1단계 주요 활동 내용은 추진위원회와 컨트롤 타워 구성 및 운영방식 협의, 지역 내 인적·물적 자원 데이터 구축, 참여 기관 및 단체 간 협력방안 모색, 청소년활동 모임 구성 등이다. 특히, 사업 기획과 추진과정에서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와 주도적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원칙을 명기하고, 이를 실천할 추진 기구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실례로, ‘지방청소년의회’,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정책모니터단’ 등을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둘째, 청소년행복마을의 기본적인 틀이 구축되면, 2단계에서는 지역별 특성화 사업을 위주로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추진조직 구성 및 기능별 역할을 협의해야 한다. 더불어 사업의 지속성을 위한 콘텐츠 및 프로그램개발과 분야별 전문가와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판단된다.

셋째, 조성기와 확장기를 거쳐 안정화 단계에 이른 후에는 인근 지역과의 연계·협력 및 광역단위

와의 협력체계 구축과 같은 확장과 발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단위에서는 사업유형별 운영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한 발전전략을 구상해야 한다. 초기부터 시행해 오던 사업 참가자 및 관계자들 대상의 교육과 아카데미를 통해 새로운 사업 영역을 끊임없이 모색하려는 노력은 필수적이라고 판단된다.

4) 청소년 행복마을 조성을 위한 정책화 방안 및 추진전략 제언

- (1)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지자체) 차원의 ‘청소년의회 구성·운영’을 청소년 분야 대표 브랜드 정책으로 추진하여, 청소년의 참여와 주도적인 기획으로 ‘청소년행복마을 만들기’사업을 실천하여,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추진 배경	• 아동친화도시 운영의 10대 원칙인 ‘아동의 참여’ 실현 제도 • 청소년들의 자치활동 보장과 정책결정에 참여기회 제공 • 청소년의회 활동 수행을 통한 시민의식 및 참여 역량 강화
주요 내용	• 상임위원회 운영: 의견수렴 및 정책제안 • 청소년 참여아카데미 운영 • 아동참여예산제: 어린이날 행사 등 예산편성에 참여 • 권리모니터링: 아동권리옹호, 옴브즈맨 역할 수행
국내외 사례	• 군산시, 성북구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 유럽의 어린이·청소년의회[핀란드, 영국, 유럽연합(EU) 등]

- (2) 현재 시행 중인 ‘아동·청소년참여위원회’ 혹은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역할에, ‘청소년시정모니터단’ 혹은 ‘청소년정책모니터단’의 기능을 포함시켜, 지역 청소년들의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온(on)-오프(off)라인 정책참여 플랫폼의 토대를 구축한다.

추진 배경	• 지역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소통을 통한 정책의 현장 적합성 제공
주요 내용	• 행복모니터단 홈페이지를 통해 자유의견 및 수시 정책제안 • 정기적인 온라인 설문조사 및 오프라인 모임 • 정책제안 발표대회 및 UCC 아이디어 공모전
국내외 사례	• 교육부: ‘행복교육학생모니터단’ 운영[2012-2016]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지역사회청소년정책모니터단’ 운영 [2013-2016]

(3) 현재 운영 중인 ‘청소년문화존’을 활성화하고, 지역단위 ‘청소년 어울림마당’ 혹은 ‘청소년문화특구’를 지정·운영한다.

추진 배경	- 지역단위 청소년들의 놀이, 문화 공간 절대부족 - 청소년들이 상호교류하면서 꿈과 끼를 발산할 수 있는 플랫폼 제공
주요 내용	- 지역의 광장, 공원, 유희 공간 등을 청소년 문화특구로 지정 - 청소년 끼와 재능 발산을 위한 상설무대 설치, 동아리 경진대회 개최 - 도시와 농촌 간의 어울림 축제, 농촌체험 프로젝트 운영 - 시와 교육청이 연계하여 문화 체험 등을 기획운영
국내외 사례	- 부산특별광역시: 청소년 문화존 7곳 운영, ‘금정문화예술특구’ - 부천시: 청소년 문화존, 청소년이 만든 개성넘치는 문화놀이터 등 - 노르웨이 트론하임시: 도시에서 성장하기 프로그램[청소년들을 유네스코의 도시에서 성장하기(GUIC: Growing Up in the Cities)프로그램에 참여시켜 지역사회 주민 인터뷰, 토론, 그림그리기, 사진찍기, 자연산 책 등 다양한 활동 전개]

(4) 청소년들이 스스로 디자인하고 만들어가는 ‘청소년 상상 행복마을[도시] 프로젝트’를 중앙정부와 지자체(읍면동) 단위에서 실시한다.

추진 배경	자신들이 꿈꾸는 도시와 마을의 모습을 직접 디자인하고 스스로 만들어 가는 행복마을 만들기 프로젝트
주요 내용	- 어린이·청소년을 중심으로 의견 수렴과 아이디어 수집 -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하여 ‘올해의 상상마을[도시]’로 선정 ‘마을교육공동체’사업과 연계하여 시범사업 운영
국내외 사례	- 성남시 : ‘상상지 프로젝트’[청소년 클라우드 펀딩으로 사회문제 해결, 새로운 아이디어로 상품개발 및 창업 등을 실천] - 미국: 시카고 상상(Imagine Chicago)의 ‘10개년 실천전략’[1992년에 조직된 비영리단체로 시카고내의 학교, 교회, 지역단체, 문화예술 기관들이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미래를 위한 희망, 주인의식과 미래의 비전 도모]

(5) 지역(읍·면·동/시·군 연계)단위의 학교, 관공서, 사업체 등이 연계한 청소년 진로·직업체험 네트워크를 운영한다.

추진 배경	2016년 중학교 자유학기제 실시 및 학생들의 진로와 직업체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지역내 인프라 구축이 시급
주요 내용	- 복지시설 및 청소년시설에 청소년들을 위한 진로·직업체험 원스톱서비스 구축 - 권역별 다양한 배움을 경험할 수 있는 체험터(사업체 연계) 발굴 및 인증 실시 -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지역내 진로상담과 진로멘토링 운영
국내외 사례	대구시 남구 대명9동: 어린이·청소년 진로직업 테마파크 운영

(6) 청소년 행복마을 조성확산을 위한 정책적 추진전략과 접근방안

- ① 중앙정부의 부처별 마을만들기 정책 및 광역지자체의 마을만들기 사업과 연계한다.
(지역공동체 활성화 유형: 지역산업형, 지역교육형, 지역복지형, 환경생태형, 문화역사형, 다문화 지원형, 지역안전형, 생활정비형 등)
- ② 여성가족부 주도의 ‘가족친화 마을환경의 조성 촉진(가족친화 사회 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15.3.27. 법률 제 13263호])’사업과 연계하여 ‘청소년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③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의 아동친화도시 추진 및 인증 과정에서 아동과 청소년의 역할을 명료하게 규명하여,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지역 내 청소년활동을 위한 시설과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
- ④ 현재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아동청소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를 강화한다.
- ⑤ 중앙정부 차원의 표준화된 ‘청소년행복마을 만들기’사업의 추진이 어려울 경우 지속적인 시범사업, 우수사례 발굴, 공모전 등을 통해 ‘지역별 특성화 모형’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확산시키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5) 청소년 행복마을 관련 정책과 법제도 개정 및 연구내용 조정(안)

(1) 관련 정책 및 법제도 개정(안)

표 VI-1 청소년이 행복마을 조성을 위한 관련 정책 및 법제도 개정(안)

구분	현행	개정(안)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청소년기본법 제13조, 14조, 15조에 근거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5년마다 수립되는 법정 국가기본계획)	제5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2013-2017] ○비전: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청소년이 꿈꾸는 밝은 미래 ○5대 영역 15개 중점과제(75개 세부과제) 중 중점과제 4-1 건강한 가정 및 지역사회 조성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지표 개발 및 선정 <u>–「청소년이 행복한 마을」선정 및 모니터링단 운영 추진을 통해 지역사회가 자발적으로 청소년 친화환경을 조성하도록 점진적 유도 및 홍보를 명기함</u>	제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2018-2022] ○비전: 청소년이 스스로 만들어 가는 미래, 청소년의 리더십과 활동역량 강화 ○실천과제 : 청소년이 주도하는 청소년가 족친화마을「청소년행복마을」선정 및 시행과정 평가 <u>–「청소년가족행복마을」조성 및 모니터링단 운영 추진을 통해 지역사회가 자발적으로 청소년과 가족의 친화환경을 조성하도록 점진적 유도 및 홍보를 명기함</u>
청소년기본법 [법률 제13180호, 2015.2.3., 일부개정] [시행 2015.5.4.]	○제2조(기본이념) ① 이 법은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음과 아울러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며(이하 생략). ② 제1항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장기적·종합적 청소년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추진 방향으로 한다. <개정 2015.2.3.> 1. 청소년의 참여 보장 2. 창의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청소년의 능동적 삶의 실현 3. 청소년의 성장 여건과 사회 환경의 개선	○제2조(기본이념) ① 이 법은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음과 아울러 스스로 생각하고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이하 생략). ② 제1항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장기적·종합적 청소년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추진 방향으로 한다. <개정 2015.2.3.> 1. 청소년의 적극적인 참여 기반 조성 2. 창의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청소년의 능동적 삶의 실현 3. 청소년의 성장 여건과 사회 및 지역 환경의 개선

구분	현행	개정(안)
	4. 민주·복지·통일조국에 대비하는 청소년의 자질 향상 ○제5조의2(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① <u>청소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u>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원활하게 관련 정보에 접근하고 그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자문·심의 등의 절차에 청소년을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u>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u>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4.3.24.] ○제11조(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설치) ① 청소년육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속으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둔다. ② <u>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구성·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u>[전문개정 2014.3.24.]	4. 민주·복지·통일조국에 대비하는 청소년의 자질 향상 ○제5조의2(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① <u>청소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u>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원활하게 관련 정보에 접근하고 그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자문·심의 등의 절차에 청소년을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u>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 취하고 이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u>[전문개정 2014.3.24.] ○제11조(지방청소년의회 설치) ① 청소년 정책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속으로 지방청소년의회를 설치·운영한다. ② <u>지방청소년의회의 구성·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u>[전문개정]

(2) 어린이·청소년 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2015.12.15. 제정) 분석 및 시행 의견

표 VI-2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군산시 2015.12.15. 제정) 분석 및 시행 의견

구분	현행	분석 및 시행 의견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u>"어린이의회"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어린이들이</u> 군산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서 지방의회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u>모의회의</u> 를 말한다. 2. <u>"청소년의회"란 군산시 관내에 거주하고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 19세미만 청소년들이</u> 시의회에서 지방의회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모의회의를 말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의회"의 연령 대상을 현행 ' <u>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어린이들</u> ' ⇒ ' <u>7-12세에 해당되는 어린이들</u> '로 변경(*초등학교 재학, 대안교육, 홈스쿨링의 경우도 포함) 2. "청소년의회"란 군산시 관내에 거주하고 ' <u>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 19세미만 청소년들</u> ' ⇒ ' <u>청소년기본법에 따른 만 24세이하의 청소년들</u> '로 변경(*관내 19-24세의 청소년들과 대학생들의 참여 및 활동 기회 보장)
제5조 (구성)	① 어린이의회 의원은 관내 <u>초등학교 5~6학년</u> 에 재학 중인 어린이로 구성하되 공개 모집을 통하여 신청한 어린이중 거주지 및 성별 등을 고려하여 심사 선정한다. ② 청소년의회 의원은 관내에 거주하고 <u>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 19세 미만</u> 청소년으로 구성하되 공개 모집을 통하여 신청한 청소년중 거주지 및 성별 등을 고려하여 심사 선정한다.	① 어린이의회 의원은 관내 <u>초등학교 4~6학년</u> 에 재학 중인 어린이로 구성하되 공개 모집을 통하여 신청한 어린이중 거주지 및 성별 등을 고려하여 심사 선정한다. ② 청소년의회 의원은 관내에 거주하고 <u>청소년기본법에 따른 만 24세 이하</u> 청소년으로 구성하되 공개 모집을 통하여 신청한 청소년중 거주지 및 성별 등을 고려하여 심사 선정한다.
제7조 (의원 임기 및 사퇴)	① <u>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u> 의원증을 받음과 동시에 시작하고 차기 의원들이 의원증을 받음과 동시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② 의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에 사퇴할 수 있다. 1. 주민등록 이전, 전학 등의 경우 2. 학업, 건강 등 개인사정으로 의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③ 임기중 3분의 1이상이 결원시는 제5조	① 의원의 임기는 ' <u>1년</u> '으로 하되 ⇒ 의원의 임기는 ' <u>2년</u> '으로 하되(*임기를 1년으로 정할 경우 매년 의원을 선출하고 임명해야 하는 운영상의 번거로움과 인력 및 예산이 소모됨, 다만 해당 의원의 연령이 자격 기준을 초과할 경우 자동으로 의원직을 상실하여 총원할 수 있는 조항 필요)

구분	현행	분석 및 시행 의견
	에 의거 공개모집을 통해 결원을 충원한다. 다만, 사퇴 등으로 인하여 새로 선정된 의원의 임기는 전임의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상임위원회)	① 어린이의회와 청소년의회는 각각 교육위원회, 복지위원회, 안전위원회 등의 상임위원회 를 둘 수 있으며 각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① 어린이의회와 청소년의회는 각각 교육위원회, 복지위원회, 안전위원회 등의 상임위원회 ⇒ 문화활동위원회, 놀이체육위원회, 진로·직업체험위원회 등 추가 (*지역 단위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놀이, 문화, 체육, 진로·직업체험 등의 다양한 활동의 중요성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음)
제14조 (의견 청취 및 반영)	① 시장은 어린이·청소년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예산 편성시 어린이·청소년 의회의 제안 및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② 시장은 어린이·청소년 의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어린이·청소년 의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시장은 어린이·청소년 의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 및 공표하여야 한다.’ (*반영된 결과와 성과를 반드시 의회에 보고하고 문서로 공표할 필요가 있음)

(3) 연구방향 및 내용 조정(안)

표 VI-3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연구 방향 및 내용 조정(안)

구분	1단계(2013-2016)	2단계(2017-2022)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 [2013-2022]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 * 추진계획 1단계(2013-2016): 기초연구, 청소년정책 모니터단 운영, 시범사업 단계 ○ 2013-2016년도 연구사업 내용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행복 수준 중심) • 청소년 행복관련 환경요인들의 실태 진단 • 지역사회 청소년정책 모니터단 운영 (청소년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 * 추진계획 2단계(2017-2022): 시범사업 확대 및 특성화모형 모델 개발, 활동인프라 구축, 참여제도 활성화 등 ○ 2017-2022 연구사업 내용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시범사업 실시(3개 유형으로 확대) • 「 청소년행복마을 」 혹은 「 청소년기초행복마을 」 특성화 유형을 개발하여 정책화

구분	1단계(2013-2016)	2단계(2017-2022)
	학부모, 교사, 현장 전문가 등) • 지역사회 청소년 행복 수준 측정 및 진단 (17개 시도) • 지역사회 청소년 정책 분석 및 행복 증진 정책과제 개발 • 청소년이 행복도시 조성 추진 전략 개발 • 청소년 행복증진을 위한 청소년 제안 의견 보고서 발간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시범사업 시행(1-2차년도) • 청소년 행복도시 조성 정책화 및 추진방향 제언	및 확산 방안 도출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 조사결과를 근거로 영역별 지원정책 수립 및 조정 • 청소년행복마을 사업에 청소년들의 참여 확대를 위한(자율학기제, 봉사활동, 체험활동)의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 방안 • 청소년들의 주도적 참여 기반 마련을 위한 ‘지방청소년의회’ 구성·운영 활성화 지원 • 제6차청소년기본계획(2018-2022)에 ‘청소년 행복마을’ 조성 정책화 및 추진방안 반영

그 동안 추진된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의 결과와 정책 제언을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 하지만 ‘청소년행복마을 조성’정책을 중앙 및 지자체 차원에서 대표적인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있어 몇 가지 한계가 있음이 연구 및 청소년 담당 부서와의 정책협의회 과정에서 제기되었다. 주요 이유로는 현재 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아동친화도시’ 인증 사업이 주로 18세 미만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청소년기본법 상의 18-24세에 해당되는 청소년들의 참여에 대한 법적 기반이 미약하다는 점이다. 또한 이미 지자체에서 ‘여성친화도시’ 혹은 ‘가족친화도시’ 등을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친화도시’를 중복적으로 거론하는 데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2016년도 연구의 정책제언에서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혹은 ‘청소년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의 정책화 방안 5개와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이미 2022년까지 계획된 이 연구의 방향과 내용을 조정하였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제6차청소년기본계획(2018-2022)과의 연관성 속에서 구체적인 실천전략이 마련될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참 고 문 헌

참 고 문 헌

- 관계부처합동(2012).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7). 서울: 여성가족부.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13). 2013 간추린교육통계.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김기현·임희진·장근영·김혜영·황옥경(2011).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상돈(2014). 마을공동체-이론과 실제-, 서울:소통과 공감.
- 김영한, 오해섭, 성운숙, 정윤미(2015).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 Ⅲ: 총괄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영한, 임영식, 김민(2014).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 Ⅱ: 청소년 행복도시 조성사업 추진계획 수립.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지경, 하헌주, 김옥태(2014).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 Ⅱ: 지역사회 진단·분석.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농림축산식품부(2014). '행복을가꾸는 우리마을 이야기', 제1회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성공비법을 나누다.
- 농림축산식품부(2015). '함께만들어요 행복한 우리마을', 제2회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 수상마을사례집.
- 대구광역시(2015). 우리마을 교육나눔 사업 안내서.
- 오해섭(2003). '지역사회에서 청소년들과 성인들간의 파트너십 강화시스템 구축',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3년 제6차 정례토론회.
- 오해섭, 김세광, 정윤미(2015).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 Ⅱ: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시범사업'운영과 추진전략.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손세영(2016). 청소년의 발달자선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공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서울시 성북구(2015). -아동권리 접근방법 활용한- 아동친화예산서.

- 성운숙, 홍성호(2015).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 III: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 개발 및 진단**.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장근영, 박수익(2011a).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연구I:2011민주시민역량실태조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장근영·이혜연·배상률·성은모·이용교·홍승혜(2013).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지표개발 및 조성방안 연구 I**.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4). **경기도 마을만들기 지원 계획 및 실행 방안 연구**.
- 한국방정환재단(2013). **2013년도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연구 조사결과보고서**, 서울: 한국방정환재단.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6). **‘민관협치형 부산광역시 행복마을만들기 현황(6월13일)’콜로키움 자료집**.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6). **‘청소년행복마을 조성사업 운영 및 정책화 방안 포럼(7월 22일)’자료집**.
- 희망리포트(2013) 18호 **일본 마을만들기 현장을 가다**.
- 희망리포트(2016) **청소년 사회혁신 프로젝트 OO실험실**
- Asia NGO Innovation Summit 2013, Program Book Social Innovation Meets Technology: Scaling Social Impact and Enriching People's Lives
- Benson. P. L., Scales. p. C., Leffert. N., & Roehlkepartain. E. C.(1999). A fragile foundation : The state of developmental assets among American youth. Minneapolis: Search Institute.
- UNESCO. <http://www.unesco.org>.
- UNICEF(2009). Child Friendly Cities promoted by UNICEF National Committees and Country Offices - Fact sheet, September 2009. <http://www.childfriendlycities.org>.
- UNICEF(2013). Child Well-being in Rich Countries: A Comparative Overview. <http://www.unicef-irc.org>.
- UNICEF. <http://www.unicef.or.kr>.

[참고사이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국가평생교육진흥원. <http://www.nile.or.kr>
 군산교육지원청 <http://www.jbgse.kr/>
 네이버 지식백과. <http://terms.naver.com>
 안산시 좋은만을만들기지원센터.<http://happyansan.or.kr>
 유니세프. www.UNICEF.or.kr (검색. 2016.7.2.)
<http://www.ukyouthparliament.org.uk/about-us/>(2016. 7. 15 검색)
<http://eyp.org/strategy>,(2016. 7.18 검색)
<http://www.ukyouthparliament.org.uk/about-us/history/>(2016. 7.18 검색)
http://eypfinland.org/files/2013/04/psp_guide_english.pdf(2016. 7. 19 검색)

부산에서 책 만드는 이야기 산지니 출판사 블로그 <http://sanzinibook.tistory.com/27>
 -못사는 동네 반송에서 희망세상으로 / 산지니 책/마을 만들기, 2016년 5월 17일 검색
 희망제작소 <http://www.makehope.org/> , 2016년 5월 17일 검색

[참고법률]

청소년기본법[법률 제13180호, 2015.2.3. 일부개정][시행 2015.5.4.]
 군산시 어린이 행복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2014.3]
 군산시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2015.12.15. 제정)



부록

부 록

■ 2016 시범사업 활동자료

1) 경제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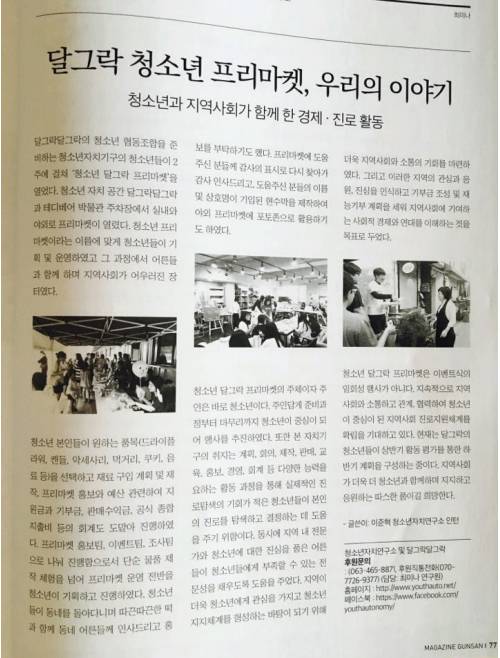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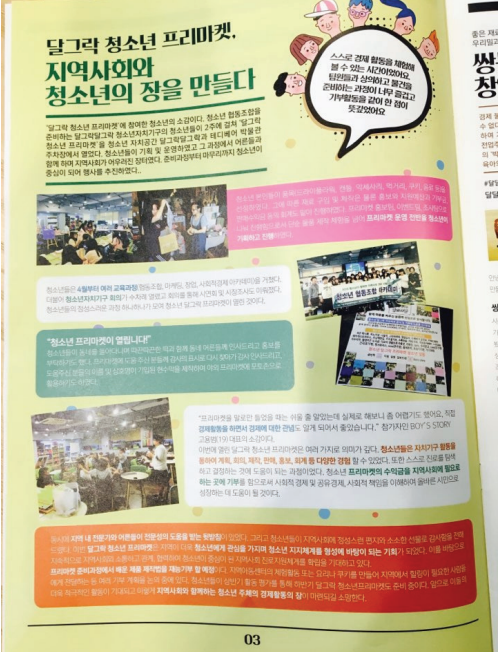
① 운영 회칙

날짜	내용
청소년 협동조합 달그락달그락 회칙	청소년 협동조합 달그락 달그락 회칙 제 1장 총칙 제 1조 (명칭) 본동아리는 청소년 협동조합 달그락 달그락이라 칭한다. 제 2조 (등록) 본 동아리는 군산 중앙여자고등학교와 군산 중학교, 군산여자상업고등학교, 영광여자고등학교, 군산상업고등학교, 청소년 자치 연구소에 소속되며, 동아리 회원에 가입한다. 제 3조 (목적) 본 청소년 자치 기구 활동으로 청소년들의 활발한 경제활동을 통한 진로 탐색과 올바른 경제관념이 길러지는 것을 목적으로 둔다. 또한 배려 심과 협동심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 4조 (활동) 본 조직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다음과 같은 활동을 전개한다. 가. 청소년 협동조합 아카데미 나. 연간 계획 세우기 다. 멘토와의 연계 활동 라. 프리마켓 (상설, 이동) 마. 일일 찻집과 연계 바. 지역사회 나눔 활동 사. 평가회 (중간 평가, 최종 평가) 아. 청소년 협동 조합 발대식 제 5조 (회의) 제 4조 활동을 위해 다음과 같이 모임을 가진다.

날짜	내용
	가. 전체회의 (첫째 주 토요일, 2달에 1번, 팀의 1/20이상 출석 및 1/20이하일 경우 1인당 3,000원 벌금 징수) 나. 임원회의 (마지막 주 토요일, 1달에 1번) 다. 팀별회의 (팀장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루어짐) 제 2장 회원 제 6조 (자격) 다음과 같은 사람은 청소년 협동조합의 회원이 될 수 있다. 가. 경제활동에 관심이 있거나 참여할 의사가 있는 청소년 나. 협동할 줄 알고 배려심이 있는 청소년 다.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청소년 제 7조 (권리와 의무)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가. 본 자치 기구의 활동 및 회의에 참가하는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나. 본 자치 기구의 회칙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제 3 장 총회 제 8조 (구성) 총회는 팀별대표, 팀별부대표, 전체서기, 전체총무로 구성되는 본 조직의 최고의 의결기구이다. 3/5 이상의 출석으로 구성되어 진다. 제 9조 (구분) 총회는 정기총회 와 임시총회 로 구분된다. 제 10조 (소집) 총회는 다음과 같이 소집한다. 가. 정기총회는 4/4 분기 중 회장이 소집한다. 나. 임시총회는 회원 1/2 이상의 요구나 회장이 소집한다. 제 11조 (의결) 총회는 참석인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헌장 개정 및 임원해임의 사항은 1/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2조 (사항) 총회에서 의결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회칙의 개정 나. 예산과 결산 다. 임원해임사항 라. 추가 안건 마. 사업 계획 및 보고의 승인 제 4 장 임원 제 13조 (기능) 본 조직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가. 팀별 대표 : 팀을 대표하고 팀의 의견을 전체에 전달한다. 나. 팀별 부대표 : 대표를 보좌하며, 대표 부재 시 대표의 일을 대신하며 팀원들의 연락을 총괄한다. 다. 청소년자치기구 서기 : 전체 회의록을 작성한다. 라. 청소년자치기구 총무 : 각 팀의 예산과 결산을 관리한다. 마. 청소년자치기구 대표 : 본 자치 기구를 대표하며, 모든 활동을 총괄한다. 바. 청소년자치기구 부대표 : 대표를 보좌하며, 대표 부재 시 대표의 일을 대신하며 자치 기구원들의 연락을 총괄한다.

날짜	내용
	제 5 장 기타 제 14조 (개정) 본 회칙 중에 제 1장 총칙의 개정은 인원 중 2/3가 되었을 때 이루어지고 담당 지도자의 허락 하에 회칙을 개정한다. 제 15조 (재정) 본 청소년자치기구는 청소년자치연구소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는다. 가. 팀별로 지원금 사용계획서를 작성하고 담당지도자의 허락 하에 지원 받는다. 나. 수익발생시 청소년자치연구소에 지급된 지원금을 반환한다. 다. 적자발생시 청소년자치연구소에 전 금액을 반환한다. 부칙 제 1조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을 일반 규례에 준한다. 제 2조 수정은 통과일로부터 실시한다. 2016년 5 월 13 일 제정

② 보도자료 및 신문기사

소프로그래밍	내용
군산 매거진	 달그락 청소년 프리마켓, 우리의 이야기 청소년과 지역사회가 함께 한 경제·진로 활동 달그락달그락의 청소년 협동조합을 준비하는 청소년자치기구의 청소년들이 2주에 걸쳐 '청소년 달그락 프리마켓'을 열었다. 청소년 자치 공간 달그락달그락과 테드베어 박물관 주차장에서 실행되어오던 프리마켓이 열렸다. 청소년 프리마켓은 이름에 맞게 청소년들이 기획 및 운영하였고 그 과정에서 어른들과 함께 하며 지역사회가 아우러진 장터였다. 청소년 협동조합이 원하는 품목(드라미, 라면, 캔들, 악세사리, 머그컵, 쿠키, 음료 등을 판매하고 재로 구입 계획 및 재작, 프리마켓 홍보와 예산 관리에 지출금과 기부금, 판매수익금, 공식 후원자출에 대해 회계도 도입에 진행하였다. 프리마켓 홍보팀, 이벤트팀, 조식팀으로 나눠 진행함으로써 단순 물품 제작 체험을 넘어 프리마켓 운영 전반을 청소년이 기획하고 진행하였다. 청소년들이 동네를 돌아다니며 파란마흔만 미국 함께 동네 어른들께 인사드리고 흥 보통 부탁하기도 했다. 프리마켓에 도움 주신 분들께 감사의 표시도 다시 찾아가 감사 인사드리고, 도움주신 분들의 이름 및 상호명이 기입된 현수막을 제작하여 프리마켓에 포토존으로 활용하기도 하였다. 더욱 지역사회와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자원의 관심과 응원, 진심을 얻었고 기부금 조성 및 재능기부 계획을 세워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사회적 경제와 연대를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두었다. 청소년 달그락 프리마켓은 아토크트리의 일회성 행사도 아니다.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관계 확립하여 청소년이 중심이 된 지역의 진로지원체계를 확립을 기대하고 있다. 현재는 달그락의 청소년들이 상한기 활동 참가를 통한 재능기부 기회를 구상하는 중이다. 지역사회가 더욱 더 청소년과 함께하여 지지하고 응원하는 파란한 용이길 희망한다. —글이 : 이윤혜 청소년자치연구소 연구원 청소년자치연구소 및 달그락달그락 후원문의 (093) 465-6871, 후원지침:02(070-7726-3977) (일주, 3시간 근무) 홈페이지 : http://www.youthautonomy.net/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youthautonomy/ MAGAZINE GUNSAN 177
거기어때 월간지	 달그락 청소년 프리마켓, 지역사회와 청소년의 장을 만든다 달그락 달그락의 청소년 협동조합을 준비하는 청소년자치기구의 청소년들이 2주에 걸쳐 '청소년 달그락 프리마켓'을 열었다. 청소년 자치 공간 달그락달그락과 테드베어 박물관 주차장에서 실행되어오던 프리마켓이 열렸다. 청소년 프리마켓은 이름에 맞게 청소년들이 기획 및 운영하였고 그 과정에서 어른들과 함께 하며 지역사회가 아우러진 장터였다. 청소년 협동조합이 원하는 품목(드라미, 라면, 캔들, 악세사리, 머그컵, 쿠키, 음료 등을 판매하고 재로 구입 계획 및 재작, 프리마켓 홍보와 예산 관리에 지출금과 기부금, 판매수익금, 공식 후원자출에 대해 회계도 도입에 진행하였다. 프리마켓 홍보팀, 이벤트팀, 조식팀으로 나눠 진행함으로써 단순 물품 제작 체험을 넘어 프리마켓 운영 전반을 청소년이 기획하고 진행하였다. 청소년들이 동네를 돌아다니며 파란마흔만 미국 함께 동네 어른들께 인사드리고 흥 보통 부탁하기도 했다. 프리마켓에 도움 주신 분들께 감사의 표시도 다시 찾아가 감사 인사드리고, 도움주신 분들의 이름 및 상호명이 기입된 현수막을 제작하여 프리마켓에 포토존으로 활용하기도 하였다. 더욱 지역사회와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자원의 관심과 응원, 진심을 얻었고 기부금 조성 및 재능기부 계획을 세워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사회적 경제와 연대를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두었다. 청소년 달그락 프리마켓은 아토크트리의 일회성 행사도 아니다.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관계 확립하여 청소년이 중심이 된 지역의 진로지원체계를 확립을 기대하고 있다. 현재는 달그락의 청소년들이 상한기 활동 참가를 통한 재능기부 기회를 구상하는 중이다. 지역사회가 더욱 더 청소년과 함께하여 지지하고 응원하는 파란한 용이길 희망한다. —글이 : 이윤혜 청소년자치연구소 연구원 청소년자치연구소 및 달그락달그락 후원문의 (093) 465-6871, 후원지침:02(070-7726-3977) (일주, 3시간 근무) 홈페이지 : http://www.youthautonomy.net/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youthautonomy/ MAGAZINE GUNSAN 177

2) 참여영역

① 회의록 (동아리활동, 포럼기획회의록)

날짜	내용																																						
기자단 (전체회의록4월,8월)	전체 [동아리명: 팀명: ^{기자단 Aspect}]의 [3]차 회의록 1																																						
	<table><tr><td>일시</td><td>2016년 4월 2일 13시</td><td>장소</td><td>달그락 달그락</td></tr><tr><td>참석인원</td><td colspan="3">박나림, 김기쁨, 이규환, 주홍, 이대현, 유효찬, 박태민, 조용준, 전도진, 김효석</td></tr><tr><td>기록자</td><td>박나림</td><td>지도자</td><td>이명민</td><td>회의진행자</td><td>이명민</td></tr><tr><td>주제</td><td colspan="5">청소년기자단활동 정경 및 한층 진행 부</td></tr><tr><td>토의 및 결의사항 (사진 첨부도 가능함)</td><td colspan="5"> 1. 4.16 캠페인 - ① 선전 ② 동아리 연간계획별도 ③ 세원포 공동으로 → 자치가평장려 ^{본인} ↳ 담당: 다같이 오를 랑 2. 생기부/봉사활동 - 생기부! 공약고 3. 지적기부 연합회 임무모 → 각 동아리당 1명 이상 ^{취재팀 캠페인} 4. 각 팀별 조직재계획을 공유 → 다음주에 다시 재결어 5. 희망이야기 반소활동 - 문화활동 추가 604 설문 (문화팀), 참여현충병원지(정시영) 6. 기획기사담당 - YMCA 금요일 17시 (김기쁨), 김제 - 김효석, 유효준 (농협생명) 7. <u>각 학교 리스드업 (행사)</u> → <u>수요일까지!</u> ^{ex) 소풍, 콘서트대리, 제천미디어촌 체험센터} ↓ 스드레포 (4.5월) 목차 [스토리: 행사기사, 시간의 흐름] ^{객관적} (과연된 연가) 기획: "국정문제" ^{- 주관적} 언론부: 저명한 인사들이한 활동 (문답) 칼럼: 주의주장 완전확실! </td></tr><tr><td>광고내용</td><td colspan="5">2매 이미접니다~</td></tr><tr><td>차기모임</td><td colspan="5">일시: 장소: 주요내용:</td></tr></table>	일시	2016년 4월 2일 13시	장소	달그락 달그락	참석인원	박나림, 김기쁨, 이규환, 주홍, 이대현, 유효찬, 박태민, 조용준, 전도진, 김효석			기록자	박나림	지도자	이명민	회의진행자	이명민	주제	청소년기자단활동 정경 및 한층 진행 부					토의 및 결의사항 (사진 첨부도 가능함)	1. 4.16 캠페인 - ① 선전 ② 동아리 연간계획별도 ③ 세원포 공동으로 → 자치가평장려 ^{본인} ↳ 담당: 다같이 오를 랑 2. 생기부/봉사활동 - 생기부! 공약고 3. 지적기부 연합회 임무모 → 각 동아리당 1명 이상 ^{취재팀 캠페인} 4. 각 팀별 조직재계획을 공유 → 다음주에 다시 재결어 5. 희망이야기 반소활동 - 문화활동 추가 604 설문 (문화팀), 참여현충병원지(정시영) 6. 기획기사담당 - YMCA 금요일 17시 (김기쁨), 김제 - 김효석, 유효준 (농협생명) 7. <u>각 학교 리스드업 (행사)</u> → <u>수요일까지!</u> ^{ex) 소풍, 콘서트대리, 제천미디어촌 체험센터} ↓ 스드레포 (4.5월) 목차 [스토리: 행사기사, 시간의 흐름] ^{객관적} (과연된 연가) 기획: "국정문제" ^{- 주관적} 언론부: 저명한 인사들이한 활동 (문답) 칼럼: 주의주장 완전확실!					광고내용	2매 이미접니다~					차기모임	일시: 장소: 주요내용:				
	일시	2016년 4월 2일 13시	장소	달그락 달그락																																			
	참석인원	박나림, 김기쁨, 이규환, 주홍, 이대현, 유효찬, 박태민, 조용준, 전도진, 김효석																																					
	기록자	박나림	지도자	이명민	회의진행자	이명민																																	
주제	청소년기자단활동 정경 및 한층 진행 부																																						
토의 및 결의사항 (사진 첨부도 가능함)	1. 4.16 캠페인 - ① 선전 ② 동아리 연간계획별도 ③ 세원포 공동으로 → 자치가평장려 ^{본인} ↳ 담당: 다같이 오를 랑 2. 생기부/봉사활동 - 생기부! 공약고 3. 지적기부 연합회 임무모 → 각 동아리당 1명 이상 ^{취재팀 캠페인} 4. 각 팀별 조직재계획을 공유 → 다음주에 다시 재결어 5. 희망이야기 반소활동 - 문화활동 추가 604 설문 (문화팀), 참여현충병원지(정시영) 6. 기획기사담당 - YMCA 금요일 17시 (김기쁨), 김제 - 김효석, 유효준 (농협생명) 7. <u>각 학교 리스드업 (행사)</u> → <u>수요일까지!</u> ^{ex) 소풍, 콘서트대리, 제천미디어촌 체험센터} ↓ 스드레포 (4.5월) 목차 [스토리: 행사기사, 시간의 흐름] ^{객관적} (과연된 연가) 기획: "국정문제" ^{- 주관적} 언론부: 저명한 인사들이한 활동 (문답) 칼럼: 주의주장 완전확실!																																						
광고내용	2매 이미접니다~																																						
차기모임	일시: 장소: 주요내용:																																						
청소년차지연구소 청소년차지연구소 대표청소년:  지도자: 																																							

청소년자치연구소
청소년자치연구소

대표청소년: 
지도자: 이명민 ⁽¹⁾

날짜

내용

[동아리명: Aspeet 팀명: 전체]의 [3]차 회의록 2.

일시	년월일	장소
참석인원		
기록자	지도자	회의진행자
주제	<4.16 캠페인> - 정치사위임 1. - 1 새국론 2주기 북침기사 (인식성원사) → 불참하: 기사작성 2. 피켓 캠페인 4기본 남침기사 - 교육원 3. 포스터 → 교육원 있음 4. NCC - 문화원 (캠페인마주) 5. 판이 매체지 불이 1-1 특검기사 - 재물조사, 인변제 4월9일 등산산 <요청할 회의:> 특검기사 (4.16) 4월 문화원, 리본만들기 → YMCA 기사 요청할 회의가: 정치원 (부속원), 문화원 (출판지본적), 기법이냐 알려라 - 원래 2000원지참 기회, 취매비, 리본반사됨	
참고내용	남침남침, 김홍희, 이규란, 주동, 조영준 주동	
차기모임	일시: 장소: 주요내용:	

청소년자치연구소

대표청소년: 박준우
지도자: 이민서

[동아리명: 기차단 Aspect]의 [ㄱ]차 회의록 ①

[illegible]

청소년자치연구소

대표청소녀: 백나영 강수희
지도자: 이정민 선영

날짜	내용
조례위원회 회의록 (7월30일)	청소년 참여 조례 구성 위원 회의록 1차 ◎ 일시 : 2016년 7월 30일(토) 17:30 ◎ 장소 : 달그락달그락 ◎ 참석자 : 강성욱, 곽지은, 박나림, 김정윤, 전호진, 이규완, 한동엽, 오성우, 이경민 (9명) I. 논의_ 조례 제정의 이해, 어떤 조례를 만들 것인가 - 조례제정과정과 관련 개념에 대한 소개와 질의응답 - 어떤 조례를 만들 것인지 논의 · 청소년들의 참여를 보장하여 민주시민으로서 성장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조례 · 청소년들의 문화, 예술 등 동아리 활동을 구체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조례 ·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저소득층 청소년 생리대 지원 조례 - 내용 구성 및 일정 논의 · 주민발의와 시의원 발의 · 8월 중 조례를 각자 만들어와서 공유 하고 조례안을 확정 짓기 · 9월 중 조례발의 예정/ 청소년 참관 가능 (학교로 사전에 공문발송) · 보도자료, 기획기사 등 청소년과 함께하는 조례 이슈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 연구소 실무선에서 정리하기로 함 II 결의사항 ○ 청소년 참여보장과 동아리 활동지원 조례 구성을 하기로 함, 첫 번째로 참여보장에 대한 조례 구성을 먼저 하기로 결정 ○ 8월 5일까지 청소년이 조례안 구성(인원, 시장의 책무, 의견수렴 등 조 구성) 하여 이메일로 보내고 취합하기로 함 ○ 차후일정: 8월 6일 오후 3시 2차 조례 위원 회의 - 안건: 조례안 취합
청소년참여포럼추진 회의(8월)	1차 포럼추진위원단 회의 기록: 박나림, 김효석 참석자 : 유효찬 김정윤 박나림 김은혜 박윤진 한동엽 조용준 김효석 김상연 박민희 조혜선 김용원 고용범 박건규 전호진 이대현 김기쁨 이동혁 최성훈 강다혜 곽지은 강현석(22명) ※ <투표결과> 추진위원장 : 곽지은 부추진위원장 : 김효석

날짜	내용
	※ 〈분임〉 경제 - 고용범(분임장), 김용원 복지 - 이대현(분임장), 이규완, 곽지은, 전호진, 안전 - 강현석(분임장), 이동혁, 한동엽, 최성훈 교육 - 강다혜(분임장), 김효석, 조용준, 박나림 환경 - 박윤진(분임장), 주 홍, 김은혜 활동 - 조혜선(분임장), 김상연, 박건규, 박민희 참여 - 김정윤(분임장), 유효찬, 김기쁨, ※ 〈추진위원단 팀 배치〉 기획 - 김정윤, 한동엽, 조용준, 김효석, 전호진, 이대현, 고용범, 박윤진, 조혜선, 강현석 홍보 - 이동혁, 김상연, 주 홍, 이규완, 박민희, 최성훈, 박건규, 김은혜, 김용원 진행 - 강다혜, 박나림, 유효찬, 김기쁨, 곽지은 ※ 〈토론주제〉 경제 - 청소년의 상설프리마켓 설치장소마련 필요성, 청소년 아르바이트 최저시급 지불, 청소년 아르바이트 안전교육 필요성, 청소년 아르바이트 사대보험, 청소년 아르바이트, 안전사고 복지 - 청소년 아르바이트 최저시급 보장, 청소년 복지체계 강화, 청소년이 술,담배 등에 쉽게 노출, 청소년 상담시설 부족, (한부모 가정, 기초생활 수급자 복지개선), 청소년 성 교육 부족, 청소년이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성교육, 길거리 간접흡연, 복지시설 홍보 부족, 지원이 필요한 학생이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 공공시설 쓰레기 문제 안전 - 등하교길 인도부족(중앙여고), 대중교통 안전운전 부족, 학교 주변 유흥업소, 불법주차, 길거리 흡연(담배꽂초), 청소년 위험요소 고발을 하고자함 교육 - 활동기획 특혜(공부잘하는 사람 위주, 일부 기숙사에게만), 교내 건의함 활성, 검정고시생 전형, 교육의 실효화, 동아리 지원확대(장비 지원, 선생님의 협조 부족), 마이스터 취업관련(현재상황과 부적절), 학교 어플리케이션 활성화(페이스북, SNS 홍보부족), 교권침해 환경 - 부모님과과의 관계향상을 위한 시설 부족(가족관계 향상), 청소년 오락시설 부족(노래방,오락실 X), 달그락같은 자치시설 확대, 길거리 쓰레기통 확대 활동 - 학교 자율동아리 활동공간 부족, 군산의 직업체험 시설 부족, 진로 활동 다양성 부족, 청소년 문화시설 부족, 같은 재단 시설 공동사용 빈번 참여 - 18세 선거권과 피선거권, 학교내 자치활동공문 알림부족, 참여활동시 학교의 제한, 교육감 선거권 필요 ※ 〈다음일정 및 안건〉 각 분임에 전문가 동참 (찬성/반대)/ 토론편 작성, 날짜 선택/ 기조발표 준비/기획팀 및 분임장 회의

날짜	내용
	2차 포럼추진위원단 회의_ 기록: 김효석 〈핵심주제〉 복지 1. 소년소녀 가장 - 경제적으로 열악한 환경 2. 청소년 스트레스 해소를 인터넷과 같은 매체로 홍보 3. 청소년이 유해한 매체에 쉽게 접함. 안전 1. 지역사회의 위험요소 고발(불법주정차, 대중교통문제, 일상생활속의 위험요소...) 2. 우리가 생각하는 안전 경제 1. 안전교육의 필요성(경제활동-아르바이트), 최저시급 활동 1. 불량청소년 교화 2. 동아리시간 보장 3. 여가생활장소 부족(비용부담) 4. 진로진학상담소 부족 5. 진로체험 공간 부족(예-전주), 홍보 부족 참여 1. 18세 선거권 및 피선거권 단체행동 보장 2. 지역사회 정책참여 3. 청소년 정보의 알권리 보장 교육 1. 교육의 실효화 필요 2. 정보 및 기회차별 3. 공교육의 권위 추락 4. 효과적인 교육방식 탐색 5. 청소년이 행복한 학교 환경 1. 교사, 또래 관계 회복 장소 마련 2. 길거리 쓰레기통 확대

② 활동자료(인터뷰지, 설문지, 기사, 연간계획 등)

소프로그램명	내용
부 록 인터뷰 질문지	김승수 전주시장님 인터뷰 질문지 안녕하세요. 청소년 기자단입니다. 이번 인터뷰 요청에 응해주시고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청소년이 궁금한 전주의 이모저모를 적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청소년기자단 드림
	CHAPTER1. 전주 시장님이 궁금해요! Q1. 전주시장이 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Q2. 시장님께서 전주를 이끌어가면서 더 개선하고 싶은 방안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Q3.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전주는 무엇인가요? Q4. 청소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CHAPTER2. 아동친화도시와 전주시 Q1. 시장님께서 생각하는 인권은 무엇인가요? Q2. 전주가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려는 움직임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Q3. 아동 청소년 친화적인 지역을 조성하기 위해 목표로 하는 바는 무엇인가요? Q4. 청소년이 행복한 도시는 무엇일까요?
	CHAPTER3. 청소년 문화공간 조성 및 문화활동 지원, 전주시는? Q1. 청소년기자단이 군산시 청소년 문화공간에 대한 보도를 낸적이 있습니다. 전주시는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에 어떤 점을 주력하고 있나요? Q2. 전주시에서는 청소년 문화공간을 얼마나 운영 중인가요? Q3. 전주에서 청소년을 위한 행사 등을 추진했을 때 가장 좋았던 사례 Q4. 전주시만의 청소년 문화 활동 강점에 있다면 군산과 연합해서 이런 활동을 하고 싶으신 생각이 있으신지
	CHAPTER4. 청소년 교육과 진로 선택 어떤 것이 필요할까? Q1. 군산시에서는 학생, 학부모를 위한 입시 특강이 올해 4번이 예정 되었는데 전주시에서는 청소년의 교육과 관련한 특강이 있나요? Q2. 전주시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과 진로교육을 어떻게 지원하나요? Q3. 전주시는 어떤 방법으로 학생들의 진로를 정할 수 있도록 돕는지?
	CHAPTER5. 청소년들에게 전주시장으로서 하고 싶은 말말말! 약속! Q1. 앞으로 전주시 청소년들을 위한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Q2. 전주의 청소년 중점사업이 하나만 소개부탁드려요! Q3. 시장님께 청소년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CHAPTER6. 전주시! 이것이 궁금해요! Q1. 앞으로 전주시 청소년들을 위한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Q2. 관광명소로 거듭난 전주시! 글로벌 관광도시가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Q3. 다른 도시보다 이것만큼은 전주가 낫대! 하는 부분이 있나요? Q4. 전주시장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전주는 어떤 부분인가요?

소프로그래밍	내용
--------	----

기사발송 일정계획표

■ 새전북신문 기사발송 일정(8월-9월)

1. 일 정:

월	주차	내용(앞에 기획,취재,칼럼 구분해서 쓰기)	팀명	담당기자
8월	2주차	* 지배 → 조차지	DSP	강현석
		* 석면발 도매 거래 여파	DSP	홍준
		* 제철공사 → 교차로 설치와 - 아파트 (정식사설)	DALET	김영남
	3주차	* 지배 → 일선지 개발이 필요한 도로 정비에 계획	DSP	강현석
		* 지배 → 학교의 전기 사용 (방학기간 등)	DALET	양원환
		*		
	4주차	* /N/비전 관련 기사 (사설/칼럼) - 비전부들	당근족 MBC	, 이동현, 강현
		* 스포츠 관련 기사 → 교통 관련 일반화 일반 제법 통과 필요	DSP	박재민
		* 생활기사	DALET	김다혜
	5주차	* 국악 (동아리) 축제	당근족 MBC	조강, 조
		* 지배 → 학교내	DALET	양원환
		*		
9월	1주차	* 전신관 추진 현황 - 기사	당근족 MBC	이동현, 강현
		* 생활 기사	DSP	홍준
		* IT 관련 기사	DSP	양원환
	2주차	* 생활 기사	DALET	김영남
		*		
		*		
	3주차	* 축제기 기사	당근족 MBC	이동현, 강현
		* 스포츠 관련	DSP	홍준
		* 생활기사 - 체육관련 (배달)	DALET	홍준
	4주차	* 생활기사 - 학교내	당근족 MBC	이동현, 강현
		* 생활기사 - 학교내	DSP	강현석
		* 생활기사 - 학교내	DALET	양원환

조사기획안

조사 기획(안)

ASPECT 기자단

Q. 어떤 것을 조사하였나요?

- 한일-차세대-메이커 X

- 일반인이 알아보기 어려운 시간표 *

- BUS(실시간-버스위치정보), 부정확함 → 실시간

- 버스안-정류장-안내-LED, 안내방송

① 중앙역? 인도, 학생, 여학생, 여학생

② VTC, 일반인 인터뷰

③ 한일-차세대-메이커 → 한일-차세대-메이커

④ 한일-차세대-메이커 → 한일-차세대-메이커

⑤ 한일-차세대-메이커 → 한일-차세대-메이커

⑥ 한일-차세대-메이커 → 한일-차세대-메이커

⑦ 한일-차세대-메이커 → 한일-차세대-메이커

⑧ 한일-차세대-메이커 → 한일-차세대-메이커

⑨ 한일-차세대-메이커 → 한일-차세대-메이커

⑩ 한일-차세대-메이커 → 한일-차세대-메이커

Q. 제안 된 정책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요?

- 장점 : 여객 운송사업법 50조 제정지원 : 필요시설 보관

시조래 : 제정지원

- 단점 : 여객운송사업법 50조 제정지원 : 막대한 예산 낭비

Q. 지역사회에서 이 정책들을 지지할 만한 개인이나, 단체들이 있나요?

- 군산 시청 교통행정과

- 군산 시내버스 공동관리 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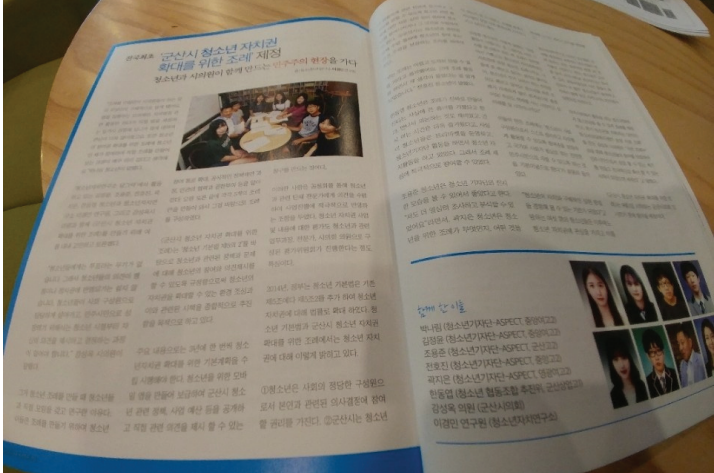
- 군산여객, 우정여객 회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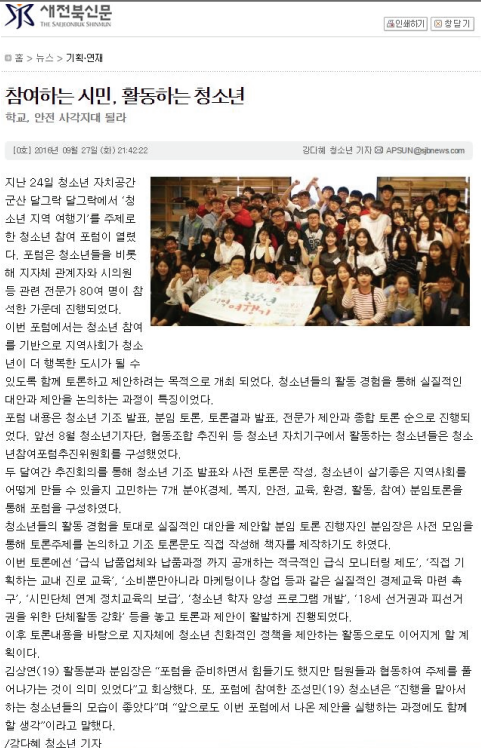
Q. 지역사회에서 이 정책들을 반대할 만한 다른 개인이나 단체는?

222

소프로그램명	내용																																									
	제4회 달달포럼 청소년 행복도시 민간 네트워크 어떻게 할 것인가? ※요약 대주제발표 : 김정운 청소년대표 (달그락 청소년자치기구 연합회) 주제: 청소년이 참여하는 행복마을을 위한 지원 1. 청소년 참여는? “청소년이 지역공동체와 사회전반에 영향을 끼치는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는 활동” · 청소년기자단활동, 청소년활동공유 블로그, 청소년 경제활동 협동 조합 등 청소년 자치활동 · 청소년의회, 포럼을 통한 정책의제 발굴 등 청소년의 정책제안활동 3. 청소년 행복이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얻는 행복과 내가 무언가를 하면서 얻는 행복 4. 청소년이 참여하는 행복마을을 위한 군산시, 청소년이 할 일 · 방해요인: – 수직적이고 일괄적인 현행입시제도 – 청소년 자치활동을 저해하는 콘텐츠 부족, 홍보부족, 군산시의 적극적인 지원부족, 부모님의 반대 · 해결방안: – 청소년의 주도적인 자치활동 콘텐츠 개발 – 정기적인 토론회와 다양한 청소년 프로그램 연계로 콘텐츠 개발에 주력 – 다양한 청소년기관과 시설에서 활동지원 – 군산시에서 학교에 공문을 보내 자치활동의 공식화 과정 – 선별적인(성적 상위권 학생 지원) 청소년 지원 예산을 보편적인 청소년으로 확대하여 분배 – 청소년 자치활동(동아리활동 등)은 노는 것이 아닌 꿈을 찾아가는 활동이라는 인식 개선(모든 세대)																																									
청소년참여포럼 웹홍보지 제작	청소년이 지역에 참여하고 행동하는 기록 청소년 지역 여행기 안녕하세요! 청소년 여러분들! 저희 달그락달그락 청소년들이 1년 동안 경제, 진로, 사회 참여, 봉사 등 많은 활동을 하면서 지역사회에 제안하고 싶은 정책의제를 고민했습니다. 청소년 참여를 기점으로 지역사회가 청소년이 더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토론하고 제안해보고자 합니다. 많은 청소년 분들이 참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 시 : 9월 24일 (토) 13:00 ~ 17:00 ● 장 소 : 전북 군산시 월명로 475-1 (19-3) 청소년자치연구소 3층 (명산 사거리 구 이치매이 앞) 청소년자치공간 달그락 달그락 ● 대 상 : 이 포럼을 참여할 마을을 가진 자랑스러운 청소년 여러분들 ♥ 70여명 (전문가 10명 내외 포함) ● 주 관 : 청소년자치연구소 달그락 참여포럼추진위원회 ● 일 정 <table><thead><tr><th>주제</th><th>시간</th><th>구분</th><th>내용</th><th>진행</th></tr></thead><tbody><tr><td>집수</td><td>12:40~13:00</td><td>집수</td><td>집수 및 안내</td><td>전체</td></tr><tr><td rowspan="3">1부</td><td>13:00~13:20</td><td>오리엔테이션</td><td>공동체 활동 진행</td><td>집단체, 집기동 (추진위원회)</td></tr><tr><td>13:20~13:40</td><td>개회</td><td>특별 소개 및 인사발령 (안동우 청소년기자단, 최진영 청소년자치연구소 소장)</td><td>박나원, 박유진 (추진위원회)</td></tr><tr><td>13:40~14:00</td><td>기조 발표</td><td>참여하는 시민, 활동하는 청소년</td><td>곽지은 (추진위원회)</td></tr><tr><td rowspan="3">2부</td><td>14:00~16:00</td><td>토론</td><td>· 각 분임에 올림(청소년)의 주제별로 토론 진행 경제 복지 안전 교육 환경 활동 참여</td><td>김효지, 박지은 (추진위원회)</td></tr><tr><td></td><td>토론</td><td>문정남 전문기 1단 바지르 토론지문</td><td></td></tr><tr><td>16:00~17:00</td><td>발표</td><td>· 각 분임별 토론결과 발표 및 제안</td><td>전체</td></tr><tr><td>폐회</td><td>17:00~</td><td>폐회</td><td>마무리</td><td>전체</td></tr></tbody></table> 접수 및 문의) 063-465-8871 주최: 달그락달그락 청소년자치연구소	주제	시간	구분	내용	진행	집수	12:40~13:00	집수	집수 및 안내	전체	1부	13:00~13:20	오리엔테이션	공동체 활동 진행	집단체, 집기동 (추진위원회)	13:20~13:40	개회	특별 소개 및 인사발령 (안동우 청소년기자단, 최진영 청소년자치연구소 소장)	박나원, 박유진 (추진위원회)	13:40~14:00	기조 발표	참여하는 시민, 활동하는 청소년	곽지은 (추진위원회)	2부	14:00~16:00	토론	· 각 분임에 올림(청소년)의 주제별로 토론 진행 경제 복지 안전 교육 환경 활동 참여	김효지, 박지은 (추진위원회)		토론	문정남 전문기 1단 바지르 토론지문		16:00~17:00	발표	· 각 분임별 토론결과 발표 및 제안	전체	폐회	17:00~	폐회	마무리	전체
주제	시간	구분	내용	진행																																						
집수	12:40~13:00	집수	집수 및 안내	전체																																						
1부	13:00~13:20	오리엔테이션	공동체 활동 진행	집단체, 집기동 (추진위원회)																																						
	13:20~13:40	개회	특별 소개 및 인사발령 (안동우 청소년기자단, 최진영 청소년자치연구소 소장)	박나원, 박유진 (추진위원회)																																						
	13:40~14:00	기조 발표	참여하는 시민, 활동하는 청소년	곽지은 (추진위원회)																																						
2부	14:00~16:00	토론	· 각 분임에 올림(청소년)의 주제별로 토론 진행 경제 복지 안전 교육 환경 활동 참여	김효지, 박지은 (추진위원회)																																						
		토론	문정남 전문기 1단 바지르 토론지문																																							
	16:00~17:00	발표	· 각 분임별 토론결과 발표 및 제안	전체																																						
폐회	17:00~	폐회	마무리	전체																																						

③ 보도자료 및 신문기사

소프로그래밍명	내용
군산매거진 (청소년자치권확대조례)	
새전북신문 (달달포럼)	 출판번호 871 담당자 홈 > 뉴스 > 교육 > 대학 초종교 청소년이 행복한 도시는 어떻게 청소년과 전문가 참여 토론회 열려 [0호] 2018년 06월 21일 (화) 19:58:40 김정윤 청소년 기자 APSUN@ajnews.com 지난 16일 군산 청소년자치연구소에서 ‘청소년 행복도시 민간 네트워크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제4회 달달포럼이 열렸다. 달달포럼은 지난해 12월 ‘청소년 정책제안, 어떻게 할 것인가’를 통해 군산시에 정책제안서를 제출하는 성과를 낸 바 있다. 이날 포럼은 지역사회의 어른들과 청소년 50여 명이 참여하여 서로 의견을 공유하고 토론하며, 청소년 행복도시 민간 네트워크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예수대학교 김경희 교수를 좌장으로 ‘청소년이 참여하는 행복마을을 위한 지원’이라는 김정윤(18) 청소년 대표의 대주제 발표가 있었다. 이어서 청소년자치연구소 연구위원 홍문기 박사의 ‘독일 통일전후 청소년 종합정책’이란 소주제 발표가 이어졌다. 또, 경건회 청소년자치연구소장은 ‘군산시 청소년실태 및 청소년 행복마을을 위한 민간네트워크 제안’을 주제로 군산지역 청소년의 현주소를 알아 볼 수 있었다. 토론자로는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최인정 의원을 비롯해 매거진군산 이진우 대표와 이강후내과 이강후 원장이 교육, 문화예술, 의료계 관점에서 지역사회 청소년 민간 네트워크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주제 발표자 중 김정윤 청소년 대표는 “청소년이 참여하는 행복마을을 위해선 청소년 자치활동이 주가 되어야하고 그런 청소년과 군산시, 지역사회의 어른이 참여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또, “청소년들이 토론을 통해 포럼주제를 선정하고 청소년의 의견도 발표하는 자리가 있다면 보다 지속적인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고도 덧붙였다. 최인정 의원은 “이번 달달포럼을 통해 정치적 책임감을 느낀다. 지역사회를 이끌어 가는데 관과 민의 중간다리 역할인 의원으로서 교량적 역할을 다해야겠다”고 밝혔다. /김정윤 청소년 기자

소프로그래밍	내용
군산매거진 (청소년참여포럼)	
새전북신문 (청소년참여포럼)	

3) 활동영역

① 활동자료(연간계획 발표자료, 회칙)

날짜	내용
부 록	눈맞춤(Youth Group of Blog) 자치기구 회칙 제 1장 총칙 제 1 조 (명칭) 본 자치기구는 눈맞춤(Youth Group of Blog)자치기구로 칭한다. 제 2 조 (등록) 본 자치기구는 군산 청소년자치연구소에 소속되며, 자치기구 회원에 가입한다. 제 3 조 (목적) 눈맞춤 자치기구는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한 내용을 알리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아래와 같이 지역사회에 공헌을 한다. 가. 친구와의 관계가 소중해짐(친구의 중요성) 나. 외모를 꾸밈으로서 자신감 상승(외모) 다. 남자들이 여자의 소중함을 알아야함(연애의 팁) 라. 우리가 모르고 사용하지 않았던 우리말을 알게 됨(순우리말) 마. 학생들과 공감 및 부모님이 자녀를 더 이해함(부모님께 원하는 것) 바.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게 됨(자서전) 사. 어르신의 삶을 듣고, 글로 쓰기(추억) 제 4 조 (활동) 본 자치기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다음과 같은 활동을 전개한다. 가.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한 내용 알리기 나. 사람들과 재미있게 소통하기 다. 청소년이 좋아하는 활동 적어보기 라. 우리의 이야기를 알리기 제 5 조 (집회) 제 4조 활동을 위해 다음과 같이 모임을 가진다. 가. 정기집회(일주일에 한번) 나. 임원회의(2주에 한번) 다. 회의는 30분 이내로 끝낸다. 제 6조 (지켜야 할 것) 가. 지각이나 무단결석은 하지 말기. 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거나 늦을 경우 ‘꼭’ 연락하기 제 2 장 회원 제 6 조 (자격)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다. 제 7 조 (권리와 의무)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가. 본 자치기구의 집회에 참가하는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나. 회칙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블로그자치기구회칙

날짜	내용
	제 8 조 (제명) 회원 중에 본 자치기구의 목적을 위배하고 회칙을 준수 하지 않는 자에 한하여 임원회의 결의를 통해 제명할 수 있다. 3회 이상 무단결석, 결석은 퇴출당한다.(※본인이나, 가족의 입원이나, 장례식, 외국여행 등 이해 가능한 이유는 제외) 제 3장 임 원 제 15조 (기능) 본 자치기구 임원은 다음과 같다. 가. 대표회장 : 본회를 대표하며, 모든 활동을 총괄한다. 회의 중에 의견을 제안받고 진행을 하며, 블로그자치기구 발표를 담당한다. 나. 대표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재 시에 대신한다. 눈맞춤 자치기구의 연락망을 담당한다.. 다. 서기(기록부장) : 눈맞춤 자치기구의 회의록을 관리한다. 제 4장 기 타 제 17 조 (재정) 필요한 경우 모금을 실시한다. 부칙 제 1 조 본 회칙 수정 시 회장 및 선생님께 말씀 후 회의 시간에 다수결 투표를 한다.
역사자치기구회칙	History of history 동아리 회칙 제 1장 총칙 제 1 조 (명칭) 본동아리는 History of history (이하 HoH) 동아리로 칭한다. 제 2 조 (등록) 본 동아리는 군산 중앙여자고등학교와 청소년 자치 연구소에 소속되며, 동아리 회원에 가입한다. 제 3 조 (목적) HoH 동아리는 군산 중앙여자고등학교 역사동아리의 모임으로서, 역사에 관심이 없고 잘 알지 못하는 친구에게 잘 알려주고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한다. 제 4 조 (활동) 본 동아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다음과 같은 활동을 전개한다. 가. 독도 알리기 활동 나. 주제를 정해서 토론하기 다. 지역의 문화재 탐방 라. 한글날 관련 캠페인 마. 연 1회 역사신문 제작 바. 급식실 앞 캠페인 제 5 조 (회의) 제 4조 활동을 위해 다음과 같이 모임을 가진다. 가. 정기회의

날짜	내용
	나. 대표회의 제 2 장 회원 제 6 조 (자격) 군산중앙여자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이면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다. 가. 청소년자치 연구소에 월 2회 이상 참석 (시험기간 1달 제외) 나. 역사에 많은 관심과 캠페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 제 7 조 (권리와 의무)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가. 본 동아리의 회의에 참가하는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나. 월 2회 토요일 4시~6시에 실시하는 정기모임에 참여한다. 다. 월 2회 수요일 7교시 cafe실 회의에 참여한다. 라. 언제든지 자신의 의견을 낼 권리를 가진다. 마. HOH 동아리 부원으로서 자부심을 가진다. 제 8 조 (제명 및 벌금) 가. 사전 미 통보 지각 (10분 이상)시 10분 당 벌금 1,000원형에 처함. 나. 정기 모임에 월 1회 이상 미 참석 시 회의를 통해 제명 다. 연락두절 3회 이상 시 회의를 통해 제명 라. 기간 내에 회비를 총무에게 미지급 시 일 당 1,000원 제 3 장 총회 제 9 조 (구성)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되는 본 동아리의 최고의 의결기구이다. 회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구성되어 진다, 제 10 조 (구분)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 11 조 (소집) 총회는 다음과 같이 소집한다. 가. 정기총회는 매년 4사분기(차기년 1,2월)중 회장이 소집한다. 제 12조 (의결) 총회는 참석인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헌장개정 및 임원해임의 사항은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3 조 (사항) 총회에서 의결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회칙의 개정 나. 사업계획 및 보고의 승인 다. 임원(회장, 부회장)의 선출과 해임 라. 예산과 결산 마. 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바. 기타 안건 제 4장 임 원 제 14조 (기능) 본 동아리 임원은 다음과 같다.

날짜	내용
	가. 대표회장 : 본회를 대표하며, 모든 활동을 총괄한다. 나. 대표 부회장 : 회장이 부재 시에 대신하고 동아리 연락을 담당한다. 다. 총무 : 제반, 회계를 담당한다. 라. 서기 : HoH활동의 회의록 정리를 담당한다. 제 5장 기 타 제 15 조 (재정) 필요한 경우 모금을 실시한다. 제 16 조 (개정) 본 회칙 중에 제 1장 총칙의 개정은 인원 중 2/3가 되었을 때 개정한다. 부칙 제 1 조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규례에 준한다. 제 2 조 수정은 통과일로부터 실시한다.

Abstract

This paper presents a summary of the process, description and conclusions of the study on “Implementation of Youth-Happy Community Pilot Project II and Its Policy-making,” a part of the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s 2016 study on “Developing Youth-Happy Community Indicators and Community-Building Project VI.” It is an ongoing project initiated in 2013, and to ensure consistency of the outcome, the research objectives and methodology are based on the same framework as the research design used in the past 3 years (2013-2015).

Main research has been divided into different parts so that year-on-year continuity can be maintained while differentiation is obtained. Namely, the research parts are: 1. Literature review and site interview analysis; 2. Development of action programs to promote youth-happy communities; 3. Implementing youth-happy community pilot projects in 2 regions, identifying policy implications and assessing impact; 4. Identifying policy-making for building youth-happy communities.

Methodologies include: literature review, site interviews, expert colloquium, forums attended by youths, experts, researchers and local civil servants, surveys, pilot projects, expert advisory meetings and policy councils.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the following policy recommendations have been identified.

First, self-governance for youths must be assured to build youth-happy communities. Young people must be able to discover the issues in their community and make attempts to make real improvement through such mechanisms as self-governance committee or learning community.

Second, funding must include self-funding, such as local sponsorships and cooperatives.

Third, youths and local residents must have ownership in the initiative, participating from the start. There must be an ongoing training and education program to build their operational competency.

Last, there must be a diverse set of “local-specific models” rather than standardized

central government-led projects, which can be discovered or developed through such means as pilot projects, best practices and competitions.

* *Keywords:* Youth-Happy Community, pilot project, policy-making.

2016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기관고유과제

- 16-R01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청소년 삶의 질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 황세영 · 김남수
- 16-R02 청소년정책 분석 및 평가제도 체계화 방안 연구 / 이창호 · 최용환 · 도수관
- 16-R03 탈북 청소년 지원체계화 방안 연구 - 탈북 청소년 역량 진단을 중심으로 - / 좌동훈 · 이민영
- 16-R04 중도입국 청소년 실태 및 자립지원방안 연구 / 배상률
- 16-R05 사회적 기업을 활용한 취약계층 청소년 자립지원 연구 / 김영한
- 16-R06 대학생 졸업유예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 / 김지경 · 이상호
- 16-R07 청소년의 세대통합역량 증진을 위한 지원 방안 연구 / 황여정 · 변정현
- 16-R08 청년 사회 · 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I / 김기현 · 하형석 · 신인철
- 16-R08-1 2016년 청년 사회 · 경제 실태조사 - 기초분석 보고서 - / 김기현 · 하형석 · 신인철
- 16-R09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 III / 최창욱 · 문호영 · 김정주
- 16-R09-1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 III : 기초분석보고서 / 최창욱 · 문호영 · 김정주
- 16-R10 지역사회 청소년 체험활동의 자유학기제 연계 운영방안 연구 - 청소년(수련)시설과 학교의 협업을 중심으로 - / 임지연 · 김한별 · 한도희
- 16-R11 한국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 연구VI : 총괄보고서 / 김영지 · 유설희 · 이민희 · 김진호
- 16-R11-1 한국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 연구VI : 학교 인권환경이 청소년의 인권의식에 미치는 영향 분석 / 구정화
- 16-R11-2 한국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 연구VI : 2016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조사 통계 / 김영지 · 유설희
- 16-R12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IV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시범사업II’ 운영과 정책화 방안 / 오해섭 · 김세광
- 16-R12-1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IV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 개발 및 진단 / 서정아 · 김희주
- 16-R13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IV : 총괄보고서 / 양계민 · 윤민중 · 최홍일 · 신현옥
- 16-R13-1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IV : 기초분석보고서 / 양계민 · 윤민중 · 최홍일
- 16-R14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활성화 방안 연구III / 강경균 · 이윤주 · 노성호
- 16-R14-1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 프로그램 운영 매뉴얼 / 강경균
- 16-R15 미래인재 개발 전략으로서 재외동포 청소년 지원 방안 연구II - 재중 · 재미동포청소년 인재 개발 방안 - / 김경준 · 정은주
- 16-R16 학교 밖 청소년 이행경로에 따른 맞춤형 대책 연구 I / 윤철경 · 성윤숙 · 유성렬 · 김강호
- 16-R16-1 학교 밖 청소년 이행경로에 따른 맞춤형 대책 연구 I : 학교 밖 청소년 이행경로별 특성에 대한 질적 분석 / 성윤숙
- 16-R17 한국 아동 · 청소년 패널조사 VII 사업보고서 / 이종원 · 모상현 · 강현철 · 정윤미 · 한지형
- 16-R17-1 한국 아동 · 청소년 패널조사 VII : 기초분석보고서 I - 청소년 비행의 실태와 추이 분석 : 현실비행과 사이버비행 / 이종원 · 이순래 · 정윤미

16-R17-2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 VII : 기초분석보고서 II - 청소년 매체이용 추이 및 코호트 간 비교분석 / 모상현·이장주·한지형

협동연구과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6-40-01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Ⅲ : IEA ICCS 2016 - 총괄보고서 - / 장근영·성은모·이경상·진성희·최효선·김균희 (자체번호 16-R18)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6-40-02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Ⅲ : IEA ICCS 2016 - 초·중·고등학생용 기초통계분석보고서 / 장근영·성은모·이경상·진성희·최효선·김균희 (자체번호 16-R18-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6-40-03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Ⅲ : IEA ICCS 2016 - 대학생용 기초통계 분석보고서 / 장근영·성은모·이경상·진성희·최효선·김균희 (자체번호 16-R18-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6-40-04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Ⅲ : IEA ICCS 2016 : 사회참여역량 측정 도구 개발 및 분석 연구 / 김태준·박인영·이호경·오민아 (자체번호 16-R18-3)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6-41-01 아시아 청소년 진로체험활동 국제비교 연구 I / 김현철·백혜정 (자체번호 16-R19)

연구개발적립금

16-R20 청소년 차별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 김승경·최정원·강지명

16-R20-1 청소년 차별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 기초분석보고서 / 김승경·최정원

16-R21 청소년 참여예산제 실태 및 발전 방안 연구 / 윤민종·정은진·정건희

수 시 과 제

16-R22 아동학대에 대한 언론보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이창호·정의철

16-R23 청소년 건강 표준모델 개발 / 하형석

16-R24 대학생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연구 / 이윤주

16-R25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수련시설 및 프로그램 모니터링 활동화 방안 연구 / 최창욱·좌동훈

16-R26 놀이정책 수립 지원 연구 / 성은모·강경균

16-R27 청소년분야 ODA 사업 아이템 발굴 및 추진방법 마련 연구 / 황세영

16-R28 지방자치단체 청년정책사업 현황 및 정책방안 연구 / 조진우·김기현

16-R29 미래, 청소년, 그리고 새로운 도전 / 최정원·정은진·조혜영

16-R30 해외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조사·연구 / 정은진·김기현

수탁과제

- 16-R31 한국사회 20대 청년의 생활·의식 실태와 정책과제 / 이종원·유한구·채창균·오승근·김윤나·한영근
- 16-R32 학교 밖 청소년이 경험하는 디지털역기능을 해소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Ⅱ / 성윤숙·김경준·강경균
- 16-R33 청소년 매체 이용 실태조사와 유해환경 접촉 종합실태조사 통합에 따른 조사항목 등 개선 연구 / 김지경·황여정·정윤미
- 16-R34 2014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연간사업보고서 /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 16-R35 2015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연간사업보고서 /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 16-R36 2016년 청소년수련시설종합평가 / 김경준·모상현·정은주
- 16-R37 2015 학교 내 대안교실 우수사례집 /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 16-R38 2015년 학업중단 예방 우수사례 공모전 수상작품집 /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 16-R39 청소년 체험 교육 프로그램 평가 / 최창욱·성은모·정윤미
- 16-R40 가출청소년 보호·지원서비스 개선방안 연구 / 백해정·김승경
- 16-R41 청소년수련시설을 통한 농산어촌 자유학기제 연계지원 모델 개발 연구 / 김현철
- 16-R42 2016년도 청소년쉼터 종합평가 / 김승경·백해정
- 16-R43 2016행복교육 학생모니터단 운영 / 오해섭·최홍일
- 16-R44 아동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세종시 아동청소년 정책기본계획 수립 연구 / 김영지·오해섭·윤철경·김경준·최용환·유설희
- 16-R45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작성 연구 / 김영지·모상현·이윤주·유설희
- 16-R46 학교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학업중단예방프로그램 /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 16-R47 군포문화재단 청소년활동본부 중·장기 5개년 발전계획 수립 연구 / 김현철
- 16-R48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조사 2016 / 이종원·모상현·유성렬·김진석·정윤미
- 16-R49 2016년 시립청소년시설 운영실적 평가 / 최용환·최창욱·좌동훈·문호영·정은진**
- 16-R50 삼성SDS 강원도 도서벽지지역학교 “행복한 ICT 교실” 효과 및 만족도 연구 / 성윤숙
- 16-R51 실종아동 관계기관 역할 정립 방안 연구 / 좌동훈·문호영
- 16-R52 2016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효과성 및 만족도 조사연구 / 양계민
- 16-R53 2016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 황여정·김지경·이윤주·정윤미
- 16-R54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운영방안 연구 / 서정아
- 16-R55 유형별 학교 밖 청소년 진로지도방안 연구 / 성윤숙·박선영·송원영
- 16-R56 멘토링코디네이터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프로그램 개발 연구 / 성은모
- 16-R57 2016 성남시 청소년 실태조사 / 최창욱·성은모·강경균
- 16-R58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 김기현·장근영·김지경·하형석
- 16-R59 2016년 동작혁신교육사업 청소년 자치 참여 활성화 정책연구 / 최용환·최창욱
- 16-R60 학교 밖 청소년 연계관리 강화방안 연구 / 윤철경
- 16-R61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가이드북 /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 16-R61-1 재적교 교사를 위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안내 /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 16-R62 청년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청년 정책 방향과 과제 / 김기현·한지형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16-S01 2016년 학교 내 대안교실 관리자 연수 : 1권역 (1/25)
- 16-S02 2016년 학교 내 대안교실 관리자 연수 : 2권역 (1/28)
- 16-S03 2016년 학교 내 대안교실 관리자 연수 : 3권역 (1/29)
- 16-S04 2016년 학교 내 대안교실 관리자 연수 : 4권역 (2/2)
- 16-S05 2016년 제1회 학업중단 예방 교원연수 1권역 (2/17~18)
- 16-S06 2016년 제1회 학업중단 예방 교원연수 2권역 (2/18~19)
- 16-S07 2016년 제1회 학업중단 예방 교원연수 3권역 (2/22~23)
- 16-S08 2016년 제1회 학업중단 예방 교원연수 4권역 (2/25~26)
- 16-S09 제1차 청년정책포럼 (2/22)
- 16-S10 2015년도 고유과제 연구성과 발표회(1차) (3/24)
- 16-S11 2015년도 고유과제 연구성과 발표회(2차) (4/4)
- 16-S12 청소년정책평가의 현안과 과제 (4/22)
- 16-S13 2016년 학교 내 대안교실 컨설팅 위원 워크숍 (4/19)
- 16-S14 2016년 학업중단 예방 집중지원학교 컨설팅 위원 워크숍 (5/4)
- 16-S15 2016년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 연수 1권역 (5/9)
- 16-S16 2016년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 연수 2권역 (5/11~12)
- 16-S17 2016년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 연수 3권역 (5/16~17)
- 16-S18 2016년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 연수 4권역 (5/18~19)
- 16-S19 제2차 청년정책포럼 - 지역 청년 일자리 정책 강화 방안 (5/17)
- 16-S20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말레이시아 푸트라대학 사회과학연구원 간 국제세미나 (5/17)
- 16-S2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연계기관 담당자 2차 심화 워크숍 (5/18~20)
- 16-S22 2016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지표 (5/23)
- 16-S23 제3차 청년정책포럼 (6/28)
- 16-S24 진로체험활동에 대한 이론적 탐색 (7/15)
- 16-S25 2016년 꿈키움 멘토단 운영 담당자 연수 (7/15)
- 16-S2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연계기관 담당자 교육 워크숍 (7/20)
- 16-S27 2016년 대안교육 담당교원 등 연수 (8/8~10)
- 16-S28 청소년 행복마을 조성사업 운영 및 정책화 방안 (7/22)
- 16-S29 아동학대사건보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8/23)
- 16-S30 네트워크 사회의 청소년정보 격차와 문화 (8/17)
- 16-S31 2016년 학업중단예방 집중지원학교 관리자 연수 : 1권역 (8/26)
- 16-S32 2016년 학업중단예방 집중지원학교 관리자 연수 : 2권역 (9/2)
- 16-S33 제4차 청년정책포럼 (8/24)
- 16-S34 청소년 현안과제 분석 및 대응을 위한 공동 정책토론회 (8/22)
- 16-S35 아시아 청소년진로교육 사회환경 국제비교 (8/25)
- 16-S36 “미래, 청소년 그리고 새로운 도전” 심포지엄 (10/11)
- 16-S37 학교 밖 청소년 디지털 역기능 예방 워크숍 (10/6~7)
- 16-S38 제5차 청년정책포럼 (10/12)

- 16-S39 제6회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 학술대회 (11/18)
 16-S40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 차별 문제 (11/22)
 16-S4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연계기관 2차년도 사업성과발표회 (12/1)
 16-S42 제6차 청년정책포럼 (12/7)

학 술 지

- 「한국청소년연구」 제27권 제1호(통권 제80호)
 「한국청소년연구」 제27권 제2호(통권 제81호)
 「한국청소년연구」 제27권 제3호(통권 제82호)
 「한국청소년연구」 제27권 제4호(통권 제83호)

기타 발간물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65호 : 청소년 국제교류 실태 및 효과성 검증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66호 : 청소년문화 활성화를 위한 소셜미디어 활용 방안 연구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67호 : 아동·청소년 인권관련 국제협약 이행과제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68호 : 아동·청소년·가족 보호체계 개선과제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69호 : 20대 청년 지원 정책의 중장기 발전 전략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70호 :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Ⅱ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71호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 체계화 방안 연구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72호 : 아동학대에 대한 언론보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73호 : 청소년 나눔활동의 실태 및 개선방안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74호 : 청소년을 위한 기업가정신 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75호 : 지역사회 청소년의 인성교육 실태와 활성화 방안 연구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76호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Ⅲ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26호 : 다문화청소년의 다문화정체성 발달특성 분석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27호 :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28호 :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Ⅲ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29호 :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연구Ⅱ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30호 : 초등학교 4학년 코호트(cohort) 간 휴대전화 이용실태 비교
 - KCYPs 초1 및 초4 패널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31호 : 청소년 팬덤활동의 중단적 변화 분석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32호 :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Ⅵ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25호 : 다문화청소년 지원을 위한 정책 방안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26호 : 청소년분야 ODA 사업 아이템 발굴 및 추진방법 마련 연구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27호 :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수련시설 및 프로그램 모니터링 활성화 방안 연구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28호 : 지방자치단체 청년정책사업 현황 및 정책방안 연구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29호 : 미래, 청소년 그리고 새로운 도전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30호 : 해외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조사·연구

NYPI BLUE ZINE 창간호

연구보고 16-R12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Ⅳ: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시범사업Ⅱ’ 운영과 정책화 방안

인 쇄 2016년 12월 23일

발 행 2016년 12월 30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발행인 노 혁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휘문인쇄 전화 1661-7576 대표 김점순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44) 415-2124(학술·정보팀)

ISBN 979-11-5654-121-9 94330

979-11-5654-100-4 (세트)



연구보고 16-R12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Ⅳ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시범사업Ⅱ’ 운영과 정책화 방안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D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7층
Social Policy Building, Sejong National Research Complex,
370, Sicheong-daero, Sejong-si, 339-007, Korea
Tel. 82-44-415-2114 Fax. 82-44-415-2369 www.nypi.re.kr

 9 4330
9 791156 541219
ISBN 979-11-5654-121-9
ISBN 979-11-5654-100-4 (세트)